

#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 때 : 2016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35분
- 곳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1동 210호)

주최: **한글 학회**

후원: 한글재단



#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 •차 례•

#### [제1부 기획 발표]

전 영철 : 한국어 의미 연구와 의미 이론 .....	7
윤 석민 : 화용론의 위상 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개념 정의 및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	15
이 동은 : 한국어 학습자 구어 말뭉치의 담화 분석적 논의 -대화 행위 주석을 중심으로- .....	43

#### [제2부 연구 발표]

남 경완 : 국어 전통문법에서의 의미 연구-용언 범주를 중심으로- .....	63
김 진웅 : 연기된 지시의 유형과 용법 .....	79
송 현주 :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	89

#### [제3부 연구 발표]

박 유경 : 부정 의문문의 비중립적 태도 의미에 대하여 .....	109
이 승연 :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구 -한국어 텍스트 장르 정보 구축과 활용을 중심으로- .....	117
이 영준 : 한국어 학습자의 타동성 인식 조사 .....	131

#### [제4부 연구 발표]

김 아림 : ‘-지 않아’에서 ‘-잖아’로-사용 기반 분석의 관점에서- .....	149
허 상희 : 카카오톡에 나타난 대학생의 언어 사용 분석 .....	193
송 인성 :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 .....	219



## **제1부 기획 발표**

**한국어 의미 연구와 의미 이론 / 전 영철**

**화용론의 위상 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개념 정의 및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 윤 석민**

**한국어 학습자 구어 말뭉치의 담화 분석적 논의**

**—대화 행위 주석을 중심으로— / 이 동은**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 ~ 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1부 기획 발표

## 한국어 의미 연구와 의미 이론

전 영철

서울대학교 교수  
ycjun@snu.ac.kr

### 1. 서론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연결체이므로 어떤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의미 연구를 당연히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종종 한국어 연구에서 의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고 언급되곤 한다. 본 발표는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난 한국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자 하는데, 이즈음에서 한국어의 의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후에 한국어의 의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이때부터 특정한 의미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의미 현상을 연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구조의미론(structural semantics)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구조주의의 언어관을 가지고 의미 현상을 파악하는 의미 이론이다. 그 이후에 도입된 주요 의미 이론들로 형식의미론(formal semantics)과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을 들 수 있다. 형식의미론은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19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소개되어 한국어 의미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인지의미론은 197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한국어 의미 연구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의미 이론들은 지금까지 계속 한국어 의미 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어 의미 연구에 기여한 이러한 의미 이론들은 모두 서구에서 시작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서구에서 도입된 언어 이론들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 외에는 한국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다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은 않다. 특정한 의미 이론에 기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의미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며, 그러한 연구들은 1950년대 이전은 물론이고 특정 의미 이론들이 도입된 195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특히 한국어 문법론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의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문법 범주를 논함에 있어 문법 형태와 더불어 그와 연결되는 의미를 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일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한국어의 주요 문법 범주에 대한 의미 특성들이 매우 정교하게 연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구조의미론, 형식의미론, 인지의미론과 같은 특정한 의미 이론에 속하지 않는 의미 연구들도 한국어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들도 한국어 의미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연구들은 주로 어떤 문법 형태의 의미 기능을 상세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므로 기능주의 언어학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술의미론’이라고 통칭하여 특정한 의미 이론에 속하지 않는 의미 연구들을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런 기술의미론의 연구 결과들은 특정한 의미 이론들에 대해 그 설명을 요구하는 과제를 부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구조의미론, 형식의미론, 인지의미론이 도입되어 한국어의 의미 연구에 반영된 모습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특히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의 관계 설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구조의미론

구조의미론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에 기대어 주로 공시적인 의미 연구에 주력하여, 특히 어휘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어휘의 의미는 구조의미론뿐만 아니라 형식의미론 및 인지의미론 등에서도 다루어졌으나, 구조의미론의 어휘 의미 연구가 두드러진 기여를 한 까닭에 어휘의미론을 구조의미론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구조의미론의 어휘의미론적 업적은 크게 밭이론(field theory)과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밭이론은 한 언어의 어휘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어떤 의미적 공통성을 가지는 낱말들을 묶어서 하나의 낱말밭(lexical field)을 구성하고, 한 낱말밭에 속하는 낱말들 사이의 여러 가지 어휘 관계를 밝혀낸다. 성분분석은 한 낱말의 의미를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로

쪼개어 파악하여 그 낱말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낱말들 간의 어휘 관계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데 공헌한다. 이러한 구조 의미론의 개념들은 1930년대에 Trier와 Porzig 등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1950-60년대의 Ullmann, Coseriu 등을 거쳐 1960-70년대에 Katz, Fodor, Lakoff, McCawley 등에 의한 생성문법의 어휘 의미 연구로도 이어졌다.

구조의미론의 이러한 기본 개념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이전에는 한국어 의미 연구란 주로 어휘 의미사(意味史) 혹은 의미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구조의미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한국어 의미론의 연구 풍토에 공시적인 의미 연구가 가미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해외 유학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의미론 연구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의 의미 연구는 어휘 의미론에 집중되었으나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에도 번역서 등을 통해 구조 의미론이 계속 소개되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십여 권의 많은 번역서들과 함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휘의미론의 큰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1990년대에도 꾸준히 구조의미론에 입각한 어휘의미론의 연구가 계속되었는데, 특히 1997년에 결성된 한국어의미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어의미학회는 한국어 의미 연구의 전 분야에 대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어휘의미론 분야에서도 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 학회를 중심으로 한 어휘의미론의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수로나 발표되는 논문의 수로 볼 때 국내 의미론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형식의미론

형식의미론은 지시의미론(referential semantics)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지시의미론은 언어표현의 의미가 실제 세계와의 직접적인 대응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의미관을 가진다. 형식의미론은 전통적인 논리 언어(logical language)인 명제논리나 술어논리를 바탕으로, 자연언어를 분석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고안된 고차원의 논리 언어 체계를 말한다. 1970년대 초 Montague에 의해 태동하였으며, 자연언어도 인공언어에 못지않은 논리 체계가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형식의미론의 체계는 다른 논리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통사부와 의미부의 긴밀한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미부에서 모든 언어 표현들에 대한 지시적 의미값이 부여된다. 생성문법과 같은 다른 언어 이론들에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로 다른 표현이 주어짐으로써 의미의 순환성 문제에 봉착한다. 예를 들어,

생성문법에서 추구한 문장의 의미란 또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논리 형식의 획득이었다. 그러나 형식의미론에서는 문장의 의미값으로 참 또는 거짓을 부여하는 등, 모든 언어 표현에 대해 개체, 개체들의 집합, 개체들의 집합들의 집합 등의 지시적 의미값을 부여함으로써 의미의 순환성을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미론임을 표방하였다. 또한 직관적으로만 설명되던 언어 현상들에 대해 그 직관의 이면에 매우 정교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몬테규의미론에서는 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문장 외부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어떤 문장의 의미 결정에 이전 문장의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형식의미론의 연구에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태도를 가진 형식의미론을 동적의미론(dynamic semantics)이라고 하고 초기 몬테규의미론을 정적의미론(static semantics)이라고 하여 구별한다. 그런데 형식의미론이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동적의미론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미론과 화용론의 이전 경계가 무너지는 부수적인 결과를 낳았다. 형식의미론의 분석 방법이 전제, 초점 등의 화용론의 영역까지 확대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의미 이론으로 성장한 것이다.

구조의미론이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시작된 반면에 형식의미론은 해외 유학파들에 의해 도입되고, 또 주로 그들에 의해 발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1981년의 서울문법연구회(1990년에 한국언어정보학회로 개칭)의 발족은 형식의미론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내의 학자들이 이 연구회를 통하여 형식의미론의 발전 과정을 접할 수 있었고 한국어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세대의 학자들도 이 모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성과물들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언어정보학회는 형식의미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 4. 인지의미론

인지의미론은 인지언어학의 하위 분야로서 1970년대 중반에 태동하여 1980년대에 널리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인지언어학은 언어의 이해가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 능력의 소산이며, 언어적 지식이 언어의 사용에서 비롯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형태론이나 통사론 등 언어학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특히 의미론 분야에 그 역량이 모아졌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가 인간의 다른 인지 능력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표상 형식(representation format)으로서, 그 자체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에 표상된다고 보았다. Lakoff,

Langacker, Jackendoff, Fauconnier, Talmy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범주화, 은유, 환유, 문법화, 도상성(iconicity), 정신공간(mental space), 영상도식(image schema) 등의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 여러 가지 의미 현상들을 설명하였다. 객관주의(objectivism)에 기초한 생성문법이나 형식의미론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체험주의(experientialism)에 입각하여 인간의 일반 인지 능력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포착하려 한다.

국내의 인지의미론 연구는 유학파와 국내파가 함께 이끌어 왔다. 1980년대 초에 유학파에 의해 인지의미론의 방법이 한국어의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인지의미론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었고, 1990년대에는 연구자들의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왕성한 연구 활동들을 보여주었다. 이 무렵부터 국어국문학과를 중심으로 한 국내파들도 연구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1991년에 한국담화인지언어학회가 결성되면서 인지의미론을 연구하는 유학파 및 국내파 연구자들이 이 학회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인지의미론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7년에 결성된 한국어 의미학회도 인지의미론의 연구를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두 학회의 학회지인 ‘담화와 인지’와 ‘한국어 의미학’에 실린 인지의미론 관련 논문들의 수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도 나타나듯이, 인지의미론 연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5. 결론

위에서 1950년대 이후 한국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을 의미 이론들의 도입 과정과 더불어 개관하였다.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은 각자 특정한 의미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형식의미론은 의미를 실제 세계와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파악하고, 인지의미론은 의미를 실제 세계가 인간의 정신에 자리 잡은 표상으로 파악한다. 이 두 이론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제공하는 순환성을 극복하고 명시적인 대상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이론은 의미 연구를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 대표적인 의미 이론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의미 이론의 기본 가정들이 크게 달라서 서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곤 하였다. 우선 형식의미론자들은 인지의미론에서 주장하는 의미 표상도 역시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곤 하였다. 인지의미론자들은 형식의미론이 주장하듯이 의미를 실제 세계와의 직접 대응으로 파악하는 것은 언어 의미의 근본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곤 하였다. 특히 인지의미론은 먼

저 출현한 형식의미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듯하여 이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형식의미론에 대한 인지의미론의 잘 알려진 비판은, 첫째 형식의미론이 기대고 있는 객관주의(objectivism)가 오류인 까닭에 형식의미론도 궁극적으로 부적절하며, 둘째 객관주의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란 매우 편협한 것이어서 형식의미론에서 다룰 수 있는 언어 현상들도 전체 언어 현상에 비추어 극도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 되새겨볼 만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 형식의미론이 기대고 있는 고전 논리학이 무조건 배척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너무 극단적이다. Lakoff(1987)가 범주화 이론을 다루면서 지난 2천년 간 유지된 서양 논리학의 고전적 견해를 매우 심각하게 비판하지만, 고전적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고전적 견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범주화 현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고전적 견해가 견지되는 부분들이 있음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전 논리학에 기대어 있다는 이유로 형식의미론이 부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둘째, 형식의미론적 방식으로 매끈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언어 현상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형식의미론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러 언어 현상들이 형식의미론적 방식으로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설명 방식에 의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자연언어의 논리적 속성이 드러난다는 점은 형식의미론의 분명한 장점이다.

결국,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은 서로 대립된다기보다 서로 보완적인 의미이론으로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연 언어의 논리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이 모두 적절하게 반영되는 설명이 주어진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기도 하였다. 가령 담화표상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은 기본적으로는 형식의미론적 의미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표현의 분석이 통사부로부터 담화표상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를 거쳐 의미부에 이르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논리 체계와 더불어 표상이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 중립적인 의미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이를 기술의미론이라고 칭한 바가 있는데, 한국어의 의미 세계를 어떤 이론에도 기대지 않고 의미 현상 그대로 기술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론 중립적인 의미 연구 그 자체가 한국어 의미 현상의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미 이론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한국어 의미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 광희. 1998. “국어 문장 의미 연구를 위한 형식의미론의 수용 양상과 과제”, 한국 어 의미학 2. 57-89쪽.
- 임 지룡. 1992. “국어 의미론 연구사”,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509-556쪽.
- 전 영철. 2008. “의미와 화용”, 한국의 학술연구: 불문학, 독문학, 서문학, 언어학. 대한 민국학술원. 43-50쪽.
- 최 호철. 1998. “구조 의미론의 수용 양상과 국어 어휘 의미론의 과제”, 한국어 의미 학 2. 11-39쪽.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1부 기획 발표

## 화용론의 위상 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 - 개념 정의 및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

윤 석민

전북대학교 교수  
yuonsm@jbnu.ac.kr

### 1. 서론

말이 많은 세상이다. 그런데 말로 전달되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온갖 장애로 은폐되거나 소멸되어 소통이 어렵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삶을 이어간다. 화용론은 바로 이런 언어 사용을 다룬다. 그러나 정작 언어 사용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화용론은 여전히 모호한 분야이다. 아래 설 외(1980)의 지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무언가 중요한 분야인 듯하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 (1) 화용론은 무언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말해주는 듯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불명확한 말이다.(설 외, 1980:viii)<sup>1)</sup>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런 화용론의 모호한 학문적 특성을 명확히 하여 그 위

---

1) Pragmatics is one of those words (societal and cognitive are others) that give the impression that something quite specific and technical is being talked about when often in fact it has no clear meaning.

상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화용론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다시 정의해보고 그에 따라 연구 대상을 분류해 볼 것이다.<sup>2)</sup>

화용론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의가 화용론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화용론이 다루는 언어 사용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더 상세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사용이 형식의 사용인지 의미의 사용인지,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화용론의 개념 규명을 위해 먼저 언어 사용의 초점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그 특성을 추출해 볼 것이다. 특히 선행 연구의 다양한 정의들을 초점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2.1.) 그들로부터 보편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화용론의 개념 정립을 시도할 것이다.(2.2.)

화용론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화용론의 정체성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용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sup>3)</sup>

- (2) ㄱ. 난 축구가 더 좋다.
- ㄴ. 문 닫고 들어와.
- ㄷ. 두 개 남았다.

위 (2ㄱ)은 개인적인 호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명제의 진리치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2ㄴ)은 논리적으로 불가능지만 실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들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개인의 정서적 기호를 나타내거나 논리적 역설을 나타내는 예외적 사용으로 간주되던 것이다. 그러나 화용론은 이처럼 예외적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을 넘어서는 뜻을 가지는 경우도 다룬다. (2ㄷ)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실현되느냐에 따라 표현 그대로 ‘두 개가 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비난이나 권고의 의미도 된다. 결국 화용론의 연구 대상은 언어의 구조적 기술이 아니라 언어의 실제 기능이 나타내는 의미들이다.

2) 화용론의 위상 정립과 관련된 문제는 이 밖에도 많다. 특히, 화용론과 인접 분야(담화분석, 인지언어학, 사회언어학, 민족지학, 대화분석, 화행론, 텍스트언어학 등)와의 경계 설정이나 화용론과 의미론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 전자는 연구 방법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특히 다루는 ‘의미’에 대한 관점의 문제와 관련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지향한다. 다만, 여기서는 지면의 한정으로 인하여 우선 화용론의 개념과 연구 대상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3) (2ㄱ)은 통사미론자들이 주장하는 진리조건 의미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예로 자주 사용된다. 조 남호 외(2012:251) 참조. 또한 (2ㄴ)은 의미상 이상하지만 실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예로서 화용론의 연구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윤 석민(2011:14) 참조.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2ㄷ)처럼 발화로 사용되는 일상적인 모든 표현은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의 화용론적 의미에 대하여는 아래 3.1. 부분 참조.

그러나 실제 기능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한 의미가 관여하는 의미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그 결과 화용론의 연구 대상은 그동안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sup>4)</sup> 화용론의 의미 현상이 다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화용론의 정체성 확립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의미론 일반의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 글에서는 이런 혼란을 줄이고 화용론의 연구 대상 확립을 위해, 먼저 화용론의 연구대상이 갖추어야 할 의미 특성을 제시하여 (3.1.) 각각의 연구 대상을 그 의미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볼 것이다.(3.2. 참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예시 분석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 2. 화용론의 정의

화용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선행 논의들에서 화용론의 개념과 관련하여 언급된 진술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sup>5)</sup> 여기에서 분석하고 있는 진술들은 언뜻 보기에 매우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화용론의 개념이 혼동스러웠던 까닭은 화용론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sup>6)</sup> 각 논의들을 너무 쉽게 언어 사용의 측면으로 동일화해 버린 잘못도 크다. 각각의 언급은 나름대로 관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화용론의 개념 정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1. 화용론의 다양한 정의 분석

화용론의 정의와 관련된 진술들을 살피는 데 있어 두 가지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하나는 해당 진술에서 주목하고 있는 언어 사용의 초점 요소이다. 다른 하나는 언어 사용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관점을 확인하면 해당 정의가 언어 사용 의미를 무엇으로 보는지 알 수 있다.

각 진술의 분석은 초점 요소에 따라 언어 사용자, 맥락, 발화에 주목하는 정의로 구분하여 살필 것인데, 먼저 정의와 관련된 진술을 그대로 제시한 후, 초점 요소와 언어 사용에 대한 관점을 덧붙이기로 한다.

---

4)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하여는 3.2. 부분 참조.

5) 국내외의 정의를 가리지 않고 수집된 26개의 논의를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화용론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의 설명 내용이나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국 연구자의 견해는 원문을 주석에 제시한다.

6) 화용론이 본래 모호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이미 (1)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 있다. 비슷한 설명이 레빈슨(1983:5-35)에도 나온다.

### 2.1.1. 언어 사용자 중심 정의

먼저 언어 사용자에게 주목하고 있는 견해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견해는 초기에 화용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3) 모리스(C. Morris)(1938:30)<sup>7)</sup>

“화용론은 기호와 그 해석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초점요소] 기호, 해석자

[언어사용] 해석자의 기호 해석 행위

모리스(1938)은 화용론의 개념을 설정한 최초의 논의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용론의 중요 요소로서 기호와 해석자들에 주목하고 있다. 기호의 의미화 과정(semiosis)에 기호(sign)나 대상(object) 이외에 해석자(interpreter)를 독립적 요소로 언급함으로써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도 의미가 발생함을 주목하였다.<sup>8)</sup>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결국 해석자(interpreters)에 의한 기호 해석 행위가 된다.<sup>9)</sup>

(4) 카르납(R. Carnap, 1938:2)<sup>10)</sup>

“만약 어떤 연구에서 화자 즉, 그 언어 사용자가 분명하게 언급되면 그 연구는 화용론 분야에 속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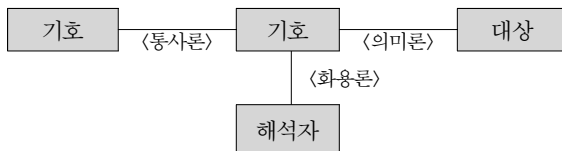
[초점요소] 화자(언어 사용자)

[언어사용] 화자 또는 언어 사용자가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카르납(1938)은 모리스(1938)의 경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모리스가 일반 기호론적 차원에서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심리적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을 화용론이라고 한 데 비해 그것을 언어 사용의 문제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

7) Pragmatics is the science of the relation of signs to their interpreters.

8) 모리스(1938)에서는 이 밖에 기호와 기호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를 통사론(syntax), 기호와 대상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를 의미론(semantics)이라고 하고 있다. 그 관계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조 남호 외, 2012:254에서 재인용)



9) 모리스의 해석자 설정이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는 윤 석민(2011:7)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if in an investigation explicit reference is made to the speaker, or to put it in more general term, to the user of the language, then we assign it[the investigation] to the field of pragmatics.

에서 차이를 보인다.<sup>11)</sup> 결국, 화자 또는 언어 사용자에 주목하고 있으며 언어 사용 역시 이들의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5) 카츠(J. Katz)(1977:19)<sup>12)</sup>

“화용적 이론은 언어적 구조나 문법적 특성과는 관계가 없다. (중략) 그것은 문장의 맥락과 명제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화자와 청자의 추론을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화용론적 이론은 수행에 대한 이론에 속한다.”

[초점요소] 화자/청자, 맥락, 명제

[언어사용] 화자/청자의 추론 과정이 관여하는 수행

카츠(1977)의 정의는 무엇보다 화자나 청자의 명시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화자와 청자의 추론을 들고 있다. 특히, 화자 못지 않게 청자의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어 사용이란 화자와 청자의 추론이 관여하는 수행이다. 언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맥락과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화자와 청자, 즉, 언어사용자가 주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 브라운·올(G. Brown & G. Yule)(1983:26)<sup>13)</sup>

“담화분석은 화용론처럼 언어 사용자의 행위와 그 수단인 담화의 언어적 특성을 설명해 준다.”

[초점요소] 언어 사용자, 담화

[언어사용] 담화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행위

브라운과 올(1983)의 견해는 비록 화용론이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화용론이 언어 사용자나 담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 화용론이 언어 사용자의 행위를 다루며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담화의 언어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언어 사용을 담화를 수단으로 하는 언어 사용자의 행위로 설정함으로써 담화를 강조하고 있다.

11) 모리스의 견해에 비해 카르납의 주장은 언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를 넓은 의미의 화용론과 관련된 것으로, 후자는 좁은 의미의 화용론에 관련된 주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윤 석민(2011:7-9)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Pragmatic theories do nothing to explicate the structure of linguistic constructions or grammatical properties and relations ..... They explicate the reasoning of speakers and hearers in working out the correlation in a context of a sentence token with a proposition. In this respect, a pragmatic theory is part of performance.)

13) In discourse analysis, as in pragmatics, we are concerned with what people using language are doing, and accounting for the linguistic features in the discourse as the means employed in what they are doing.

(7) 크리스탈(D. Crystal)(1985:240)<sup>14)</sup>

“화용론은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 따르는 언어 연구이다. 특히 그들의 언어 선택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언어 사용 시 겪는 제약, 그들의 언어 사용이 의사소통의 행위 속 다른 참여자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연구이다.”

[초점요소] 언어 사용자, 선택, 제약, 결과

[언어사용]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자의 행위

크리스탈(1985)의 이 정의는 무엇보다 언어 사용자에게 방점을 두고 있다. 언어 사용자는 이미 카르납(1938)에서도 분명히 언급된 기본적인 화용론의 개념 요소이다. 다만, 여기서는 언어 사용자의 행위를 구체화하여 언어 사용자의 언어 선택, 선택된 언어 사용의 제약이나 결과로 보고 있는 점이 추가되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언급함으로써 화용론이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이며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산출된 언어 사용과 관련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8) 슈프린(D. Schiffrin)(1994:191)<sup>15)</sup>

“화용론은 해석자가 기호의 지시대상을 알아내는 데 관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초점요소] 해석자, 기호, 지시대상

[언어사용] 해석자의 기호 해석 행위

슈프린(1994)의 견해는 언어 사용의 핵심 요소로서 해석자와 기호 그리고 지시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기호나 지시대상이 일반적인 화용론에서만 주목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는 중심 요소로서 해석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해석자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 사용, 즉 해석자의 기호 해석 행위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모리스(1938)의 경우와 비슷하다.

(9) 클라크(H. Clark)(1996:391)<sup>16)</sup>

14) Pragmatics is the study of langu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users, especially of the choices they make, the constraints they encounter in using language in social interaction and the effects their use of language has on other participants in the act of communication.

15) Pragmatics is the study of how interpreters engage in the “taking-account-of” designata (the construction of interpretants) of sign-vehicles.

16) Pragmatics needs to include the users and the addressee's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responses. All language use is "joint action" involving the speaker's meaning and the addressee's understanding. Any account of "using language" must include more than an analysis of the

“화용론은 화자/청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포함해야 한다. 언어 사용은 모두 화자의 의미 전달과 청자의 이해가 관계하는 ‘합동행위’이다. 언어 사용은 언어 형식에 대한 분석 그 이상을 설명해야 한다.”

[초점요소] 화자/청자, 언어 형식 이상

[언어사용] 화자(의미전달)와 청자(이해)의 합동행위

클라크(1996)에서는 언어 사용의 초점 요소로 화자와 청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언어 사용자로 동일하게 보지 않고 의미를 생산(의미 전달)하는 화자와, 의미를 해석(이해)하는 청자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언어 형식 이상에 대한 분석을 화용론적 설명의 필수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만드는 합동행위(joint action)가 된다.

(10) 고 영근(1999:14)

“텍스트이론이 기호학과와 하위분과로서 언어학을 바닥에 깔고 인간의 언어적 표현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라면 실용론은 사람의 마음과 사태 성격의 특수성을 밝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심리실용론, 후자는 사회실용론이다. 두 실용론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로써 언어학적 실용론, 곧 화용론이 성립된다.”

[초점요소] 인간, 마음, 사태

[언어사용] 마음과 사태의 특수성이 반영된 언어 표현

고 영근(1999)는 화용론이 언어와 관련된 인간 및 사람의 표현 행위이며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사태의 특수성을 밝히는 학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언어 사용자인 인간 또는 마음과 사태를 관련 요소로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언어 사용이란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태 사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11) 이 재희 외(2011:9)

“화용론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며,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맥락과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문 분야이다.”

[초점요소] 사람, 맥락, 의사소통

[언어사용] 의사소통을 위해 맥락과 관련시키는 사람들의 행위

이 재희 외(2011)의 언급은 특히, 화용론에서 다루는 언어 사용의 핵심 요소로서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의 사용 방식 또는 이해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맥락과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맥락에도 중점을 둔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의사소통을 위해 사람들이 맥락과 관련된 특정의 사용방식이나 이해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 2.1.2. 맥락 중심 정의

화용론의 개념 정의와 관련한 논의들 가운데는 무엇보다 맥락에 주목하는 것들이 많다. 맥락이란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는 상황 정보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스탈나이커(R. Stalnaker)(1972:383)<sup>17)</sup>

“화용론은 언어 행위와 그 행위가 수행되는 맥락에 대한 연구이다.”

[초점요소] 언어 행위, 맥락

[언어사용]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언어 행위

스탈나이커(1972)는 카르납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화용론 연구자로 간주되는 데<sup>18)</sup> 화용론의 개념 정의를 위해 무엇보다 언어 행위(linguistic acts)와 맥락(contexts)에 방점을 둔다. 이는 앞선 모리스(1938)이나 카르납(1938) 등의 견해와 다르다. 언어 사용자가 아니라 그가 수행한 결과물인 ‘언어 행위’와 그것이 놓이는 맥락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언어 사용은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언어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언어 사용자보다는 언어 행위와 맥락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13) 레빈슨(S. Levinson)(1983:21)<sup>19)</sup>

“화용론은 언어 이해를 설명하는 데 바탕이 되는 언어와 맥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초점요소] 언어, 맥락

[언어사용] 언어를 맥락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

17) Pragmatics is the study of linguistic acts and the contexts in which they are performed. 이러한 그의 진술은 슈탈나이커(1999:45)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8) 설 외 편(1980:ix)에서는 화용론 연구에서 스탈나이커(1972)가 카르납의 연구를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 Pragmatics is the study of those relations between language and context that are basic to an account of language understanding.

레빈슨(1983)은 화용론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언어와 맥락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는 점이 특성이다. 언어사용자의 언어 이해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모리스의 견해와 같지만 그 과정에 언어체와 맥락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4) 페라라(A. Ferrara)(1985:138)<sup>20)</sup>

“화용론은 발화가 가진 언어적 특징과 사회적 행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초점요소] 발화, 사회적 행위

[언어사용] 발화의 이용한 사회적 행위

페라라(1985)는 발화와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발화가 언어적 행위로 수행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행위로 이해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화용론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란 일종의 맥락으로서 수행된 언어적 행위인 발화가 의미를 갖게 되는 조건이 된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결국 발화를 통해 수행되는 사회적 행위이다.

(15) 매카시(M. McCarthy)(1991)/박 철우(2015:110)<sup>21)</sup>

“화용론은 맥락의 본질과 상관없이, 맥락 안의 의미를 연구한다.”

[초점요소] 맥락

[언어사용] 맥락 안에서 의미를 만드는 행위

매카시(1991)은 화용론의 개념을 맥락과 관련시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맥락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발생시키는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 맥락적 정보라 하여도 모든 시간, 공간, 화자, 청자,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정보가 언제나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맥락 정보만이 실제 언어 사용에 관여된다는 점에서 이는 화용론이 특정의 맥락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결국 특정의 맥락적 요소와 관련하여 의미를 발생시키는 일이다.

(16) 메이(J. Mey)(1993)/이 성범(1996:48)

“화용론은 사회의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언어 사용의 조건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

20) Pragmatics is the systematic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linguistic properties of utterances and their properties as social action.

21) Pragmatics is the study of meaning in context without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context.

[초점요소] 사회적 맥락

[언어사용] 사회적 맥락에 따르는 행위

메이(1993)은 특히 사회적 맥락에 대해 초점을 두어 화용론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맥락이란 이른바 사회적 맥락(societal context), 즉 사회 제도(사회문화적/역사적/습관적)로 고착화된 맥락을 말한다. 이는 일회적이고 비 고정화된 사교적 맥락(social context)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화용론에서 다루는 맥락이 고착화된 맥락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7) 김 종택·남 성우(1995:347)

“현실적으로 언어를 운용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를 기술하는 것을 화용론이라 한다.”

[초점요소] 맥락(현실적 언어 운용)

[언어사용] 맥락 속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언어 행위

김 종택 외(1995)의 설명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용론은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다룬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언어를 운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졌을 때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인다.<sup>22)</sup> 따라서 이 견해는 넓게 보아 맥락 속에서의 언어 행위와 관련되는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맥락 속에서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실제로 운용되는 행위이다.

(18) 페어주커른(J. Verschueren)(1997:7)<sup>23)</sup>

“화용론은 언어사용 행동과 관련된 언어 현상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의 접근이다.”

[초점요소] 인지적/사회적/문화적 접근

[언어사용] 언어로 수행하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행동

페어주커른(1997)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요소 가운데 이것이 행동의 형식을

22) 이 견해는 ‘언어 사용’과 관련한 화용론의 정의로 따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이 언어 사용의 구체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분석하기로 한다. 현실적인 언어 운용은 특정 상황을 전제하는 표현으로 이해한다. 상황이 전제되어야 실제적인 언어 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 그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견해들은 포괄적으로 맥락을 중시하고 있는 견해로 간주하기로 한다. 아래 오 주영(1998), 황(2006)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3) Pragmatics is a general cognitive,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 on linguistic phenomena in relation to their usage in forms of behavior.

피고 나타나면서 언어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언어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보이는 언어외적 요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넓게 보면 맥락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언어가 수행하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행동이다.

(19) 오 주영(1998:1)

“언어가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로 화용론이다.”

[초점요소] 의사소통 상황

[언어사용] 특정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용

오 주영(1998)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이 화용론의 초점이라고 본다. 언어 행위가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된다고 봄으로써 특정의 상황적 의미 발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사소통적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특정의 상황이 화용론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메이(J. Mey)(2000:6)<sup>24)</sup>

“화용론은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사회적 조건에 따른 언어의 사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초점요소] 사회적 조건

[언어사용] 사회적 조건에 따른 의사소통

메이(2000)의 언급은 특히 언어 사용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사실과 그 과정은 사회적 조건에 따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화용론이 일시적, 순간적 상황을 넘어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회적 인식을 통해 습득된 관습적, 제도적, 문화적 요소 등의 맥락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5)</sup> 특히, 화용론의 거시적 연구 관점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 의사소통 과정이다.

(21) 황(Y. Huang)(2006:2)<sup>26)</sup>

---

24) Pragmatics studies the use of language in human communication as determined by the conditions of society.

25) 이곳의 ‘사회적’이라는 말은 고착되어 관습화된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16)의 언급을 참조하기 바란다.

26) Pragmatics is the systematic study of meaning by virtue of, or dependent on, the use of language. The central topics of inquiry of pragmatics include implicature, presupposition, speech

“화용론은 언어 사용에 따르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중심 과제는 함축, 전제, 화행, 직시이다.”

[초점요소] 언어 사용 (맥락)

[언어사용] 언어 자체의 의미와 구별되는 의미를 발생시키는 행위

황(2006)에서는 화용론을 정의하면서 특히 언어 사용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에 따르는 의미’라고 언급함으로써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시된 중심 과제를 보면 언어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는 언어 사용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언어 자체의 의미와 구별되는 다른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윤 평현(2008:326)<sup>27)</sup>

“화용론은 언어형식과 발화 장면과의 관계 속에서 발화 사용의 원리와 의미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초점요소] 발화 장면, 언어 형식

[언어사용] 발화의 맥락적 사용으로 발화 의미가 나타나는 것

윤 평현(2008)의 정의는 언어 형식과 발화 장면을 구별하여 이들의 관계를 중시한다. 특히, 발화 사용의 원리와 발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발화 장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은 특정 맥락에서 발화가 사용되면서 특정의 발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유 범(2011)의 정의

“화용론은 맥락이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초점요소] 맥락

[언어사용] 맥락이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 범(2011)의 정의는 언어 그 자체나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보다는 사용자가 특정 언어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

acts, deixis.

27) 윤 평현(2008)의 정의는 윤 평현(2013:290)에도 그대로 보인다. 다만, 후자에는 ‘가장 보편적인 정의’이라는 말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화용론의 개념적 정의가 쉽지 않음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맥락이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24) 노 명현(2012:22/347)

“의미해석에 맥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를 화용론이라고 할 수 있다.(22쪽) / 현실적으로 언어를 운용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를 기술하는 것을 화용론이라 한다.(347쪽)”

[초점요소] 맥락, 언어 운용

[언어사용] 현실적인 맥락적 언어 운용

노 명현(2012)에서 말하는 ‘현실적으로’란 발화 현장에서의 실제적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제적 언어 사용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용론에서 주목하는 언어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맥락 안에서 운용되는 것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 2.1.3. 발화 중심 정의

화용론의 개념 정의를 발화 그 자체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는 논의들도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발화라는 언어 표현 자체가 화용론의 개념적 특성을 분명히 한다고 보는 것이다.

(25) 개즈더(G. Gazdar)(1979:2)<sup>28)</sup>

“화용론은 발화의 의미 가운데 발화된 문장의 진리조건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의미 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초점요소] 발화

[언어사용] 진리조건 이외의 의미를 지니는 발화의 사용.

개즈더(1979)에서는 무엇보다 관련 요소로서의 언어체를 발화로 설정하고 있다. 화용론이 다루는 의미가 진리조건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발화는 이미 언어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진리조건 이외의 의미를 가진다는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 사용은 진리조건적 의미 밖의 의미를 지니는 발화, 즉 구체적으로 실현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설명은 의사소통을 위해 발화된 언어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서 진리조건적 의미로 설명되는 순수언어학의 의미와 다른 화용론적 의미를 다

28) Pragmatics has as its topic those aspects of the meaning of utterances which cannot be accounted for by straightforward reference to the truth conditions of the sentences uttered.

룬다는 특성을 가진다.

(26) 최 창렬 외(1992:277)

“화용론은 발화(문)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용론은 언어를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언어 자체의 의미를 벗어나는 보편적 인지론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화용론의 연구 범위는 맥락의 어느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진다고 하겠다.”

[초점요소] 발화

[언어사용] 발화를 만드는 행위

최 창렬 외(1992)는 무엇보다 발화 그 자체를 중심으로 화용론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발화문의 의미를, 언어 자체의 의미를 벗어나는 의미로 설정함으로써 화용론은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언어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발화를 만드는 행위가 된다.

(27) 송 경숙(2003:19)

“화용론은 일련의 문장이 왜 변칙적인 발화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원리들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화용론은 언어에 대한 기능적 관점에서의 연구이며, 언어 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이다.”

[초점요소] 변칙적인 발화

[언어사용] 언어사용 원리에 따라 변칙적인 의미를 만드는 행위

송 경숙(2003)은 화용론이 발화를 대상으로 그것이 가지는 변칙성의 원리를 연구한다고 함으로써 변칙적 발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기능적 원리에 따라 언어적 의미와 다른 변칙적인 발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28) 박 종갑(2007:250)

“발화는 문장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된 것이다. 화용론은 이와 같은 발화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초점요소] 발화

[언어사용] 발화 의미를 가지는 행위

박 종갑(2007)은 화용론이 발화에 대한 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어체인 발화 그 자체가 화용론의 중심 요소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언어 사용의 결과물로서 발화가 지닌 의미의 규명이 화용론의 본질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모든 언어 사용이란 발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언어 사용의 특성에 따른 화용론의 정의

앞 절(2.1.)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화용론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9) 언어 사용의 초점 요소 및 관점에 따른 화용론의 정의 분류

언어사용의 초점 요소		언어사용에 대한 관점	관련 논의(26개)
언어사용자	언어사용자, 해석자, 인간/마음	-언어사용자의 해석/이해 행위 -언어사용자의 의사소통 행위	모리스(1938), 브라운·올(1983), 크리스탈(1985), 쉬프린(1994), 고 영근(1999)
	화자, 청자	-화자의 전달 행위 및 청자의 이해 행위	카르납(1938), 카츠(1977), 클라크(1996), 이 재희 외(2011)
맥락	언어행위와 맥락 관계	-언어 행위를 맥락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행위	스탈나이커(1972), 레빈슨(1983), 김 종택·남 성우(1995), 오 주영(1998), 황(2006), 노 명환(2012)
	맥락	- 사회적 조건/맥락에 따르는 행위 - 맥락 의미를 만드는 행위 - 맥락이 영향을 미치는 행위	페라라(1985), 메카시(1991), 메이(1993), 페어주커른(1997), 메이(2000), 윤 평현(2008), 유 범(2011),
발화, 언어행위, 언어운용		- 발화(의미)를 만드는 행위	개즈더(1979), 최 창렬(1997), 송 경숙(2003), 박 종갑(2007),

위 (29)를 보면 그동안 화용론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화용론이 언어 사용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실제 주목하는 점은 달리 보아, 사용 주체인 언어 사용자와 관련된 것, 맥락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발화와 관련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럽게 언어 사용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하고 나아가 화용론의 기본 개념을 다르게 한다. 이러한 차이가 화용론의 개념 형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화용론을 언어 사용자에 주목하여 정의하려 한 논의들이다. 이들은 다시 언어 사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인식한 논의와 화자나 청자로 구분하고 그들의 언어 사용을 달리 주목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언어 사용에 관여하는 언어 사용자의 역할과 기능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언어 사용자의 역할과 기능이 화자나 청자나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의사소통 과정을 통합적인 하나의 언어 사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화자에 의한 전달

과 청자에 의한 이해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을 어떻게 보든 언어 사용의 과정에서 그 사용자에게 주목하고 있는 점은 같다. 즉, 이 논의들은 언어 사용,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자의 언어 행위라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용론이 언어 사용 행위라면 결국 화용론이 언어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다루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앞에서 들었던 예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2c)의 “두 개 남았다.”라는 발화는 상황에 따라 “권고”(아직 두 개가 남아 있으니 더 먹어라)와 “비난”(두 개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만 먹어라)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두 개 남았다’라는 문자적 의미 이외에도 다른 의사소통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어떤 의미인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인 화자와 청자의 의도 및 해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발화의 문자적 의미가, 이 문장이 어떤 단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언어 체계(system of language)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에 비하여 다른 두 의미는, 실제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상 의도가 무엇이냐는 언어 사용(use of language)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당연히 화용론은 이 가운데 후자의 의미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언어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그 발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화용론이란 결국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의도하거나 해석하는) 의미, 즉 “의사소통 의미”를 다루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0) 언어 사용자와 관련된 화용론의 특성

ㄱ. [주목하는 언어 특성]: 언어 사용 (<=> 언어 체계)

ㄴ. [화용론의 특성]: 화용론은 언어 사용자와 관련하여, 의사소통과 언어 사용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이다.

⇨ [화용론의 정의1]: 화용론은 의사소통 의미를 다루는 연구이다.

둘째, 화용론을 맥락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논의들이 있다. 맥락을 중시하는 논의들도 언어행위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맥락 그 자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언어행위와 관련된 맥락적 요소의 사용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맥락 그 자체가 언어 사용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들은 언어 행위에 사용되는 언어 그 자체보다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더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언어 사용은 맥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맥락은 언어 사용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언어 사용이란 특정의 언어표현이 맥락 속에서 수행된 결과가 된다.

그런데 맥락을 전제로 언어가 사용된다는 관점에서는, 언어 사용이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수행(linguistic performance)의 문제가 된다. 맥락 독립적(context-free)인 언어의 구성을 다루는 언어 능력과 달리 언어 사용은 맥락 의존적(context dependent)인 언어 수행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결국 화용론은 맥락을 중심으로 언어 사용의 수행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 (2c)을 다시 보자. “두 개 남았다.”가 문자적 의미 이외에 권고와 비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발화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단순히 접시에 담긴 만두의 모습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만두가) 두 개 남았다] 정도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지만, 아이가 더 먹기를 바라는 엄마의 발화라면 [더 먹으라]는 “권고”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더 먹으려는 친구에게 [그만 먹어라]는 감정이 섞인 의미의 “비난”이 될 수도 있다.

첫 번째 의미는 맥락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한국어 문법 체계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능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는 실제 구체적인 맥락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언어 사용이 이루어진 후에야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수행과 관련된 의미이다. 그런데 이처럼 언어 사용이 언어 수행의 문제로서 특정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은 언어 사용의 의미가 결국 맥락 속에서의 의미임을 말해준다. 이 점 역시 언어 사용이 가지는 구체적 특성의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화용론은 맥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의미, 즉 “맥락 의미”를 다루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31) 맥락과 관련된 화용론의 특성

ㄱ. [주목하는 언어 특성]: 언어 수행 (<=> 언어 능력)

ㄴ. [화용론의 특성]: 화용론은 맥락과 관련하여,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언어 행위를 다루는 연구이다.

⇒ [화용론의 정의2]: 화용론은 맥락 의미를 다루는 연구이다.

셋째, 화용론의 개념을 발화 자체에 주목하여 정의하는 논의들이 있다. 개즈더(1979) 등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화용론의 개념을 언어 사용에 활용된 언어 표현, 즉 발화 그 자체에 주목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언어 사용이란 결국 발화의 문제로서 발화를 만드는 행위라고 본다. 언어 행위의 결과물이 발화인 셈이다. 이들이 무엇보다 발화에 주목한 이유는 발화가 기존의 구조적 의미를 다루는 언어 형식, 예를 들면 문장 따위와 구별되는 맥락적

언어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 언어학적 규칙에 의해 구성이 가능한 문장 등과 달리 실제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발화는 진리 조건 같은 구조의미론적 분석만으로는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발화는 언어의 구조적 문법성(grammarality)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기능적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문제에 속한다. 문법성이 특정 언어 표현이 해당 언어의 언어학적인 체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적절성은 그와 상관없이 실제 맥락 속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받아들여지느냐를 따진다.<sup>29)</sup>

“두 개 남았다.”라는 언어 표현을 다시 살펴보자. 이것이 실제 발화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된다는 것은 그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진리 조건적 의미로서 사태의 “진술”(만두가) 두 개가 남았다일 수도 있고 “비난”이나 “권고”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이 발화의 문법성과 관계없다. 오히려 “문 닫고 들어와.”나 “나는 짜장면이다.” 같은 비문법적 표현들도 실제로 받아들여지면 적절한 발화가 된다. 이처럼 발화는 실제 상황에서 적절성이 인정되는 언어 형식이다. 그리고 화용론은 바로 그러한 발화의 적절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발화 의미”, 특히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발화의 의미를 다루는 연구가 화용론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2) 발화와 관련된 화용론의 특성

- ㄱ. [주목하는 언어 특성]: 적절성( $\Leftrightarrow$  문법성)
  - ㄴ. [화용론의 특성]: 화용론은 발화와 관련하여, 발화의 적절성을 다루는 연구이다.
- ⇒ [화용론의 정의3]: 화용론은 발화 의미를 다루는 연구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화용론의 개념과 관련된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화용론의 개념

- ㄱ. [정의]: 화용론은 언어 사용을 다루는 연구이다. 언어 사용이란 적절한 발화가 맥락 속에서 수행하는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행위이다.
- ㄴ. [특성]: 1)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의미
  - 2) 맥락상 수행 의미
  - 3) 적절한 발화 의미

29)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발화의 적절성은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문법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언어 사용에는 표현 자체의 언어학적 체계에서 비롯되는 의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화용론에서는 문법성을 적절성과 구분하여 진리조건적 의미 파악에 관한 것으로 보아 논의로 한다.

위 (33)에서 제시한 화용론의 개념은 화용론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면서도 그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화용론이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언어 사용이 결국 언어 사용자와 맥락, 발화를 중심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화용론의 개념적 특성으로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의미, 맥락 의미, 발화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화용론과 관련된 의미 현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3. 화용론의 연구 대상

화용론의 위상 정립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연구 대상이 화용론의 범주에 속하는지 안다면 연구 시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교육 시 연구 성과의 이해나 활용에도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화용론의 연구대상이 지녀야 하는 의미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대상 목록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 3.1. 연구 대상의 의미 특성

화용론의 정의가 화용론의 개념적 특성에 대한 것이라면 연구 대상은 화용론 연구의 내용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 대상이 화용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그 대상이 화용론의 개념적 의미 특성을 보이느냐와 관련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대상이 지녀야 하는 의미 특성이 화용론에 부합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앞 절(2.2.)에서 살핀 화용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이 가져야 할 의미 특성에 대한 조건을 다음처럼 제시할 수 있다.

- (34)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 가지는 의미 특성에 관한 조건
- ㄱ.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적 의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 ㄴ. 언어 사용이 수행되는 맥락 의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 ㄷ. 적절한 발화 의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의미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를 연구 대상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두 견해에 적용해 보자. 울(1996)은 화용론의 연구 영역 설정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대표적 견해인데 특히 언어 사용자와 관련되는 연구 대상을 주목한다. 이해 비하여 버너(2013)은 사용된 언어 형식이 가진 화용론적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35) 화용론 연구 대상 의미

가. 율(1996:3)<sup>30)</sup>:

- ㄱ. 화자 의미(speaker meaning)
- ㄴ. 맥락 의미(context meaning)
- ㄷ. 언어 표현으로 암시되는 의미
- ㄹ. 상대적 거리표현

나. 버너(2013:4)<sup>31)</sup>

- ㄱ. 비문자적 의미(non-literal meaning)
- ㄴ. 맥락 의존 의미(context-dependent meaning)
- ㄷ. 추론적 의미(inferential meaning)
- ㄹ. 비진리조건적 의미(non-truth-conditional meaning)<sup>32)</sup>

(35가)를 보면 율(1996)이 (ㄱ)에서 지칭한 ‘화자 의미’의 화자는, 단순히 화자만을 지칭하기보다 청자를 포함하는 언어 사용자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ㄷ)의 ‘암시되는 의미’는 어떤 언어 사용이 실제 말해진 것 이상으로 갖게 되는 의사소통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sup>33)</sup> (ㄹ)에서 보이는 ‘상대적 거리’는 그 내용이 ‘언어 표현과 그것이 지시하는 세계 속 대상 사이 에 대한 화자 또는 언어 사용자의 인식상 거리’이다. 모두 언어 사용자와 관련된 의미라는 점에서 (34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ㄴ)의 ‘맥락 의미’는 말 그대로 언어 행위와 맥락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34ㄴ)과 관련된다.

(35나), 버너(2013)의 연구대상은 특히 사용되는 언어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ㄱ)에서 말하는 ‘비문자적 의미’란 언어 형식 그 자체의 문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자에 기반하여 의사소통 과정에 관여하는 언어 사용자의 의도적 의미가 화용론의 연구 대상 의미라는 것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언어 사용자 의미라면 (34ㄱ)의 조건에 부합하는 의미 특성이다. (ㄴ)의 ‘맥락 의존 의미’는 언어 사용이 맥락 속에서 수행되며 발생시키는 의미를 말한다. (ㄷ)의 ‘추론적 의미’ 역시 주어진 맥락에 기초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34ㄴ)의 조건을 갖춘 의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ㄹ)의 ‘비진리조건적

30) Pragmatics is the study of speaker meaning...Pragmatics is the study of contextual meaning... Pragmatics is the study of how more gets communicated than is said...Pragmatics is the study of the expression of relative distance. 각각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 남호 외(2012:256~260)를 참조하기 바란다.

31) Pragmatics typically has to do with meaning that is: •non-literal •context-dependent •inferential and/or •not truth-conditional.

32) 일관되게 명사적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문과 달리 수정하였다. 원문은 동사적 표기로 ‘is not truth-conditional’로 되어 있다. 위 주석 31) 참조.

33) 주석 30)의 ‘communicated than is said’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의미'는 발화가 실제 사용되면서 진리조건적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 특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는 (34ㄷ)의 발화의 적절성에 부합하는 의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앞에서 논의된 의미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논의에서 제안된 화용론의 연구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의미 특성에 따른 화용론의 연구 대상

- ㄱ.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의미: 화자 의미, 청자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 등
- ㄴ. 맥락과 관련된 의미: 대화적 의미, 사회문화적 의미, 역사적/관습적 의미 등<sup>35)</sup>
- ㄷ. 발화와 관련된 의미: 화행 의미, 적절성 의미 등.

### 3.2. 연구 대상의 의미 요소

화용론의 구체적 연구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용론 연구서들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대부분의 연구서는 연구 대상에 따라 내용 요소를 구분하여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용론 연구서의 내용 요소가 일관된 기준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로 화용론 연구서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를 보면 매우 성격상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sup>36)</sup>

여기서는 앞(3.1.)에서 언급된 화용론적 의미 특성을 바탕으로 화용론 연구서에서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대상 목록을 확립해 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기존 화용론 연구서 가운데 연구 대상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4) 버너(2013)에서는 위의 네 가지 의미가 화용론에서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중 하나만 있어도 화용론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두 있다면 전형적인 화용론 연구가 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주석 31)의 'and/or'가 이런 문제를 보여준다.

35) 전자의 대화적 맥락이란 특정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맥락을 말하는 것으로, 후자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관습적 맥락처럼 특정 시공간을 벗어나 화자나 청자가 공유하는 배경 지식, 세계 지식과 구별된다.

36) 화용론 연구서의 내용 요소는 크게 화용론의 필요성 및 기본 개념 등을 다루는 부분과 연구 내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흔히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른 장으로 나뉘는데, 연구서의 특성에 따라 여기에 연구 경향이나 방법론을 넣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연구 사례를 별도로 제시하기도 한다. 최 창렬 외(1992)의 제4편 화용론의 제2장 작품 분석론, 박 영순(2007)의 종합적 화용 분석의 예, 박 종갑(2007)의 제4부 11장 화용론의 실제 등 참조.

(37) 화용론 연구서의 내용 요소

- ㄱ. 라이온스(1981): 화행, 맥락, 함축, 지시 및 직시
- ㄴ. 레빈슨(1983): 직시, 대화적 함축, 전제, 화행, 대화 구조
- ㄷ. 최 창열 외(1992): 화행, 간접화행, 적정조건, 전제, 함축, 지시어, 은유, 속담분석, 작품분석론
- ㄹ. 메이(1993): 미시화용론(지시와 함축, 언어행위, 언어행위동사와 간접 언어행위, 언어행위의 분류) 거시화용론(대화분석, 상위화용론, 사회적 화용론)
- ㅁ. 김 종택·남 성우(1995)<sup>37)</sup>: 표현과 비표현, 간접표현과 직접표현, 전제와 함의, 대화의 병리
- ㅂ. 율(1996): 직시와 거리, 지시와 추론, 전제와 함의, 협력과 함축, 언어행위 및 상황, 공손과 상호작용, 대화와 선호구조, 담화와 문화
- ㅅ. 오 주영(1998): 화행과 의미해석, 전제와 의미해석, 함축과 의미해석
- ㅇ. 알란 크루스(2000): 지시와 직시, 화행, 함축
- ㅈ. 송 경숙(2003): 직시, 전제, 함축, 협력 원리, 화행, 담화, 은유와 환유
- ㅊ. 박 영순(2007)<sup>38)</sup>: 담화표지, 생략과 축약, 주제와 초점, 대화 전략
- ㅋ. 박 종갑(2007): 발화행위이론, 전제와 함축, 간접화행, 지시어, 양태적 표현, 보조용언, 대용의 원리
- ㅌ. 윤 평현(2008): 직시, 발화행위 이론, 함축
- ㅍ. 이 재희 외(2011): 맥락과 표현/맥락과 의미, 화행, 언어 변이, 담화 분석/대화 분석
- ㅎ. 조 남호 외(2012): 직시, 화행과 함축, 텍스트와 텍스트언어학

이들 가운데 우선 대부분의 연구서에서 공통적인 내용 요소가 눈에 띈다. 직시(deixis), 화행(speech acts), 함축(implicature)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의사소통적 의미나 맥락 의미, 발화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의미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8) 전형적인 의미 현상

- ㄱ. 직시: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적 의도에 따라 발화가 맥락 안의 어떤 요소를 지시하는지가 결정되는 의미 현상
- ㄴ. 화행: 발화가 맥락 안에서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적 의미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대한 의미 현상.
- ㄷ. 함축: 표현 그 자체의 명시적 의미 이외에 발화가 맥락 안에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의미에 대한 현상

---

37) 제4부 장면의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38) 5장 화용의 양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런 전형적 연구 대상의 기술에는 흔히 관련 의미 현상이 함께 다루어진다. 직시는 흔히 지시(reference) 또는 지표(indexical)와 같이 논의되고, 화행은 적절성 조건(appropriateness condition)이나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등과, 함축은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al) 등과 같이 논의되는 식이다. 따라서 이들도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전제(presupposition)와 함의(entailment), 주제(topic)와 초점(focus) 또는 생략(elipsis)과 축약(abstraction) 등이 있다. 이들은 연구자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문장의 특정 요소나 요소 사이의 논리적 구조만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론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나 오히려 맥락이나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적 의도가 관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화용론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39)</sup>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도 흔히 수사법의 하나로서 문학적 연구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이 일상적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문자적 의미 이외의 다른 맥락적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시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어적 공손(politeness) 현상도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의 사용에 따른 문법성을 어휘의미나 통사의미 차원에서 논의하기도 하나 특정 맥락에서 공손의 원리에 따라 언어 사용자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구조적 의미나 일탈적 의미를 넘어서, 일상의 언어 사용에서 보이는 맥락적, 의사소통적 의미도 다룬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용론 연구서에서 내용 요소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는 의미 현상이라기보다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대화분석이나 담화분석, 상호작용론, 작품분석론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어휘나 문장 등의 구조적 언어 단위를 넘어 실제 사용된 언어 형식으로서의 발화를 다루는 점은 화용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되는 의미보다는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대화분석은 화자와 청자 및 이들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특성에 주목하고 담화분석 또는 텍스트언어학은 담화나 텍스트가 가지는 의사소통 과정의 맥락 관련성에 주목한다. 상호작용론에서는 특히 청자의 사회적, 언어적 추론과정에 주목하며 민족지학적 접근은

39)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 자체만으로 추출되는 의미를 화용론에서 제외하려는 주장에서는 예를 들어, 전제와 함의 따위를 화용론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즉, '철수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문장의 [철수는 동생이 있다](전제)와 [동생이 철수에게 선물을 받았다](함의)라는 의미는 언어 체계 내에서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의미론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제와 함의 가운데는 맥락과 언어 사용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발화의 의미인 경우가 많다. 아래 (41)의 전제나 함축도 그렇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담긴 문화적 특성에 주목한다.

그런가 하면 화용론의 연구 대상으로 언어 형식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특정 의미 현상이나 접근 방식을 제시하기보다 다루고 있는 언어 형식을 내용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의미 현상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화(utterance), 담화(discourse), 텍스트(text), 대화(dialogue) 등 의사소통이나 맥락과 관련된 언어 형식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끔 대용어나 보조용언, 양태표현, 속담 등처럼 특정 언어 형식의 화용론적 사용을 다루는 경우도 보인다. 전자의 경우 그 안에 담긴 화용론적 의미 현상이 다양하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화용론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조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화용론의 연구 대상을 의미 현상, 접근 방식, 언어 형식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9) 화용론의 연구 대상

- ㄱ. 의미 현상: 1) 전형적 - 직시/지시, 화행/간접화행/적절성조건, 함축/협력 원리
- 2) 보완적 - 전제와 함의, 은유와 환유, 주제와 초점, 생략과 축약, 공손성
- ㄴ. 접근 방식: 대화분석, 담화분석, 상호작용론, 작품분석론, 텍스트언어학, 사회문화적 화용론
- ㄷ. 언어 형식: 1) 전형적 - 발화, 담화(표지), 대화, 텍스트
- 2) 보조적 - 대용어, 속담, 보조용언, 양태표현

###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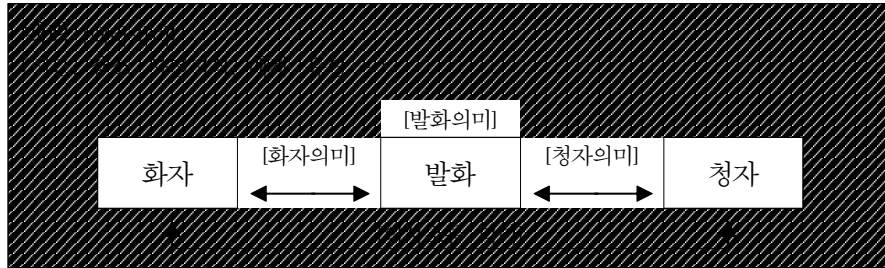
이 글의 논의는 화용론의 위상 정립을 위해 개념적 정의와 특성을 밝히고 연구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화용론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무엇보다 ‘언어 사용’이 결국은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적 의미와 수행되는 맥락의 의미, 적절한 발화의 의미를 지칭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0) 화용론의 정의와 언어 사용의 의미

- ㄱ. [정의] 화용론은 언어 사용(적절한 발화가 맥락 속에서 수행하는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행위)을 다루는 연구이다.

40) 대용어나 보조용언, 양태표현, 속담 등은 오히려 어휘의미론이나 통사의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다만, 이들의 의미 가운데 맥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도 화용론적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언어 사용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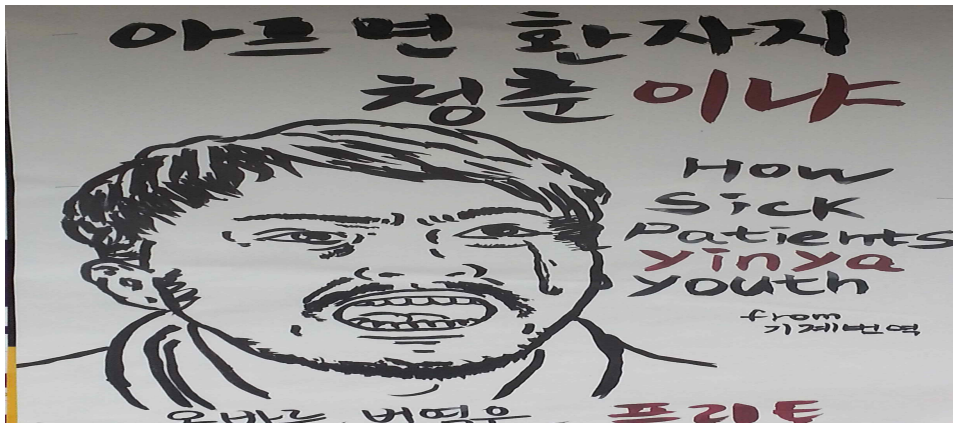


화용론의 연구 대상도 위의 개념적 특성에 따라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의미나 맥락 의미, 발화 의미 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 연구서의 다양한 연구 대상들을 그 특성에 따라 화용론적 의미 현상과 화용론적 접근 방식 그리고 화용론적 언어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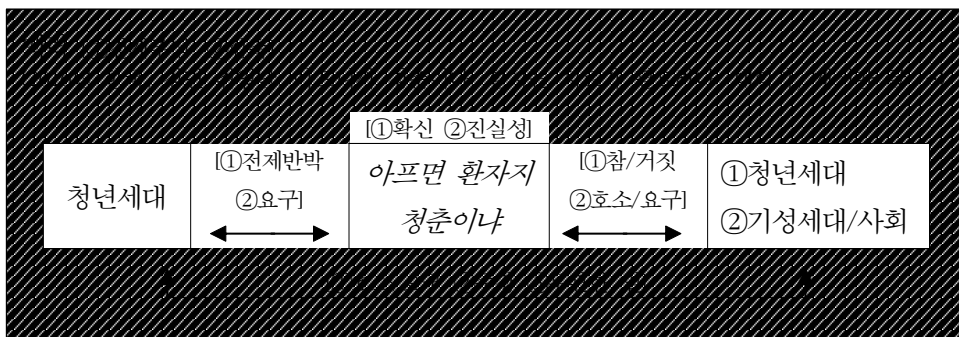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 정의와 연구 대상 구분을 적용하면 실제로 사용되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의미를 한층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 다음에 그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 글의 결론을 삼는다.

(41)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냐”의 화용론적 분석

ㄱ. 2016년 4월 9일, 한국 ○○대학교 게시판의 글



ㄴ. 언어 사용 요소 분석



㉔. 화용론적 의미

- ① 언어 사용자: [화자의미] 화자는 2016년 한국의 청년으로서 이 발화를 통하여 청년은 아픈 것이라는 사회적 전제를 반박하며 치료(취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기와 같은 청년세대에게는 이런 주장에 대한 동의와 동참을, 기성세대에게는 대책을 요구한다.

[청자의미] 전제 정보(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회적 인식)를 아느냐에 따라 청자에게 이 발화는 단순히 참/거짓을 묻는 의문이거나 동의와 동참을 요청하는 호소 또는 대책 요구로 이해된다. 청년세대에게는 호소이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요구이다.

[의사소통 의미] 적극적인 화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발화는 청자의 적극성에 따라 적극적 청자와는 호소와 요구로 이해되지만 소극적 청자와는 단순한 주장에 그칠 것이며 방관자적 청자와는 그저 상관없는 일일 뿐이다.<sup>41)</sup>

- ② 맥락: [맥락의미] 2016년 한국의 취업 상황이 특히 청년세대에게 가혹한 상태라는 맥락으로부터 이 발화는 청년은 아픈 환자이므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사회적인 전제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고 치료 대책을 요구하는 함축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가 게시판의 글이라는 점도 이 발화가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 세대의 공적인 외침임을 말해준다.
- ③ 발화: [발화의미] 실제 2016년 한국의 청년 취업 상황에 비추어 청년은 아픈 상태라는 화자의 믿음(예비조건)에 따라 전제를 부정하고 취업 대책을 요구하는 이 발화의 의미는 진실하다.(진실성조건). 게시판을 통해 같은 입장의 청년세대에게 전달되어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낸다면(본질조건) 이 발화는 성공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고 영근. 1999. 텍스트이론. 아르케.  
 김 종택·남 성우. 1995. 국어의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노 명현. 2012. 의미론개관. 한국문화사.  
 라이온스(Lyons, John)/현대언어학연구회 역. 1984. 언어, 의미와 상황맥락. 한신문화사.  
 레빈슨(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 Press.  
 렌커마(Renkema, Jan)/이 원표 역. 1997.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르카나티(Recanati, François. 2004. “Pragmatics and Semantics”, in 혼·워드 편(2004),

41) 적극적 청자란 순번에 따라 화자 역할도 하며 화자의 상대자로서 의사소통에 적극 참여하는 청자를, 소극적인 청자란 상대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중심적 화자가 되지 못하는 청자를, 방관자적 청자란 화자의 발화를 의식 없이 듣게 되는 청자를 말한다. 청자의 이런 분류에 대하여는 박 영순(2007: 87) 참조 바람.

-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Publishing Ltd.
- 메이(Mey, Jacob L.)/이 성범 역. 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 미카엘 스티브즈 저/송 영주 역. 1993.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박 종갑. 2007.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박이정.
- 버너(Birner, Betty J.). 2013. *Introduction to Pragmatics*. Wiley-Blackwell Publishing.
- 브라운·윌(Brown, Gillian & George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 Press.
- 셜·키퍼·비어비슈(Searle, John R., Ferenc Kiefer & Manfred Bierwisch). 1980.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Springer Verlag.
- 송 경숙. 2003.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 쉬프린(Schiffrin, Deborah).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s.
- 스탈나이커(Stalnaker, Robert C.). 1972. "Pragmatics", in Davidson and Harman ed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ordrecht, D. Reidel.
- 스탈나이커(Stalnaker, Robert C.). 1999. *Context and Content*, Oxford Univ. Press.
- 아담치크(Adamzik, Kirsten). 2016. *Textlinguistik: Grundlagen, Kontroversen, Perspektiven*, Walter de Gruyter.
- 알란 크루스 저/임 지룡, 김 동환. 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
- 오 주영. 1998. 화용론과 의미해석. 경성대학교 출판부.
- 윤 석민. 2011. 텍스트언어학과 화용론, 국어의미학 34.
- 윤 평현. 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윤 평현. 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 이 재희·유 범·양 은미·한 혜령·백 경숙·안 경화·나 경희. 2011. 영어교육을 위한 화용론. 한국문화사.
- 조 남호·윤 석민. 2012. 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조 원형. 2016. 아담치크(2016)에 대한 소개.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6년 봄철학술대회 발표집.
- 최 창열·심 재기·성 광수. 1992. 국어의미론. 개문사.
- 파머(Palmer, F. R.)/현대언어학연구회 역. 1984. 의미론. 한신문화사.
- 혼·워드(Horn, Laurence R. & Gregory Word) 편. 2004.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Publishing Ltd.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1부 기획 발표

## 한국어 학습자 구어 말뭉치의 담화 분석적 논의 - 대화 행위 주석을 중심으로 -

이 동은

국민대학교 교수  
delee@kookmin.ac.kr

### 1. 들어가기

이 글은 한국어 구어 담화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담화 차원의 주석 체계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사적으로 보면, 21세기 세종계획의 성과가 보고되고,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다수의 국어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석 체계의 방향 제안에 모아지는 경향을 보였다<sup>1)</sup>.

더구나 1990년대부터 한국어의 담화적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등장했고, 2000년대가 열리면서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석 연구의 포문이 열렸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기초연구와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 과제의 첫 보고라는 수확을 보게 되었다.

문어 말뭉치의 구축도 그러하지만, 구어 말뭉치의 구축과 분석 연구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구어 말뭉치의 경우에는 수집 차원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인 과정이라는 태생적으로 원죄에 가까운 윤리의 문제 이외에도 대화자로 인한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 구축 차원에서 보면, 합리적 수

---

1) 연구의 방향에 대해 귀한 조언들을 주신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의 최 재웅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준의 전사와 주석하기가 그 말뭉치의 신뢰도를 좌우하며, 나아가 학습자 말뭉치의 활용 및 심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 있어서 담화 차원의 주석이 갖는 의의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 영어학에서 사용되는 버전의 답습을 탈피하여, 국제적 연구들을 포함하여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연구, 개발 중인 성과물을 참고하여 적절한 한국어의 대화 행위 주석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합리적 차원의 대화 행위 주석 체계를 위한 고민은 언어자원에 대한 다차원적이고도 역동적인 담화 의미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 구어 말뭉치의 구축 등의 의미있는 주요 과제에 적용함으로써 교수 학습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 학계에서 한국어 담화분석과 한국어교육학의 효율적 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선행 연구

이 장에서는 담화분석 분야에서 수집된 실제 언어가 주석되어 온 체계를 국내외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대화 행위 주석 체계의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Leech(1997a:4-6)에서는 Brown 코퍼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말뭉치의 표기 체제 수립의 중요성으로 정보의 추출, 재사용, 다중기능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담화화용 학계에는 1970년대 이후 이 분야를 주도하는 많은 유럽과 북미의 학자들에 의해 영어가 링구아프랑카가 되었고, 데이터를 구성하는 현실 언어 역시 영어 중심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학문 연구의 결과가 영어로 공유, 소통되는 학계의 분위기가 이를 부추긴 것으로 당연히 추측할 수 있지만, 세계 언어 사용 현황<sup>2)</sup>을 고려하면,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의 사용과 표현에 대한 연구가 왜곡될 염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이르러 한국어학계에서는 학술지 『담화와 인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담화분석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대체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중심이 되면서 대량의 구어 말뭉치보다는 개인 연구자들이 수집하여 가공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2000년<sup>3)</sup> 『한국어교육』지를 시작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2) 현재 지구상에는 7,102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Lewis et al. 2015).

3) 학술지 『한국어교육』에 진 제희(2000:182), 이 동은(2002:185) 등을 중심으로 담화 표기 체계를 둔 본격적으로 담화분석 논문들이 등장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유 석훈(2001:176)에서는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집, 기록 과정에서 전사자나 연구자에 의한 언어학적 추상화가 불가피한 문제를 논하면서, 전사자의 감지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전사자의 주관에 배제된 표준 부재에 대한

와 학습자의 구어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학습자 구어 말뭉치의 기초 연구와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담화 분석과 화용론 분야에서는 북미와 유럽 학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주석에 대한 논의를 해 오고 있다. 최재웅(2014:80)의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료로 구축되는 언어들에 대한 표준화된 주석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난제임에는 분명하다. 이 동은(2016:83)에서도 도출된 주석 체계가 한국어의 화용에 부합하는지가 검증되어야 제2언어로서 한국어 화용론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하였다.

백화제방(百花齊放)식으로 발화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 반면, 관대하게 해석되어 일관성의 논리에 얽매인다는 딜레마적 측면이 있다. 또한 대량의 말뭉치 구축을 위해서는 주석자들의 수행 편차도 통제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논의하도록 한다.

한국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이해가 국제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말뭉치 구축 연구에서의 발화 정보 제시 분야는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되, 기존의 체계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본다.

## 2.1. 국제 학계의 경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담화와 화용 분야에서 주석에 관한 논의는 북미와 유럽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 Carletta 외(1995)에서는 특정 과제나 영역으로 화행 범주를 나누어 보고자 했고, Allen & Core(1997)의 DAMSL(Dialogue Act Markup in Several Layers)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대화를 목표로 대화 행위 주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sup>4)</sup> Alexander 외(1997)의 VERB MOBIL 역시 당시 화행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후 MATE(1999), DIT++(2005), LIRICS(2007) 등에서도 화행 분석 연구가 이어져 왔고, 가장 최근에는 ISO에서 이들 연구를 수렴하여 DiAML(Dialogue Act Markup Language)이라는 마크업 언어를 통해 표준화된 대화 행위의 주석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Weisser(2003)에서는 대화를 분석 및 처리하는 SPAACy라는 반자동 XML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화행 주석의 체계는 DAMSL과 VERB MOBIL을 참고하여 41개의 세트를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Leech & Weisser

---

논의가 있었다.

4) <http://www.cs.rochester.edu/research/cisd/resources/damsl/> 참조.

(2013)에서 SPAADIA 주석 체계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sup>5)</sup>

ISO의 체계와 Leech & Weisser(2013) 모두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서 여러 연구에 널리 인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대규모 말뭉치에 실험적으로 이러한 주석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어지고 화행 분류와 주석 체계, 그리고 그 기계적 도구가 정교화, 실용화된다면 대화의 화용적인 규약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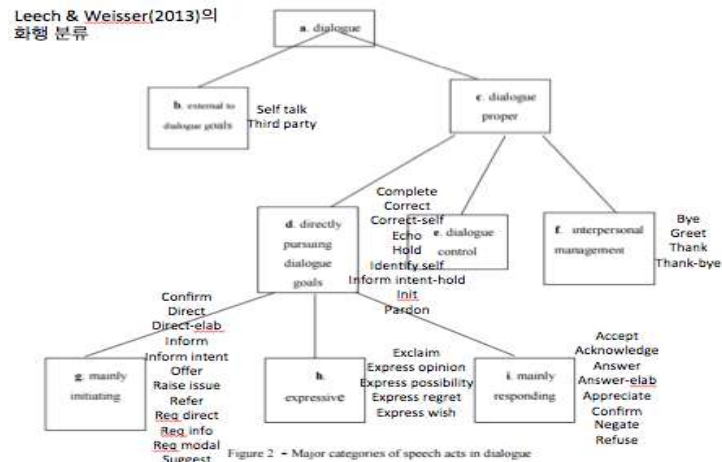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이들 중 보다 많은 연구들을 수렴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ISO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화행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한다.

## 2.2. ISO의 대화 행위 규약에서 의사소통 기능

ISO에서는 여러 언어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언어자원 주석 방식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2008년 5월에 시작하였고, 2011년 1월에는 <Semantic Annotation Framework>를 구축하였는데, 과제의 책임자 네덜란드 Tilburg University의 Harry Bunt 교수를 비롯한 각국의 연구자들은 대화 행위 규약을 체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sup>6)</sup> 여기서 대화 행위(Dialogue act)란, 특정 의사소통 기능과 의미 내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는 대화 참여자의 의사소통 행위의 견본인데, 대화적 행위에 관한 대상, 관계, 행위, 명제의 명세를 통해 파악 가능한 의미 내용(semantic content)과 더불어 대화상대자(addressee)의 정보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어떻게 의도하는지에 대한 명세인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이 대화 행위 내에 포함된다.

이중 화행은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 목적의 의사소통 기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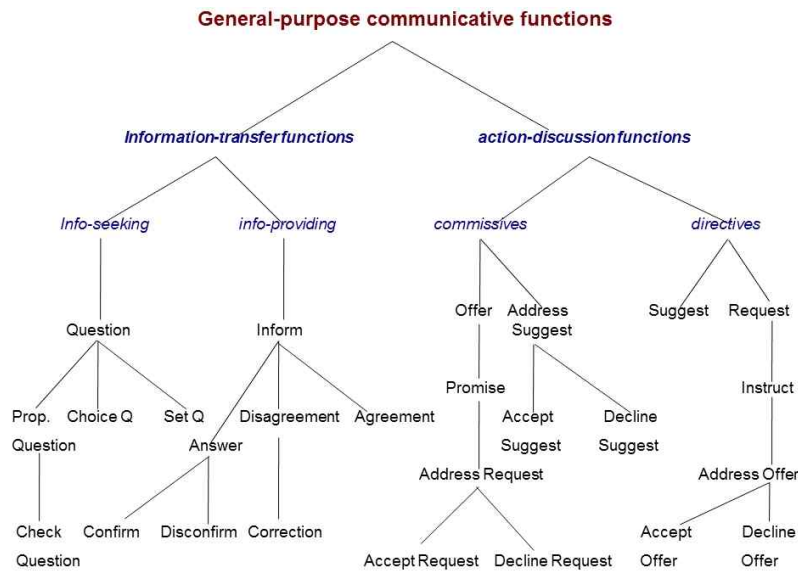
5) Leech & Weisser(2013:16)에서 제시한 화행 범주에 어떤 화행이 속하는지 연구자가 편집하여 나타낸 그림은 아래와 같다.



6) 각국 연구자 정보는 이 동은(2016: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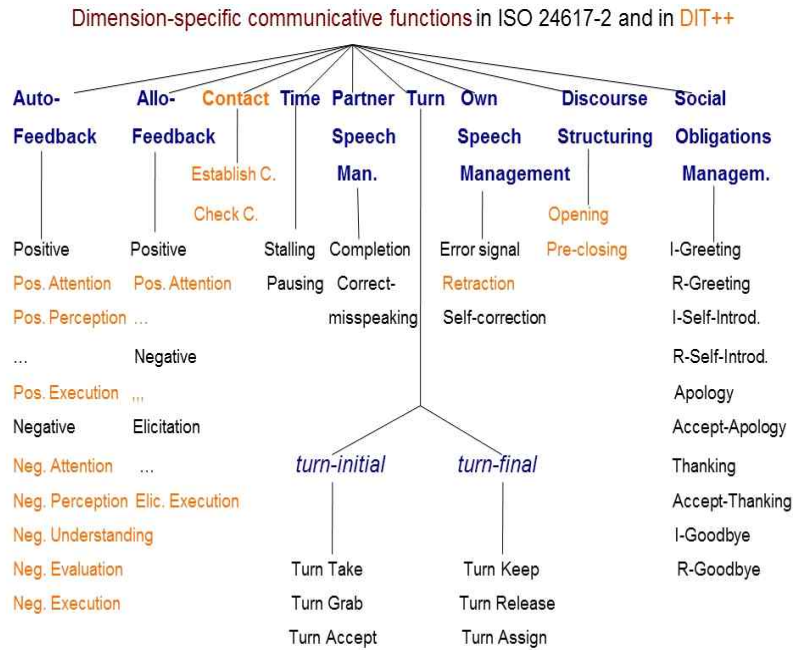
차원-특수적 의사소통 기능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일반적 목적의 의사소통 기능은 정보전이 기능과 행위토론 기능으로 분류되는데, 정보전이 기능은 다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제공하기로 나뉜다. 정보 요청하기는 질문하기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곧 명제 질문과 선택 질문, 가부 질문으로 구분되며 명제 질문에는 확인 질문도 포함된다. 그런가 하면, 정보 제공하기는 정보 주기 혹은 알리기의 기능을 말하는데, 이는 응답, 불일치, 일치로 나뉜다. 또한 응답은 승인과 거절로, 불일치는 교정으로 수행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목적의 또 다른 의사소통 기능 범주인 행위토론 기능은 위임하기와 명령하기로 나뉜다. 위임하기는 제공하기와 제안 해결하기로 나뉘는데, 제공하기는 약속하기와 요청 해결하기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요청 수락하기와 요청 거절하기로 구분된다. 한편, 명령하기는 제안하기와 요청하기 기능을 포함하며, 요청하기는 다시 지시하기로 이어지며, 지시하기는 제공 수락하기와 제공 거절하기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는 Bunt(2011)에서 유래한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으로, 차원-특수적 의사소통 기능은 자기 피드백, 상대 피드백, 접촉, 시간, 대화상대자 발화 관리, 말차례, 자기 발화 관리, 담화 구조화, 사회적 의무 관리로 나뉜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반적 의사소통 기능보다 더 대화의 상호작용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말차례 및 자기와 상대의 발화를 운영하는 것과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피드백과 접촉과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기대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발화 행위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대화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실마리

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분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Bunt, 2011:S40).



아직 이러한 체계가 한국어의 화행에도 부합하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 없으나 일반적인 화행을 넓은 범위로 담아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에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이 한국어의 화행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순서다. 먼저, 전사된 내국인의 구어 말뭉치에서 견본을 뽑아 주석을 달아 보는 것이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한국어의 상황에 맞는 주석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 학습자 구어 말뭉치에 적용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한국어 화행에 나타나는 차이를 찾아내고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화용론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대화 행위 주석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먼저 실험적으로 대화 행위 주석 체계를 마련하고, 그것의 실용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 3. 한국어 학습자의 대화 행위 주석을 위한 단계적 모색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 구축을 위해서는 2016년 적용을 위해 발표된 전사지침(강 현화 외, 2015)을 근간으로 담화 정보를 주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즉, 한국어 학습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

정보가 구현 가능하도록 담화화용 주석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Leech(1997a: 12~13)에서는 말뭉치 구축을 위한 8단계의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철자, 음성·음운, 운율, 품사(품사 태깅), 통사(부분적 파싱), 의미, 담화, 화용·문체 수준으로 주석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 주석은 형태·통사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한 주석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의미 주석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어 담화 연구들<sup>7)</sup>을 보면 주석을 달 때 경우에 따라 의미를 쓰거나 문법적 기능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에”를 쓰면 영어로 의미를 번역하여 ‘to’라고 쓰거나, 형태가 가지는 문법적 기능을 가리키는 ‘locative particle’, 혹은 줄여서 ‘loc’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자체를 세우기가 모호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의미 위주로 표기하는 것이 파악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Yale 시스템의 로마자 표기, 형태소 분석, 한국어 원문, 영어 번역을 차례로 붙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21세기 세종 계획의 개선 방향에 대한 학계의 재검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 재웅(1999)<sup>8)</sup>에서는 담화분석과 언어정보학의 관련성과 그 형식화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이 있었다. 속뜻을 파악하여 화행을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때 속뜻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가의 문제에 주목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화행이 대화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하며 대화에서의 화행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런가 하면, 서 상규·구 현정(2002:299-323)에서도 정밀 전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담화 정보 말뭉치 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말뭉치 구축의 사례를 소개하고, 담화 주석 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에도 이제 담화와 화용 정보 주석을 어떻게 달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3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험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3.1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살펴 한국어 학습자들이 목표로 해야 하는 의사소통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것이 담화 화용 주석 체계 마련에 주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3.2에서는 선행연구와 3.1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대화 행위 주석의 체계를 한국어 교육 분야 초보 연구자 두 명에게 주고 주어진 말뭉치의 화행을 파악하여 수기로 주석 작업을 해 보게 한 후, 이 과정에서 얻은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7) Kim(2013)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값-과 -거든의 사용 양상을 통해 상호작용 언어능력의 발달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전사지침은 Jefferson(1984)을, 행간 주석으로는 Lee Hyo-Sang(1991)을 대체로 따라서 FR (Factual Realization), HEARSAY (Hearsay marker) 등을 제시하였다.

8) 1999년 4월 24일 연세대학교 특강 자료를 참고한 것임.

### 3.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0~2011)에서의 기능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에서는 교육과정에 포함될 기능 목록을 추출하고 등급화를 실시한 바 있다. 이때의 기능은 의사소통 기능을 이야기하며, 이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과제를 포함하는 상위 범주로 보았다. 의사소통이 전체 담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면 의사소통 기능은 결국 담화 화용에서의 기능으로 연결 가능하다. 또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은 표준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그것이 교육 환경이나 대상, 학습 목적에 따라 변형·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참조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김 중섭 외, 2010:9). 이에 따라 국제 통용에서 설정된 기능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교육되어지는 담화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겠다.

김 중섭 외(2011:61-65)에서 발표한 국제 통용 표준 모형 2단계 연구 결과에서는 van EK(1980)과 Finocchiaro & Brumfit(1983)의 의사소통 기능 목록을 기준으로 한국어 교재 6종에 나타난 기능 항목을 추출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7등급의 교육과정에 맞춰 등급화하였는데, 최종 90개의 기능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번호	기능	등급 판정							번호	기능	등급 판정							번호	기능	등급 판정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감사하기								31	분석하기								61	제기하기								
2	감상하기								32	불만표현하기								62	제안하기								
3	감정 표현하기								33	비교하기								63	조언하기/구하기								
4	감조하기								34	사과/사죄하기								64	주문하기								
5	거절하기								35	상당하기								65	주의주기/주의함								
6	걱정하기								36	서술하기								66	주장하기								
7	격려하기								37	설득하기								67	지시하기								
8	격고하기								38	설명하기								68	진술하기								
9	계획하기								39	소개하기								69	찬성하기								
10	고향하기								40	심정도로하기								70	참가하기								
11	구대하기								41	안내하기								71	초대하기								
12	권유하기								42	약속하기								72	추천하기								
13	금지하기								43	알보하기								73	추천하기								
14	기술하기								44	예측하기								74	추측하기								
15	논증하기								45	요구하기								75	속상하기								
16	논평하기								46	요약하기								76	충고하기								
17	대조하기								47	요청하기								77	허소하기								
18	통의하기/구하기								48	위로하기								78	침찬하기								
19	대모하기								49	의지 표현하기								79	드문하기								
20	명령하기								50	인사하기								80	토의하기								
21	모사하기								51	자랑하기								81	평가하기								
22	문의하기								52	재구성하기								82	핑계대기								
23	물고 답하기								53	전달하기								83	해결하기								
24	반대하기								54	전달하기								84	해설하기								
25	반박하기								55	전환하기								85	해락하기/구하기								
26	발표하기								56	전환하기								86	허용하기								
27	변명하기								57	정보구하기								87	호소하기								
28	보고하기								58	질의하기								88	확인하기								
29	부정하기								59	정정하기								89	후회표현하기								
30	부탁하기								60	체결하기								90	희망표현하기								

표. 기능 등급화

국제 통용에서는 전체 담화 단위를 기준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를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표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작게는 인사하기, 감사하기, 정보 구하기와 같은 미시적 화행 수준의 기능들부터 크게는 발표하기, 논증하기, 재구성하기, 토론하기와 같은 전체 담화 수준의 기능들까지 한국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다른 미시 기능들의 합이 담화 단위의 기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발표하기의 경우, 인사하기, 설명하기, 전망하기, 평가하기 등의 여러 미시 기능들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담화 단위의 거시 기능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담화 단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미시 기능들의 학습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를 분석하는 대화 행위 주석 체계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므로 전사된 말뭉치의 발화 단위 하나하나에 부착될 미시적 수준의 화행 기능의 명세와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통용에 포함된 거시 담화 수준의 기능들은 이번의 실험적 주석 체계에 반영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담화 수준에서도 해당 담화가 가지는 기능에 대한 주석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때 이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들을 미시 수준에서 거시 수준으로 분류해 보고 거시 담화가 가지는 기능들을 주석화 할 방안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직까지 기능들의 층위와 수준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국제 통용의 기능 목록은 추후에 반영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우선 앞에서 소개한 ISO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간략한 주석 체계를 만들어 보고 실제 주석 작업을 실시하였을 때 어떠한 함의를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 3.2. 한국어 학습자 대화 행위 주석의 실험적 체계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 중 어떠한 발화를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담화 내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습자 구어 말뭉치에서 그들의 대화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장치를 본고에서는 대화 행위 주석이라고 보았으며, 전사된 말뭉치에 부착할 대화 행위 주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여겼다.

그동안 한국어의 화행 주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학 분야의 연구들에서 언어학보다 한발 앞서 한국어 화행을 기계적으로 분석 및 처리하고자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up>9)</sup> 하지만 화행 체계 및 분류에 대한 언어학적 고민은 부족하며, 주로 기계적 처리에 대한 실험적 연구들이 주를

9) 이 현정 외(1998), 은 중민 외(2005), 김 민정 외(2006), 김 민정 외(2008), 김 세종 외(2008), 김 동준 외(2015), 송 남훈 외(2016) 등 참조.

이론다. 따라서 언어학적으로 아직 설득력 있는 화행 분류 체계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ISO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의 주석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모의 주석 체계를 만들어 보았다. ISO의 체계가 상세하고 치밀하지만 주석의 구분이 지나치게 세밀할 경우 기계적 처리 도구 및 방안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것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구성한 모의 주석 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화 행위 모의 주석 체계	
<b>정보 요청</b> <QWH> - 명제 질문 <QYN> - 판정 질문 <QCHE> - 확인 질문 <QCHO> - 선택 질문	<b>정보 제공</b> <INFO> - 정보 주기 <ANS> - 응답하기 <AGR> - 동의하기 <DISAGR> - 반대하기
<b>행위 토론</b> <OFF> - 행위 제공하기, 약속하기 <SUG> - 제안하기 <REQ> - 요청하기 <IMP> - 명령, 지시하기	
<b>피드백</b> <FBPOS> - 주의집중, 이해, 인지 등을 보여주는 긍정적 반응 <FBNEG> - 주의집중, 이해, 인지 실패를 보여주는 부정적 반응	

우선 ISO의 일반적 목적의 의사소통 기능에서 상위 범주에 있는 기능들을 먼저 주석 체계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 요청을 위한 질문으로 명제 질문, 판정 질문, 선택 질문, 확인 질문이 설정되었고, 정보 제공을 위한 진술로 정보 주기, 응답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가 설정되었다. 또한 행위 토론을 위한 기능으로 행위 제공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명령이나 지시하기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ISO의 차원-특수적 의사소통 기능 중에서는 대화 내용에 대한 상호주관성 유지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피드백 영역만 우선적으로 주석 체계로 반영해 보았다. 접촉과 시간, 말차례, 자신 및 상대의 발화 관리 기능과 담화의 구조화, 그리고 사회적 의무 관리 기능 역시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화 내용 차원보다는 대화 형식의 관리 차원의 기능이 더 강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주석 체계를 마련하여 실험적 주석 작업을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대화 행위 중에서도 형식 관리 차원보다는 발화 '내용'에 초점을 두고 표현된 의미가 가지는 기능을 먼저 살피도록 한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으로 단순화하여 총 14개의 주석을 만들어 보았다.

다음으로, 21세기 세종 구어 말뭉치 중 일상 대화 원시 말뭉치 파일(7214 어절)을 하나 선택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의 초보 연구자 두 명에게 수기로 대화 행위 주석 작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였다. 이들 중 참여자A는 말뭉치와 주석 작업을 그동안 몇 번 해 본 적이 있으나 담화 기능 차원에서 주석을 달아본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참여자B는 말뭉치와 주석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 애초에 경험적 차이를 가지는 참여자 둘을 섭외한 이유는 말뭉치 주석 작업 경험 유무에 따라 작업의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달라질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둘의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먼저 작업 시간 면에서 참여자A는 약 4시간이 걸렸다고 보고했고, 참여자B는 4시간 48분이 걸렸다고 보고하였는데, 경험자인 A가 더 짧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또한 판단 오류 혹은 실수도 두 참여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정확성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작업 중 의문 사항으로 제기한 것들 중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주석 체계 개발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부분들도 나타났다. 실험적 작업 결과와 참여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총 6가지 정도로 본고에서 설정한 모의 주석 체계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하나의 발화 단위 내에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와 같은 경우에 두 참여자의 주석이 엇갈렸는데 이는 한 발화 단위에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날 때 어디에 주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1

<u who=P1><s n=00014>언제까지 하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s></u>

A: <QYN> B: <QWH>

예2

<s n=00063>어~ 오빠 잠깐만 나 전화 왔거든 잠깐만::.</s></u>

A: <REQ> B: <INFO>

예1에서 A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에 초점을 두고 판정 질문으로 분석하였고 B는 “언제까지 하나”에 초점을 두고 명제 질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예2에서 A는 “잠깐만”에 초점을 두고 요청으로 분석하였고 B는 “나 전화 왔거든”에 초점을 두고 정보 주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엇갈린 분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전사된 자료는 아무리 마크업이 되어 있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하지만

음성을 듣고 주석 작업을 하는 것은 개인 연구자에게는 시간 대비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하나의 발화 내에서도 단위를 나눠서 ‘언제까지 하나<QWH>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QYN>’와 같이 중복 주석을 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 발화 단위에서도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발화 단위가 끊어져 전사되었을 때, 앞 발화와 뒷 발화의 기능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래의 예에서 그러한 경우 두 참여자의 주석이 엇갈린 것이 확인된다.

예3

<u who=P1><s n=00014>언제까지 하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s></u>

A: <QYN> B: <QWH>

<s n=00015><pause dur=1.5></s>

<u who=P2><s n=00016>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해도 되고::,</s></u>

A, B: <ANS>

<u who=P1><s n=00017>응.</s></u>

A: <FBPOS> B: <ANS>

<u who=P2><s n=00018>안 해도 되고.</s>

A: <ANS> B: <INFO>

<s n=00019>중간에 그만 뒤도 되고,</s></u>

A: <ANS> B: <INFO>

예3을 보면 P1의 질문에 대해 P2의 대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A는 모두 대답으로 보았고, B는 처음만 대답으로 보고 나머지는 정보 주기로 판단하였다. 발화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담화 단위 전체를 본다면 여기서 A의 판단이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응답 내용이 결국 정보 주기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B의 판단도 틀리지 않다. 이 경우에도 역시 중복 주석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출된다. 발화 길이가 긴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자주 생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석을 학습자 말뭉치에 적용할 경우 학습자의 담화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발화 단위가 가지는 세부적인 기능들을 중복해서라도 모두 달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의 체계로는 인사나 감사, 전화 응답 관용구, 느낌이나 의견 표현, 감탄사 등에 대한 주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예4

<u who=P2><s n=00062>네 국문팝니다::.</s>

A: <INFO> B: 판정 불가

예5

<u who=P2><s n=00060><anchor synch=T1>웁::스,<anchor synch=T2> </s></u>

A, B: 판정 불가

예6

<u who=P2><s n=00053>우리 답사 갔을 때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s></u>

A: <INFO> B: <FBPOS>

먼저 예4는 전화 응답의 관용구인데, 이 경우 A는 정보주기로, B는 판정이 불가하다고 표시하였다. 그리고 예5는 놀람의 감탄사로 두 사람 모두 판정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또 예6은 의견을 표현하는 기능인데, A는 정보주기로, B는 긍정 피드백으로 판단하였는데 둘 중 어느 쪽도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예4의 경우, ISO의 기능에서 본 연구의 모의 주석 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회적 의무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사회적 의무 관리 기능에는 인사와 감사, 감사 수용, 자기소개, 사과, 사과 수용 등이 포함되는데, 전화 응답의 관용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또한 앞서 잠시 검토하였던 Leech & Weisser(2013)에서도 인사와 감사 등은 인간관계 관리 기능으로 설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인사와 단순한 감사 및 사과 표현들을 모아 ‘사회적 의무 관리’ 혹은 ‘인간관계 관리’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가 하면, 예5와 예6은 느낌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보를 주는 것과는 관계가 멀다. 그런데 ISO의 체계 내에서는 이들을 어디로 분류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Holmes(1992:8~12)는 감정과 기분 표현에 있어서 참조적(Referential) 기능과 친밀한(Affectionate) 기능을 구분하였는데, 참조적 기능은 뒷담화(gossip)처럼 정보를 포함하지만 기분을 드러내는 경우, 친밀한 기능은 이웃끼리 나누는 정담처럼 정보보다는 좀 더 기분이나 느낌을 드러내는 경우라고 하였다. 후자의 친밀한 기능의 경우가 느낌이나 의견 표현을 나타내는 기능 범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데, Leech & Weisser(2013)에서도 ‘표현적(expressive)’ 기능 아래 외치기(exclaim), 의견·가능성·후회·바람 표현하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범주를 참조하여 느낌과 감정, 의견 등을 표현하는 기능에 대한 주석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정보주기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참여자들은 감정이나 의견 표현에 대한 주석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이들까지도 대부분 정보주기로 주석을 달게 된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역시 참여자들이 제공한 의견으로, 응답과 정보주기, 응답과 긍정피드백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예7

<u who=P1><s n=00047>그러냐?</s></u>

A, B: <QCHE>

<u who=P2><s n=00048>어.</s>

A, B: <ANS>

<s n=00049>와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s></u>

A, B: <QWH>

<u who=P1><s n=00050>응?</s></u>

A: <ANS> B: <QCHE>

<u who=P2><s n=00051>언어:.,</s></u>

A: <INFO> B: <ANS>

<u who=P1><s n=00052>언어 정보 개발 연구원.</s></u>

A, B: <INFO>

예7을 보면, P2가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라고 물은 데 대해 P1이 “응?” 하고 되물었고, P2가 다시 “언어”라고 하며 단서를 제공하였더니 P1이 “언어 정보 개발 연구원”이라고 명확히 응답한다. 여기서 마지막 두 줄의 경우 응답과 정보주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중복 주석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응답이면서 정보주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경우, 중복 주석을 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기상 그것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어”, “응”, “음” 등은 두 참여자가 매우 엇갈리게 주석을 단 항목 중 하나인데, 맥락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로 판단 가능한 경우와 둘 다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판정 질문이 끝난 뒤 따라오는 “어”나 “응” 등은 응답으로, 앞 발화가 질문이 아닌데도 이러한 발화가 등장하면 호응의 표지로 긍정피드백을 달아줄 수도 있겠다.

마지막 여섯째는 두 참여자 모두 부정피드백을 인지 및 이해 불가의 표지로 보고 주석을 달지 않고 앞 발화 내용에 대한 부정적 호응으로 오해하고 주석을 달았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에 앞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로써 주석 작업을 하기 전에 분명한 사전 교육과 모의 연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 4. 나오기

이 글은 한국어 구어 담화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담화 주석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대화 행위 주석 체계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들을 검토하여, 한국어의 대화 행위 주석의 모형을 제시하고, 모의 주석을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주석 체계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규모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기초 연구와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차제에, 타당성 있는 대화 행위 주석 체계를 수립하고, 2016년부터 이루어질 구어 자료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 능력을 규명하고, 교수·학습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은 문제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억양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행 의미를 판단하는 데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는 지면의 제약과 더욱 복잡해지는 주석체계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후속 연구로 돌리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다차원적이고도 역동적인 담화 의미에 대한 탐구에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며, 더불어 합리적인 차원의 대화 행위 주석 체계를 향한 고민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 구어 말뭉치의 구축 등의 과제 적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어 담화분석과 한국어교육학의 국제적 소통이 증진되는 데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참고 문헌〉

- 강 현화·김 선정·김 일환·김 정숙·안 경화·이 동은·이 정희·한 송화·황 용주. 2015. 201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기초 연구 및 구축 사업. 국립국어원.
- 김 중섭 외. 201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
- 서 상규·구 현정(공편). 2002. 『한국어 구어 연구(1)-구어 전사 말뭉치와 그 활용-』. 한국문화사.
- 서 상규 외. 2010.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설계. 국립국어원과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유 석훈. 2001.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과 자료 분석,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165-179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 동은. 2002. 한국어 평가담화의 특징-한국어교사들의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3권 2호, 181-204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 동은. 2008.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화용 능력 고찰-영어권 교포학습자와 비교포학습자의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9권 3호, 295-320쪽.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이 동은. 2016. 한국어 구어 담화 연구를 위한 전사와 주석에 대한 논의, 『언어학』 제 74호, 71-91쪽. (사)한국언어학회.
- 정 금미. 2011. 대화에서의 공손과 불손전략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 논문.
- 진 제희. 2000.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분류 및 분석-비상호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175-199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 재웅. 2014. 말뭉치와 언어연구: 외국의 사례와 경향, 『한국어학』 제63호, 71-102 쪽. 한국어학회.
- Alexandersson J, Buschbeck-Wolf B, Fujinami T, Maier E, Reithinger N, Schmitz B and Siegel M.(1997). Dialogue Acts in VERBMOBIL-2. VM-Report 204, DFKI GmbH, University of Saarbrücken.
- Allen, J. and Core M.(1997). Draft of DAMSL: Dialog Act Markup in Several Layers.
- Blum-Kulka, House, & Casper(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 Carletta J C, Isard A, Isard S, Kowtko J, Doherty-Sneddon G, Anderson A. (1995). The coding of dialogue structure in a corpus. In J. A. Andernach, S. P. van de Burgt, & G. F. van der Hoeven (Eds.), *Proceedings of the Twente Workshop on Language Technology: corpus-based approaches to dialogue modelling*. Universiteit Twente, Enschede, The Netherlands.
- Chapelle, A. Carol(ed.)(2013),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Wiley Blackwell, pp. 5902~5913.
- Egbert, M. Yufu, M., & Hirataka, F.(2016), An Investigation of how 100articles in the Journal of Pragmatics treat transcripts of English and non-English languages, *Journal of Pragmatics* 94 (2016) pp. 98~111.
- Harry Bunt(2011), Multidimensional Dialogue Act Annotation Using ISO 24617-2, IJCNLP 2011 Tutorial November 8, Chiang Mai.
- Kim, Eun Ho(2013), Development of Interactional Competence in L2 Korean: The Use of Korean Interpersonal Modal Endings -canh- and -ketun, Doctoral's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 Lee, Kiyong(2014), ISO Standards on Language Resources, Manuscripts.
- Leech, G. (1997a), Introducing Corpus Annotation, in R. Garside, G. Leech and A. McEnery(eds), *Corpus Annotation*, pp. 1-18, London: Longman.
- Leech, G., & Weisser, M. (2003). Generic speech act annotation for task-oriented dialogues. In Procs. of the 2003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pp. 441Y 446. Centre for Computer Corpus Research on Language Technical Papers, Lancaster University.
- Leech, G., & Weisser, M. (2013). The SPAADIA Annotation Scheme.
- Lewis, M. Paul, Simons, Gary F., Fenning, Charles D.(Eds.), (2015),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8<sup>th</sup> ed. SIL International Dallas, Texas. <http://www.ethnologue.com>.

Weisser, M. (2003). SPAACy — a semi-automated tool for annotating dialogue 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8(1).

Yoon, Sang-Seok & Lee, Dong-Eun(2012),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Conversations at Korean Homes, *한국어학* 56, pp 149-181.



## 제2부 연구 발표

국어 전통문법에서의 의미 연구 —용언 범주를 중심으로— / 남 경완

연기된 지시의 유형과 용법 / 김 진웅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 송 현주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 ~ 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2부 연구 발표

## 국어 전통문법에서의 의미 연구 - 용언 범주를 중심으로 -

남 경완

창원대학교 교수  
namkw@changwon.ac.kr

### 1. 서론

본 발표문의 목적은 개화기 전통문법 시기의 문법서들에 나타난 국어 의미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19세기 말부터 싹트기 시작한 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음운, 단어, 문장의 3분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되고 있다. 즉, 국어의 문자와 음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단어의 부류를 나누어 설명하는 품사론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론의 순서로 기술한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이에 반해 현대적 관점에서의 국어 의미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제시된 문법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의미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지도 않았고, 독립적 체계를 갖추어 서술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없었다고 해서 초기 국어문법학자들이 국어의 의미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다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설명할 때, 특히 품사의 하위분류를 기술할 때에 다양한 의미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나아가 조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각 요소의 의미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또한 문장의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필

연적으로 의미적 요소가 개입됨을 서술하는 부분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우선 국어 용언을 대상으로 전통문법 초기의 의미 연구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품사론의 영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하는 용언의 영역이고, 용언은 다시금 문장에서 서술부를 구성하므로 자연스럽게 문장론의 영역과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전통문법의 내용을 살핀 연구는 주로 형태론적 관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었다. 즉, 전통문법 시기 각 문법서에서 품사론과 조어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당시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가 후대 학자들이 전통문법의 내용을 살피는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다.

반면 현대적 관점에서 국어의 의미와 관련된 기술이 전통문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나마 국어의 문법 현상에 대해 전통문법 시기에 이미 의미적 관점의 분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 부분은 문장론의 영역이다. 특히, 주 시경(1910)에서 제시된 짚뚱갈의 구문 도해와 문장 의미 해석은 의미적, 화용적 기술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sup>2)</sup>

그러나 전통문법 시기의 여러 문법서에는 문장론에서뿐만 아니라 품사론에서도 여러 항목에 걸쳐 의미적 기술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가. 假令 「그 말 가져오느라」 하면 아모 말이나 가져오라 하는 거시 아니오 言者聽者가 己爲見 ㅎ엿거나 言論 ㅎ엿거나 知了 ㅎ는 特別 ㅎ 말 가져오라 ㅎ는 거시라. (김 규식 1909:27)
- 나. 假令 「한 사람이 오날 왔쇼」 하면 엿더 ㅎ 사람이던지 하느이 온 거시오 特別 ㅎ 사람이 온 거시 아니라 (김 규식 1909:27)
- (2) 假令 「물 먹고 십쇼」 하면 「먹고」와 「십쇼」 兩個 動詞가 먹다, 십다 二 思意를 發表 ㅎ는 거시 아니오 「먹고십다」가 一 動詞實力을 顯 ㅎ고.. (김 규식 1909:20)

위 (1)은 김 규식(1909)에서 지시대명사적형용사 ‘그’와 수량적형용사 ‘ㅎ’의 용법을 제시한 것인데, 이 때 ‘그’는 ‘某的을 擧論 ㅎ 時에 言者, 聽者가 己爲知

1) 전통문법 시기에 이루어진 국어 의미 연구에 대해서는 각 단위별 분석, 주제별 분석과 함께 시대별 분석, 학자별 분석 등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표는 그 가운데 품사론의 용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출발점이다.

2) 고 영근(2001:68)에서는 “주시경의 문법이론 중에서 단연코 빛나는 것은 의미론과 화용론에 기반을 둔 문법이론의 전개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了하는바 特別的을 指名하는 것'으로, '흔'은 '某的을 舉論할 時에 特別한 것을 指目지 아니하고 某的의 等級中 아모거시던지 不定한 「一」을 論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그'와 '흔'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화자(즉, 言者)와 청자라는 화용적인 상황까지 포함하여 설명한 것이다. 또한 (2)의 경우에도 김 규식(1909)에서는 '助動詞가 原動詞와 連合된 時에는 其 兩個動詞가 二 思意를 各各 發表하는 것이 아니요, 一個動詞실력으로 顯'함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의미적 결합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품사론의 영역에서 각 품사의 개념과 범위를 한정하거나 각각의 하위분류를 제시할 때, 또는 각 품사별 실제 용법에서의 형태적, 통사적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미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덧붙여지는 예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 국어 용언의 경우에는 그것의 범주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부터 형태론적 파생 과정에서의 의미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비록 기초적인 사항들일지라도 의미적 접근의 분석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전통문법 시기의 의미 연구에서 우선 용언의 범주에 주목하여 논의를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초기 국어 문법서의 범위는 일단 19세기 말부터 대략 1920년대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는 대체로 고 영근(2001)에서 제시한 제1기에 해당하며,<sup>3)</sup> 이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 (3) 1920년대까지의 문법서 목록

- ① 유길준. 1909. 「大韓文典」(「歷代韓國文法大系」 ①-1책-1호 재록)
- ②-1 주시경. 1910. 「국어문법」(「歷代韓國文法大系」 ①-4책-11호 재록)
- ②-2 주시경. 1913. 「조선어문법」(「歷代韓國文法大系」 ①-4책-12호 재록)
- ③-1 金奎植. 1909. 油印 「대한문법」(「歷代韓國文法大系」 ①-5책-14호 재록)
- ③-2 金奎植. 1912. 油印 「조선문법」(「歷代韓國文法大系」 ①-5책-15호 재록)
- ④-1 金熙祥. 1909. 「初等國語語典(卷2)」(「歷代韓國文法大系」 ①-6책-17호 재록)
- ④-2 金熙祥. 1911. 「朝鮮語典」(「歷代韓國文法大系」 ①-7책-19호 재록)

3) 개화기 이후 국어 전통문법의 시기의 시대 구분은 선행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김 민수(1980)에서는 1894년~1945년을 '近代國語學'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開化期의 國文研究(1894~1919)'와 '抵抗期의 母語研究(1919~1945)' 두 시기로 나누었다. 이후 1945년~1959년을 '現代初期'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解放後의 國語研究(1945~1950)'와 '事變後의 國語研究(1950~1959)'으로 나누었다. 고 영근(2001)에서는 1897년~1975년을 제1기(1897~1933) '언문수리(言文修理)를 위한 국어연구', 제2기(1934~1963) '규범문법의 확립과 역사문법의 연구', 제3기(1964~1974) '본격적 한 국어문법연구'의 세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

4)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초기 전통문법서는 동일한 저자가 기술한 이본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 저술 초판본의 내용을 인용한다. 다만, 초판본에는 없던 내용이 이후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술을 인용하였다.

- ④-3 金熙祥. 1927. 「울이글들」(「歷代韓國文法大系」 ①-7책-21호 재록)
- ⑤-1 김두봉. 1916. 「조선말본」(「歷代韓國文法大系」 ①-8책-22호 재록)
- ⑤-2 김두봉. 1922. 「깎더조선말본」(「歷代韓國文法大系」 ①-8책-23호 재록)
- ⑥ 南宮憶. 1913. 筆寫「조선문법」(「歷代韓國文法大系」 ①-9책-24호 재록)
- ⑦ 安自山. 1923. 「修正 朝鮮文法」(「歷代韓國文法大系」 ①-9책-26호 재록)
- ⑧ 李奎榮. 1920. 「現今 朝鮮文典」(「歷代韓國文法大系」 ①-10책-27호 재록)
- ⑨ 金元祐. 1922. 「朝鮮正音文典」(「歷代韓國文法大系」 ①-10책-28호 재록)
- ⑩ 李奎昉. 1922. 「新撰 朝鮮語法」(「歷代韓國文法大系」 ①-10책-29호 재록)
- ⑪-1 姜邁·金鎮浩 編. 1925. 「잘뽑은 조선말과글의본」(「歷代韓國文法大系」 ①-11책-31호 재록)
- ⑪-2 朝鮮語研究會 編. 1930. 「精選朝鮮語文法」(「歷代韓國文法大系」 ①-12책-32호 재록)
- ⑪-3 姜邁. 1932. 「精選朝鮮語文法」(「歷代韓國文法大系」 ①-12책-33호 재록)
- ⑫-1 李弼秀. 1922. 「鮮文通解」(「歷代韓國文法大系」 ①-13책-34호 재록)
- ⑫-2 리필수. 1923. 「정음문전」(「歷代韓國文法大系」 ①-13책-35호 재록)
- ⑬-1 李常春. 1925. 「朝鮮語文法」(「歷代韓國文法大系」 ①-14책-36호 재록)
- ⑬-2 이상춘. 1925. 「국어 문법」(「歷代韓國文法大系」 ①-14책-36호 재록)
- ⑭-1 洪起文. 1927. 「朝鮮文典要領」(「歷代韓國文法大系」 ①-15책-38호 재록)
- ⑭-2 洪起文. 1947. 「朝鮮文法研究」(「歷代韓國文法大系」 ①-15책-39호 재록)
- ⑮ 李完應. 1929. 「(中等教科)朝鮮語文典」(「歷代韓國文法大系」 ①-16책-40호 재록)
- ⑯-1 李秉岐. 1929. 「朝鮮文法講話」(「歷代韓國文法大系」 ①-16책-41호 재록)
- ⑯-2 李秉岐. 1933. 「朝鮮語講話」(「歷代韓國文法大系」 ①-16책-42호 재록)

### 3. 용언 대상의 의미 연구 내용

#### 3.1. ‘형용’의 개념과 범위

우선 용언의 하위분류 중 형용사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어에서 형용사가 가지는 기능과 의미의 두 요소가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형용사’의 정의

- 가. 名詞의 形狀 及 性質을 發現하는 語 (유 길준 1909:65)
- 나. 여러가지 엇더함을 이르는 씨 (주 시경 1913:29)
- 다. 名詞의 前이나 後에 處在하여 其名詞로 發表한 物의 性質이나 資品이나 形像이나 大小나 容積을 描言하는 詞字 (김 규식 1909:23)
- 라. 事物의 形容을 뜻하는 말 (김 희상 1927:3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용사에 대한 개념 정의는 현대 국어문법에서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초기 전통문법에서 형용사를 하위분류하는 기준은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과 기능적 용법이 거의 대등하게 제시된다. 즉, ‘形狀, 性質, 엇더함, 資品, 大小, 容積’ 등의 개념은 이후 형용사를 하위분류하는 때에 의미적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이와 함께 형용사의 용법상 차이에 따른 기능적 분류가 먼저 제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김 규식(1909)에서 ‘名詞의 前이나 後에 處在호야’와 같이 형용사가 출현하는 위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처럼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 따라 일차적으로 형용사를 분류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5) 김 규식(1909:22)의 형용사 첫 번째 분류

形容詞의 實力이 有二호니,

(일)은 純全히 形容호는 것이니 每樣 各 名詞 前에 單純호 形容詞를 用호는 것이라

예) 새 집, 도흔 옷, 푸른 나무

(이)는 描言호야 說明호는 것이니 每樣 形動詞로 變體가 되던지 同格名詞나 代名詞를 要호는니

예) 이 집이 식롭다(형동사)

예) 이 집이 식집이다. (동격동사 → 1912 說明主格名詞)

예) 이 옷이 도흔 것이다. (동격대명사 → 1912 說明主格代名詞)

이와 같이 비록 형용사를 설명하는 첫 부분의 정의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형용사가 사용되는 용법상의 차이를 구분하는 태도는 다른 문법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령, 유 길준(1909)에서는 이를 ‘前置形容詞’와 ‘後置形容詞’로, 김 희상(1927)에서는 ‘冠置形容詞’와 ‘後置形容詞’로 제시한 바 있다.

초기 전통문법에서 형용사에 대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을 기본적인 것으로 판단한 태도는 물론 당시 영어 문법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西遊見聞」의 저자 유 길준이나 H. G. Underwood의 비서였던 김 규식의<sup>5)</sup> 이력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용법을 기본으로 삼고, 영어와 달리 그 자체로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국어 형용사의 용법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초기 문법서들이 비록 형용사 설정에 있어서 영어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는 듯하다. 학자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시대별로 변화의 흐름을 찾아볼 수도 있기

5) 김 민수·고 영근 편(2008), 「歷代韓國文法大系」(2판)의 해설에 따르면 ‘김 규식(1909)는 영어문법을 바탕으로 하되 맹목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문법구조를 해명하려는 창의성이 엿보인다’라고 하였다.

때문이다. 물론 거의 모든 문법서에서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높은 산’)과 서술적 용법(‘산이 높다’)이 모두 제시되기는 하지만, 어떤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우선 형용사의 정의를 제시하는 첫 부분에서 어떤 형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세부 설명에서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측할 수 있다.

초기 전통문법에서 형용사의 예를 제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6) 형용사 장의 첫 부분에서 제시하는 형용사의 형태

가. 수식형만 제시 : 김 규식(1909,1912), 김 희상(1911), 이 필수(1922)

나. 수식형/서술형 모두 제시 : 유 길준(1909), 김 희상(1909), 남궁 역(1913), 김 원우(1922), 이 규방(1922), 강 매·김 진호(1925), 이 완응(1929)

다. 서술형만 제시 : 주 시경(1910), 김 두봉(1916), 김 희상(1927), 안 자산(1923), 이 규영(1920), 이 상춘(1925), 홍 기문(1927), 이 병기(1929)

형용사의 예를 제시할 때 ‘높은, 매운, 도흔, 붉은’ 등과 같이 수식형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은 유 길준(1909)에서부터 이 완응(1929)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견된다. 이와 같이 수식형의 형태를 앞에서 제시하게 되면 대체로 뒷부분에서 서술적 용법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가령 김 규식(1909)에서처럼 ‘描言<sub>하</sub>야 說明<sub>하</sub>는 것’으로, 김 희상(1911)에서처럼 ‘名詞나 代名詞의 下에 在<sub>하</sub>야 該 各詞를 返制限<sub>하</sub>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sup>6)</sup>

그러나 형용사의 기본형을 수식적 용법의 전치형용사에 국한시키는 것은 대체로 초기 문법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령 유 길준(1909)에서는 ‘높은’과 ‘높<sub>하</sub>어’를 모두 형용사의 예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後置形容詞는 助動詞(어)를 得<sub>하</sub>야 動詞體를 成<sub>하</sub>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 김 규식(1909)에서는 동사, 형용사와 별도로 ‘形動詞’를 설정한다. 이는 곧 ‘其題目語를 說明<sub>할</sub> 時에 同格動詞 「이다」와 形容詞를 並用<sub>하</sub>야 描言<sub>하</sub>는 것’으로서, ‘이집이 도타’에서 ‘도타’를 형용사 ‘도흔’과 동사 ‘이다’가 병합한 ‘形動詞’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은 형용사의 기본 형태를 수식형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형용사의 기본적인 예로 서술형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식형을 형용사의 변화나 쓰임의 차이에 따른 하위유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희상(1927)에서는 ‘형용사의 변화’ 가운데 ‘그 쓰이는 位置를 變<sub>하</sub>아 갈나이는 것’으

6) 유 길준(1909)에서 조동사의 결합으로 제시한 설명이나 김규식(1909)에서 제시한 행동사의 설정 등이 곧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로, 김 두봉(1916)에서는 ‘언의 쓰임(用)’에서 ‘풀이(說明語)’(크다), ‘딸림(從屬語)’(큰), ‘대임(關係語)’(크게)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두 관점은 문법서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일한 저자의 시대별 문법서에서도 나타나는데, 김희상의 경우 그 저작 순서에 따라 형용사의 기본형을 제시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점이 특이하다. 첫 번째 저작인 김 희상(1909)에서는 전치형용사와 후치형용사의 형태를 모두 제시하였으나, 이후 김 희상(1911)에서는 전치형용사의 형태만 제시한 반면, 김 희상(1927)에서는 어간의 형태로서 후치형용사의 형태만 제시하였다. 김 희상(1909)는 초등학생용 교재로서 매우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세부적인 하위분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부분에서 모든 형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김 희상(1911)과 김 희상(1927)은 그 시간적 차이에 따라 김 희상의 관점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김 희상(1911)과 김 희상(1927)은 공통적으로 형용사의 변화 부분에서 전치형용사(1927에서는 관치형용사)와 후치형용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형용사 편의 첫 부분에서 기본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은 전치형용사 형태에서 어간 형태만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한 셈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은 초기 전통문법에서 형용사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전치형용사 형태에서 후치형용사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식형을 기본적 형태로 인식한 것은 유 길준(1909), 김 규식(1909), 김 희상(1911) 등의 초기 문법서에 그친다. 반면, 주 시경(1910)은 처음부터 서술형만을 형용사의 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대부분의 문법서들이 서술형을 기본 예로 제시하고, 나아가 김 희상(1927), 이 병기(1929)에서와 같이 어간 형태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 3.2. 어휘 의미에 대한 인식

초기 전통문법서에서 용언 부분의 기술 순서는 대체적으로 ‘정의, 분류, 용법, 변화’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동사의 경우,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그 첫 번째 하위유형으로 제시하는 자동과 타동의 구분에서 동일한 동사가 자동과 타동에 두루 쓰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 (7) 자동사와 타동사의 병용

가. 動詞는 往 或 自動과 他動에 并用하는 者가 有하니

예) ‘쫓아 뛰어’ 右語에 (뛰어)는 自動詞이니 ‘쫓’의 作用을 發現할 사람이  
라, ‘사람이 소음을 뛰어’ 右語에 (뛰어)는 他動詞이니 (사람)의 作用이  
(소음)에 及함을 發現하리라. (유 길준, 1909:35)

나. 自動詞가 惑 境遇에 在하야는 他動詞됨이 잇스니 例如 (웃다) (불다) 하는 것은 自動이나 (甲이 乙을 웃다) (내가 불을 불다)하면 그 形은 同一이되 그 性은 各異함이 是니라. (안 자산. 1923:59)

다. 自動과 他動에 通用되는 동사가 있다.

예) 안개가 나린다(自) / 周衣를 나린다(他), 나무가 썩는다(自) / 속을 썩는다(他), 바람이 분다(自) / 숯불을 분다(他), 물이 솟는다(自) / 못을 솟는다(他). (홍 기문. 1927:119~120)

라. 動詞의 性質을 熟考하지 아니하면 自他를 混同하기 易한 故로 左에 數例를 示하노라.

예) 오날은 바람이 대단히 부오(自), 〇희들이 피리를 부오(他), 나는 립일 슈원을 가겏소(自), 개가 다리를 건너간다(自), 종일 길을 걸엇소(自), 공부하러 고향을 썩낫소(自), 문을 닷는다=닷친다(他), 사진을 박는다=박인다=박힌다(他) (이 완응. 1929:70~71)

위와 같은 설명은 단순히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변체되는 과정, 즉 피동이나 사동으로의 변체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웃다, 불다, 나린다’ 등의 동사는 그 자체로 이미 자동과 타동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 셈인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 해당 동사의 어휘 의미 분석 과정에서 다의어로 처리되는 예들이다. 이에 대해 ‘形은 同一이되 그 性은 各異’한 것이라는 설명은 이미 기본적인 의미 분석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動詞의 性質을 熟考하지 아니하면 自他를 混同하기 易’하다는 언급은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그 의미적 차이로 인해 자동과 타동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 동사나 형용사의 어휘 의미를 인식한 예는 용언의 변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 김 규식(1909:22)에서는 ‘他品詞로 動詞를 成흠’ 부분에서는 형용사가 변체되어 동사가 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8) 名詞와 形容詞가 往往 變體되어 動詞가 되느니 其例를 示컨디  
船(名詞) 비질흔다(動詞) / 늪은(名詞)<sup>7)</sup> 늪어간다, 늪다(動詞)

위에서 형용사에서 변체된 동사의 예는 ‘크다, 밝다’ 등과 같이 동사와 형용사 양용의 경우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늪다’에 대해 제4절 形動詞 편에서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단순히 동사와 형용사의 양용으로 처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 규식(1909)에서 形動詞는 ‘其題目語를 說明할 時에 同格動詞 「이다」와 形容詞를 並用하야 描言하는 것

7) 김 규식(1909:23)에는 ‘늪은’을 명사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형용사의 오키인 듯하다. 다른 이본인 김 규식(1912:17)에서는 형용사로 수정되어 있다.

을云'하는 것이다. 즉, 「이집이도타」하면 形動詞 「도타」는 卽는 形容詞 「도흔」과 動詞 「이다」가 並合하여 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위 「늡다」의 경우는 이러한 形動사로 설명하지 않고 形용사에서 변체된 동사로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 (9) 「늡다」 「늡어간다」 ㅎ는 것도 形容詞 「늡은」이 變體되어 動詞가 되었신즉 形動詞와 近理히되 ... 「늡다」 「늡어간다」 同類의 動詞는 其 題目語를 但描言만 寫畵 아니라 幾分間其無形的動作을 發表함인 故로 形動詞로 處別치 아니니라 (김 규식 1909:23)

즉, 김 규식(1909)의 체계에서 「도흔, 늡은」은 동일하게 形용사로 기술되는 데 반해 「도타」는 形動사로, 「늡다/늡어간다」는 形용사에서 변체된 동사로 처리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形용사로서의 「늡은」과 거기에서 변체된 「늡다」의 의미가 구분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늡다」를 단순히 「도타」와 동일하게 形動사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늡다」와 「늡다」의 의미적 차이 때문이고, 이를 「描言」의 의미만 지니는 경우(「도타」)와 「無形的動作」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늡다」)로 구분한 태도로 볼 때, 개별 어휘의 의미 차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음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전형적인 동사 形용사 양용 어휘에 대한 분석 역시 김 두봉(19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두봉(1916)에서는 용언의 파생을 「바꿈(變化)」으로 제시하면서, 「뜻바꿈」과 「임씨로 바꾸임」, 「옴씨(움씨)로 바꾸임」의 세 가지를 설명한다. 이 가운데 「옴씨가 옴씨로 바꾸임」의 예로 제시하는 것이 「크다」와 「돋다」이고, 「옴씨가 언씨로 바꾸임」의 예로 제시하는 것이 「변다」이다. 「변다」의 경우에는 세부 설명에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덧니가 매우 변다」에서의 「변」은 옴씨가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언씨로 바꾸인 것으로 설명한다.

김 두봉(1916)에서 보다 주목되는 의미적 분석은 「뜻바꿈」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자타양용이나 形動양용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휘의 의미 분석 과정이 포함된다.<sup>8)</sup>

(10) 가. 옴씨의 뜻바꿈 중 「그대로바꾸임」

표(說明)	밋말(本語)	뜻바꾸인말(變化語)	덜음(減)	더함(加)
그대로바꾸임	먹(食)	먹	○ <sup>9)</sup>	○

8) 이 규영(1920)에서도 김 두봉(1916)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다만, 「뜻바꿈」의 표는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9) 「덜음」과 「더함」은 형태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 표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이 말에 ‘먹’은 그대로 뜻바꾸일 때가 있으니 이를테면 ‘맘을 먹었다’는 ‘먹’은 그대로 뜻이 바뀌인 것이요... (김 두봉 1916:96)

나. 언씨의 뜻바꿈 중 ‘그대로바꾸임’

풀이(說明)	밋말(本語)	뜻바꾸인말(變化語)	덜음(減)	더함(加)
그대로바꾸임	검(黑)	검	○	○
	맵	맵	○	○

... 이 말에 ‘검’과 ‘맵’은 그대로 뜻바꾸일 때가 있으니 이를테면 ‘맘이 검다’는 ‘검’과 ‘시집살이 맵다’는 ‘맵’은 그대로 뜻이 바뀌인 것이며... (김 두봉 1916:80)

동시대 다른 문법서에서는 주로 타 품사로의 파생만을 다루는데 반해 ‘뜻바꿈’의 예를 제시한다는 점만으로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설명 부분에서는 ‘먹다, 검다, 맵다’의 의미 파생까지 분석하고 있다. 비록 기본적 의미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의 파생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적 관점의 분석이 매우 잘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3.3. 의미의 대립과 경중(輕重)

국어 용언과 관련된 초기 전통문법에서는 각 어휘의 의미적 특성을 분석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동사나 형용사의 범주 구분이나 유형 제시와 같은 주요 설명 부분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덧붙이는 설명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의미적 관점의 분석은 도리어 이런 식의 부가 설명의 방식에서 많이 제시된다.

우선, 어휘 간 의미적 대립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피동사의 범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술된다. 이 때, 접사 파생에 의한 의미 대립은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어휘적 피동의 내용은 몇몇 문법서에서만 제시된다.

(11) 가. 개가 아해에게 마젓소 (유 길준 1909:38)

나. 맞는다(被打), 속는다(被欺), 들킨다 (이 완응 1929:79)

다. <他動> 따리(毆), 꾸짖(叱), 가르치(教), 속이(欺), 하(爲)

<被動> 맞, 걱정들, 배우, 속, 되 (이 규방 1922:94)

유 길준(1909)에서는 ‘被動詞의 成立에 關하여 注意할 바는 (지어)를 附치 아니하고도 被動詞를 成하는 者가 有’함을 언급하면서 동사 ‘마젓’에 대하여 ‘本來 其語의 意義가 他의 動作을 受함을 發現’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 완응(1929)에서는 ‘動詞의 性質上 本來로부터 被動詞’인 것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규방(1922)에서는 피동사를 ‘他動과 被動의 語根이 相同한 者’와 ‘相異한 者’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를 어휘적 피동의 예로 제시한다. 이 때 ‘걱정들, 배우, 되’와 같은 동사들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의미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다. 물론 ‘배우다’와 같은 경우까지 어휘적 피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것을 아니지만, 의미의 대립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어휘적 피동의 개념을 보다 넓게 설정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언의 각 개별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의 미시적 의미 차이를 기술하는 내용도 발견된다. 가장 기초적인 인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모음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12) 가. 미치, 매치 (김 두봉 1916:91) / 길죽하, 갈죽하 (김 두봉 1916:76)  
 나. <平凡> 빌어 먹다, 일기 닿이다, 흘기다  
     <얕잡음> 뻔어 먹다, 옐기 닿이다, 할기다 (김 희상 1927:72)  
     <平凡> 이 것, 그 놈 저 곳, 묵직, 길죽, 낱죽  
     <얕잡음> 요 것, 고 놈, 조 듯, 막직, 갈죽, 낱죽 (김 희상 1927:77)  
 다. 통통하다=통통하다, 튼튼하다=탄탄하다, 푸르다=파라타, 우둘우둘하다=오  
 돌오돌하다 (이 완응 1929:102)

위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 두봉(1916)에서는 ‘같은 움씨(혹은 언씨)에도 그 크고 작음을 떨어져 달리 부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김 희상(1927)에서도 동사와 형용사의 ‘얕잡음’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의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동사에 대해서는 ‘第一人이 第二人이나 第三人에 當한 述語인 動詞를 얕잡아 움기어서 그 이를 적고 가벼웁게 역이는 것’으로, 형용사에 대해서는 ‘살았이나 事物의 形容을 얕잡아 움기어 적고 가벼웁게 역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 완응(1929)에서는 ‘形容詞에는 主觀的 感情을 表示하는 것이 多함으로 語根의 中聲의 差異로 強弱大小를 表示하는 것도 有하니라’라고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모음교체의 의미적 특징을 정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형태 변화에 의한 의미의 변화를 제시하는 내용도 여러 문법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3) 가. 길다란대, 커다란돌, 널따란방 / 길직한대, 큼직한집, 높직한고개 / 묵근한  
 쇠, 얇한한돌, 깊웁한굴 / 좁디좁은집, 얇디얇은白紙 / 놀오타=놀아타, 풀  
 으다=팔아타 (이 규방 1922:130~131)  
 나. 輕 : 붉으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검으스름하다 / 重 : 희고희다, 차고차

다, 검고검다 / 파라타(퍼리타), 뽀아타(뽀어타), 노라타(누리타) / 새파라타(시퍼리타), 새뽀아타(시뽀어타), 새잡아타(시짚어타) / 크다-커다라타, 길다-길직하다, 묵어옴다-묵직하다 (이 완응 1929:100~102)

다. 날-날치, 넘-넘치, 뒤-뒤치(自) / 접-접치, 홀-홀치, 걸-걸치(他) / 그가 門을 여는 바람에 손이 홀치었다(受) (홍 기문 1927:121~122)

위 (13가)는 이 규방(1922)에서 ‘形容의 意味를 一層深遠케 하는 例’로 제시된 것인데, 마지막 색채어의 예시에서는 부가 설명으로 ‘「셋」을 冠用할 때에는, 其形容의 意味가 加一層 強하게 되느니라’라고 덧붙임으로써 의미의 변화를 제시한다. 또한 이 완응(1929)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형태 변화의 모습을 ‘意味가 輕하게 되는 것’과 ‘意味가 重하게 되는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sup>10)</sup> 특히 색채어에서 ‘「스름하다」는 色彩가 淺淡한 意를 表示하는 語니, 此를 代하여 「레하다」를 用하는 事도 有’함을, 또한 ‘「붉으붉으하다」와 如히 語根이 二重으로 된 語는 어기저기 赤色이 點綴한 意를 示’한다고 덧붙여 미세한 의미적 차이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3다)에서 제시된 홍 기문(1927)의 예는 앞의 예가 주로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동사를 대상으로 의미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는 ‘動詞의 口氣’라는 항목으로 제시되는데, 이 때 제시되는 형태소는 ‘지’와 ‘치’이다. 이 때 ‘치’의 의미적 역할에 대하여 ‘自他動을 勿論하고 그 아래에 부틀 새 語義이 猛烈 又是 彼方의 無意志한 偶然的 受動을 나타나이’는 것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他動에 부틀 새는 다시 彼方의 無意志한 偶然的 受動을 나타나이기도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실제 예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전통문법에서 용언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은 단순히 형태론적 변화의 모습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어휘의 의미적 차이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4. 문장론과의 연결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기 전통문법서의 체계는 음운, 단어, 문장의 3분 체계에서 품사론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 분석은 대체로 문장론(월갈)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품사론 가운데에서도 동사를 다루는 부분에

10) 이 완응(1929)에서 제시한 이러한 예들은 형용사의 유형 중 ‘二重形容詞’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二重形容詞’란 ‘同一한 形容詞가 重合되거나 又是 形容詞에 他語가 附하여 其形容詞의 意味가 或輕 或重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二重形容詞’를 ‘本來形容詞’, ‘轉聲形容詞’와 동등하게 제시하여 형용사의 하위유형을 세 가지로 나눔으로써 이러한 의미 변화의 양상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서는 유독 문장론과 연관된 기술이 많이 나타난다. 동사의 정의는 대체로 ‘名詞及代名詞의作用或形態를發現하는語’(유길준 1909:32)이나, ‘其動作을說明하거나發表하는디用하는品詞이니,每樣名詞나代名詞를題目語로삼고此題目이如何바說明하거나其動作의如何를發表하는詞’(김규식 1909:17)와 같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곧 문장 속에서 주체에 대한 서술이 동사의 주된 기능이므로 당연히 명사(혹은 대명사)와의 관계를 문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전제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구에서는 김규식(1909)에서 제시된 ‘隱覺’의 설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규식(1909)에서는 동사의 정의와 분류 등 곳곳에서 문장 단위에서의 성분 생략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14) 或時는 但一個動詞로만 一句語<sup>11)</sup>를 完成할 수 있으나, 如斯한 境遇에는 其 題目語가 隱覺되느니라. 假令 「가거라」 하면 此句語에 原詞法은 「너 가거라」 하는 命令句語이니, 題目語 「너」가 隱覺되었느니라. 且 「온다」 原詞法 「아모가(隱覺) 온다」 (김규식 1909:17)

위 설명은 동사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동사가 없이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언급에 뒤이어 동사는 생략될 수 없으나 제목어는 생략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그 생략은 명령문에서의 주어뿐만 아니라 ‘아무’와 같은 부정칭의 주어를 상정할 수도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타동사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생략된 성분을 복원하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 (15) 가. 「趙秉世氏가<sup>12)</sup> 自殺하였다」 하면 「自殺」이 反照動詞이니 此句語에는 目的語 「自己」가 隱覺되느니라. 且 「내가 나를 미워한다」 (김규식 1909:18)
- 나. 「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면 動詞 「사랑」이 隱覺된 목적어 「 너희들」의 계 互相反動이 되느니라 (김규식 1909:18)

위 설명은 ‘反照的으로 說明하는 動詞’와 ‘交互的으로 說明하는 動詞(혹은 反動詞)’를 제시하면서 해당 동사의 구문적 특성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각각 생략된 목적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살하다, 미워하다’와 같

11) 김규식(1909)의 체계에서 품사론에 대응되는 용어는 ‘詞字學’이다. ‘詞字’를 ‘一個字나 幾個字로成해야 一個心象을 發表되 意趣만 有하고 思想은 完全치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후 ‘詞字’의 聚合된 것’을 ‘詞節’, ‘詞句’, ‘句語’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때, ‘詞節’은 대체로 ‘구(句)’에, ‘詞句’는 ‘절(節)’에, ‘句語’는 ‘문장’에 해당한다.

12) 김규식(1912)에서 제시된 예문은 ‘趙書房’으로 수정되어 있다.

은 ‘反照動詞’, 그리고 ‘사랑하다’와 같은 ‘反動詞’가 나타나는 문장의 전체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게 된다.

문장에서의 성분 생략에서 더 나아가 문장 속에서 동사 자체가 생략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 역시 나타난다. 김 규식(1909:22)에서는 ‘他品詞로 動詞를 成’하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 경우 동사가 생략되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6) 가. 압호로(軍令)

나. 어셔어셔

위 예에서 ‘他品詞가 或 變體호여서던지 或 純全히 動詞資格을 成호는디, 每樣 如何호 境遇에는 其動詞가 隱覺되느니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호로’의 경우 動詞 ‘가라’가 隱覺되고, ‘압호로’라는 부사절이 동사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어셔어셔’의 경우에는 부사로 동사의 자격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개별 동사 차원의 의미 분석을 넘어서서 문장의 맥락까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전통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용언의 분석에서 의미적, 화용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의 초기 전통문법에서 기술한 국어 의미에 대한 연구 내용을 용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기 전통문법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체계화된 의미 기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용언의 경우 그 하위 유형에 대한 분류에서뿐만 아니라 의미의 파생과 대립양상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용언에 대한 통사론적 분석에서 이후 문장의 의미 분석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초기 전통문법에서의 의미 연구는 비록 그것이 파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을지라도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문법 기술을 시도한 최초의 노력에서부터 의미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어휘 단위에서의 조어법 부분과 문장 단위에서의 문장 의미에 대한 당시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보다 미시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 복수. 1971. 「국어문법에 미친 외국문법의 영향」, 한메 金永驥先生 古稀記念 論文 集. 형설출판사. 55~126쪽.
- 권 재선. 1988. 국어학 발전사(현대국어학 편). 우골탑.
- 고 영근. 1983. 국어문법의 연구: 그 어제와 오늘. 탑출판사.
- 고 영근. 1985. 국어학연구사. 학연사.
- 고 영근. 2001. 역대 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 민수. 1961. 「‘닛씨’와 ‘Morpheme’: 주시경 및 Bloomfield의 문법적 최소 단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3. 국어학회. 44~51쪽.
- 김 민수. 1977. 주시경연구. 탑출판사.
- 김 민수. 1980. 신국어학사(全訂版). 일조각.
- 김 봉모. 1993. 「김 두봉의 통어론 고찰」, 한힌샘 주 시경 연구 5·6. 한글학회. 89~110쪽.
- 김 봉모. 1997. 「초기 국어문법 통어론의 비교 연구: 김두봉(1922)을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7. 1~44쪽.
- 김 석득. 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 승곤. 1989. 「《조선말본》과 《김더 조선말본》의 비교·분석」, 한힌샘 연구 2. 한글학회. 39~81쪽.
- 남 경완. 1999. 「어휘의미론 연구사」, 현대의 국어연구사(김민수 편), 163~178쪽.
- 남 경완. 2009. 「주 시경 문법 ‘드’ 구성 성분의 체계와 기능」,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61~494쪽.
- 남 경완. 2010. 「주 시경 「國語文法」 짬듬갈 예문 연구: ‘금이, 금이듬, 금이드’를 중심으로」, 사립어문연구 20. 사립어문학회. 153~174쪽.
- 남 경완. 2010. 「주 시경 문법에서 ‘드’의 개념과 범위」, 국어학 59. 국어학회. 131~152쪽.
- 남 기십. 1989. 「[조선어 문법(주 시경)]과 [김더 조선말본(김 두봉)]의 ‘씨’에 대한 비교 검토」, 한힌샘 주 시경 연구 2. 한글학회. 149~168쪽.
- 박 선자. 1993. 「김 두봉 말본의 형태론적 이해와 계승」, 한힌샘 주 시경 연구 5·6. 한글학회. 11~87쪽.
- 박 종갑. 1997. 「김 두봉 문법의 연구: 문장론의 의미·논리적 의존성을 중심으로(1)」, 국어학 29. 국어학회. 199~219쪽.
- 박 종갑. 2005. 「주 시경과 김 두봉의 문법론 비교 연구」, 어문학 87. 어문학회. 157~173쪽.
- 유 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유 형선. 2004. 「근대 국어국문학자의 재조명: 김두봉의 문법관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9~51쪽.
- 이 남순. 1982. 「주시경의 의미이론: <짬듬갈>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7. 343~352쪽.
- 이 승녕. 1956. 「국어의 의미변화 시고: 의미론 연구의 한 제언」, 자유문학 창간호.

236~242쪽.

- 이 승녕. 1959. 「국어 의미론 단상」, 자유문학 31. 239~247쪽.
- 이 희승. 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전 수태. 1989. 「「국어문법」 ‘짬뽀갈’의 의미연구」, 주시경학보 3. 103~126쪽.
- 최 경봉. 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 최 규수. 2005. 주 시경 문법론과 그 뒤의 연구들. 박이정.
- 최 낙복. 1991. 주 시경 문법의 연구: 형태론의 성립과 그 계승. 문성출판사.
- 최 낙복. 1996. 「김 규식 문법의 품사 설정」, 동남어문논집 6. 동남어문학회. 187~208쪽.
- 최 낙복. 1997. 「김 희상 문법의 품사 설정」, 동남어문논집 7. 동남어문학회. 203~222쪽.
- 최 낙복. 2002. 「유 길준 말본의 통어론 연구」, 한힌샘 주 시경 연구 14·15. 한글학회. 151~185쪽.
- 최 낙복. 2003. 「김 규식 문법의 통어론 연구」, 한글 260. 한글학회. 199~225쪽.
- 최 낙복. 2005. 「김 희상 문법의 통어론 연구」, 이중언어학 28. 이중언어학회. 391~414쪽.
- 최 낙복. 2013. 주 시경 문법의 형성론. 경진.
- 최 호철. 1989. 「주 시경과 19세기 영어문법」, 주시경학보 4. 22~44쪽.
- 황 화상. 2004. 「김 희상 문법의 재조명: 「울금이틀」의 품사론을 중심으로」, 우리어문 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9~53쪽.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 ~ 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2부 연구 발표

## 연기된 지시의 유형과 용법

김 진웅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borgesk@utexas.edu

### 1. 문제 제기

환유<sup>1)</sup>는 은유<sup>2)</sup>나 제유 등의 개념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수사학이나 문학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이지만, 간헐적으로 국내의 언어학 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 바가 있다. 그 동안 한국어 연구에서는 환유 표현들에 대한 논의가 Lakoff & Johns(1980), Kövecses & Radden(1998)이나 Kövecses(2002) 등의 영향을 받아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임 지룡(2006), 박 재연(2014) 등이 인지적 관점을 한국어 환유 연구에 적용한 대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임 지룡(2006: 269)은 환유<sup>3)</sup>를 “동일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두 개의 실체가

---

1) 박 현수(2008)는 문학에서 환유에 대한 인식의 단초를 파악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환유는 현실 원리에 입각하여 범주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재의 수사학’이다. 은유가 범주와 범주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초월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데 반하여 환유는 범주내의 질서를 존중하여 범주 내재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학이나 문학에서 환유에 접근하는 방식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2) Lakoff & Turner(1989)은 은유와 환유의 차이점을 제시하며 환유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은유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영역(domain)을 넘나드는 현상인 반면, 환유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시 현상이라고 보았다.

3) 임 지룡(2006)은 인지언어학의 전통에 따라 ‘환유’ 대신에 ‘개념적 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인접성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실체 즉 ‘매체’가 또 하나의 실체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인지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임 지룡(2006)이 제시한 환유의 세 가지 정의 가운데<sup>4)</sup>에 두 가지 정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임 지룡(2006)이 제시한 환유에 관한 정의는 환유에 대해 언어학적인 관심을 하나의 흐름을 배제하고 있다. 그것은 Nunberg(1979; 1993)에서 화시표현(Indexicals)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s)이나 지시사(Demonstratives)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제안한 연기된 지시란 개념이다. 연기된 지시는 종종 환유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그의 연구는 환유의 인지적 연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Lakoff & Johns(1980)의 환유에 관한 정의는 연기된 지시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Lakoff & Johns(1980: 35)에게 환유는 “화자가 지시체를 이용하여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지시체를 지시하는” 용법이다.

임 지룡(2006)과 Lakoff & Johns(1980)의 환유에 관한 정의에 가장 큰 변별점은 무엇일까? 결정적인 차이점은 환유를 지시 현상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임 지룡(2006)에게 환유란 실제 세계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 인지 과정의 문제로 이해된다. 물론 임 지룡(2006)과 박 재연(2014)와 같은 인지적인 접근이 환유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논의에서 지시와 관련된 현상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소위 연기된 지시(deferred reference)라고 분류되는 다양한 현상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연기된 지시 현상의 다양한 유형과 용법을 소개하고 이를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2.1. 환유 그리고 연기된 지시

인지언어학의 전통 아래에서 환유 개념은 외적인 경험과 문화적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화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재적 인지 구조는 신체적 경험과 반복되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구체화된다(Lakoff 1987). 임 지룡(2006)은 환유의 양상들을 확대지칭, 축소지칭, 상호지칭 세 가지로 대분류하고 있다. 이 세 유형의 대분류 아래에 구체적인 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임 지룡(2006: 268-269)은 Lakoff & Johns(1980), Kövecses & Radden(1998), Taylor(2002)의 환유 정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환유의 대분류	환유의 소분류	용례
확대지칭 양상	신체부분-사람	박대통령의 <b>입</b> 9년. <b>어깨</b> 들이 물러갔다.
	사물부분-사물	군인, 평양 시민도 <b>쌀</b> 이 없다. <b>대금</b> 과 <b>피아노</b> 의 만남.
	소유물-소유자	<b>선글라스</b> 는 신이 났다. <b>철가방</b> 이 총출동 한번 하는구나.
	시간부분-시간	이 책은 인류 문화의 <b>어제</b> 와 <b>오늘</b> 을 이해하고 <b>내일</b> 을 내다볼 수 있는 길잡이 뭇을 한다.
	사건부분-사건	대형 뮤지컬들의 <b>막</b> 이 <b>오른다</b> . 지난 80년 그는 과감히 <b>글러브</b> 를 벗었다.
	신체부위반응-감정	이현상의 그 근엄한 얼굴이 <b>벌겋게</b> <b>달아올랐다</b> . 만도는 <b>코허리</b> 가 <b>짱했다</b> .
축소지칭 양상	사물, 신체전체-부분	<b>연필</b> 에 침을 문혀가며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릇-내용물	복도의 풍로 위에서 커다란 <b>주전자</b> 가 <b>끓고</b> 있었다. 한 <b>술갈</b> 만 더 먹어, 응?
	국명/지명, 건물-소장품, 사람, 대표자/정부	<b>발칸</b> 이 물러온다. <b>대한민국</b> 이 웃는 그날까지. 제가 <b>집</b> 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기관, 단체의 사람	<b>국민은행</b> 먼저 웃었다. <b>한나라</b> 개혁성향 더 필요.
	생산회사/생산지/생산자-생산품	그는 <b>현대</b> 를 몰고 있다.
	차량-운전자	<b>버스</b> 파업은 시 책임.
	계절-산물	<b>봄</b> 을 씹어요. 상주의 겨울은 달디 달다.
	시점, 명절-시점의 식사, 명절 제상	봉순이 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나를 부르러 갔다. 대추 밤을 돈사야 추석을 차렸다.
상호전이 양상	사건-시간	<b>연주회</b> 가 길어졌다. <b>8.15</b> 대규모 일반사면 필요.
	거리-시간	나는 친구가 운전하는 동안 <b>100킬로미터</b> 를 자고 있었다. 인천은 서울에서 <b>한 시간</b> 떨어져 있다.
	원인-결과	과천청사 미화원이 <b>머리띠</b> 를 <b>뚫다</b> . 황규연은 통산 네 번째 <b>꽃가마</b> 를 <b>탔다</b> .

〈표 1〉 임 지룡(2006)의 환유 용법 분류

한편 Nunberg(1979; 1995; 2004)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환유(metonymies)와 유사하지만 뚜렷이 구분이 되는 언어적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유(metonymies)는 ‘구체적인 대상의 추상화’나 ‘전체에 대한 일부’, ‘무정성에 대한 유정화’ 등의 개념적인 도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unberg 1995: 109). 하지만 (1)의 예들은 이러한 개념적 도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1) ㄱ. (주차장 주차관리인이 차키를 받으며) 이걸 어디에 대셨어요?

(김 진웅 2015: 272)

ㄴ. (30대인 화자가 본인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부인에게 보이며) 내가 어디 있나 한 번 찾아 봐.

(1ㄱ)에서 ‘이것’이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은 ‘차키’가 아니라 차키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차’이고 (1ㄴ)에서 ‘나’가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은 ‘화자 자신’이 아

나라 사진 속에 있는 ‘화자의 이미지’이다. 이처럼 ‘이것’이나 ‘나’와 같은 화시 표현(Indexical expressions)의 해석은 일차적인 가리킴의 대상과 최종적인 해석의 대상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Nunberg(1979;1993)에서는 연기된 지시(deferred reference)라고 불렀다. Nunberg(1993)의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은 모든 화시표현이 기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시 표현은 자체로 표현의 대상에 대한 정보—유생성(animacy), 성, 수 등—를 전달한다. 김 진웅(2014: 207-208)에서는 Nunberg(1993)에서 연기된 지시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화시적(deictic) 요소: 화시 표현의 발화로부터 화맥의 대상으로의 함수. ‘우리’와 ‘나’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지표(index)를 가리킨다.
2. 분류적(classificatory) 요소: 유생성, 성, 수, 격 등을 포함한 기술적 해석. ‘우리’는 유생성과 복수를 포함한다.
3. 관계적(relational) 요소: 지표의 화시 표현의 해석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제약. 화자가 제외된 대상을 ‘우리’라고 지칭할 수 없다.

Nunberg(1993)을 바탕으로 (1)을 분석하면, ‘이것’과 ‘차키’는 일차적으로 지시 요소를 결정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화시 표현의 발화로부터 화맥에서 지표(index)가 결정되는 셈이다. 지시대명사에 흔히 동반되는 손짓(demonstration)이나 시선에 의해 ‘차키’에 해당하는 지표가 결정이 된다. ‘차키’는 주차장이란 공간에서 벌어지는 발화의 맥락상 ‘차키로 조작이 가능하며 주차의 대상’인 ‘차’로 치환이 되며 최종적으로 화시표현의 해석은 ‘차’로 귀결이 된다.

그렇다면, 예문 (1)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문 (1)을 살펴보자. 인지언어학의 환유 해석에서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나’이다. 이는 화자의 사고 영역 안에서 각각 ‘화자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지시대상’과 ‘발화의 화자’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실제 세계의 개입이 없이는(지시대상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유를 ‘매체로부터 목표로의 정신적 접근’이라고 파악한다면 예문 (1)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 2.2. 적합성 이론

Nunberg(1993)가 화시표현의 해석 과정을 연기된 지시로 설명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연기된 지시의 해석 과정은 철저하게 의미론 영역으로 한정

된다는 점과 연기된 지시 현상은 반드시 지표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Nunberg의 논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Nunberg 이론 자체에서 이미 관계적 요소를 상정했기 때문에 화용적 추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이론을 의미론이라고 한정 짓는 일은 심각한 이론적 결함에 해당이 된다. 또한 지표를 연기된 지시에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함으로써 연기된 지시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 제한을 두고 말았다.

Nunberg(1993)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용적으로 연기된 지시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적합성 이론이다 (Carston, 2002; Sperber & Wilson, 1995; Wilson & Sperber, 2004). 적합성 이론은 근본적으로는 발화의 해석을 인지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인지언어학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Sperber & Wilson(1995: 260)은 인간의 인지가 적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적합성이란 인지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속성을 가리키며, 그 소모되는 정신적 노력의 총량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입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인지적 효과가 클수록, 들이는 노력이 적을수록 적합성의 정도는 높다고 본다.

적합성 이론에 의하면 발화상에서 화자가 환유를 사용할만한 두 가지 동기가 있다. 첫째, 환유 표현은 그에 해당하는 문자적 표현에서 얻을 수 없는 인지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환유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 초과되는 노력은 결국 인지적 효과로 상쇄된다. 둘째, 지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환유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환유를 이용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생긴다.

### 3. 연기된 지시의 유형

#### 3.1. 화시표현에서 나타나는 연기된 지시

Nunberg(1993), 김 진웅(2016)에서 화시표현이 연기된 지시 현상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과 사례들이 논의된 바가 있다. 화시표현은 이미 예문 (1)에서 확인한 대로, 화시표현의 지표와 지시대상이 불일치하여 최종적으로 다른 지시대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래 예문 (2)처럼 화시표현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 (2) ㄱ. (벨 소리를 듣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아이들에게 엄마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이야기 한다) 내가 도둑이면 어쩔 뻔 했니?

(김 진웅 2016: 115)

ㄴ. (국민의례 중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 진웅 2016: 118)

다시 Nunberg(1993)의 연기된 지시의 해석단계를 살펴보자. (2ㄱ)에서 ‘나’를 지표에 해당하는 ‘발화의 화자’로 해석한다면 ‘발화의 화자(엄마)가 도둑이다’라는 부적절한 명제를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관계적 요소를 고려하여, ‘발화의 화자’ 대신에 ‘벨을 누른 사람’이라는 기술로 대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2ㄴ)에서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화자(지표)를 가리키는 동시에, 화용적으로 도입된 관계 요소에 의해 ‘한국인’이라는 해석을 허용한다. 만약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일본인이나 영국인이 암송한다면 본래의 문장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역시 맥락으로부터 부여된 ‘한국인’이란 한정기술에 포함된 속성이 ‘일본인’이나 ‘영국인’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3.2. 관형사 ‘이런, 그런, 저런’에 나타나는 연기된 지시

‘이런, 그런, 저런’은 모두 화자를 기준으로 한 원점으로부터 지시대상의 해석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화시표현으로서 지시사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그, 저’와 화시적 용법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의미적 차이가 분명하다. 아래에서 민 경모(2008)에서 제시한 말뭉치 예문을 살펴보자.

- (3) ㄱ. A: 오렌지 계열 맨 위에 거요음::,이 색::도 괜찮은 거 같은데,  
B: 요런 립스틱 같은 경우는,이제 뭐 아이새도우 같은 경우도 이제,그런 톤이나, 옐로우 계열으로,같이 해 주시고 나서 발라 주시면 예쁘실 거 같아요.
- ㄴ. A: 근데 리본은:: 이런 투명한::거 말구 저런 천으로 [되]/  
B: 음. [이런]거  
A: 음. 이런 걸로 매는 게 더 예쁜 거 같애.

‘이런, 그런, 저런’의 해석은 장 경희(1989), 민 경모(2008) 모두 공통적으로 실제세계에 존재하는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개체를 포함하는 어떤 속성이나 유형을 가리키고 있다<sup>5)</sup>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여전히 지시행위를 동반해서 결정된 구체적 지시대상으로부터 속성이나 유형으로 의미가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재하였다. 그런데 ‘이런, 그런,

5) Carlson(1980)은 영어 ‘such’에 관해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저런'의 해석은 Nunberg(1993)에서 제시한 연기된 지시 현상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그런, 저런'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지표 요소가 지시행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종적인 해석은 관계 요소에 의해 원래의 지시대상과 인접하는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화시표현의 해석이 지시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이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적 해석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차이이다.

### 3.3. 명사구에 나타나는 연기된 지시

한편 의미적인 선택 제약 대신에 문맥에 의해, 화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다' 구문 역시 연기된 지시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남 기심(1996)에서 '이다' 구문을 분류문, 유사 분류문, 비분류문으로 나눌 경우에 비분류문에 해당하며 남 길임(2004)에서는 상황 의존적 '이다' 구문이라고 명명한 예들에 해당이 된다. 구체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4) ㄱ. 나는 짜장면이다.  
 ㄴ. 순이는 부산이다. (김 의수 2002: 889)

Nunberg(1995; 2004)<sup>6)</sup>는 각기 다른 두 영역(domain)에 속하는 속성(property)이 일정한 방식으로 일치한다면 하나의 영역의 대상에 적용되는 속성이 다른 영역의 대상에 적용되는 속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4)와 같은 문장들이 허용되는 이유를 서술어의 의미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나'에서 비롯된 '사람'이란 속성으로부터 유발되어, (4ㄱ)에서는 '짜장면'을 '짜장면을 주문하는 사람'이라는 속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4ㄴ)에서는 '부산'을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속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미의 전이의 결과로 NP의 속성에 속하게 되어 (4)의 문장들을 적절히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4. 연기된 지시에서 화용적 제약의 함의

앞서 2.1.에서는 Nunberg(1993)이 제안한 연기된 지시의 해석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Nunberg가 이론 자체에서 화용적 추론을 내포하

6) 사실 Nunberg는 (4)와 같은 용례를 연기된 지시의 범주에 넣지 않고 서술어의 의미 전이로 이해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적합성 이론의 관점을 받아들여 지표가 관여하지 않는, 화용적으로 연기된 지시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했다는 점과 지표 요소와 관련이 없는 연기 현상을 제외하여 이론의 설명력이 약화된 점을 비판하며 적합성 이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적합성 이론을 바탕으로 연기된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Powell(1998)은 개념(concept)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개체개념으로 이것은 실제 세계에 있는 지시대상과 일치여부에 의해 해석이 결정된다. 또 하나는 기술개념(descriptive concepts)으로 Frege의 의의와 유사하다. 화시표현 해석의 출발이 개체개념이라면 명사구 해석의 출발은 기술개념이다. Powell이 제안한 두 가지 개념을 적합성 이론에 적용시키면 연기된 지시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연기된 지시의 해석은 적합성의 원리—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입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인지적 효과가 크도록 그리고 들이는 노력이 적도록—에 의해 지배 받는다고 가정하자. 먼저 개체개념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개체개념에 해당하는 지시대상을 실제 세계에서 우선적으로 찾도록 한다. 나머지 과정, 즉 지시대상의 결정은 화용적 과정으로 청자에게 맡기며 화자의 역할은 청자가 의도된 지시대상을 결정하도록 추론을 통한 해석 과정을 돕는 데에 있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어 의미론에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연기된 지시 현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유형과 용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기된 지시 현상을 화용론에서 다루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연기된 지시 현상을 통해 기존의 환유에서 다루지 못하던 다양한 언어적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어 의미론에서 환유에 대한 연구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함몰되어 있다. 본연구는 인지언어학에서 외면하던 환유에서의 지시의 문제를 환기시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수순이다. 본고에서는 연기된 지시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현상을 지시적 환유라고 일컫기도 한다. 연기된 지시 현상을 환유의 범주 아래에 놓아야 할지, 연기된 지시 현상을 환유의 상위 개념으로 보아야 할지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론과 화용론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성이 대두된다. 발화를 논리적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의미론의 역할이라면, 화용적 추론을 통해 논리적 형식을 명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화용론의 역할이라는

점을 연기된 지시의 해석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문헌〉

- 김 진웅. 2014. 「화시와 맥락 그리고 합성성의 원리에 대하여」, *한국어어미학* 45. 한국어어미학회. 185-212.
- 김 진웅. 2015. 「‘이다’ 구문의 화용적 용법에 관한 소고-‘나는 짜장면이다’류의 해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 263-283.
- 김 진웅. 2016. 「한국어 화시표현에 대한 기술주의적 해석」, *한국어학* 70. 한국어학회. 109-132.
- 민 경모. 2008.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 재연. 2014. 「한국어 환유 표현의 체계적 분류 방법」, *한국어어미학* 45. 한국어어미학회. 1-30.
- 박 현수. 2008. 「수사학의 3분법적 범주: 은유, 환유, 제유」, *한국근대문학연구* (17), 295-323.
- 임 지룡. 2006. 「환유 표현의 의미 특성」, *어문논총* 5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65-300.
- 장 경희. 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2. 서울대 어학연구소.
- Carlson, G. N. 1980.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Garland, New York & London.
- Fauconnier G. 1985. *Mental Spaces: Aspects of Meaning Construction in Natural Language*. Cambridge, Mass.-London: The MIT Press.
- Grimberg, M. L. 1996. *Against rigidity: an investigation of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indexicality*. Ph.D. thesis, UCL. Page references are to revised version.
- Kövecses, Z. & Radden, G. 1998. Metonymy: developing a cognitive linguistic view. *Cognitive Linguistics*, 9(1), 37-77.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unberg, Geoffrey. 1979. The non-uniqueness of semantic solutions: polysemy. *Linguistics and Philosophy* 3.
- Nunberg, Geoffrey. 1993. “Indexicality and Deixis”. 『*Linguistics and Philosophy*』16. 1-43.
- Nunberg, Geoffrey. 1995. Transfers of meaning. *Journal of Semantics* 12.
- Nunberg, Geoffrey. 2004. “Descriptive Indexicals and Indexical Descriptions” In: Reimer, M. -Bezuidenhout, A. (eds.), *Descriptions and Beyond*. Oxford: Clarendon Press. 261-279.

- Papafragou, A. 1995. Metonymy and relevance.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7, 141–175.
- Powell, George. 1998. “The Deferred Interpretation of Indexicals and Proper Name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UCL) 10. 143–172
- Sperber, D. & Wilson, D.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Ward, G. and Sam Til sen. 2002. Deferred equativ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San Francisco, January.
- Ward, G. 2004. Equatives and deferred reference. Language 80.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2부 연구 발표

##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송 현주

계명대학교 교수  
camus0101@naver.com

### 1. 머리말

지금까지의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관용 표현을 고정되고 일탈된 언어로 간주하고, 관용 표현을 ‘죽은’ 은유의 하나로서 취급해 왔다. 그러나 관용 표현은 많은 경우에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험 및 사고방식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또한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를 생산하고 이해하는 지름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지적 장점을 갖기 때문에<sup>1)</sup> 인간이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한 개인의 물리적·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인 동시에, 언어 처리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Gibbs 2007: 721). 즉 Gibbs(2007: 697, 717)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용 표현은 단순히 말을 꾸미기 위해 의도한 언어적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편하게 하고, 텍스트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인간 사고의 근본 패턴을 반영하는 언어의 통합적 부분이다. 따라서 관용 표현

---

1) 언어는 적지 않은 부분이 관용 표현, 속담, 상투적 표현 등의 고정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표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언어 사용의 효율성과 유창성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관용적 의미를 통해 사건을 개념화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한다.

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의 중대한 측면을 밝혀줄 수 있으므로(Gibbs 1994: 367),<sup>2)</sup> 한국어 관용 표현을 살피는 것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일면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국내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대상으로 그 형태·의미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 패턴을 파악하며, 의식주 관용 표현에 나타난 한국인의 개념화 양상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구성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갖는 굳어진 표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구성요소가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관용 표현은 인간의 인지 작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관용 표현을 살피는 것은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사용 패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말뭉치에서 추출하고, 이들을 관용적 의미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사용 패턴을 파악한다. 이는 관용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의식주와 관련한 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주에 관한 관용 표현을 통해 한국인의 개념화 양상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 연구의 방법과 의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목록을 점검하고 그 형태·의미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이들 의식주 관련 관용표현이 갖는 의미

2) Gibbs(1994: 163-164)는 실험을 통해 관용 표현이 개념적으로 고정된 패턴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피험자들이 관용 표현을 해석할 때 일관된 정신적 영상을 갖고 있음을 보고했다. 예를 들어, 피험자들은 blow your stack(너의 무더기를 불다 → 분통이 터지다)이라는 관용 표현에 대해 공통적으로 ‘화’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즉 이 실험은 언어 사용자가 blow your stack이라는 관용 표현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국어의 예를 들면, 관용 표현 ‘가시밭길을 가다’에 대해 우리는 거칠고 고통스러운 길을 힘들게 이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므로, 이 표현은 힘겹고 험한 삶을 의미하게 된다. ‘가시밭길을 가다’가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이동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 지금까지 한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에 관한 연구는 관용 표현의 실제적 쓰임을 분석하기보다는 연구자에 의해 선별된 표현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치중된 바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관용 표현의 의미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시도하기로 한다.

구성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 2. 인지언어학과 관용 표현

### 2.1. 선행 연구

관용 표현은 연구자에 따라 ‘관용 표현, 속어, 익은말, 관용어, 관용구’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왔으며,<sup>4)</sup> 그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 경향은 다음의 3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전통적인 관점에서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구성 방식이 고정되어 있고 구성 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sup>5)</sup>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용 표현의 필수 자질을 관습성(conventionality)<sup>6)</sup>이며, 관용 표현의 의미는 비합성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용 표현은 특이한 언어 표현으로서 개별적인 연구 대상이며, 관용 표현은 어떠한 개념 체계와도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연구 목표는 관용 표현의 성격 설정, 관용 표현의 기준 마련, 관용 표현의 목록 확정, 관용 표현의 형태·통사·의미·화용론적 특성 규명, 문형 정보 및 변이형 연구 등이다.

둘째,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실용적인 목적을 고려한 응용 언어학적 관점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사전편찬, 자연언어처리,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 표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한 계량

4)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 및 연구사에 대한 논의는 민 현식(2003), 김 문창(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므로, 관용 표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관용 표현은 ‘복합어, 연어, 속담, 고사성어’ 등 다양한 고정된 표현 중의 하나이며, 관용 표현을 이들과 구별하고 정의하는 것은 관용 표현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밝히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을 정의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찾아 관용 표현을 연구하기보다, 관용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개방된 집합으로서 관용 표현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관용어 사전은 물론이고 ‘표준국어대사전’의 관용구와 ‘세종 관용표현 상세 검색기’의 관용 표현 목록을 풍부하게 활용하기로 한다.

5) 관용 표현에는 구성 요소를 통해 전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으며, 김 진해(2003, 2010)에서 보인 바와 같이 관용 표현은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김 진해(2010: 36)는 ‘나사를 짝 조이다, 시치미를 툇 때다, 단물을 쪽쪽 빨아먹다’ 등을 예로 들어 상징부사에 의한 수식이 관용 표현 전체의 의미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구성 요소는 관용 표현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 쓰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6) Nunberg & Wasow(1994: 492-493)가 제시한 관용 표현의 6가지 특징은 ① 관습성(conventionality), ② 불가변성(inflexibility), ③ 비유성(figuration), ④ 격언성(proverbiality), ⑤ 비공식성(informality), ⑥ 정서(affect)이다. 이 중 관습성은 모든 유형의 관용 표현에 나타나는 필수적 특징이고, 나머지 특징은 관용 표현마다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수의적 특징이다(김 주식 2010: 19).

적 방법을 활용하고 관용 표현의 범위를 문법적 관용 표현과 화용적 관용 표현까지로<sup>7)</sup> 넓게 잡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사전 편찬학 또는 자연언어 처리 관점의 이 희자(2002), 이 희자 외(2004), 김 한샘(2003), 권 경일(2010) 등이 있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로는 문 금현(1998), 김 선정·강 현자(2006) 등이 있다. 이상의 두 관점은 관용 표현의 의미를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무관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주로 관용 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이성에 주목한다.

셋째,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용 표현은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며, 관용 표현의 의미는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의미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관용 표현이 인간의 개념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 ‘화’를 표현하는 관용 표현 ‘뚜껑이 열리다, 속을 끓이다, 속이 타다, 피가 거꾸로 솟다’ 등은 개별적인 표현이 아니라, ‘화는 그릇 속의 액체’로 체계적으로 개념화된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내용의 의미와 구조 간의 동기화를 고려하는 것은 굳어진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을 밝히는 과정이 된다. 지금까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 지룡(2006), 최 지훈(2007), 나 익주(2006, 2008), 심 지연(2009), 강 병창(2011), 김 계연(2011), 이 지용·심 지연(2010), 강 병창(2011), 송 현주·최 진아(2011), 김 정아·송 현주(2013) 등이 있다.<sup>8)</sup>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내외 학계에서 관용 표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어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의 상당 부분은 의미 구성 방식과 관련된 언어 사용자의 해석(construal)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지언어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이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의미 구성 방식, 즉 관용 표현이 갖는 동기화 양상을 살핀다. 전통적 관점의 관용 표현 연구는 관용 표현의 형식적,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사전 편찬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제시한 데는 기여하였지만 관용 표현의 사용 주체인 인간의 개념화 방식에 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7) 문법적 관용 표현이란 ‘-거나 말거나, -고 -고 할 것 없다, -기 무섭게’ 등이고, 화용적 관용 표현이란 ‘감사합니다, 사람 살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등과 같은 것이다.

8) 임 지룡(2006)은 8가지 감정에 대해 관용 표현을 포함한 국어의 개념화 양상을 다루고 있으며, 나 익주(2006, 2008)는 ‘정, 한, 사랑’에 대한 개념화 양상을 살피고 있다. 최 지훈(2007)과 심 지연(2009)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용 표현에 대해 논의한 본격적인 연구이며, 강 병창(2011), 김 계연(2011a, b)은 인지언어학과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을 다룬 연구이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을 연구한 성과를 이 지용·심 지연(2010)은 한국어교육에, 송 현주·최 진아(2011)는 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한 것이다.

기울이지 못했다. 반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관용 표현은 분석 가능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언어 사용자의 개념적 구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용 표현은 지각적 동기, 인지적 동기, 경험적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기화되어 있으므로, 관용 표현을 살피는 것은 인간의 개념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관용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과 주거와 관련된 관용 표현까지 다룸으로써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의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관용 표현 연구는 주로 특정 신체 부위(머리, 가슴, 손 등) 또는 특정 감정(화, 사랑, 기쁨, 정 등)에 대해 치중해 왔으며, 대다수가 개념적 은유와 영상 도식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 전반을 살핌으로써 관용 표현 연구의 빈자리를 채우며, 은유와 영상 도식을 포함하여 ‘현저성, 경제성, 환유’ 등의 다양한 동기화 양상을 고려하여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어 관용 표현을 말뭉치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세종관용표현상세검색기에서 제공하는 관용 표현 목록을 1차 연구 대상으로 삼고, 더불어 각종 사전에서 제시하는 관용 표현 목록을 통해 누락된 목록을 보완한다. 또한 관용 표현의 실제적 쓰임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Trend21 코퍼스를 활용할 것이다.<sup>9)</sup>

## 2.2. 이론적 바탕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은 인간 마음의 본질,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언어, 몸과 마음, 문화’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언어 이론이다. Evans(2009: 47)는 “인지언어학은 언어과학에서 언어, 마음, 인간의 사회문화적 경험 간 관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언어적 사고와 관행을 연구하는 현대의 학파로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 중인 접근법이며, 인지과학으로 알려진 학제 간 프로젝트에서 점차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살핌으로써 언어 사용자의 사고 패턴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모형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쏟아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의식주

9) Wulff(2008: 4-5)는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과 인지언어학과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어휘에 대한 관용성(idiomacity)의 정도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한 바 있다. Wulff(2008: 26-27)는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Idiom의 표제항에서 ‘V NP-구문’을 추출한 후 BNC(British National Corpus)에서 이들 항목이 사용된 빈도를 확인하였다. 이들의 관용성의 정도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을 살핍으로써 한국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을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본질적으로 개념화의 문제로 다룬다. 즉 관용 표현을 ‘구성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갖는 굳어진 표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구성요소가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구조와 의미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화(motivation)되어 있다고 본다. 동기화(motivation)는 인지언어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한 가지이다.<sup>10)</sup> 동기화의 개념은 Radden & Panther(2004: 3-4)에 따라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동기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여러 가지 ‘동기화’ 요인은 한 가지씩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특정 동기가 우선적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 (1) 언어에서의 동기화(motivation)는 언어 단위의 구조와 의미에 작용하는 동기화의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매체(trigger)로 제공되는 기초이다. 만약 그것의 속성의 일부가 언어적 근원(구조/의미)과 언어 독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면 언어적 단위(목표)는 동기화된다.

관용 표현은 단순히 죽은 은유로서 고정된 표현이라기보다, 분석 가능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동기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 의식주와 관련한 관용 표현은 어떠한 부분에 현저성(prominence)<sup>11)</sup>을 부여한 결과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유사성을 지각하고 이들을 서로 사상(mapping)한 결과인지 등을 살펴, 관용 표현이 동기화된 방식을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지언어학의 ‘용

10) 언어에 있어 ‘동기화(motivation)’란 오히려 정도(degree)의 문제이며, 이러한 점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Lakoff & Johnson(1999: 464)은 “대부분의 언어는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며 Radden & Panther(2004: 2)는 동기화의 정도에 대해 ‘자의성과 예측성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연속적 영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Taub(2001: 8)는 미국 수화에 관한 연구에서 의미 ‘나무’와 관련된 시각적 영상이 기호의 구조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미와 기호의 본성은 자의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기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11) 현저성(prominence)이란 표현된 정보의 선택과 배열과 관련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삼라만상에서 가장 현저한 지위를 가지며, 도구를 사용하고, 환경을 조정하며, 의지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은 주변의 사물을 보면서, 지각적으로 현저한 부분인 ‘전경(figure)’과 전경을 뒷받침해 주는 바탕인 ‘배경(ground)’을 구별해서 파악하게 된다(임 지룡 2008: 10). 따라서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가장 현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하며, 이러한 까닭으로 언어를 통해 인간이 현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법기반 모형’과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기로 한다.

첫째, 자료의 처리에 있어서 인지언어학의 ‘용법기반 모형(usage based model)’에 따른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즉, 관용 표현 목록과 구체적인 사용례를 분석하여 해당 의미 영역에 대한 개념화 방식을 확인하고 그 작용 원리를 밝히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언어 현상에 대한 인간의 경향성과 문화적 배경을 중시하는 동적이며, 개방적인 특징을 지니므로 (Langacker 1999: 91-145, Taylor 2002: 27-28, Evans & Green 2006: 120-145),<sup>12)</sup> 관용 표현을 처리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이다.

둘째, 자료의 처리에 있어서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corpus linguistic approach)’을 활용한다.<sup>13)</sup> 말뭉치 언어학은 언어연구자가 갖는 직관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언중들의 언어 사용의 실례와 경향성을 파악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실제 쓰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Trends21 코퍼스를 사용한다.<sup>14)</sup>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의 목록을 추출하고, 말뭉치에서 실제 쓰임을 확인한 후 이들이 어떻게 동기화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관용 표현 추출과 분석 단계

- a. 1단계: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목록 추출
- b. 2단계: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용례 추출 및 주석
  - Trend 21 코퍼스에서 관용 표현의 핵심어를 기반으로 한 용례 추출
  - 추출된 용례에 대한 의미 유형별 주석
- c. 3단계: 관용 표현의 의미별 사용 패턴 분석
- d. 4단계: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규명

12) Radden & Dirven(2007: xii)에서는 “한 언어의 문법은 화자들이 삶에서 경험해온 것을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어진 장면에 대한 화자들의 관점을 나타내도록 구조적인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였다.

13) 지금까지 국내 인지언어학계에서는 말뭉치 기반(corpus-based) 접근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어휘를 검색하여 그 전반적인 쓰임을 살피는 데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반면 말뭉치 주도적(corpus-driven) 접근법인 말뭉치에서 사용된 모든 실례를 살펴 이를 도식화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 운호·강 범모·차 재은(2006)은 코퍼스에서 은유 표현을 추출하여 말뭉치 주도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말뭉치에서 관용 표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4) Trend 21 코퍼스는 6억 어절 규모의 21세기(2000~현재) 문어 자료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4대 일간지로 구성된다. Trend 21은 corpus.korea.ac.kr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말뭉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나, 검색한 자료는 내려받을 수는 없다.

먼저 1단계로, 관용 표현 목록을 추출하기 위하여 세종 관용표현 상세 검색기의 관용 표현 목록과 국내에서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한 8종의 사전을 활용한다. ‘의’는 ‘의복, 장신구’, ‘식’은 ‘음식명, 식재료, 조리도구, 조리방법’, ‘주’는 ‘집, 집의 구성물’에 대한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관용 표현을 수집하였으며,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 목록 추출 결과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3) 의(衣): 가면을 벗기다/벗다, 가면을 쓰다, 갓 쓰고 구두 신기,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첫 단추를 끼우다, 면사포를 쓰다/씩우다, 색안경을/안경을 끼다/쓰다, 소매를 걷다/걷어붙이다, 신을 거꾸로 신고, 옷이/입성이 날개, 주머니를 털다/털리다, 짚신도 제짝이 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다, 치맛바람이 일다, 탈을 벗기다/벗다, 탈을 쓰다, 허리띠를 졸라매다/풀다, 호주머니 사정이 나쁘다/좋다, 호주머니가 가볍다/넉넉하다 등
- (4) 식(食): 상다리가 부러지게/휘어지게, 식은 죽 먹기, 짠 것이 비지떡, 국수를 먹다/먹이다, 기름을 짜다/치다, 김이 새다, 김칫국을 마시다, 깨가 쏟아지다, 냉수 먹고 속/정신 차리다, 도마 위에 오르다/올려놓다/올리다, 떡국을 먹다, 떡이 되다, 밥 구경을 하다, 밥그릇이나 축내다, 밥맛이 떨어지다, 밥술을 놓다, 밥술꺼나 뜨다/먹다, 밥알을 세다, 밥줄을 끊다/끊기다, 손가락을 놓다, 술독에 빠뜨리다/빠지다, 죽도 밥도 안 되다, 죽을 쑤다, 콩 볶듯 하다, 콩가루가 되다, 콩밥 신세를 지다, 콩밥을 먹다, 한술밥을 먹다, 한잔 걸치다/내다, 한잔을 사다/하다, 파김치가 되다, 호박씨를 까다 등
- (5) 주(住): 담을 지다, 담을 쌓다, 마당을 빌리다, 문을 닫다/열다, 문턱에 들어서다, 문턱을 낮추다/넘다/넘어서다/높이다, 문턱이 높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벽에 부딪치다, 벽을 쌓다/없애다/치다/허물다, 벽이 쌓이다/없다/있다, 빗장을 걸다/닫다/열다/지르다, 안방을 차지하다, 울타리를 벗어나다, 울타리 밖을 모르다, 집을 나다, 집이 나다, 천장을 모르다 등

2단계는 말뭉치에서 관용 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의미별로 주석하는 것이다. Trend 21에서 ‘탈을’을 검색하여 아래와 같이 용례를 추출한 후, 의미별로 기본형과 수식어, 사용 패턴을 수작업으로 주석하였다.<sup>16)</sup>

- (6) a. 탈을 벗고 추는 춤들은 선조들 삶과 역사가 그대로 배어 있다.
- b. 두터운 인위의 탈을 벗고 본능적인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15) ‘의식주’와 관련하여 ‘식’과 관련한 관용 표현이 가장 많았고, ‘의’와 ‘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6) 이 중에서 ‘정치에 있어서도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무리나 탈을 낳기 쉬운 것은 마찬가지다.’와 같이 ‘탈’의 동형어인 경우와 ‘전통 탈을 조각해 입힌 상품으로 개당 6000~1만원씩 받는다.’에서와 같이 ‘탈을’이 관용 표현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c. 우스꽝스러운 탈을 쓴 연극 형태로 계승된 온 탓에 정작 그 속의 춤사위는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 d.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권력의 단맛을 보려는 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6)에서 보듯이, ‘탈을 벗다’와 ‘탈을 쓰다’는 각각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관용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들을 구별하여 의미 유형에 따라 주석함으로써,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고 관용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3단계는 관용 표현의 의미에 따른 사용 패턴 분석을 분석하는 것인데, 용례 추출 및 주석의 실례를 보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의미 유형	기본형	수식어	사용 패턴	예문
관용적 의미	탈을 벗다	인위	탈을 벗고	카주라르간디의 경멸과 상관없이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1000여년 전 세워진 이곳 20여개 사원 외벽은 난잡하기까지 한 관능적인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다.에르비디오? ○○부인류는 명함도 못내민다.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문득 인도를 사랑하게 된다.두툼은 인위(인위)의 <b>탈을 벗고</b> 본능적인 인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보수	탈을 쓰고	책을 대로 짊어 문드러진 수구민사들이 보수의 <b>탈을 쓰고</b> 여론을 참칭하는 가관극이 새 세기에도 이어진다면 나라의 불행이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사회적 정의	탈을 쓴 NP	그리하여 다시는 사랑이나 사회적 정의라는 <b>탈을 쓴</b> 도착적 폭력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사회를 매질하고 억압하지 말 것을 간절하게 예기하고 있다.
사제				정치에 있어서도 여객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무리나 <b>탈을</b> 날기 쉬운 것은 마찬가지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정공법	탈을 바꿔 쓴 NP	그러나 중반 이후 이죽거리던 드라마가 정공법으로 <b>탈을 바꿔 쓴</b> 후 '감동적' 결말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광경을 보는 것은 그리 감동적이지 않다.
사제				전통 <b>탈을</b> 조각해 입힌 상용으로 개당 6000~1만원씩 받는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다양성	탈을 쓴 NP	"다양성의 <b>탈을</b> 쓴 주류 상업문화의 획일성을 거부하겠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세계화	탈을 쓴 NP	여기엔 세계화 <b>탈을</b> 쓴 '장사속'이 도사리고 있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학자	탈을 쓰고	"그런 자들을 학자로 봐주다니, 이렇게도 순진하시니 웬. 그런 인간들은 애초에 학자가 아니었어. 학자의 <b>탈을</b> 쓰고 있었던 출세주의자고 기회주의자였지."
글자 그대로	탈을 쓰다		탈을 쓰고	입준근늘이는 그려조 탐라시대.조선조 이래 제주목(牧)의 관리와 도민 등이 어우러져 <b>탈을</b> 쓰고 새해의 풍요를 기원해온 민.관합동축제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필연성	탈을 쓰는 것이다	집단 율동감은 필연성의 <b>탈을</b> 흔이 쓰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탈을 쓰다		탈을 쓰고	기쁨에 넘쳐 불러짖히는 목소리는 환희 가득하나, 웃는 표정의 <b>탈을</b> 쓰고 춤을 추며 삶의 고단함을 털어내었던 우리 민초들의 뒷모습이 생각난다.
사제				인천 해안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궁중무용을 접목한 인천시립무용단의 '나-나-나-나', 윤익경 청주서원대 교수가 이끄는 팀의 전통 <b>탈을</b> 차용한 '2천, 탈'도 눈여겨볼만한 작품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시민단체	탈을 쓰고	조 선대부장은 "시민단체의 <b>탈을</b> 쓰고 권력의 종위병으로 전락한 일부 세력들은 역사와 민족의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교육	탈을 쓴 NP	IMF를 뚫타 교육의 <b>탈을</b> 쓴 포교활동이 지성의 심장부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시민단체	탈을 쓰고	"시민단체의 <b>탈을</b> 쓰고 권력의 종위병으로 전락한 일부 세력들은 역사와 민족의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다(자민련 조부영 선대부장, 21일 민주당의 시민단체 지원 확대 공약을 비난하며)
관용적 의미	탈을 쓰다		탈을 쓴 NP	브래디는 34년 전 어린아이를 셋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맨체스터 근교 황무지에 매장한 흉악범으로, 공범이자 애인인 마이어 힐러리(57)와 함께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연봉에 오르내리며 사랑의 <b>탈을</b> 쓴 억의 죄인으로 상징됐다.
사제				이 신원은 집에 있는 사무실 집기 및 옷, 초창자들이 계속 선물 이외에도 여왕이 평소 사용하는 주전자와 안락한 수면을 위한 깃털베개 등이 포함되며, 풀을 바꿔먹어 생기는 <b>탈을</b> 방지하기 위해 말변성수드 쟁겨 간다고 전했다.
글자 그대로	탈을 쓰다		탈을 쓰고	22명의 발산대 회원이 <b>탈을</b> 쓰고 피계숨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모욕 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벌이는 양주발산대늘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공연돼온 산대도강극의 한 분파로, 예전에는 나례도강에서 관장하는 궁중행사나 중국 사신을 영접할 때 공연했다.
사제				세계 각국의 화폐와 민족 <b>탈을</b>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도 다음달 1일부터 5월7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전북도전북종합학생관 체육관에서 열린다.
글자 그대로	탈을 쓰다		탈을 쓰며	"주역은 건너지른 외출 타기/ 도리깨질하는 가슴마디/ 두리움으로 타든다/ 지분거리는 얼굴굴/ 흰겨운 언덕들/ 가끔은 <b>탈을</b> 쓰며 놀음하고/ 때로는 슬막히도록 곡애하는/ 저장된 드라마/ 매일 해집어도 되살아나는/ 기억과 실수투성이 그리운 삶/.. 화가요 시인인 이운경(이운경)의 신작시집 '주역은 외출 타고 내게로 온다(문학세계사)'는 실감케 파내는 먼 시절의 회억(회억)이다.

<그림 1> ‘탈’에 대한 용례 주석의 예

‘탈을’을 포함한 용례 2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탈을 쓰다/벗다’가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95건,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52건이었다.<sup>17)</sup>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총 85건의 ‘탈을 쓰다’ 중에서 43건이 ‘탈을 쓴’의 패턴으로, 34건이 ‘탈을 쓰고’의 패턴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 ‘탈을 쓰게, 탈을 써야 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각 관용 표현의 용례 주석 결과는 의미별로 관용 표현의 사용 패턴과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

17) ‘탈’이 단독으로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2건 있었으며, 그 외에는 ‘탈’이 ‘세계의 탈을 구경 수 있는 국제민속가면축제’가 올 가을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다.’에서처럼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휴가철 직사광선에 노출된 피부가 탈을 일으킨 때문.’과 같이 ‘탈’이 동음어인 경우이다.

서 관용 표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관용 표현은 다양한 인지적, 경험적, 지각적, 의사소통적 요인에 동기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면사포를 쓰다/씌우다, 국수를 먹다/먹이다, 마당을 빌리다’는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과 관련된 관용어로 모두 ‘혼인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혼인과 관련한 일련의 단계에서 언어 사용자가 가장 현저하다고 파악한 사건의 일부를 통해 혼인이라는 전체 사건을 나타낸다.

#### 4. 관용 표현의 사용 패턴

여기에서는 의식주 관용 표현 중에서 일부 표현을 중심으로 관용 표현의 사용 패턴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림 2>에서 보듯이, ‘가면을 벗다/쓰다’의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sup>18)</sup> 관용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주로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쓴’과 같은 패턴으로 자주 쓰인다. 반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상다리가 휘다/휘어지다’의 경우에는 용례의 대부분이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지경’과 같은 사용 패턴을 보인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문턱을 낮추다’는 ‘문턱을 낮추고, 문턱을 낮춘 N’의 패턴으로 쓰이면서 주로 관용적 의미를 갖는다.

의미 유형	기본형	사용 패턴	예문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을게	‘잠시 익숙해진 나의 이 <b>가면을</b> 벗을게/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아직 알지 않은 상처/난 그걸 알아주고 싶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어라	‘ <b>가면을</b> 벗어라’는 제목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어봐	‘ <b>가면을</b> 벗어봐 니가 어떤 사람인지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었다	연산군은 유배지에 가서야 <b>가면을</b> 벗었다.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쓰고 있던 <b>가면을</b> 벗어버리고 추잡한 농담을 지껄이기도 하면서 사회생활의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고	특정을 일삼은 연산군이 유배지로 쫓겨난 장면 뒤, 내레이터는 “권력은 가면과도 같아서 <b>가면을</b> 벗고 나면 정상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고	이 비극은 인간적 욕망과 본능이 <b>가면을</b> 벗고 날뛰는 모습을 잔혹할 정도로 밀어붙여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관용적 의미	가면을 벗다	가면을 벗지 않길	현대가 연산군처럼 뒤늦게 <b>가면을</b> 벗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관용적 의미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적 여론을 도의시하면서 화해라는 <b>가면을</b> 쓰고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
관용적 의미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쓴 N	그는 조조를 유교사회 반역자로, 유비는 유덕의 <b>가면을</b> 쓴 위선자로, 제갈공명은 마키아벨리즘 신봉자로 냉혹히
관용적 의미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쓴 N	그들은 모두 ‘도시’라는 이름의 <b>가면을</b> 쓴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규율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
관용적 의미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기	유권자 집단 또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b>가면을</b> 쓰기 쉽다.
관용적 의미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고	프란츠 파농이 쓴 ‘검은 피부 흰 가면’의 흑인 주인공처럼 때로 비호남의 <b>가면을</b> 쓰고 살아야하는 호남인의 차별
관용적 의미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지 않으면	현씨는 “당시 인민군 입대도 위장이고 <b>가면을</b> 쓰지 않으면 이북에서 살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글자그대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고	시위대는 인간유전자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뜻에서 머리가 돌 달린 인간 등 독특한 <b>가면을</b> 쓰고 등장해 눈
글자그대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쓴 N	“검은 망토에 흰 <b>가면을</b> 쓴 너희 빈집들이 여기 이 안개 낀 골목길을 두벅두벅 걸어다니고 있군. 때로 스키트만
글자그대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쓴 채	1500여명 신청자중 뽑혀 6일 녹화장에 나간 김씨. 1명의 여성을 놓고 3명의 남자가 <b>가면을</b> 쓴 채 자신을 선택해
글자그대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쓴 N	16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코메디아 델 아르테’는 <b>가면을</b> 쓴 연기자들이 노인 군인 연인 하인 등 정해진 배
글자그대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써도	<b>가면을</b> 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눈이다.
글자그대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고	<b>가면을</b> 쓰고 즐기는 축제가 봄을 일으키자 다른 지역에 체인점을 내기도 했다.
글자그대로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고	같은 선거구의 강석호(자민련)후보 운동원들은 후보 얼굴사진으로 만든 <b>가면을</b> 쓰고 다닌다.

<그림 2> ‘가면을 벗다/쓰다’에 대한 관용 표현 추출의 예

18) 임의로 50문장을 선택해 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 ‘가면을 쓰다’가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약 40%였고 ‘상다리가 휘다’는 100%였다. 말뭉치 규모를 늘리고, 문어와 구어를 모두 분석해 본다면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표현이 관용적 의미로 쓰이는 것에 대한 빈도와 그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관용 표현 연구를 실용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유형	기본형	사용 패턴	예문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다	상다리가 휘다	20여가지가 넘어서 그야말로 천라도식으로 <b>상다리가 휘다</b> .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다	상다리가 휘다는	이것저것 번갈아 가자수만 30여가지. <b>상다리가 휘다는</b> 표현이 들어맞는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 정도로	상다리가 휘 정도로	지난 일요일(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자취집에선 30대 안팎의 중각 다섯명이 <b>상다리가 휘 정도로</b>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다	상다리가 휘 정도로	강북: 여울촌(02-971-9222)=서울이 고향인 유치원 자모회에서 자주 가는 생선구이집. 갈치구이 정식(1만원)은 도통한 갈치구이와 달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다	상다리가 휘 정도의	<b>상다리가 휘 정도</b> 의 상처림보다는 밥 한그릇을 국에 말아 후루룩 먹어치우고 일터로 다시 향하는 것이 이 지역 음식의 기본개념이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다	상다리가 휘 정도의	그래서 <b>상다리가 휘 정도</b> 의 푸짐함은 없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다	상다리가 휘 지경이다	또 각종 전튀감탕·구이조림 등에 <b>상다리가 휘 지경</b> 이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어지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물론 전주에는 <b>상다리가 휘어지게</b> 나오는 한정식도 유명하고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의 명성도 빼놓을 수는 없습시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어지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b>상다리가 휘어지게</b> 차려내는 선장. 부대 생활 때도 큰 얼골 하던 버릇, 나한테도 이놈아야 저놈아야하던 대범, 일시에 이해가 됐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어지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b>상다리가 휘어지는</b> 푸짐한 상차림, 그래서 나오는 하루 1만2천에 달하는 음식 쓰레기는 못 먹던 시절에 대한 한탄이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어지다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	먼저 주머니가 넉넉하다면 원로대사와 요석공주의 로맨스가 서린 요석공에 가서 <b>상다리가 휘어질 것</b> 같은 한정식을 맛볼 수 있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어지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지만 명절 때 <b>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b> 차려놓더라도 그다지 손이 가지 않는 음식이 많고 또 남아서 버린다면 요리하는 사람만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어지다	상다리가 휘 지경이다	삼포뽕밥(054-749-5776)의 밥상은 <b>상다리가 휘 지경</b> 이다.
관용적 의미	상다리(가) 휘청거리다	상다리가 휘청거리는	"다다래"에서는 단 돈 1만원으로 <b>상다리가 휘청거리는</b> 한정식 상의 '오호한 주인이 될 수 있다.
글자그대로	상다리(가) 굽다	상다리가 굽은	개찰량(방석처럼 쓰려고 털이 붙은 채로 손질해 만든 개가죽)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개다리처럼 <b>상다리가 굽은</b> 밥상)이라는 '반' 글자그대로
글자그대로	상다리(를) 고치다	상다리 고칠 때	'집에서 <b>상다리</b> 고칠 때는 아무 계산 없이 <b>상다리</b> 예쁘게 고치는 데만 열중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서 자유로
글자그대로	상다리 모양	상다리 모양	아래 기단엔 문게구름 위에 올라앉은 여덟 마리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이 탑을 수호하고, 겹겹 연꽃받침에 <b>상다리</b> 모양의 손잡이가
글자그대로	상다리 밑	상다리 밑에	"진물 날 때 바르는 연고야. 발뒤꿈을 여니 색깔이 시퍼렇게 변해 있어. 얼른 발 위쪽을 떠서 <b>상다리</b> 밑에 두고는 그냥 먹었어. 왜 그
글자그대로	상다리 밑	상다리 밑으로	사실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나오는 찌꺼기와 <b>상다리</b> 밑으로 흘러는 음식에 비해 설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인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림 3〉 ‘상다리가 휘다/휘어지다’에 대한 관용 표현 추출의 예

의미 유형	기본형	사용 패턴	예문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고	대가의 값비싼 작품을 전시하기보다는 30~40대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을 수시로 열면서 소비자의 <b>문턱을</b> 낮추고 있다.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고	정보통신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력난에 빠진 선진국들이 해외 기술자들에게 비자발급의 <b>문턱을</b> 낮추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하이테크 이민' 정책을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고	취직자는 벤처기업에 가입 <b>문턱을</b> 낮추고 벤처기업과 주한 외국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부회장에 영입해 상의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포부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기	선물시장의 <b>문턱을</b> 낮추기 위해 지난 3월 13일 기본예탁금을 낮춘(3천만원→1천만원)랐도 있지만 무엇보다 변동성이 높을수록 투자기회가 많아지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는 N	소장품 위주로 전시하는 삼성미술관 석격상 애로가 있지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관 <b>문턱을</b> 낮추는 기획전을 해보고 싶다"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는 N	이형남 상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제휴함으로써 의뢰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높은 의료 <b>문턱을</b>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는 N	이처럼 홈페이지가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교수와 일반인 사이의 일대일 접촉이 가능해져 그간 넘기 어려웠던 학문의 <b>문턱을</b> 크게 낮추는데도 기어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려는	미술관 앞플이나 전시장, 주차장에서 열리는 미니 음악회, 젊은이들의 댄스 파티나 자장면 파티에 이어, 공공 미술관 <b>문턱을</b> 낮추려는 노력이 이제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면서	장사장은 "장애인의 날인 20일에는 63빌딩 계단을 걸어 오르며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마음의 <b>문턱을</b> 낮추면서 장애인자료정보센터 기금을,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어	또한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진의 <b>문턱을</b> 낮추어 접근이 용이해야 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추어야	결국 성장성 있는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래사의 상장 <b>문턱을</b> 낮추어야 하며, 자체에 산업구조의 정보기술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고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춘	이번 대책 중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거래소시장 진입기준의 <b>문턱을</b> 대폭 낮춘 것.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춘다는	대통령이 군소 정당대표일지라도 그들을 만나 민의를 더욱 널리 수렴해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의견상 그만큼 청와대의 <b>문턱을</b> 낮춘다는 뜻이며 대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춰	이상현 씨는 "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영화에 나갔지만, 당분간은 미술에 전념하겠다"며, "대중예술 장르인 영화 작업을 하며, 미술도 <b>문턱을</b> 낮춰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춰야	무엇보다 확률 <b>문턱을</b> 낮춰야 한다고 본다.
관용적 의미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낮춰주기도	이 법안이 중국기업에 대해 미국시장의 <b>문턱을</b> 낮춰주기도 하지만 미국의 거대기업과 자본이 북돋아줄 밀려와 중국 토착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
글자그대로	문턱을 없애다	문턱을 없애고	유모차와 장애인을 위해 <b>문턱을</b> 없애고, 약력수첩을 만들어 지속적인 부작용 모니터링을 한다.
글자그대로	문턱을 없애다	문턱을 없애고	그녀가 3학년때 전공해 2층 교실로 올라오게 되자 화장실 <b>문턱을</b> 없애고, 변기를 개조했다.
글자그대로	문턱을 없애다	문턱을 없애고	지하도·횡단보도·공원·공공화장실처럼 이용객이 많은 공공시설도 <b>문턱을</b> 없애고 점자블록,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정비한다.

〈그림 4〉 ‘문턱을 낮추다’에 대한 관용 표현 추출의 예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중 일부의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의 (7)~(9)와 같다.

- (7) a. 소점포 경영자는 판매원, 경리, 홍보사원은 물론 청소원 역할까지 다양한 갑투를 쓰고 있다.
- b. 그 비상대책위원장 갑투를 6년 만에 벗으셔서 요즘 얼마나 홀가분해 하시는지 몰라요.
- c.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무거운 갑투를 씌워주니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 d. 연초 개각을 앞두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장관 갑투를 따려고 독심술에 몰두할 것인지...
- e. 정권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갑투를 차지했다는 우박 인사의 결과다.
- f. 집권의 잔치 속에서 비서관·행정관들은 높은 갑투를 받았고 새로 등장한 청

와대 부서는 힘을 가졌다.

(7)에서 사용된 ‘감투’란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의 하나’이며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감투’를 포함한 국어 관용 표현으로 세종관용표현상세검색기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감투를 쓰다, 감투를 씌우다, 감투를 벗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감투’가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패턴을 보면 (7d)~(7f)와 같이 ‘감투를 따다, 감투를 차지하다, 감투를 받다’와 같은 표현도 등장한다.

- (8) a.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남을 돕는다는 건 흥내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 b. 그리고 보니 백내장 수술은 여러모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이네요.
- c. 이게 웬 떡이냐는 심정으로 우린 주인할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 d. 이게 웬 떡일까. 지난해와 올해 째깍한 성적표를 올린 미사강변도시에서 시세보다 1억원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 e. 16억 충전? 이게 웬 떡 신나게 쓴 40대女 낭패
- f. 그래서 그런 국민은 신문·방송들이 며칠씩 '정상회담'으로 아무리 떡을 켰어도 자신의 표심(표심)을 차분하게 따로 정리한 것이다.
- g. 모든 약자(弱者)에게 떡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무법천지에선 떡이 생기지 않는다.

(8)에서 보듯이 ‘떡’을 포함한 관용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8a)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와 같은 패턴으로 사용되며, (8b)의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과 같이 패턴으로 사용된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8c)~(8e)에서 ‘이게 웬 떡(이다)’의 경우에도 사용 패턴이 비교적 고정적이었으며, ‘이다’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도로 나눌 뿐이었다. 반면, (8f)와 (8g)와 같이 ‘떡을 치다’나 ‘떡이 생기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용 패턴을 갖고 있었다.

- (9) a. 초창기엔 그간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노래와 대사를 채록하기 위해 전북 임실의 오임관 선생 집을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 b. 이랬으니 인사청탁의 발길에 권씨 집 문지방이 닳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인사 때마다 향기롭지 못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 c. 왕년의 흥행감독으로서 손님 끄는 재주가 있어서일까, '삼김' 역시 손님들 발길로 문지방이 닳는다.

- d. 박 교사는 “아이들은 스스로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e.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편을 들어줄만한 인맥과 안면이 없다보니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 f. 지식도, 관념도, 주장도, 기준도 이를 고집하는 순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방해물일 뿐이니 모두 놓아야 너나없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 g. 공동대표는 “전북에서 지역주의 벽을 깨지 못한 것은 대안될 후보를 내지 못한 데서도 비롯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 세력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 h. 문화관광부가 나혜석을 2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한 것은 그런 소문의 벽을 뚫고 그의 인간적, 예술적 업적을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i. 이 싸움은 관료 조직의 저항과 세간의 무관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9a)~(9c)는 ‘문지방’을 포함한 관용 표현인데,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다. 문지방이 닳다’는 관용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이 ‘문지방이 닳도록’이라는 고정된 패턴으로 사용된다.<sup>19)</sup> (9d)~(9i)는 ‘벽’을 포함한 관용 표현으로 주생활과 관련된 전체 관용 표현 80여 개 중에 15개가 ‘벽’을 포함하고 있다. ‘벽’은 쌓고, 부딪히고, 허물고, 깨고, 뚫고, 넘는 대상으로 다양한 변이형을 갖고 사용된다. 이러한 관용 표현의 변이형은 관용 표현이 고정된 것만이 아니라, 유연성과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관용 표현은 고정된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관용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정도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관용성의 정도는 표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은 다음과 같은 빈도와 현저한 지각 대상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첫째, 한국어 관용 표현은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의식주와 관련한 한국어 관용 표현에는 다양한 어휘가 포함되는데, 이들 어휘는 의식주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삶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준다.<sup>20)</sup> 아래의 (10)~(12)는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서 핵심이 되는

19) Trend21에서 ‘문지방’을 포함한 문장 39개 중에서 ‘문지방이 닳도록’의 패턴으로 사용된 것은 20개였다.

20) 이 윤영(2014: 23-25)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영어 관용어 386개를 분석한 것으로, 의식주 범주

단어와 그 빈도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 (10) 의: 주머니/호주머니(25), 구두/발싸개/발감개/고무신/짚신/신/신발(19), 감투/모자/방립/사모/삿갓(12), 옷/입성(12), 가면/탈(9), 소매/가랑이(8), 치마(8), 허리띠(6), 상투(5), 옷깃/옷자락(3), 색안경/안경(4), 면사포/월계관(3), 군복/웨딩드레스(3), 바지(3) 등
- (11) 식: 밥(57), 떡(51), 술(34), 콩(26), 맛/군침(10), 소금(23), 죽(22), 호박/호박씨(18), 솔(13), 잔/술잔(12), 기름(11), 냉수(11), 보리(8), 쌀(8), 음식(8), 도마(8), 밥숟가락/밥술/수저/숟가락(8), 꽃감(7), 장(7), 고추(6), 곡식(6), 엿(6), 국수(5), 김치국(4), 반찬(4), 밥그릇(4), 상다리(4), 김(4), 콩나물(3), 메주(3), 가마술(3), 꿀단지(3), 죽사발(3) 등
- (12) 주: 집(23), 벽(15), 문턱/문지방(11), 터(8), 마당(4), 빗장(4), 안방(3), 울타리(3), 마루(2), 지붕(2), 봉창(1) 등

영어 의식주 관용 표현에 관한 연구인 이 운영(2014)과 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양 언어의 관용 표현에서 ‘소매, 허리띠, 신, 벽, 천장’ 등과 같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한국어 관용 표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들 관용 표현이 한국 문화 특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생활’과 관련한 관용 표현에는 고무신, 짚신, 감투, 방립, 사모, 삿갓이 포함된 표현이 있다. 감투는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 방립은 예전에 주로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던 갓, 사모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삿갓은 비나 햇볕을 막기 위하여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면사포, 군복, 웨딩드레스를 포함한 관용 표현은 현대에 와서 형성된 것이다. 관용 표현은 현대 언어생활에서도 활발히 생산·사용되고 있다.

또한 ‘식생활’과 관련하여 밥, 떡, 술, 콩, 호박, 보리, 쌀, 엿, 국수를 포함한 관용 표현이 다수 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밥, 떡, 술을 포함한 관용 표현이 150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로 이들 요소가 한국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존재였음을 드러내준다.

둘째, 관용 표현은 다양한 인지적, 경험적, 지각적, 의사소통적 요인에 동기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면사포를 쓰다/씻우다, 국수를 먹다/먹이다, 마당을 빌리다’는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과 관련된 관용어로 모두 ‘혼인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혼인과 관련한 일련의 단계에서 언어 사용자가 가장 현저하다고 파악한

---

별 어휘 사용 빈도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의복(hat, pants, shoes, heels, belt, socks, sleeve, boots, apron, stocking), 음식(apple, egg, bread, salt, potato, beer, cheese, butter), 주거(wall, home, fence, floor, house, door, ceiling).

사건의 일부를 통해 혼인이라는 전체 사건을 나타낸다. 이는 인지언어학의 지각적으로 현저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현저성 관점(prominence view), 동일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sup>21)</sup>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실체 즉 ‘매체’가 또 하나의 실체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인지 과정인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 구체적이고 익숙한 근원영역을 활용하여 추상적이고 새로운 목표영역을 구조화하고 개념화하는 인지 전략인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로 설명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은 언어 사용주체가 대상에서 가장 현저하게 지각하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표현하는 개념적 환유와 두 가지 영역 간에 관련된 항목의 의미 전이, 즉 ‘사상’에 의한 개념적 은유라는 기제에 의한 것이다.

- (13) a. 그는 국제유도연맹 회장도 겸해 가장 국제적인 감투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인으로 꼽힌다.  
 b. 결국 미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받게 됐고 콩밥을 먹었지만 2000년 1월 출소 후 그의 사연은 신문기사·책·영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됐고 덕분에 ‘굿모닝 아메리카’같은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된다.  
 c. 94년의 경우처럼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의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된다.

벼슬을 맡은 사람은 특별한 의관을 차려 입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감투’에 현저성을 부여하여 벼슬을 받은 사람, ‘감투’라는 높은 직위를 받은 사람과 인접한 대상이 높은 직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콩밥을 먹다’ 역시 감옥살이를 뜻하는데 감옥에서의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부분 중에서 특별히 ‘콩밥’에 현저성을 부여하여 감옥살이 전체를 의미한다.<sup>22)</sup>

‘봉창’은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이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을 이르는데, ‘봉창 두드리다’는 자다가 정신을 미처 차리지 못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연다는 것이 엉뚱하게 봉창을 문인 줄 알고 열려고 하는 데 빗댄 표현이다. 봉창을 두드리는 행동과 엉뚱한 행동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은유적 표현이다.

21) ‘인접성(contiguity)’의 개념은 환유의 정의에서 핵심 사항이다. 그런데 인접성의 관계를 환유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실제 세계의 문제로 보는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개념적 층위의 문제로 간주한다(Radden & Kövecses 1999b: 19).

22) 일제시대에는 전쟁물자 동원을 위한 공출제도 등으로 인해 농촌 생활이 극도로 궁핍했다. 쌀밥이나 보리밥은 커녕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식사가 제대로 격식을 갖출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당시에는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 지방에서 생산되던 값싼 콩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콩밥을 해먹었다. 따라서 감옥에 가면 으레 콩밥을 먹게 되었고, 이런 사정에 빗대어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콩밥 먹는다’라고 한다(우리말 유래사전,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225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식주에 관한 한국어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관용 표현의 구성 요소를 통해 한국인의 삶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 5. 마무리

이 연구는 이제까지 국내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의 목록을 확보하고, 일부 관용 표현에 대해 사용 패턴을 살펴보고 이들 표현이 동기화되어 있음을 두 가지 면에서 기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관용 표현 연구의 의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관점과 실용적 관점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 방식 즉 언어사용자의 해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반면, 이 연구의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3장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고 관용 표현의 사용 패턴을 살펴보았다. 먼저 관용 표현 목록 추출을 위해 세종 관용표현 상세 검색기의 관용 표현 목록과 국내에서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한 8종의 사전을 활용하여 목록을 확정하였다. 일부 관용 표현에 대한 사용 패턴 분석 결과, 관용 표현의 관용성의 정도는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의식주와 관련한 한국어 관용 표현에 포함된 어휘는 의식주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삶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관용 표현은 다양한 인지적, 경험적, 지각적, 의사소통적 요인에 동기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식주 관용 표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사용 패턴과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들 관용 표현에 나타난 전반적 양상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 병창. 2011. 「독일어와 한국어 손 관용구의 비유적 의미구성 비교」, 『독어교육』 50. 독어교육학회. 81-104.  
권 경일. 2010. 「관용구의 변이형과 사전의 표제어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103-127.
- 김 계연. 2011. 「일한 양언어의 ‘食’ 문화 관련 관용표현의 대조고찰」, 『일본언어문화』 20. 일본언어문화학회. 33-54.
- 김 문창. 2003.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 요약」,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13-22.
- 김 역조. 2011. 「결합 관계를 통한 차원 형용사의 의미 연구」, 『국제언어문학』 23. 국제언어문학회. 75-97.
- 김 정아·송 현주. 2013. 「친족어 관용 표현의 개념화 양상」, 『언어과학연구』 64. 언어과학회. 71-90.
- 김 주식. 2010. 「영어 관용어의 개념적 동기화」, 『언어과학연구』 52. 언어과학회. 17-36.
- 김 진해. 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3-41.
- 김 진해. 2010. 「관용 표현 연구의 새로운 쟁점」,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37-64.
- 김 한샘. 2003.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43-67.
- 김 향숙. 2003. 『한국어 감정표현의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 나 익주. 2006.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91-120.
- 나 익주. 2008. 「사랑의 개념화: 문화적 변이 가능성 탐구」,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9-88.
- 문 금현.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207-233.
- 문 금현. 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민 현식. 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7-50.
- 박 영순. 2000.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 영준·최 경봉 편저. 1996. 『관용어 사전』. 태학사.
- 박 영진·송 무. 2007. 「영어 관용어의 인지 기제 교육의 학습 효과」, 『영어교육연구』 제19권 4호. 영어교육학회. 201-232.
- 송 현주. 2015. 『국어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송 현주·최 진아. 2011. 「인지언어학에 기반을 둔 관용 표현 교육 연구」, 『중등교육연구』 59-3. 중등교육연구소. 789-812.
- 심 지연. 2009.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 윤영. 2014. 「영어 의식주 관용어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회 논문.
- 이 지용·심 지연. 2010. 「인지의미론을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의 효율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31. 한국어의미학회. 209-247.
- 이 희자. 2002. 「‘관용 표현’의 사전학적 연구-‘관용구 사전학’의 정립을 위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385-404.
- 이 희자·유 현경·김 한샘·천 미애. 2004. 「‘학습용 한국어 관용 표현 사전’ 편찬 연구」,

-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99-122.
- 임 지룡. 2003. 「감정 표현의 관용성과 그 생리적 반응의 상관성 연구」, 『기호학 연구』 14. 한국기호학회. 53-94.
- 임 지룡. 2006.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 지룡. 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 지룡 외. 2014. 『문법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 임 지룡 외. 2015.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 임 지룡 외. 2016. 『어휘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 최 운호·강 범모·차 재은. 2006. 「코퍼스를 이용한 은유 표현의 추출과 어휘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연구」,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257-279.
- 최 지훈. 2007. 「국어 관용구의 영상도식적 은유 연구」, 『한국어 의미학』 23. 한국어의미학회. 181-207.
- 황 정아. 2008. 「한중 관용어의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 비교」. 상명대 박사학위 논문.
- Evans, V. & M. Green.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Gibbs, R. & J. E. O'Brien. 1990. Idioms and mental imagery: The metaphorical motivation for idiomatic meaning. *Cognition* 36. 35-68.
- Gibbs, R.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 익주 옮김(2003).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언어·이해』, 한국문화사.)
- Gibbs, R. 2007. Idioms and formulaic language. In Geeraerts & Cuyckens, eds. (2007).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697-7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 1993. *Patterns in The Mind: Language and Human Nature*,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이 정민·김 정란 옮김(2000). 『마음의 구조: 언어를 통해 본 인간의 본질』, 태학사.)
- King, K. 1999. *The Big Picture: Idioms as Metaphors*, Houghton Mufflin Company.
- Kövecses, Z. 2005. *Metaphor in Culture: Universality and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lotz, A. 2006. *Idiomatic Creativity: A Cognitive-linguistic model of idiom-representation and idiom-variation in English*. John Benjamins.
- Markert, K., & Nissim, M. (2003). Corpus-based metonymy analysis. *Metaphor and symbol*, 18(3), 175-188.
- Radden, G. & K.U. Panther(eds.). 2004. *Studies in Linguistic Motiv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Radden, G. & R. Dirven.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ulff, S. 2010. *Rethinking idiomaticity: A usage-based approach*. A&C Black.

## 제3부 연구 발표

부정 의문문의 비중립적 태도 의미에 대하여 / 박 유경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구

—한국어 텍스트 장르 정보 구축과 활용을 중심으로— / 이 승연

한국어 학습자의 타동성 인식 조사 / 이 영준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3부 연구 발표

## 부정 의문문의 비중립적 태도 의미에 대하여

박 유경

중앙대학교 강사  
yugyeongpark@gmail.com

### 1. 연구의 대상과 목적

한국어에서 (1ㄴ)과 같이 ‘-지 않아’를 포함하는 장형 부정 의문문은 (1ㄱ)의 긍정 의문문과는 달리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하여 청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장 경희 1982, 장 석진 1984, 김 미희 2010, 등). 이처럼 부정 의문문이 ‘확인’의 용법으로 쓰일 경우, 맥락에 따라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편향된 태도(또는 믿음)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드러난다.

(1) ㄱ. 미나가 맥주를 마시니?

    ㄴ. 미나가 맥주를 마시지 않니?

(2) (1ㄴ)의 함축: 화자는 미나가 맥주를 마신다고 기대한다/믿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정 의문문의 비중립적 태도 의미가 나타나는 환경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로메로·한 정혜(Romero & Han, 2004)의 VERUM 연산자를 이용하여 부정 의문문에서 비중립적 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 2. 장형 부정 의문문의 두 가지 유형

장형 부정 의문문은 시제와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3) ㄱ. 미나가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니?
- ㄴ. 미나가 학교를 졸업했지 않니?

장 석진(1984)에 따르면 (3ㄱ)과 같은 부정 의문문과 달리, (3ㄴ)은 일종의 부가 의문문으로서 ‘확인’이나 ‘동의를 요청’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편향된 맥락에서는 쓰일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 (4)에서 보면 화자가 명제 내용(="영희가 아침밥을 먹었다/먹지 않았다")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맥락에서 (4ㄴ)의 발화는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긍정적 명제(="영희도 왔다")를 전제하는 맥락에서는 둘 다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6)에서처럼 부정적 명제(="민수도 오지 않았다")를 전제하는 맥락에서는 시제에 ‘-지 않아’가 뒤 따르는 형태는 나타날 수 없다.

- (4) [철수와 영희는 오늘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 영희: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배가 고프네요!
- ㄱ. 철수1: 아침밥을 먹지 않았어요?
- ㄴ. 철수2:#아침밥을 먹었지 않아요?

- (5) 민수도 오고, 철수도 온 것 같네, 이제 수업을 시작합시다!
- ㄱ. 영희도 오지 않았어요?
- ㄴ. 영희도 왔지 않아요?

- (6) 아, 철수가 안 왔으니, 여긴 남학생이 단 한 명도 없네.
- ㄱ. 민수도 오지 않았어요?
- ㄴ. #민수도 왔지 않아요?

한편 (1ㄱ)과 같은 부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시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3ㄱ)과 같은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3ㄴ)과 같이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김 동식(1981)이나 김 미희(2010) 등에 따르면 (3ㄱ)과 (3ㄴ)은 서로 다른 초분절적 요소(휴지나 억양)와 결합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1ㄴ)과 같이 시제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지나 억양으로 명제의 가부를 묻는 부정 의문문인지 확인이나 동의를 요청하는 의미 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로메로·한 정혜(Romero & Han, 2004)에서는 영어의 부정 의문문을 전치형(pre-posed form)과 후치형(post-posed form)으로 분류하였는데, 후치형은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하여 편향된 태도(또는 믿음)를 갖고 있다는 비중립적 의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치형의 경우 반드시 그러한 비중립적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

- (7) ㄱ. Didn't Jane drink beer? (전치형)  
 ㄴ. Did Jane not drink beer? (후치형)

(4)와 같은 중립적 맥락에서 전치형이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에서도 두 유형의 장형 부정 의문문은 영어와 비슷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로메로·한 정혜(2004)를 따라 (3ㄱ)과 (3ㄴ)을 각각 후치형과 전치형으로 부르겠다.

### 3. 로메로·한 정혜(2004)의 VERUM 연산자

로메로·한 정혜(2004)에서는 긍정 의문문이 'really'와 함께 쓰일 때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really'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보이지 않는 의미적 연산자(=VERUM 연산자)가 부정 의문문의 해석에 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VERUM이 전치형 부정 의문문의 의미 해석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8)에서처럼 '정말'이 함께 나타나면 긍정 의문문이 명제 내용의 부정에 대한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8ㄱ)의 화자는 '민수가 은주를 초대했다'는 명제 내용에 대하여 청자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민수가 은주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함축이 일어난다.

- (8) 민수가 초대해서, 은주가 오늘 파티에 올 거야.  
 ㄱ. 민수가 정말 은주를 초대했어?  
 ㄴ. 민수가 은주를 초대했어?

로메로·한 정혜(2004)에 따르면 VERUM 연산자는 '공통 기반(Common Ground)에 그것이 취하는 명제 p를 포함 시킨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

르면 VERUM을 포함하는 의문문은 형식적으로 ‘VERUM(p)?’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고, ‘명제 내용 p 를 공통 기반에 포함시킬까?’라는 질문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VERUM의 의미는 기존 논의에서 지적해 왔던 부정 의문문의 ‘확인’ 용법과 맞아 떨어지는 의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명제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은 담화 맥락에 제시된 정보를 대화 참여자 모두가 참으로 여기는 명제로 인정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긍정 의문문: 기본적으로 중립적 태도 맥락에서만 쓰이지만 ‘정말’이 함께 나타날 때 명제 내용의 부정에 대한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 (8ㄱ)
- 2) 후치형 부정 의문문: ‘정말’ 또는 영형의 VERUM 연산자에 의하여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나타낸다. → (9ㄱ)
- 3) 전치형 부정 의문문: 의미 해석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VERUM 연산자에 의하여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드러낸다. → (9ㄴ)

- (9) ㄱ. (정말) 밥을 먹지 않았어?  
       ㄴ. (#정말) 밥을 먹었지 않아?

#### 4. 전치형과 후치형의 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

비중립적 태도 맥락에서 전치형이 갖는 해석과 후치형은 서로 다른 해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치형의 경우 ‘정말’이 함께 쓰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의미 해석이 조금 다르다.

- (10) [미나가 중국어로 된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화자는 미나가 중문과를 졸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실한 사실은 모른다.]  
       ㄱ. 미나가 중문과를 졸업하지 않았니?  
       ㄴ. #미나가 정말 중문과를 졸업하지 않았니?  
       ㄷ. #미나가 중문과를 졸업했지 않니?

- (11) [미나가 중국어로 된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화자는 미나가 중문과를 졸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실한 사실은 모른다.]  
       영희: 미나는 중문과는 중퇴했고, 경영학과를 나왔어.

- ㄱ. 미나가 중문과를 졸업하지 않았니?
- ㄴ. 미나가 정말 중문과를 졸업하지 않았니?
- ㄷ. #미나가 중문과를 졸업했지 않니?

주어진 예문들을 통해 보면, ‘정말’은 반드시 화자의 믿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행 발화가 주어진 상황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8)과 같이 긍정 의문문이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드러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선행 발화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치형은 ‘정말’과 함께 나타날 수 없다.

한편 화자가 직접 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후치형보다는 전치형이 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화자가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근거한 믿음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후치형만 허용되고 전치형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없다. 이는 (10)과 (11)의 예를 통해서도 들어나는 사실이다.

(12) [화자는 철수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민수도 그 모습을 자신과 함께 보았다고 생각한다.]

민수: 철수가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네.

- ㄱ. ?철수가 밥을 먹지 않았어?
- ㄴ. ?철수가 정말 밥을 먹지 않았어?
- ㄷ. 철수가 밥을 먹었지 않아?

(13) [화자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철수가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민수: 철수가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네.

- ㄱ. 철수가 밥을 먹지 않았어?
- ㄴ. 철수가 정말 밥을 먹지 않았어?
- ㄷ. #철수가 밥을 먹었지 않아?

## 5. 수도(Sudo, 2013)의 비중립적 태도 의미의 두 유형

수도(2013) 등에 따르면 비중립적 태도 의미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뉘고, 일본어의 경우 nai- 부정 의문문의 서로 다른 억양 패턴으로 그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 1) 증거적 비중립적 태도 (Evidential bias):

맥락상 증거가 주어진 경우 그 맥락상의 증거에 기대어 비중립적 태도를 드러

내는 함축 의미가 나타난다. 이 경우 대화 참여자 모두가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다.

(14) 맥락상의 증거(Contextual Evidence):

담화 상황에서 당면한 발화의 직전에 대화 참여자들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게 된 증거 (뷰링·건록슨 Buring and Gunlogson 2000, 수도 2013에서 발췌하여 번역)

2) 인식적 비중립적 태도 의미 (Epistemic bias):

화자의 인식적 추론에 기댄 비중립적 태도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로서, 화자를 제외한 대화 참여자들은 명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한국어의 전치형과 후치형의 분포로 볼 때, 전치형은 증거적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후치형은 인식적 비중립적 태도 의미를 각각 드러내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에서는 청자도 자신도 (일종의 맥락 증거인) 철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철수가 밥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내용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논쟁적인 맥락(Controversial context)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청자에게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에서 화자는 청자는 확실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추론에 의하면 ‘철수가 밥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되는 내용의 명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6. VERUM 연산자와 비중립적 태도 의미의 도출

로메로·한 정혜(2004)를 받아들여, 위에서 제시한 인식적 비중립성과 증거적 비중립성의 차이를 VERUM 연산자와 부정 표현의 일종의 영향권 관계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증거적 비중립의 의미를 갖는 경우 VERUM 연산자가 부정에 대하여 더 큰 영향권을 갖고, 인식적 비중립의 의미를 갖는 경우 부정이 VERUM보다 더 큰 영향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석의 차이를 단순하게나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5) 맥락 증거에 근거한 비중립적 태도 의미 (=12)

ㄱ. 예상되는 구조: VERUM(~p)?

ㄴ. 나 (=화자)의 공공의 믿음(Public Belief)에는 p가 입력되어 있다. 그런데 방금 너의 공공의 믿음에는 나의 믿음의 부정인 ~p가 더해 졌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논쟁적인 맥락을 해소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ㄷ. 해석: ‘정말 ~p가 공통기반에 더해져야 하니?’

(16) 인식에 의한 비중립적 태도 의미 (=13, 10, 11)

ㄱ. 예상되는 구조: ~VERUM(p)?

ㄴ. 나 (=화자)의 공공의 믿음에는 명제 p가 입력되어 있다. 그런데 이 p를 이대로 공통 기반에 입력시켜도 될지 확실하지 않다. 청자의 믿음은 다를 수 있으니까. 따라서 확인이 필요하다.

ㄷ. 해석: ‘내 믿음인 p가 공통 기반에 더해져도 되니?’

본 발표에서는 한국어 장형 부정 의문문을 전치형과 후치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비중립적 태도 의미가 드러나는 환경을 살펴보고, 로메로·한 정혜(2004)의 VERUM 연산자를 통해 비중립적 태도 의미 해석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조와 의미의 도출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김 동식. 1981.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
- 김 미희. 2010. 부정 의문문의 확인 용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 경희. 1982. 국어 의문문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85-115쪽.
- 장 석진. 1984. 국어의 부가의문-형식과 기능-, 언어 9. 259-277쪽.
- Buring, Daniel and Gunlogson, Christine. 2000. Aren't positive and negative polar questions the same? Ms. USCS/UCLA.
- Gunlogson, Christine. 2003. True to Form: Rising and Falling Declaratives as Questions in English, New York: Routledge.
- Romero, Maribel & Han, Chung-hye. 2004. On negative yes/no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5) p.609-658.
- Sudo, Y. 2013. Biased polar questions in English and Japanese, in D. Gutzmann and H-M. Gaertner (eds.). Beyond Expressives: Explorations in Use-Conditional Meaning, Brill.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3부 연구 발표

##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구 — 한국어 텍스트 장르 정보 구축과 활용을 중심으로 —

이 승연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seungyeon1971@gmail.com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에서 교육 자료로서 텍스트가 지니는 가치를 논하고, 읽기 및 쓰기 교육을 위한 한국어 텍스트 및 장르 정보의 구축과 활용 방안에 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교육에서 텍스트는 언어 입력의 원천으로 의사소통 맥락을 형성하며, 내용 지식과 언어 표현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장르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텍스트 유형별로 내재된 특성과 자질, 혹은 장르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읽기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용 텍스트가 담화공동체에 의해 공유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쓰인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모어 화자는 자신이 속한 담화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오랜 기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해당 언어에 속하는 다양한 장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장르에 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모어 화자와 달리, 외국어 학습자들은 목표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목표어 담화의 장르적 관습에 속

달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모어에서 익혀온 장르 관습과 다른 목표어의 관습을 인지하고, 차이를 비교하며 새로운 관습을 배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어 교육에서 장르에 관한 명시적 교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sup>1)</sup>

장르는 본래 수사학이나 문학 이론에서 텍스트를 분류하던 제한된 개념이었으나 바흐친(Mikhail Bakhtine)에 이르러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담화’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바흐친은 장르를 ‘발화문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형식’이라 보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가 해당 담화의 장르에 숙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khtine, 1984:284, 정 우향 2011:254 재인용). 장르의 이러한 기능은 구어 활동이나 문어 활동에서 모두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특히 읽기와 쓰기에서는 장르 지식이 텍스트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참조가 되어, 주어진 글을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이해하게 하거나, 글쓰기 과제를 문제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화자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통용되는 담화의 장르적 특성을 숙지하여야 안정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제 2언어 학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어교육에도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텍스트와 장르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특히 쓰기 교육에서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로부터 장르적 접근(genre-based approach)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더욱이 이 시기는 국내 유학생이 급증하였고 이들을 위한 학술적 장르에 대한 쓰기 교육 연구가 심화되면서 장르 관련 연구가 시너지를 내게 되었다.<sup>2)</sup> 그 결과 한국 담화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학위논문, 보고서 등의 학술 담화에 대한 분석과 교육 방안이 시도되었고 현재까지 그 성과의 축적이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이제는 학문적 담화뿐 아니라 일상 담화의 장르에 대한 탐색과 쓰기와 긴밀히 연계된 읽기에서의 장르에 관한 연구로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정보화시키는 작업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를 토대로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 대상 장르 목록을 살핀 뒤 각 장르에 대한 정보 기술의 틀을 마련하여 정보화 작업을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sup>3)</sup> 이를 위해 아래의 세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 텍스트와 장르에 관한 명시적 교수는 단지 외국어 학습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자국어 교육에서도 텍스트와 장르 교수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 2)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장르에 관한 연구는 EAP에서 먼저 시작되고 활성화되었는데, 한국어 교육에서도 역시 유사한 발달 과정을 겪게 되었다. 지금까지 읽기, 쓰기 교육에서의 장르 연구가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의 학술적 텍스트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 3) 지금까지의 연구를 귀납적으로 종합할 때 체계적 공백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기적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실시된다.

- 1) 한국어 문어 교육에서 장르 분류와 배열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 2) 한국어 교육에서 장르 정보의 구축 목적과 기술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3) 한국어 장르 정보 기술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며 그 구축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 2. 선행 연구

### 2.1. 읽기 교육 분야 텍스트·장르 연구

의사소통적 교수법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도 텍스트 유형이나 장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sup>4)</sup> 특히 읽기의 중점이 문학 작품에 있던 전통적 교육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텍스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읽기 교육용 텍스트의 다양성, 실제성, 전형성 등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텍스트 연구는 첫째, 읽기 교육과정 및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 유형과 그 분류에 관한 논의, 둘째,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교재 텍스트의 실제성과 전형성을 분석한 연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교재 분석을 통해 읽기 텍스트의 주제와 기능, 유형에 관해 논의한 연구로는 이 중진(2009), 송 수희(2009), 시 가영(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 중진(2009)에서는 교재 내 읽기 텍스트가 특정 기능에 치우쳐 있으며, 유형별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각 숙달도별 교육용 텍스트 유형을 제시하였다. 송 수희(2009)와 시 가영(2014)에서도 교재 텍스트를 기능, 구조, 주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숙달도별 읽기 텍스트에서 기능, 구조, 주제 유형이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5)</sup>

특정 장르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읽기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 찬례(2008), 이 승연·장 미경(2011), 이 승연(2012) 등을 들 수 있다. 김 찬례(2008)에서는 기사문의 주제부 전개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읽기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승연·장 미경(2011), 이 승연(2012)에서는 각각 한국 일간지의 사설과 칼럼, 그리고 기사문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교재의 읽기 텍스트에 실제성이 결여되었음을 논하

4) 한국어 교육보다 연구가 앞선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5) 두 연구에서는 읽기의 기능과 주제, 구조 등에서 숙달도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고, 읽기 텍스트의 제작 혹은 개작에 한국어 텍스트 분석 정보를 참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김 나라(2010)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읽기 교육에서 가정통신문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텍스트 유형별 읽기 교육에 대해 Otgontsetseg(2009)에서는 정보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김 성재(2015)에서는 설명문의 구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sup>6)</sup> 이밖에 김 재희·안 정오(2015)는 퍼스 기호학의 도상, 지표, 상징의 개념을 활용하여 각 텍스트의 특성을 정리한 뒤, 이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분류 배치함으로써 인지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 2.2. 쓰기 교육 분야 텍스트·장르 연구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강 승혜(2014)에서는 쓰기 교육 연구 가운데 텍스트 분석 연구는 2014년까지 총 48편으로 전체 333편의 논문 중 약 15%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sup>7)</sup> 쓰기 교육 분야에서는 텍스트 및 장르 분석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므로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sup>8)</sup>

분류		연구 성과
텍스트 유형별 연구	설명적 텍스트	박 수지(2002), 신 필여(2008), 목 계연(2008), 양 태영(2009; 2013)
	논증적 텍스트	홍 해준(2008), 안 정호(2012), 이 주민(2012), 배 윤경(2013), 조 인옥(2013), 임 태운(2015)
장르별 연구	학술논문 <sup>9)</sup>	용 재은(2004), 박 은선(2005), 박 지순(2006), 김 영규·이 은하(2008), 신 영주(2011), 안 지혜(2011), 홍 해란(2011), 윤 여옥(2012), 서 지혜(2012), 이 수연(2012), 박 나리(2012), 조 은영(2011), 김 민혜(2014), 박 수연(2015), 주 현하(2015), 이 선영(2015)
	학업 보고서	이 해영(2005), 이 준호(2005), 최 은지(2009), 박 은선(2014), 이 은하·김 영규(2015)
	시험 답안	정 진경(2012), 이 승연(2011), 동 황염(2012)
	자기소개서	양 건승(2007), 하 승현(2013), 하 승현·이 미혜(2013), 정 유진(2015) 등
	이메일	김 상아(2010), 김 아늑(2012), 홍 인화(2013), 김 요셉(2014), 이 승연(2014)
	기타	홍 해준(2008)-기행문, 이 선민(2014)-협조문

<표 1> 장르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쓰기 교육 연구(강 승혜 2014에서 수정함)

- 6) 이밖에 김 나라(2010)에 의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정통신문 텍스트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 7) 강 승혜(2014)에서는 쓰기 교육 연구의 주제를 ‘쓰기 교육 일반’, ‘오류분석’, ‘교수학습’, ‘교육과정 개발’, ‘교재’, ‘텍스트 분석’, ‘평가’의 일곱 분야로 나누어 살폈으며, 텍스트 분석 분야(48편)는 교수 학습 분야(157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는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도 포함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학습자 텍스트 분석 연구는 제외한다. 이밖에 2015년과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더 추가하였다.
- 8) 여기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함께 살피지 않았으며, 한국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쓰기 교육의 자료를 제공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쓰기 교육에서 텍스트와 장르에 관한 논의는 단연 학술적 담화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학위논문의 서론, 연구방법, 각주, 결론 등 각 부분에 대한 장르 분석을 시도한 연구, 대학 혹은 대학원 보고서와 시험 답안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텍스트 유형별, 혹은 장르별 연구 목록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메일, 기행문, 협조문 등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구가 학술적 담화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쓰기 교육에서 장르와 텍스트에 관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미혜(2010, 2012, 2013, 2016)의 연구들이다. 이 일련의 연구에서는 장르 중심 쓰기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한국어 장르 분류 및 장르 교육 내용, 숙달도별 주요 장르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그 결과 쓰기 교육에서의 장르와 텍스트에 관한 논의를 급진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3. 한국어 문어 교육 텍스트 유형 및 장르 목록

본고에서는 읽기와 쓰기 교육의 대상 장르를 선정하여 목록화하고, 각각의 장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문어 교육용 텍스트 유형과 장르를 선정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김 중섭 외(2011), 이 미혜(2011)과 이 정희 외(2015)를 참고하였다.

기존의 장르 이론과 교재분석을 통해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를 시도한 이 미혜(2011)에서는 위의 두 연구에 비해 간략하게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를 <표 2>와 같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장르 분류의 원칙으로 거시 장르에 따른 1차 분류, 그리고 미시 장르에 따른 2차 분류를 세웠다.

거시 장르	미시 장르
정보 전달의 글	설명서, 기사문, 보고문, 계약서, 소개글, 안내문, 논문, 게시문, 고지서, 명함, 요약문, 사용 설명서 등
정서·감정 표현의 글	경험담, 기행문, 수필, 일기, 유머글, 창작 이야기, 동화, 독서 감상문, 자서전, 기도문 등
사교·친교의 글	편지, 엽서, 축하글, 위로글, 사과문, 식사문, 문자 메시지, 이메일, 연하장, 충고글, 메모, 초청장 등
주장의 글	건의문, 논설문, 사설, 시평, 평론, 연설문, 광고, 요청문, 판결문, 시사평론 등

<표 2>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이 미혜 2011:406)

9) 학술논문에 관한 연구는 논문의 각 부분, 즉 학위논문의 서론, 연구방법, 결과, 결론 부분의 장르 분석을 실시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10) 이메일 연구 역시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의 연구로 분류되는 것이 많다고 보인다.

김 중섭 외(2011)에서는 한국어 교육 대상 문어 텍스트 유형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화하였는데,<sup>11)</sup> 특히 대상 학습자를 일반목적에서 학문목적 학습자까지 포괄하여 한국어교육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텍스트 유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각 텍스트 유형의 숙달도별 분류는 제시되지 않아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텍스트 유형
1수준 정보 전달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기예보, 픽토그램, 간판/포장 문구, 신분증, 광고, 공증/공문서, 신문 기사</li> <li>소개글, 안내문, 게시문, 설명문,</li> </ul>
2수준 문학적 반응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전기문, 시, 소설, 설화, 민담, 희곡</li> <li>감상문(독후감, 여행 감상문, 기행문, 공연/전시 감상문), 수필,</li> </ul>
3수준 비판적 분석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고(구인/모집 광고, 제품광고, 기업광고, 공익광고), 신문기사(사진기사, 그래프, 도표, 사건/사고 보도 기사, 기획/화제 기사, 인터뷰 기사, 해설 기사), 논설(논평/사설/칼럼), 선언문(현장, 선서),</li> <li>평(서평, 영화평, 공연/전시회 평, 평론), 신청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계획서(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업무계획서), 보고서(관찰보고서, 탐방기, 기술보고서, 조사보고서), 학업/학술문(시험지, 논술 답안지, 학술서적, 학술보고서, 학술논문)</li> </ul>
4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시지(축하 메시지, 감사 메시지, 사과 메시지, 위로/격려 메시지), 매체 담화 (인터넷 댓글, 인터넷 게시판 글), 생활문(메모, 일기, 편지, 엽서, 이메일, 기념일 카드, 청첩장, 초청장), 사회소통/문제해결적 글(고객만족카드, 제안하는 글, 문의하는 글, 건의문, 상담하는 글)</li> </ul>

〈표 3〉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의 문어 텍스트 유형 목록(김 중섭 외 2011에서 수정)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인 이 정희 외(2015)에서는 김 중섭 외(2011)에서 제시한 텍스트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등급별 성취 기준에 맞추어 한국어 읽기 교육 텍스트 유형을 〈표 4〉와 같이 밝혔다.<sup>12)</sup> 이 유형화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다룰 만한 텍스트를 매우 치밀하게 예시하였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 기술을 〈표〉에서 제시한 모든 유형에 대해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읽기와 쓰기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장르로 추려서 목록화하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1) 그러나 장르명(감상문, 안내문, 광고 등)과 텍스트 유형 명칭이 섞인 채 제시되어 있어 분류의 일관성과 체계성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12) 〈표〉의 내용은 이 정희 외(2015:69-76)의 내용 중 텍스트 유형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등급	텍스트 유형
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보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b> 한국어교육용 대화문/답화문, 픽도그램(장소, 위치, 규칙, 일기예보 등), 지도(노선도, 관광지 약도 등), 안내 문구(목적지, 시간, 특정 정보, 출입, 방향 등), 이름, 주소, 학년반 표시, 신분증, 명함, 티켓(교통편, 공연/장소 입장권 등), 화폐, 간판, 제품명, 메뉴, 일정표(시계, 달력, 시간표, 다이어리 등), 일기예보, 안내문(미아 찾기, 간단한 공지), 내복약 설명서, 현금 자동 지급기 메뉴</li> <li>• <b>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b> 간단한 문자/SNS 메시지(인사, 질문, 약속 확인, 축하, 감사 등), 축하 카드, 초대장, 간단한 안부/감사 편지,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일기</li> </ul>
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보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b> 친교적 자기소개서, 제품 광고, 간단한 구인/모집 광고, 시설 이용 안내문, 경고/사용불가, 안내문, 간단한 주택 매매 광고문, 자세한 길 안내문, 직장 내 표지/안내문, 관공서 이용 절차 안내문, 플래카드의 기본 정보, 평이한 상품/제품 설명서, 여행 안내문, 여행 광고문, 호텔/항공 예약 사이트, 영화/공연 포스터, 분실물 안내문, 사진 신문 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신문 기사, 연예나 사회 관련 뉴스 헤드라인, 평이한 인터뷰 기사, TV 프로그램명, 책/영화/공연 제목, 한 줄 정도의 서평/영화평/공연평, 영화/공연 포스터, 요리/조리법, 일상생활에 관한 블로그/SNS, 평이한 성격의 텍스트, 시험지 지시문, 성적표, 그래프/도표, 공익광고, 제품광고, 구인/모집 광고, 미술관/박물관 설명문, 친숙한 대상에 관한 설명문</li> <li>• <b>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b> 노래 제목, 평이한 노래가사, 평이한 수필/여행 감상문/독서 감상문, 평이한 소설/시/시나리오/희곡/만화의 일부분</li> <li>• <b>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b> 평이한 입사 지원서, 학업 계획서, 평이한 논설문, 평이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평이한 서평/영화평/공연평, 평이한 제안서</li> <li>• <b>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b> 안부/축하/감사/위로/격려/문의 메시지/전자우편(이메일)</li> </ul>
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b> 설명문, 인터넷 게시 글(정보 제공), 인터넷 뉴스, 신문 헤드라인, 일반적인 신문/잡지 기사, 전문적인 주제의 신문 기사, 다큐멘터리 자막, 시사 프로그램 자막(정보 제공), 영화/드라마 자막, 생활 과학 상식, 백과사전(일반적인 정보), 자신의 전문 분야 강의 자료(PPT/간단한 강의안), 업무 보고서, 각종 계약서</li> <li>• <b>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b> 수필/소설/시/시나리오/희곡/만화, 우화/설화/민담</li> <li>• <b>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b>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학업 계획서, 관찰 보고서, 연구 계획서, 학술 보고서, 학술 논문, 제안서, 기획서, 논설문, 대자보, 인터넷 게시 글(의견), 논설(논평/사설/칼럼), 시사 프로그램 자막(의견피력), 토론 프로그램 자막서평/영화평/공연평</li> <li>• <b>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b> 사회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건의문/상담문, 일반적인 축하/기념사, 인터넷 댓글, 종교적인 글(성경/경전 등)</li> </ul>

〈표 4〉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내 읽기 텍스트 유형 목록(이 정희 외 2015에서 수정)

## 4.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장르 정보 구축과 활용 방안

### 4.1. 장르 정보 구축의 목적과 방법

한국어 텍스트와 장르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된다. 교재 개발에서 읽기 텍스트를 선정하거나 제작 또는 개작할 때 참조 자료로 요구될 수도 있고, 쓰기 교육에서 장르 지식을 명시적으로 교수할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혹은 한국어 모어 화자인 교사가 자신이 지닌 직관적, 암시적 장르 정보를 명시화해야 할 경우, 또는 한국어 비모어 화자인 교사가 읽기, 쓰기 교육에 앞서 한국어 장르에 관한 지식을 쌓고 교육에 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는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르 정보를 기술구축하여 앞서 언급된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참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구축된 정보는 그 자체가 한국어 읽기 및 쓰기 교육의 내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참조 자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에서는 정보 기술 및 구축의 목적에 대해 읽기와 쓰기에서 공통되는 것과 각 기능별 특화된 목적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장르에 관한 지식 명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장르에 관한 직관적 지식을 텍스트의 귀납적 분석을 통해 명시화</li> <li>- 특정 장르에 속하는 텍스트의 내적, 외적 구조에 관한 보편적 정보 제공</li> <li>- 유사 장르와의 비교·대조 자료 제공하여 장르 변별의 근거 제공</li> </ul> </li> <li>• 교재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 분석 결과 ‘기능-어휘-문법-장르’ 통합 교재 개발 도모</li> </ul> </li> </ul>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적, 전형적 읽기 자료 개발의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교육용 텍스트 평가, 선정, 제작, 개작의 참조 기준 제공</li> </ul> </li> <li>• 읽기 교수를 위한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 활용 읽기 교수를 위한 언어, 구조 관련 정보 제시</li> <li>- 특정 장르 읽기 활동의 자료 제시</li> </ul> </li> <li>• 읽기 텍스트 샘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장르의 고유 속성을 지닌 이상적 텍스트 제공</li> </ul> </li> </ul>
		쓰기

<표 5> 장르 정보 구축의 목적과 활용 방안

13) Hyland(2003)의 교육 단계와 장르 중심 활동으로부터 용어를 차용하였다. 문맥화(contextualizing)는 목표 장르의 목적, 독자, 맥락을 파악하는 활동, 모델링(modeling)은 목표 장르의 전형적인 모습과 언어를 조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연결(connecting)은 학습자가 작성한 글을 비슷한 맥락의 글과 비교, 대조하거나 그와 유사한 글과 함께 더 큰 과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기술의 구체적인 자료는 기존의 텍스트 분석 연구에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체계상의 공백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한국어 텍스트의 실제 분석을 통해 기술 내용을 마련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틀을 마련하는 데는 기존의 장르 분석 및 텍스트 언어학에서의 이론과 지침을 수용하여 연역적,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마련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귀납적, 경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 4.2. 장르 정보 기술의 틀

장르 정보 기술의 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Hood, Solomon and Burns(1996: 66-67, 재인용)에서 제시한 장르 분석의 지침을 참고하되 한국어의 특성에 맞춰 변형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sup>14)</sup>

- ① **텍스트의 목적과 맥락:** 텍스트의 유형이 무엇인가?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에 관하여 쓰는가?
- ② **텍스트의 전체적 구조:** 텍스트의 구조 및 각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각 단계의 기능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가?
- ③ **텍스트 응집 방식:** 접속어가 사용되었는가? 텍스트는 텍스트 내의 지시어 사용을 통해 응집되는가? 어휘를 통하여 텍스트가 결속되고 있는가?
- ④ **특징적인 문법 양상:** 평서문(declaratives), 의문형(interrogatives), 명령형(imperatives) 중에서 무엇을 주로 사용하였는가? 필자가 조동사(could, may, must)를 사용하였는가? 시제의 선택은 어떠한가? 단문과 복문의 비율은 어떠한가? 사건의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 전치사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 ⑤ **어휘의 선택:** 내용적 어휘(content words)의 사용은 양적으로 어떠한가? 장형 명사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전문적 용어가 혹은 일상적 용어가 사용되었는가? 기술적 어휘(descriptive words)의 사용은 양적으로 어떠한가? 어휘가 감정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가, 단정적인 표현을 하였는가? 중립적인가?

거시장르명	미시장르명	
장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의 보편적, 일반적 특성</li> <li>- 사회적 목적과 기능에 관한 정보</li> <li>- 쓰는 이, 읽는 이에 관한 정보</li> <li>- 주된 내용에 관한 정보</li> </ul>	
상황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주제, 양식에 따른 변이형 정보 제시</li> </ul>	
텍스트 내적 구조 <sup>15)</sup>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빈도 어휘<sup>16)</sup>: 내용적/기술적 어휘 사용 특성</li> <li>- 어휘의 격식성 및 한자어 사용</li> <li>- 1인칭 사용 여부(나, 저, 본인, 필자 등)</li> </ul>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 종결 유형, 시제 사용, 명사형 사용</li> <li>- 단문/복문 사용 비율</li> <li>- 완곡 표현 사용 등</li> </ul>

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연구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다만 출처를 미처 기록해두지 못하여 본 발표에서는 재인용의 출처를 기재하지 못함을 밝힌다.

	구조	- 텍스트 구조 및 단계 특성 - 각 단계의 기능과 역할
수업 활동 정보		- 읽기 및 쓰기 수업에 유용한 정보
샘플 텍스트		-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텍스트 사례 - 유사한 장르에 속하는 텍스트 사례
기타 정보		

〈표 6〉 장르 정보 기술의 틀

### 4.3. 장르 정보 기술의 예

거시장르명	정보 전달의 글	미시장르명	기사문
장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쓴 글.</li> <li>특성 (1)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공정성, 사실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2)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3) 기사문의 작성 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중요하거나 읽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을 먼저 신는 것이 효과적이다.<sup>15)</sup></li> </ul>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주제</li> <li>주체: 기자가 작성하며, 불특정 독자들이 읽음.</li> <li>양식: 신문지면에 문어로 작성됨.</li> <li>기타: 잡지, 인터넷 상의 기사문</li> </ul>		
텍스트 내적 구조 <sup>18)</sup>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어 사용: 신문 기사 제목에서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본디말보다 약어 사용, 약어는 구성 어근의 첫 음절을 가지고 조합함.</li> <li>* 본디말의 의미를 연상하기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말로 인식될 때 예외</li> <li>..... (이 주행 2003:14)</li> </ul>	
	문법	....	
	구조	<p>(1) 사건 사고 기사 구조- 역피라미드 구조</p> <p>(2) 인물 기사 구조</p>	

15) 이에 관한 자료는 강 범모(1999)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 범모(1999)는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어 텍스트에 사용되는 언어 특성의 빈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장르와 언어적 특성이 보이는 상관관계를 밝혔다.

16) 텍스트 샘플을 수집한 후 코퍼스 구축을 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내용어 및 기술어 등에서 어휘 빈도를 측정하여 어휘 정보를 추출하고 문법 및 구조상의 특이 사항을 도출한다.

		<p>(3) 인터뷰 기사 구조</p>
수업 활동 정보	...	
샘플 텍스트	...	
기타 정보	...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을 위해 텍스트 장르 정보를 기술, 구축하여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 연구의 성과를 집약하여 한국어 문어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교수 활동 개발 등의 참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르 또는 텍스트 유형이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관습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고정불변의 법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역시 시의적 변화를 반영해야만 한다고 본다. 가령 기사문이라고 하면 과거 신문 지면에 게재되거나 잡지에 실린 기사문을 뜻했지만, 현대 사회인이 기사문을 더 자주 접하는 매체는 인터넷 혹은 SN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르가 구현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필요로 하는 곳에 인쇄물 형태로 제공되기보다는 웹기반의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제작되어, 비선형적 입체적 자료 제공으로 이어지고 수시로 텍스트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룰 가능성 있는 모든 장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현실적으로 이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용 장르를 선별하

17)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사문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7. 8. 25., (주)신원문화사)

18) 이에 관한 자료는 강 범모(1999)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 범모(1999)는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어 텍스트에 사용되는 언어 특성의 빈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장르와 언어적 특성이 보이는 상관관계를 밝혔다.

는 것과 각 장르별 정보 제공의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제한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장르, 텍스트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양질의 정보를 간결하게 추출하는 작업과 현재까지 연구가 미진하여 정보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 작업이 남아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강 범모. 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 승혜. 2014.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1권. 1~35쪽.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권 혜경. 2010. 「한국어 읽기교육 연구의 흐름과 동향」, 언어학연구 16. 1-26쪽, 한국중원언어학회.
- 김 나라. 2010. 「가정통신문의 텍스트 유형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읽기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 봉순. 2002. 『국어교육과 텍스트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 봉순. 2010.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류 체계 연구-읽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9권. 169-209. 국어교육학회.
- 김 정남. 2008. 「텍스트 유형과 담화 표지의 상관관계-유학생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텍스트언어학 24. 1-26쪽.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김 정숙. 1999. 「담화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195-213쪽.
- 김 정숙. 2004. 「한국어 읽기·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교수요목의 유형과 과제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2쪽.
- 김 중섭. 2010.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 개발』. 국립국어원.
- 박 나리. 2012. 「장르 기반 교수법에 근거한 학술논문 쓰기 교육방안」, 한국어교육 23권 3호. 55-94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 나리. 2014. 「외국인 유학생이 생산한 설득적 텍스트 분석-장르 기반 문법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25권 3호. 143-183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 영순. 2004. 『한국어 담화 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박 태호. 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 명선·박 재영. 2004. 『신문 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미디어연구소.
- 양 태영. 2008. 「설명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 태영. 2013. 「설명텍스트 분석 정보를 활용한 중급 단계 쓰기 교수-학습 모형 개발-과정-장르 중심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24권 1호. 177-208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용 재은. 2004.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학문적 텍스트의 분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 석민. 2001. 「텍스트언어학과 화용론-그 상호 접점을 찾아서-」, 한국어 의미학 34호. 1-24쪽. 한국어 의미학회.
- 이 미혜. 2012.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석 연구의 방향과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호. 275~301쪽.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 미혜. 2016. 「텍스트, 장르 기반의 한국어 쓰기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45차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 석규. 2003.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 이 성만 역. 200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Brinker, K. 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 이 승연·장 미경. 2011. 「고급 한국어 교재 내 읽기 자료의 텍스트 전형성 연구-사설, 칼럼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 이 승연. 2012. 「한국어 교재 읽기 텍스트의 전형성 연구-고급 교재의 기사문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정보 15. 133-151쪽.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이 승연. 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메일 쓰기 교육-공적 요청 이메일 장르분석을 바탕으로-」, 언어학 70호. 329-352쪽.
- 이 정민·강 현화. 2009. 「학문 목적 한국어(KAP) 학습자를 위한 보고서 담화표지 교육 연구-작품 분석·비평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7-373쪽.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이 주행. 2003.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이 준호. 2014. 「장르 기반 전략과 동기화 전략 중심의 한국어 쓰기 전략 연구」, 이중언어학 56호. 291-311쪽. 이중언어학회.
- 이 중진. 2009. 「한국어 읽기 교재의 텍스트 구성 방안」, 이중언어학 40호. 127-151쪽. 이중언어학회.
- 이 해영. 2005. 『장르적 접근을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텍스트 연구』. 연구재단 연구결과보고서.
- 이 희자. 2001. 「한국어교재 텍스트의 효율적인 분석 방법론1-주제부의 텍스트 결속 기능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0권. 107-151쪽.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정 다운. 2009. 「‘장르’와 ‘과정’의 통합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정 시호 역. 1995. 『텍스트학』(반다이크 지음). 민음사
- 정 우향. 2011.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외국어 읽기 교육』. 박이정.
- 채 윤미. 2015. 「논증 텍스트의 무브 분석 연구-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51권. 175-199쪽.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최 은지. 2009.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최 헤민. 2011.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쓰기의 내용 평가 기준 연구-설명문, 논설문, 감상문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30집. 218-252쪽. 한성어문학회.

- Bhatia, V. K. 1991. A genre-based approach to ESP materials development. *World Englishes* 10(2), 1-14.
- Bhatia, V. K. 1993. *Analyzing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London: Longman.
- Bühler, K 1934. *Sprachtheorie*, Stuttgart : G. Fischer.
- Shin, Seong-Chul. 2012. KSL Learners' Perception on Text Types: Understanding, Preferences and Necessity. *한국어교육* 23권 4호. 471-493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Swales. 1990. *Genr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A. 1980. *Macrostructur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3부 연구 발표

## 한국어 학습자의 타동성 인식 조사

이 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juny92@aks.ac.kr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타동성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을 살피는 데 있다. 타동성은 의미적 개념으로 행위와 상태의 변화를 표현할 때 다양한 언어 현상으로 나타난다. 타동성의 발현에서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 관계에 따라 문법 표지가 다르게 사용된다. 이러한 타동성은 단지 주어-목적어, 자동사-타동사로 대립되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학에서도 주요 논점이 되어 왔다. 외부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타동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작지 않은데 이를 밝히기 위해 타동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언어 사용자의 인식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타동성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외국어교육에서 교수-학습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형성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타동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을 표현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격표지를 선택하는지 살피는 것은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동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타동성 인식 조사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 2. 타동성의 발현

### 2.1. 타동성의 정의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시공간에서 끊임없이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공간상 위치 이동이 일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이가 달라지며 역동적인 세계가 연출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또한 그 정도에 따라 변화의 강약이 구분된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물질에 가해지는 힘, 에너지이다. 에너지의 이동은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물질 자체에서 에너지가 이동하기도 한다.

에너지의 이동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존재이다. 주체가 객체에 힘을 가함으로써 객체는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주체가 행위자의 속성을 가지며 객체가 피영향자로 자리매김할 때 그 역학 관계는 명료해진다. 그러나 인간이 바라보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행위자와 피영향자로서만 정의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이를 바라보는 개인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변화, 즉 지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 표현 방식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술어가 요구하는 언어 단위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사-타동사의 대립이 이루어졌고, 문장 성분의 위치 교환으로 능동-피동의 구분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언어 이론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그 한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었다. 먼저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세계 언어가 비교 연구되면서 문장 내 주체와 객체가 차지하는 역할 및 속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능격성의 개념이 도입되고 각 언어가 능격어인지 비능격어인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비능격어인지 비대격어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생성문법과 범주문법 등 형식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능동 구문과 피동 구문의 진리치를 밝히는 여러 형식화 과정이 문법 전반에서 나타났다. 이 이론들의 형식화 과정은 결국 서로 다른 구문들이 진리치가 같거나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각 언어마다 주체와 객체의 속성을 달리 표현하고,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 예외적인 현상을 많이 두게 되었다.

인간의 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를 연구할 때 인지 과정에서 보편성을 띠는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 언어의 대조 연구에서 기준점이 되는 동시에 하나의 언어에서 각 언어 사용자마다 다르게 발화하는 양상을 연구할 때에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와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타동성이 연구될 필요가 있고, 또한 언어 사용자들이 타동성을 인식하는 양

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Dixon(1979)는 타동성을 기초로 하여 통사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A와 O의 통사적 기능을 설정하였는데 하나의 명사구가 그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A, 그 반대의 경우에는 O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Dixon(1979)에 따르면 타동사의 의미는 인간이나 활성 명사에 의해 제어되는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다.

Hopper & Thompson(1980)은 세계의 여러 언어들 분석한 결과 타동성이 언어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타동성이 있고 없음의 이분법적 분석이 아닌 높고 낮음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10개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sup>1)</sup>

타동성의 발현은 여러 문법 표지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동성은 의미 범주에 해당한다. 자동-타동의 대립 개념에서 사용되는 타동사의 문법 범주와는 다른 것으로 타동성은 동사 이외의 성분에서도 발현된다. 타동성은 외부 세계의 역동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태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타동성은 술어 중심의 개념이다.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역학적 변화를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이 술어이다. 이러한 술어는 하나의 연산자로서 문장 성분들을 조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타동성은 주체 중심의 개념이다. 주체란 곧 행위자(agent)를 의미하는데 객체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가 객체의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 사동성(causativity)을 갖게 된다.

넷째, 타동성은 연속적인 의미를 갖는다. 높고 낮음의 연속선상에서 타동성이 구분된다. 행위의 강약, 상태 변화의 강약은 이를 인지하는 화자의 의식에 달려 있으며 이에 따라 문법 표지가 선택된다.

## 2.2. 타동성의 발현

인간이 인지하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참여하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장의 주요 성분인 주어와 목적어가 술어에 의해 결정된다. 주어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어는 피영향자로서 그 관계가 명확하지만 주어가 존재함에도 행위자가 문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1) Hopper & Thompson(1980:252)의 타동성 평가 기준 : 참여 성분(participants), 동작(kinesis), 상(aspect), 기간성(punctuality), 의지(volitionality), 긍정성(affirmation), 양식(mode), 행위자성(agency), 목적어의 영향성(affectedness of O), 목적어의 개별성(inviduation of O).

다음으로 술어를 살펴보면 타동성은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동사가 아닌 어휘의 경우에도 타동성이 발현된다. 형용사는 행위가 아닌 상태를 표현하지만 상태의 변화나 유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사와 같은 타동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명사나 명사를 한정하는 수식어의 경우에도 똑같이 설명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되고 개별화될수록 타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타동성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문법 표지는 행위의 대상을 표현하는 목적격이다. 명시적으로 행위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동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사격 표지도 타동성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한정될수록 타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목적격의 유무인데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동사, 재귀동사와 피동문의 경우에도 목적어가 같이 쓰일 수 있다. 이로써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 지는데 이는 광의의 의미 범주인 타동성을 자동사-타동사의 문법 범주로 한정시키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sup>2)</sup>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 모두를 갖는 동사가 존재하기도 한다. Kuno & Takami(2004)는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의 그 격 형태가 다르다고 할 지라도 동일한 논항, 즉 동작과 변화를 겪게 되는 대상 논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생겼다고 말한다.<sup>3)</sup> Dixon(1994)는 이러한 현상을 언어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능력성이나 대격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휘 내부의 의미 문제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Perlmutter(1978)과 Perlmutter & Postal(1984)는 자동사 중에서 능력성을 가지는 동사들, 주어에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타동사 구문도 불가능한 동사들을 비대격 동사로 분류하였다. 비대격 동사 구문을 살펴보면 기저구조에서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표층 구조에서 주어로 상승되었다. 즉, 원래의 대격 형태가 주격으로 변하게 되므로 대격의 성질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 이름을 '비대격 동사'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주어의 자리에 행위자가 위치하는 자동사들과 행위의 경험자가 위치하는 자동사들을 비능력 동사로 분류하였다.

타동성의 발현과 관련하여 초점의 대상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행위자의 존재 유무이다. 문장의 주어로 어떤 성분의 단어가 오는지, 문장 내에 행위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타동성의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어휘가 존재하며 행위자의 개입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2) 이 영준(2014)에서 러시아어 화자를 대상으로 러시아어 단어인 'stuchat'-stuchat'ja'(두드리다)에 대한 자동사-타동사 구분을 조사하였는데 'stuchat'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자동-타동 개념 구분에 혼동을 느끼고 있었다.

3) 언어유형론에서 주어는 주격의 형태, 타동사 구문에서 목적어는 대격 형태를 띠고 있는 언어를 주격-대격 언어라고 부르며 이와 다른 형태를 갖는 언어를 능력-절대격 언어라고 부른다. 이러한 능력성의 개념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술어의 구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경우 의미 해석에서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 2.3. 한국어에서 타동성의 발현

- (1) a. 자동차가 움직인다.  
 b. 돌이 움직인다.  
 c. 무릎이 다쳤다.  
 d. 꽃이 좋다.

(2)  $q(P_1T) \emptyset_{\Delta}^4$

(1a~c)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동사 구문이다. (1d)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태(good)’의 의미와 ‘행위(I like)’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 문장들의 의미를 (2)와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움직이다’, ‘다치다’의 의미 안에는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리고 다치도록 만드는  $q$ 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행위자  $\emptyset_{\Delta}$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의미들이 형태적, 통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더욱이 ‘-을/를’을 사용하여 상응하는 구문을 만들 수 있고, 의미도 동일하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스스로 움직이는 구동체라는 점에서 돌과 구별되고 있으며, 무릎은 신체의 일부라는 점에서 행위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좋다/좋아하다’ 역시 심리동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학 연구에서 여러 논점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격-대격 언어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능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고 광주(2001)은 일부 자동사 부류의 논항이 타동사의 목적어 논항과 동일한 의미·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능격성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능격성이 한국어에서 격의 한 유형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능격언어에서의 특성, 즉 능격성을 보이는 동사로 개념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자타 양용동사와 관련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김 문오(1997)에서 자타 양용동사의 구분을 제시하고 자타 양용동사 범주에 들려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타 용법 간에는 동사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 둘째, 자/타동사의 초분절음소(고저, 장단)가 일치해야 한다. 셋째, 동일한 명사구를 자동구문의 주어와 타동구문의 목적어로 공통으로 취하는 요건을 갖추든지, 아니면 동일한 명사구를 자/타동구문의 주어로 공유하는

4) Shaumyan의 연산생성문법에서 사용되는 형식화 과정으로 T는 객체(자동차, 돌, 무릎)에 해당하며  $P_1$ 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술어, 즉 자동사(움직이다, 다치다)에 해당한다.  $q$ 는 사동성, [CAUSE]의 의미를 가지며  $\emptyset_{\Delta}$ 는 대역 단위로서 의미는 없지만 행위자의 존재를 가리킨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타동구문의 의미 속에 자동구문의 의미가 함의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피동문에 존재하는 목적어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었다. 유 혜원(1999)에서는 타동성 검증 기준에 의거하여 피동사가 자동사임을 밝히고, ‘-을/를’이 나타나는 명사구가 목적어가 아닌 초점에 의해 허가된 부가어라고 주장하였으며 송 창선(2009)에서는 피동문에 나타나는 ‘-을/를’이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정택(2003)에서는 피동문의 ‘-을/를’을 목적격 표지로 파악하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피동문의 목적어는 두 개의 목적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분을 가진, 특수 구문에서 목적어 하나가 피동 변형 이후 잔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타동성이 형태적, 통사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밝히고 있는 연구로서 행위자와 행위, 그리고 행위의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타동성의 의미와 속성을 밝힘으로써 관련 문제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우 형식(1992)는 한국어의 타동구문을 분석하면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타동사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다. 주어는 행위주로서 행동에 대한 [의지성]의 성분 의미가 나타나며, 목적어는 [대상성], [피영향성], [한정성], [전면성]의 성분 의미가 나타나고, 타동사는 [행동성]과 [완전성]의 성분 의미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타동성은 타동구문을 이루는 각 구성 성분의 성분 의미와 이들 사이의 관계 의미로 실현되는 의미요소의 복합체로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연속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연 재훈(1997)에서는 타동성에 대한 형식적 정의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비전형적 구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원형이론적 방법론에 입각한 타동성의 정의를 모색하고 있다. 유형론적으로 다양한 예들을 타동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함으로써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범주 속에서 ‘정도성’과 ‘연속체’의 개념을 갖는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타동성이 발현되는 구문은 ‘-을/를’의 목적격을 갖는 타동 구문이다. 행위의 대상 또는 변화되는 상태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객체를 지시하게 된다. 그러나 (1)의 문장들처럼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하게 된다.

(1)과 같은 문장들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에 따라, 그리고 맥락 정보만 주어진다면 실제 담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갖기 어

렵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타동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한국어 어휘, 문법 교육 방안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타동성 인식 조사




#### 3.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타동성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격과 목적격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그 선택 이유를 검토해 보았다.<sup>5)</sup>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는 총 24명으로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고급에 해당한다.<sup>6)</sup> 한국어 학습 기간도 상당할 뿐 아니라 한국 체류 기간도 최소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도 높은 수준이다.

#### 3.2. 조사 내용 및 결과

‘움직이다’는 자동차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어휘이다. 행위자가 문장에 나타날 경우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경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움직이다’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 조사 문항 1~3

문항 1	문항 2	문항 3
		
자동차_ 움직입니다. □ -가      □ -를 24명(100%)    0명(0%)	자동차_ 움직입니다. □ -가      □ -를 6명(26%)    17명(74%)	선생님이 자동차_ 움직입니다. □ -가      □ -를 1명(4%)    23명(96%)

5) 조사지는 Qualtric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온라인으로 배포 및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은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제시되었으며 응답이 끝난 문항은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되돌아가기 버튼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6)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은 중국(6명), 러시아(4명), 베트남(4명), 루마니아(3명), 우즈베키스탄(2명), 네덜란드(1명), 미국(1명), 카자흐스탄(1명), 터키(1명), 폴란드(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운전 행위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동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타동의 개념 구분이 쉽지 않다. 이처럼 모호한 정보를 명확하게 주고자 내리막길을 제시하고 ‘움직이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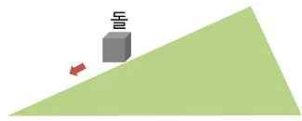


[문항 1]에서 조사 참여자 모두 ‘-가’를 선택하였다. 이는 내리막길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항 2]는 그림에서 행위자를 제시하였지만 문장에서 생략해 놓았다. 17명의 학생들이 ‘-를’을 선택하였는데 그림 속 행위자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항 3]에서는 그림에 사람을 삽입하여 행위자를 제시하였고, 역시 문장에서도 행위자로서 주어를 배치하였다. 1명을 제외한 23명이 ‘-를’을 선택하였는데 주어(행위자)의 분명한 제시가 이러한 선택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1~3]에서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움직임에서 행위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문법 표지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를’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타동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조사 문항 4~6




문항 4	문항 5	문항 6
		
돌__ 움직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input type="checkbox"/> -을 23명(96%)      1명(4%)	돌__ 움직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input type="checkbox"/> -을 2명(8%)        22명(92%)	선생님이 돌__ 움직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input type="checkbox"/> -을 0명(0%)        24명(100%)

[문항 4~6]에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제시하고 내리막길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 4]에서는 23명이 ‘-이’를 선택하였고, [문항 6]에서는 24명 모두 ‘-을’을 선택하였다. [문항 5]에서는 22명이 ‘-을’을 선택하였는데 행위자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돌의 움직임에 대한 문법 표지 선택은 거의 동일하였는데 [문항 2]와 [문항 5]의 응답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동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조사 문항 7~9

문항 7	문항 8	문항 9
		
자동차__ 멈췄습니다. □ -가            □ -를 24명(100%)    0명(0%)	자동차__ 멈췄습니다. □ -가            □ -를 5명(21%)      19명(79%)	슈퍼맨이 자동차__ 멈췄습니다. □ -가            □ -를 0명(0%)        24명(100%)

[문항 7]에서는 24명 모두 ‘-가’를 선택하였고, [문항 9]에서 역시 모두 ‘-를’을 선택하였다. ‘멈추다’에 대한 자동사와 타동사 개념을 모두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행위자가 제시될 경우 ‘-를’을 선택하였다. [문항 8]에서 응답자가 ‘-가’와 ‘-를’로 나뉜 이유는 행위자의 멈추는 행동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조사 참여자들이 행위자의 행위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조사 문항 10~12

문항 10	문항 11	문항 12
		
자동차__ 멈췄습니다. □ -가            □ -를 20명(83%)      4명(17%)	자동차__ 멈췄습니다. □ -가            □ -를 18명(75%)      6명(25%)	자동차__ 움직입니다. □ -가            □ -를 24명(100%)      0명(0%)

[문항 10]과 [문항 11]에서 ‘-가’에 대한 응답이 많은데 이는 그림에서 행위자의 존재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항 11]의 경우 ‘-를’을 6명이 선택하였는데 자동차 앞에 소가 위치해 있고, 자동차와 소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멈추려는 행위자의 존재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문항 11]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선택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3) [문항 11]에서 ‘-가’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의 응답

- A. 가. 소가 자동차를 멈춘 것이 아니라 소를 본 후에 자동차가 멈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나. 소가 의도적으로 자동차를 멈출 수 없고 자동차(운전자)가 앞의 것을 봐서 스스로 알아서 한 행위이다.
- 다. 사람이 차를 멈춘다는 것은 맞는 반면에 물건이나 동물이 차를 멈출 의도가 없어서 멈춘다는 것은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 B. 가. 주어가 없어서 ‘~가’로 했습니다. 소 때문에 차가 멈췄습니다.

- 나. 운전 누가 하는지 보이지 않아 자동차만 보여서 "자동차가 멈췄습니다"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 다. 다른 external force가 있을 때(행동을 하는 주어가 따로 있음)- '을/를'을 썼습니다. 이 force가 없을 때 그 object는 주어가 돼서 '이/가'를 썼구요.

[문항 11]에서 '-가'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 17명의 선택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자동차를 멈추게 한 동인이 소가 아니라 자동차에 있다는 응답이었다. 소는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춘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 응답 부류는 주어의 부재에 관한 것이었다. 주어, 운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자동차가' 멈춘 것으로 보았다. 이 두 부류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조사 참여자들이 행위자의 존재를 찾으려 했다는 점이다. 행위나 동작을 언어로 표현할 때 행위자의 참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문항 11]에서 '-나'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의 응답
  - 가. 운전기사가 앞에 있는 소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차를 멈췄다.
  - 나. 소가 지나가니까 운전자가 자동차를 멈춘다. 자동차는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이다.



[문항 11]에서 '-를'을 선택한 조사 참여자 5명의 선택 이유는 운전기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멈춘 것으로 보고 있었다. '-를'을 선택한 조사 참여자 역시 행위자의 존재가 문장 발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 12]에서 앞에 제시했던 문항을 다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 (5) [문항 12]에서 '-가'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의 응답
  - A. 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명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 나. 자동차 스스로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 다. 저의 생각은 여기 차를 움직이는 사람 안 보여요. 그리고 차를 움직이다 하면 drive a car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안에 사람 있어도 차가 혼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 B. 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태만 묘사하기 때문이다.
    - 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 C. 가. 루마니아말로는 움직인다는 동사는 상황에 따라서 재귀 동사, 능동형 동사 및 수동 명사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재귀 동사인 것 같아서 그냥 "가"로 썼습니다.
    - 나. 러시아에서 재귀동사 машина двигается (сама)

[문항 12]에서 24명 모두 ‘-가’를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 23명이 선택 이유를 기술하였는데 그 응답들을 3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만든 행위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부류는 발화의 맥락을 살피고 있었는데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그리고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 부류는 조사 참여자의 모국어와 관련한 응답이었다. 이들의 모국어에서는 재귀 표현에 해당하여 ‘-가’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조사 문항 13~14

문항 13	문항 14
	
무릎__ 다쳤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input type="checkbox"/> -을 16명(67%)      8명(33%)	선생님이 무릎__ 다쳤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이 <input type="checkbox"/> -을 5명(21%)      19명(79%)

[문항 13]과 [문항 14]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선생님이’라는 행위자가 주어로 명시된 [문항 14]에서 ‘-을’의 선택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선 문항, ‘움직이다’, ‘멈추다’에서 응답이 확연하게 구분된 것과는 달리 [문항 13~14]에서는 그 차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치다’의 행위 주체가 ‘움직이다’, ‘멈추다’처럼 명백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위자’보다는 ‘경험자’로서의 속성이 맞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친 부위가 신체의 일부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조사 참여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알기 위해 다음 문항을 다시 제시하였고 그 선택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표 6〉 조사 문항 15

문항 15
다음 두 문장은 모두 문법이 맞습니다. 의미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a. 선생님이 무릎이 다쳤습니다. 8명(33%) b. 선생님이 무릎을 다쳤습니다. 16명(67%)

- (6) [문항 15]에서 a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의 응답  
 가.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진 행위*

나. '선생님'은 주어이고 '무릎이 다쳤습니다'는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다치다' 행동의 주체는 "선생님" 아니고 바로 '무릎'이어서 '무릎'에 "이"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선생님의 무릎이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것이지 선생님이 일부러 자신에게 다치게 하고 싶어 해서 다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 [문항 15]에서 b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의 응답

가. 우리 말의 문법과 일치한다.

나. b를 선택한 이유는 "누가 무엇을 한다" 문장 구성을 생각해 선택하였습니다. 첫번째(a) 선택 대신에 "선생님의 무릎이 다쳤습니다"라는 말은 더 좋게 들립니다.

다. "다치다"란 동사가 타동사이며 자동사인 것 같은데, 평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b'를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기도 하고, 몸의 어떤 부분을 물체에 부딪치거나 얻어맞거나 기타 물리적 충격을 받거나 하여 상처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 주격조사 2번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무릎은 당하는 것이라서 피동적입니다. 그래서 '을/를' 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선생님이 주어).

(6~7)의 응답을 살펴보면 수동적으로 행위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선생님과 무릎을 구분하여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치다'의 의미에서 사동(CAUSE)의 의미를 끌어내고 있었다. '-을'의 응답이 더 많은 이유는 '-이'를 선택할 경우 주어 2개가 존재한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항에서는 주어를 생략해 놓았다.

〈표 7〉 조사 문항 16

문항 16
다음 두 문장은 모두 맞습니다. 어떤 문장을 사용할까요?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a.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어요. 12명(50%)
b.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12명(50%)

[문항 16]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문장을 사용할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응답자 수는 동일했다. 문장에서 주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응답이 동일하게 나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문장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그 아픈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 8〉 조사 문항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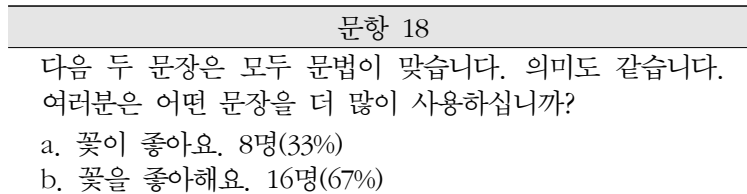


〈표 9〉 조사 문항 17에 대한 응답

대답	최소치	최대치	평균치	표준편차	응답자
무릎이 다쳤어요	0.00	100.00	56.14	28.36	22명
무릎을 다쳤어요	20.00	100.00	58.57	23.39	21명

〈표 9〉에 나와 있듯이 ‘-을’을 사용한 경우 그 정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행위의 대상인 ‘무릎’을 ‘-을’과 결합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행위의 대상이 구체화되면서 아픈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높지 않기 때문에 조사 참여자의 인식이 구분될 수 없었다.

〈표 10〉 조사 문항 18



〈표 11〉 조사 문항 19



〈표 12〉 조사 문항 19에 대한 응답

대답	최소치	최대치	평균치	표준편차	응답자
꽃이 좋아요	0.00	92.00	48.61	24.86	23명
꽃을 좋아해요	20.00	100.00	68.42	23.09	24명

마지막으로 ‘-이/가 좋아요’와 ‘-을/를 좋아해요’를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문항 18]에서 ‘-을/를 좋아해요’를 선택한 응답자가 16명으로 더 많았다. 두 문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얼마나 좋은지 측정하도록 하였는데 <표 12>의 결과에서처럼 ‘꽃을 좋아해요’가 그 정도가 높았다. 조사 참여자들이 타동사와 ‘-을/를’의 결합을 더욱 강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3. 조사 결과에 대한 함의

본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를 통해 타동성과 관련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자동과 타동의 개념을 확일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동일한 동사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이/가’, 또는 ‘-을/를’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타 양용 동사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어도 학습자 스스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장 발화시 행위자의 존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을/를’은 타동성 발현의 대표적 표지로 학습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을/를’의 선택 여부를 행위자의 존재 유무에 기초하고 있었다. 주어와 행위자가 항상 일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행위자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경우 ‘-을/를’을 사용하였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을/를’을 사용한 경우 해당 문장의 의미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행위의 대상을 ‘-을/를’로 구체화함으로써 타동성이 더 강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주체-객체, 주어-목적어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무릎을 다치다’에서 ‘무릎’은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응답 결과 역시 혼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언어 지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다섯째, 한국어의 이중 주어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가’가 2번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한국어의 고유한 언어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타동성 인식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 지식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움직이다’의 경우 자동사에 해당하지만 학습자 모국어(러시아어)에서는 재귀동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모국어 지식이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타동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타동성의 대표적 표지인 ‘-을/를’의 선택, 행위자의 존재 유무, 의미 차이 파악 등을 하고 있었다. 본 조사를 통해 각 한국어 학습자마다 한국어 발화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타동성에 대한 인식이 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언어 지식이 이를 보충해 주고 있었다. 타동성은 보편적인 의미 개념으로 학습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언어 현상인 만큼 이를 활용해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 정연. 2013. 「한국어 중간동사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41. 한국어의미학회. 27-50쪽.
- 고 광주. 2001. 『국어의 능력성 연구』. 월인.
- 김 문오. 1997. 「국어 자타 양용동사 구문의 의미구실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257-283쪽.
- 김 상혁. 2011. 「영어와 한국어의 능력 동사 비교」, 영어영문학연구 53(3).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85-105쪽.
- 송 창선. 2008. 「국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문제-이른바 자타 양용 동사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47. 언어과학회. 35-55쪽.
- 연 재훈. 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 107-132쪽.
- 우 형식. 1992. 「국어 타동구문의 구조 분석(1): 구성 성분의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외대논집 10. 385-419쪽.
- 유 혜원. 1999.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 연구」, 한국어학 9. 한국어학회. 205-227쪽.
- 이 영준. 2014. 「러시아 어휘의 타동성 발현 양상 연구」, 2014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 학술대회 발표집. 19-28쪽.
- 이 정택. 2003.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 관한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11-227쪽.
- 홍 기선. 1994. 「한국어 대격의 의미」, 언어 19(1). 한국언어학회. 287-311쪽.
- Dixon, R. M. W. 1979. Ergativity, *Language* 55. 59-138.
- Hopper, P. and Thompson, S. A.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251-299.
- Kuno, S. and Takami, K. 2004. *Functional Constraints in Grammar on the*

- Unergative-unaccusative Distin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 Perlmutter, D.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Jaeger J.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57-189.
- Perlmutter, D. and Postal, P. M. 1984. The L-Advancement Exclusiveness Law, in Perlmutter, D. and Rosen, C. (eds.)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II*. 30-8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umyan, S. 1987. *A Semiotic Theor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 Press.

## **제4부 연구 발표**

**‘-지 않아요’에서 ‘-잖아’로: 사용 기반 분석의 관점에서 / 김 아림**

**카카오톡에 나타난 대학생의 언어 사용 분석 / 허 상희**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 / 송 인성**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4부 연구 발표

## A usage-based approach to the evolution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 – *canha*

(‘-지 앓아’에서 ‘-잖아’로: 사용 기반 분석의 관점에서 )

김 아 립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mirhamik@hotmail.com

### 1. Introduction

-*Canha* in Modern Spoken Korean is a particle that occurs at the end of an utterance and functions to manage the information structure in discourse, by explicitly marking what the speaker believes to be shared with the other interlocutor. Excerpt (1)<sup>1)</sup> is such an instance.

(1) 6CM00067

(Context: This excerpt is from a conversation between a mother (P1) and a son (P2). The mother has been talking about her surgery which she had to remove her wisdom tooth.)

1 P1: *kuleko emma-n an kkomay-ss-e.*  
‘And in my case, I didn’t get stitched.’

---

1) Unless otherwise noted, all the examples in this paper are from the 21<sup>st</sup> Century Sejong Corpu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data for this study is given in section 3.1. Transcription conventions used in this paper are explained in Appendix A.

- 2 P2: *ung=*.  
‘Yeah=.’
- 3→ P1: *yak cwu-canha=*.  
‘(You know) they give you medication-*canha=*.’
- 4 *na-n yak-to an cwu-tula?*  
‘I didn’t even get any medication.’
- 5 P2: *a= kulay-yo?*  
‘Ah= is that so?’

In (1), *-canha* (in line 3) reflects P1’s belief or assumption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by *-canha* that ‘hospitals provide surgery patients with medication’ is already shared knowledge with P2. And due to this implication, it has been roughly translated in English as the discourse marker *you know*. The synchronic functions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n Modern Spoken Korean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in A. Kim (in preparation). In particular, she argues that *-canha*’s most primary and basic function is to manage the information flow in discourse by explicitly indicating the speaker’s belief of already shared knowledge. According to A. Kim, *-canha* is often found when speakers are conveying ideas which they think are obvious such as when conveying general common knowledge or ‘communal common ground’ (Clark 1996) and when conveying natural consequences, natural causes or reasons.

Originally, *-canha* is known to be the phonologically reduced form of the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ci anh-a?* ‘X is not?’. There are essentially two constructions for negation in Korean, which are most commonly known as ‘the short form negation’ and ‘the long form negation’ (Nam and Ko 1985). As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is paper, to be precise, it is the long form negation in question construction that *-canha* derived from. Example (2) is an instance of the long form negation used in a question construction.

- (2) 4CM00034  
*o-cho cengto ccum kel-li-cianh-a?*  
‘Doesn’t it take about five seconds?’

Although the unreduced form *-ci anh-a?* is still being used as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in Modern Spoken Korean, however, its reduced form *-canha* seems to have completely shifted its function into an utterance-final particle whose function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ci anh-a?*. (1) and (2) show that *-canha* and its unreduced form *-ci anh-a?* have clearly different functions from each other.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to explain the evolution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n terms of its grammaticalization process, such as H.-J. Koo (2008) and S.-O. Sohn (2010). H.-J. Koo, by acknowledging that the reduced form *-canh-* evolved from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argues that its current function in Modern Spoken Korean is to emphasize the speaker’s assessment conveyed by *-canh-*. She explains that *-canh-* evolved with phonological reduction and intersubjectification (Traugott and Dasher 2001), and

that the entire shift from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to *-canh-*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face’; because the negative question per se is already a politeness strategic construction, and when its negativity and the interrogative force has been lost, its function shifted to express politeness, and finally when the politeness also became lost, its function shifted to emphasize the speaker’s assessment.

On the other hand, S.-O. Sohn explains the evolution of the reduced form *-canh-* from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as phonological reduction and reanalysis. The basis for her argument that there has been a semantic and syntactic reanalysis from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to *-canh-*, is the different positions that the past tense morpheme *-ass* or *-ess* occurs within these two constructions (while the past tense morpheme follows *-ci anh-* in long form negative question, it precedes *-canh-* in the reduced construction),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reduced *-canh-* cannot be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unreduced *-ci anh-* in Modern Spoken Korean.

Despite these efforts, several significant points in the grammaticalization of *-canha* are still in need of explanation. For instance, it needs to be acknowledged that it is rather *-canha* (the combination of *-canh-* and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 as a whole) which functions as an utterance-final particle rather than *-canh-* alone. Hence it is not via a simple phonological reduction but rather via phonological reduction within a ‘chunking’ process (Haiman 1994, Bybee and Scheibman 1999) that *-canha*. Furthermore, the reason why it was particularly the long form negation and not the short form negation construction which an utterance-final particle has developed, and also why it was specifically in an interrogative context of the long form negation that *-canha* evolved needs further consideration. This present study will argue, that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canha* is so much more complicated than what has been argued hitherto. It will be shown that (inter)subjectification, semantic/syntactic reanalysis, as well as semantic generalization and chunking process are intricately intertwined during the entire grammaticalization process from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into *-canha*. This requires a whole new examination of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canha* from its unreduced long form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ci anh-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visit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from the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ci anh-a?* into the information managing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n Modern Spoken Korean. To be precise, this study will examine why it was specifically the long form negation (not the short form negation), and why it was particularly in its interrogative context that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has evolved from.

## 2. Historical origin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 – *canha*: Long form negation in Korean

In Korean, there are generally two types of sentential/clausal negative construction<sup>2</sup>), the so-called ‘short form negation (henceforth SFN)’ and the ‘long

form negation (henceforth LFN)’ (Nam and Ko 1985, H.-M. Sohn 1978, Im 1987, D.-S. Kim 1990, T.-Y. Kim 2003) and the negative construction *-ci anh-* or *-ci ani-ha-* is what has been called the ‘long form negation (LFN)’. There is a syntactic difference between SFN and LFN in Korean. In SFN, the predicate follows the negation morpheme *ani*; in LFN, the predicate precedes the negative construction *-ci ani-ha-*. (3) shows some examples of these two forms of negation in Modern Korean.

(3)

- a. *Chelswu-ka an ka-ss-ta.*  
‘Chelswu didn’t go.’
- b. *Chelswu-ka ka-ci anh-ass-ta.*  
‘Chelswu didn’t go.’

(T.-Y. Kim 2003:27)

Both SFN and LFN have been attested since the 15<sup>th</sup> century, in the earliest attested docum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H.-J. Koo 2008, Kwon 1998). Both SFN and LFN have undergone a phonological reduction throughout their history, and the examples in (3) reflect the already reduced forms of these two negative constructions. The negative morpheme *ani* shortened to *an* in SFN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0<sup>th</sup> century<sup>3)</sup>, and the phonological reduction of LFN *-ci ani-ha-* into *-ci anh-* began around the 18<sup>th</sup> century (H.-J. Koo 2008:4-5). These processes are schematized in (4).

(4)

- a. Phonological reduction of SFN: *ani* > *an*
- b. Phonological reduction of LFN: *-ci ani-ha-* > *-ci anh-*

The issue of whether SFN and LFN convey the same meaning or not has been extremely controversial among Korean linguists, and the controversies still remain unsolved. On one hand, several linguists argue that there is littl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forms of negation (H.-B. Lee 1972, Oh 1971, D.-W. Yang 1976, K.-Y. Lee 1979, C.-S. Suh 1996, D.-S. Kim 1980 and S.-K. Suh 1984), and if there is any, it is only a stylistic difference (H.-M. Sohn 1994:32).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claim that there is a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he short and long forms of negation (Song 1973, 1975, Im 1973, Cho 1975, K. Lee 1993, J.-N. Koo 1992, H.-S. Lee 1999)<sup>4)</sup>.

Although the formal characteristics evidently show that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derived from *-ci anh-* (LF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have

2) In Korean there are also various constructions for lexical/constituent negation as well (H.-M. Sohn 1994:130-139) but this paper will only deal with the sentential/clausal negative constructions.

3) However, H.-J. Koo (2008) speculates that the phonological reduction could have begun even before the 20<sup>th</sup> century in spoken Korean.

4) For more discussion on the on-going controversies on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SFN and LFN, see A. Kim (2015).

been two existing constructions for negation (SFN and LFN) in Korean, what should be further examined is the motivation for why it was particularly LFN (and not SFN) which grammaticalized into an utterance-final particle in spoken Korean. More specifically, the reason why it was specifically its interrogative context that *-canha* evolved from will be examined in detail.

### 3. Short and long form negative questions in Modern Spoken Korean

#### 3.1. Data

Understanding linguistic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over time usually require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ir diachronic data, rather than synchronic data. However, this paper will show that it is sometimes also possible to trace back the diachronic change that a linguistic form has undergone by examining its synchronic uses, particularly when the change is quite recent and hence any ‘historical’ data cannot be at hand. The evolution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n Modern Spoken Korean is an excellent example of such case. Because the unreduced form *-ci anh-* (the long form negation) i.e., the former form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as well the short form negation are both still actively being used in Modern Spoken Korean with very different functions from those of the reduced form *-canha*,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ages of these three forms could provide us an insight how *-canha* has evolved from its former form. Though any such statement might remain to be a hypothesis, a thorough quantitatively usage-based analysis would provide ample evidence to trace back its diachronic change.

For the examination of the functional and formal synchronic discrepancies among the three forms (LFN/SFN/*-canha*), this study has collected data from the 21<sup>st</sup> Century Sejong corpus. Because utterance-final *-canha* actively appears in interactive spoken Korean, I selected only interactive spontaneous conversations from the corpus, hence excluding written data, as well as monologues, lectures and speeches. Consequently, 99 conversations consisting of casual talks, telephone conversations and group discussions between two or more interlocutors were selected to be examined. These conversations took place between 2002 and 2005. The selected data comprise of 439, 167 *ecel*<sup>5)</sup> in total.

#### 3.2. Distributional differences between SFN and LFN in Modern Spoken Korean

As has been discussed earlier,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re is a semantic difference between SFN and LFN remains controversial among Korean linguists. Letting this controversy asid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forms of negation in Korean in terms of their

---

5) An *ecel* is a unit that is unique to Korean, but it is roughly similar to a *word* in English.

actual usage in spoken Korean. First of all, the overall frequencies of the short and long forms of negation in spoken Korean used as sentential/clausal negation were observed<sup>6)</sup>. <Table1> shows the result.

	Number of frequency
<b>SFN in Modern Spoken Korean</b>	4261
<b>LFN in Modern Spoken Korean</b>	426

<Table 1. The numbers of frequency of SFN and LFN in spoken Korean>

My corpus finding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frequencies of these two forms in spoken Korean. In total, 426 cases of LFN used as sentential/clausal negation were found, and 4261 cases of SFN were found to be used as sentential/clausal negation.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in Modern Spoken Korean, SFN shows 10 times higher frequency than LFN.

It has been argued by H.-M. Sohn (1994) that while there might not be any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he short and long form negation in Korean, he claims that there is a stylistic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forms, where SFN is more informal than LFN. Furthermore, in J.-H. Lee's (2008) corpus-based study on Korean short and long form negations, the author claim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forms is their register. J.-H. Lee shows that while LFN occurred five times as frequently as SFN in written data, SFN was five times more frequent than LFN in spoken data<sup>7)</sup>. Although the proportion of SFN is much higher in my spoken Korean data<sup>8)</sup>, the general tendency of my corpus findings seems to agree with the result of J.-H. Lee's, where SFN is more frequently used than LFN in spoken Korean due to the different register.

Given the fact that the main reason of the different proportion of SFN and LFN shown in my corpus is due to the spoken nature of my data, this study further examin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usage between these two forms within the spoken register. Considering that *-canha* particularly evolved from the question construction of the LFN, this paper first observed the proportions of these two forms negation used in interrogative/question constructions.

Negative interrogatives in Korean are formed either by using an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 (such as *-nya* or *-supnikka*) usually with a rising intonation contour, or by simply adding a rising intonation contour to the negative declarative or indicative utterances. Hence, for my data analysis, utterances ending with indicative/declarative sentential endings co-occurring with rising intonation contour were also considered as interrogative constructions.

6) Although both long and short form negations can also be used as lexical negation, this study only included those that are used in sentential/clausal negation.

7) J.-H. Lee used the Sejong Raw Corpu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the distribution of LFN and SFN in spoken and written Korean.

8) This proportional difference between my corpus findings and those of J.-H. Lee's might be due to a number of reasons. While this study observed LFN and SFN used in sentential/clausal negation only, J.-H. Lee included the lexical negation type as well in her research. Moreover, J.-H. Lee's spoken data consists of only drama scripts which are not naturally occurred spontaneous speech, i.e. the nature of her spoken data is semi-spoken.

However, when the rising intonation contour were considered to be used merely to show that the speaker wants to keep the floor or to show that he or she is expecting a reaction from the other interlocutor (such as backchannels), then the utterance was considered as non-interrogative. Utterances with falling intonation were also considered as interrogative constructions if they were used with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s such as *-nya* and *-supnikka*. <Table 2> shows the different proportions of interrogative and non-interrogative utterances used with SFN and LFN in spoken Korean.

Sentence/Utterance type	Short form negation	Long form negation
Non-interrogative	3878 (91.0%)	163 (38.3%)
Interrogative	383 (9.0%)	263 (61.7%)
Total	4261 (100%)	426 (100%)

<Table 2. The distribution of SFN and LFN in spoken Korean, depending on the sentence/utterance type>

<Table 2> shows that SFN in spoken Korean is more often used in non-interrogative utterances (91.0%) than in interrogative utterances (9.0%). On the other hand, LFN is used in interrogative utterances for 61.7%, but in non-interrogative utterances for only 38.3% of the ti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t least in spoken Korean, LFN has much higher tendency to be used in interrogatives than SFN.

### 3.3. Distributional differences of the short form negative question and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in Modern Spoken Korean

The corpus findings suggested that even within the spoken register, SFN and LFN show different proportions in their usages depending on the type of speech act they occur with. The data confirm that LFN is more likely to be found in interrogative context (61.7%) while SFN is more likely to be found in non-interrogative context (91.0%). However, within the spoken register, two types of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still co-exist, namely the long form negative question (henceforth LFNQ), and the short form negative question (henceforth SFNQ). Hence, this study further examin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s in the actual usages of these two constructions of negative question within the spoken register.

All of the 263 cases of LFNQ and 383 cases of SFNQ found in the spoken corpus were observed in detail, and found that these constructions can be ambiguous at times, allowing multiple interpretations. For instance, the three possible interpretations of LFNQ are exemplified in the invented example in (5).

(5)  
*Yengi-ka mek-ci anh-ni?*

- a. ‘Yengi doesn’t eat?’
- b. ‘Doesn’t Yengi eat?’

## c. ‘Yengi eats, doesn’t she?’

Depending on the context, the construction can have the first interpretation such as (5a), when the speaker is asking whether what he or she assumes to be not true (in this case the fact that ‘Yengi does not eat’) is true or not – hence it has been translated in English as an echo question (‘Yengi doesn’t eat?’). The second interpretation, such as (5b), is found when the speaker is assuming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true (that ‘Yengi eats’) but is requesting the hearer to provide him or her with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about this fact – hence it has been translated as ‘Doesn’t Yengi eat?’. The third interpretation, such as (5c), is found when the speaker is assuming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true (that ‘Yengi eats’), and also assumes that the hearer would take this as true as well, and is requesting the hearer to agree with him or her – hence it has been translated in English as a tag question ‘Yengi eats, doesn’t she?’.

The next step of the examination wa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if the construction can have more than one interpretation, then how often is it used with which interpretation? Before jumping into the final results of the observation, the coding method will be briefly described. If the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either in short form or long form, could be most closely translated in English as (5a), in other words, when the speaker is questioning whether what he or she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then it was coded as ‘NEG ASSM’ (interrogation with negative assumption). If the construction is used when the speaker is assuming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true but is requesting the hearer to provide him or her with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about this fact (as in (5b)), then it was coded as ‘PST ASSM for VER/CONF’ (interrogation with positive assumption for requesting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Lastly, if the construction is used when the speaker is assuming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true, and also assumes that the hearer would take this as true as well, hence requesting the hearer to agree with him or her (as in (5c)), then the coding ‘PST ASSM for AGR’ (interrogation with positive assumption for requesting agreement) was used. Among the 263 cases of the LFNQ, 8 cases were impossible to define exactly how the construction is used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context. Excluding these 8 cases, the remaining 255 cases wer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Among the 383 cases of the SFNQ, 16 cases were found to be difficult to analyze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context. These 16 cases were excluded in the examination, and hence the remaining 367 cases of the SFNQ were observed.

### 3.3.1. Functional distribution of the LFNQ in Modern Spoken Korean

The result of the observation for the LFNQ is summarized in <Table 3>.

‘NEG ASSM’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AGR’	‘PST ASSM for AGR’	Total

LFNQ	5 (2.0%)	10 (3.9%)	57 (22.4%)	57 (22.4%)	126 (49.4%)	255
------	-------------	--------------	---------------	---------------	----------------	-----

&lt;Table 3. Functional distribution of LFNQ in spoken Korean&gt;

<Table 3> suggests only 5 of the 255 cases (2.0%) were found to be used as a NEG ASSM, i.e., it was used when the speaker is asking whether what he or she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or not. Excerpt (6) is an example of the LFNQ used as NEG ASSM.

## (6) 5CM00043

(Context: P1 is telling P2 about his past experience working in a bar.)

- 1 P1: *ku patak-eyse ywuk kaywel iss-ess-te-ni,*  
'After having been in that field (working in a bar) for six month,'
- 2 P2: @@  
'@@'
- 3 P1: <@ malpal-i nul-te-kwun, @>  
'<@ My conversing skill got improved, @>'
- 4→ P2: *a wenlay tangsin-uy= malpal-un [ileh-cianh-ass-e?]*  
'Oh your conversing skill wasn't like this before?'
- 5 P1: *[na mal toykey mos-hay-ss-e.]*  
'I used to have a very bad conversing skill.'
- 6 *na cincca-lwu*  
'For real.'

In (6), after listening to P1's explanation that he acquired his conversing skill through his working experience in a bar, P2 questions P1 if his conversing skill was not as good as now before working at the bar. In doing so, P2 uses a LFNQ in line 4. As the English translation suggests, P2 is asking whether the information conveyed in his question ('your conversing skill was not good', i.e., a negative assumption) is true or not.

Before discussing the shaded third column let us first discuss the fourth column 'PST ASSM for VER/CONF.' The corpus data showed that 57 cases of LFNQ (22.4%) were used as PST ASSM for VER/CONF, i.e., when the speaker is assumes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true but requests the hearer to provide him or her with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about his or her positive assumption. Excerpt (7) is such an instance of LFNQ.

## (7) 7CM00026

(Context: P1 and P2 are talking about their old classmate Swucin.)

- 1 P1: *a Swucini samswusayng iss-ess-canha Swucini.*  
'Ah there was Swucin, the one who repeated the college entrance exam twice, Swucin.'
- 2 *ay emma.*

- 3                   ‘A mom.’  
*ay emma-nun ani-ciman,*  
 ‘She’s not a mom but,’  
 4                   *kyelhon-ha-n akassi.*  
 ‘The miss who got married.’  
 5                   *acwumma?*  
 ‘(Or should I say) Missus?’  
 6→ P4:           *cikum-un ay iss-cianh-ulkka?*  
 ‘Wouldn’t she be a mom by now?’  
 7     P1:           *acik an mantul-ess-ul-kel?*  
 ‘I doubt that she had a baby yet.’

Unlike LFNQ in (6), the construction in (7) suggests that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Swucin would be a mom by now’) is true, rather than not true (i.e., a positive assumption rather than a negative assumption). However, since she is not completely sure about her own assumption, she requests P1 to provide her some information about her assump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were cases where it wasn’t very clear whether the speaker is using LFNQ as a NEG ASSM or as a PST ASSM for VER/CONF. In other words, there were some cases where the construction could possibly be ambiguous at least from the hearer’s perspective, such as in (8).

(8) 7CM00044

(Context: P1 and P2 are conversing in a cafe.)

- 1→ P2:           *Cihye-nun mwe= ywuhak kath-un ke ka-ko siph-ci ka-ko*  
*siph-cianh-a?*  
 ‘Cihye, {don’t you want to / you don’t want to} go study  
 abroad or something like that?’  
 2     P1:           *ywuhak-i-yo?*  
 ‘Studying abroad?’  
 3     P2:           *ung.*  
 ‘Yeah.’  
 4     P1:           *ce-nun=,*  
 ‘In my case=,’  
 5                   *oykwuk-ey ka-se.*  
 ‘In foreign countries.’  
 6                   *oykwuk-ey ka-se kongpwu-ha-ko siph-un sayngkak-un pyello eps-ko-yo,*  
 ‘I don’t particularly want go study in foreign countries, but,’  
 7     P2:           <@ *ung,* @>  
 ‘<@ Yeah, @>’  
 8     P1:           *kunyang noll-e-nun ka-ko siph-e-yo.*  
 ‘I just want to go traveling.’

In (8), LFNQ was used in line 1 by P2. And at least from P1’s point of view, it is not clear if P2 assumes that ‘Cihye does not want to go study

abroad’ and asking her if this is true (NEG ASSM), or if he assumes that ‘Cihye wants to go study abroad’ and asks if it is true (PST ASSM for VER/CONF). This type of ambiguous cases are reflected in the shaded third column in <Table 3>, and it shows that there were 10 such cases (3.9%).

Before discussing the result in the shaded fifth column in <Table 3>, the result of the sixth column PST ASSM for AGR will be discussed first. The corpus data showed that there were 126 cases of LFNQ (49.4%) which were used as PST ASSM for AGR, i.e., when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true and also assumes that the hearer would be assuming that this is true as well, thus requests the hearer to provide him or her with agreement. (9) is such an example.

(9) 4CM00034

(Context: The speakers are talking Chwucayen, a Korean actress.)

- 1 → P6: *ippu-ci anh-e?*  
‘She’s pretty, isn’t she?’
- 2 P1: *kyay-ka Cengwungin-ilang kyelhon-ha-n-ta-kwu,*  
‘They say she’s marrying Cengwungin,’
- 3 P5: *yey.*  
‘Yes.’
- 4 P4: *Cengwungin-ilang kyelhon-ha-n-tay-yo,*  
‘They say that she’s getting married to Cengwungin,’
- 5 P2: *cincca-lo?*  
‘For real?’
- 6 P6: *ippu-ci?*  
‘She’s pretty, right?’
- 7 *a nemwu ipp-e.*  
‘Ah she is so pretty.’

In (9), P6 uses LFNQ in line 1, and it is not used to ask P6’s negated assumption (‘She is not pretty’) is true, but on the contrary, the assumes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indeed true (‘She is pretty’), thus has a positive assumption. However, unlike the speaker P4 in (7), who was not entirely sure of the truthfulness of her assumption and was thus asking the hearer for a confirmation, P6 in (9) seems to be very confident of his own assumption. Although it’s not clear whether any one of the other interlocutors was nodding to P6’s question because the transcript does not provide any information on nonverbal gestures, according to the lines 2-5, no one is giving an answer at least verbally to P6’s question. Instead, the other interlocutors are talking about the actress’ upcoming marriage rather than P6’s comment on her beauty. P6 then re-attempts his unanswered question by uttering as lines 6 and 7. This time, he uses a slightly different construction which is an interrogative ending with the committal ending *-ci*, which makes the utterance a very biased question towards the truthfulness of the proposition, and hence has been translated in English as ‘right?’. Furthermore, P6’s following utterance (line 7) clearly demonstrates that

he indeed believes that the actress is pretty. The two lines 6 and 7 suggest that LFNQ in line 1 was not used to request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from the hearer, but rather it was used to request some type of agreement from the other interlocutors.

(10) is another such instance.

(10) 4CM00029

(Context: P1 has just argued that her swimming practice in the past caused her to have thick forearms.)

- 1→ P6: *swuyeng-ha-myen ekkay-ka pelecianh-a-yo?*  
 ‘If you swim, it’s the shoulders which become broader, isn’t it?’  
 2 *phalttwuk-un an kwulkeci-nuntey,*  
 ‘It’s not the forearms which get thicker,’  
 3 P1: *ani-ey-yo,*  
 ‘No,’  
 4 *swuyeng-hay- ha-nun salam-to pothong phalttwuk tukke,*  
 ‘People who swim, normally they also have thick forearms,’  
 5 P6: <@ *eyi swuyeng-ul ceytaylo mos-ha-nikka kule-ci,* @>  
 ‘<@ Hey, that’s because they can’t swim properly, @>’

In (10), P6 uses a LFNQ in line 1. The context suggests that P6 assumes that the fact ‘swimming broadens shoulders (not forearms)’ is true, and the fact that P6’s LFNQ was used to request agreement (not verification/confirmation) from the hearer(s) can clearly be seen in P6’s response in line 5; when P1 shows an opposing point of view in lines 3 and 4, (that people who swim normally have thick forearms), P6 argues back in line 5. This fact clearly demonstrates that P6’s LFNQ was not used to ask for verification/confirmation whether her assumption is true or not, but rather she was indeed expecting an agreement from others.

Nevertheless, there were also cases where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LFNQ was used as PST ASSM for VER/CONF, or as PST ASSM for ARG. There were 57 (22.4%) of these ambiguous cases, and this result is shown in the shaded fifth column in <Table 3>. (11) is such an ambiguous example.

(11) 4CM00028

(Context: P1 has just told P2 that she recently moved and now lives near the Express Bus Terminal station.)

- 1→ P2: *keki Nyukhoa-to kakkap-cianh-ni?*  
 ‘Isn’t that place also close to the Nywukhoa department store? / That place is also close to the Nywukhoa department store, right?’  
 2 P1: *yey.*  
 ‘Yes.’  
 3 *[Nyukhoa kakkap-ci-yo.]*

- 4 P2: *[acikkkaci iss-ni?]*  
 ‘Is it still there?’
- 5 P1: *yey.*  
 ‘Yes.’

P2’s utterance in line 4 (‘Is it still there?’) clearly suggest that she used to be quite familiar with the existence of the Nywukhoa department store near the Express Bus Terminal Station, thus her LFNQ (in line 1) could be considered to be used as PST ASSM for AGR. However, the context does not really suggests that she is absolutely sure about her assumption, since her question in line 4, suggests that she is not entirely sure whether the department store still even exist. Hence, P2’s LFNQ could also have been used as PST ASSM for VER/CONF. In other words, at least from the hearer’s point of view, P2’s LFNQ can have more than one interpretation (either requesting verification/confirmation or requesting agreement).

(12) is another such ambiguous instance.

(12) 6CM00107

(Context: Eight students are discussing their upcoming group presentation. Because they were not feeling very confident about their presentation, P2 has just suggested that they should send an email to their professor and ask him for his opinion. P1 agrees.)


- 1 P1: *kyeysok mwul-e po-myen toy-canha.*  
 ‘We can just keep asking him.’
- 2 *sensayngnim [X]*  
 ‘(We should write,) Teacher X’
- 3 P2: *[e cehuy co-uy] myech co-nun me= ile-n*  
*sayngkak-ulha-ko iss-ketun-yo?*  
 ‘Um, we are group number something, um=, we have been having such and such thoughts,’
- 4→ *kulentey com caymi-eps-cianh-na-yo?*  
 ‘But it’s a little boring, right? / But isn’t it a little boring?’
- 5 *ile-n sik-ulo salccak tho-tal-ase,*  
 ‘We should add a phrase like this and,’

(P2 continues)

In (12), it is not clear whether P2’s LFNQ (line 4) was used to verify whether their presentation seems boring for the professor (PST ASSM for VER/CONF), or whether P2 has an assumption that their presentation would definitely seem boring for the professor as well, and hence uses the construction to request agreement (PST ASSM for AGR).

Let us now re-examine <Table 3>, focusing of the overall tendency of usage of LFNQ in spoken Korean. <Table 3 > is repeated here as <Table 3.1> with a slight modification.

	‘NEG ASSM’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AGR’	‘PST ASSM for AGR’	Total
LFNQ	5 (2.0%)	10 (3.9%)	57 (22.4%)	57 (22.4%)	126 (49.4%)	255
	Negative Assumption 5 (2.0%)	Positive Assumption 250 (98.0%)				
	Negative Assumption 15 (5.9%)		Positive Assumption 240 (94.1%)			


  
 Increase of frequency

<Table 3.1. Overall tendency of LFNQ in spoken Korean>

<Table 3.1> suggests that LFNQ is least frequently (2.0%) used as NEG ASSM, i.e., when the speaker asks whether a negated assumption is true or not. If we exclude the ambiguous cases in the shaded third column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then the result shows that LFNQ conveys negativity only 2.0% of the time. Even if we combine the ambiguous cases in the third column (3.9%) with NEG ASSM, the picture does not alter much; it still only consists of 5.9% in total. This signifies that at least in spoken Korean, LFNQ hardly ever conveys negativity. Instead, for the most of the times (94.1%), LFNQ is used when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information conveyed is indeed true (positive assumption). Furthermore, <Table 3.1> shows that LFNQ is most frequently used as PST ASSM for AGR (49.4%), i.e., when the speaker requests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the information which the speaker believes to be tru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clear gradient increase of frequency of LFNQ, as the speaker’s subjective certainty towards his or her own assumption becomes more certain, and as the speaker’s expectation on the hearer’s agreement to his or her question become more certain. The gradual increase of the number of uses as the table moves towards the PST ASSM for AGR, suggests that LFNQ in spoken Korean is currently undergoing a functional shift, from NEG ASSM to PST ASSM for AGR. Before discussing this gradual tendency in detail, let us first examine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SFNQ in Modern Spoken Korean found in the corpus data.

### 3.3.2. Functional distribution of SFNQ in Modern Spoken Korean

<Table 4> summarizes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SFNQ in spoken Korean.

‘NEG ASSM’	‘NEG ASSM’ or ‘PST ASSM’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Total

		for VER/CONF'		'PST ASSM for AGR'	AGR'	
SFNQ	287 (78.2%)	72 (19.6%)	2 (0.5%)	0 (0%)	6 (1.6%)	367

&lt;Table 4. Functional distribution of SFNQ in spoken Korean&gt;

The second column of <Table 4> demonstrates that 287 among the 367 cases of SFNQ in spoken Korean (78.2%) is used as NEG ASSM, i.e., it was used when the speaker asks whether what he or she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13) is an instance of SFNQ used as NEG ASSM.

(13) 4CM00029

(Context: P6, P1 and P2 are taking a guess at P4's weight.)

- 1 P6: *mom-mwukey ywuk-sip kilo an naka-l ke-ta ama,*  
'He would weigh less than sixty kilograms, probably.'
- 2 P1: *[kulay po-i-nuntey,]*  
'He seems so,'
- 3 P4: *[nak-a,]*  
'I weigh (more than sixty kilograms.)'
- 4→ P2: *cincca ywuk-sip kilo antway?*  
'You really don't weigh sixty kilograms?'
- 5 *khi-ka iss-nuntey,*  
'But you're tall,'

In (13), when P6 says he thinks P4's weight would be less than sixty kilograms (line 1), P2 expresses his surprise by using SFNQ in line 4 (although P4 responds that he in fact weighs more than sixty kilograms in line 3, it seems that P2 did not hear this response due to the speech overlap between the utterances in lines 2 and 3. This is a definitely a case of NEG ASSM, since P2 asks whether P4 truly does not weigh sixty kilograms by using the expression *cincca* 'really.' His surprise or doubt about the fact that P4 weighs less than sixty kilograms can further be seen in his utterance in line 5, where he provides a reason for his doubt. (13) illustrates a case of SFNQ as NEG ASSM, used after a proposition which was already previously negated by another interlocutor (line 1, by P6).

(14) is another instance of SFNQ used as NEG ASSM.

(14) 4CM00050

(Context: Three friends are talking while walking towards a restaurant. P2 comments on a photo studio that they are passing by.)

- 1 P2: *ccik-umyen an tway.*  
'You shouldn't take photo (there).'
- 2 P1: *way-ye?*  
'Why?'

- 3 P2: *way-nya-ha-myen [cenmwun-sacin--]*  
 ‘It’s because the professional photograph--’  
 4→ P1: *[yeyppu-key an]nawa-yo?*  
 ‘The pictures don’t come out pretty?’

Unlike (13), the SFNQ in (14) (line 4) is not used to question the truthfulness of an assumption which was already negated by another speaker; P2 has never uttered that ‘the pictures don’t come out pretty.’ Instead, P1 herself presumes the reason why P2 suggested her not to take photo at the studio, is because ‘the picture don’t come out pretty there,’ and asks P2 if this negative assumption is true or not. SFNQ in both (13) and (14) are instances of SFNQ asking the truthfulness of a negated assumption, i.e., NEG ASSM.

However, there were also some cases where it was not clear if SFNQ is used as NEG ASSM or as PST ASSM for VER/CONF. There were 72 cases of these ambiguous type (19.6%),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shaded third column in <Table 4>. (15) is such an instance.

(15) 5CM00041

(Context: P3 has just told P1 that these days, one’s body figure represents that person’s social class, because only those ones who have the time and money can work out regularly.)

- 1 P3: *oppa cikum ilehkey toy-myen kyey- oppa kyeykup*  
*choy-ha-chung-ulo tteleci-l <@wihem-ey chehay-ss-ki ttaym-e@>*  
*yelsimhi wuntong-hay-ya tway oppa-to mommay kwanli.*  
 ‘Hey, if you stay as you are now, <@ you’re going to face the danger of falling to the lowest ranking social cla- class, @> so you should be working out hard and be taking care of your body figure.’  
 2 P1: *nay mommay-ka ette-ntey=,*  
 ‘What’s wrong with my body figure=,’  
 3 P3: *[@@@@@]*  
 ‘@@@@@’  
 4 P1: *[nay nay cikum mommay-nun ttak cengsang-i-ya.]*  
 ‘My, my body figure is currently just normal.’  
 5→ P3: *pay annawa-ss-e?*  
 ‘Don’t you have a big belly? / You don’t have a big belly?’  
 6 P1: *an nawa-ss-e <X wis-pay X>*  
 ‘I don’t have a big belly <X upper belly X>’  
 7 P3: *a= kuluh-kwuna=,*  
 ‘Ah= I see=,’

In (15), it is hard to determine whether SFNQ in line 5 is used with either negative or positive assumption of the speaker. This is because in line 1, P3 warns P1 that he should be working out hard since he is about to fall into the lowest social rank, presumably because P3 thinks that P1 does not have a good

body figure at the moment. However, P1 argues back in lines 2 and 4 tha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his body figure, and that is when P3 uses SFNQ in line 5. The construction is ambiguous because it is difficult to tell whether P3 assumes that ‘P1 does NOT have a big belly’ and asks P1 whether this negated assumption is true or not (because P1 said that he does not have any problem with his body figure), or whether she assumes that ‘P1 DOES have a big belly’ and asks P1 to provide with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about her assumption (since P3 originally thought that P1 does not have a good body figure).

The fourth column of the <Table 4> shows that there were only 2 cases of SFNQ (0.5%) where it could be distinguished as a clear example of PST ASSM for VER/CONF without showing much ambiguity with NEG ASSM. In other words, these 2 cases were the only ones where the speaker seems to be using SFNQ, with no doubt, solely to request from the hearer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of the information which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All of the other instances of SFNQ used as PST ASSM for VER/CONF showed some degree of ambiguity with NEG ASSM and thus have been placed in the shaded third column. (16) is an example of SFNQ used as PST ASSM for VER/CONF.

(16) 4CM00006

(Context: P1, P3 and P4 are talking about one of their mutual friends. This friend’s name has not been revealed in the corpus and has been transcribed as <name>. P1 has just told the others that <name> is back in Korea. P3 and P4, who expected <name> to be still abroad, are surprised upon the news.)

- 1 P4: *ka-l ttay-nun.*  
‘When she was leaving Korea.’
- 2→ *cathoyse nay-n-ta-ko anhay-ss-e?*  
‘Didn’t she say that she’s turning in the resignation form (to her university in Korea)?’
- 3 P3: *ani-y-a.*  
‘No.’
- 4→ P4: *keki-se hakkyo tani-n-ta kule-ci anh-ass-e?*  
‘Didn’t she say that she is attending the university there?’
- 5 P1: *cikum layngkwici sukhwul= machi-ko o-n ke-la-te-ntey?*  
‘Well, she said that she has just finished the language school courses,’
- 6 *kyay-ney enni-nun acik mos machye-se mos o-kwu <name>-nun ilccik machye-[kacikwu,]*  
‘Her older sister hasn’t finished it yet so she couldn’t come to Korea but <name> finished early, so,’
- 7 P3: *[@@]*  
‘@@’
- 8 P1: *<@ hapkyek-hay-se wa-ss-tay-nuntey, @>*  
‘<@ She says that she came back after getting an admission, @>’
- 9 *thongkwa-hay-kackwu.*

- ‘After passing the exam.’  
 10 P4: *a na hakkyo tani-nun cwul al-kwu=*,  
 ‘Ah I thought that she was already attending to a university there, so=,’

In (16), the fact that P4’s SFNQ (in line 2) is a clear instance of PST ASSM for VER/CONF, can be proved by her utterance in line 10. Because P4 thought that <name> was already attending a university there (line 10), when P4 uses SFNQ in line 2, it can be assumed that she was definitely assuming the fact ‘<name> said that she was going to turn in the resignation form’ is true, and was asking P1 for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Note that when P3 confirms P1 that her assumption is indeed wrong (in line 3), P1 re-attempts to verify her other assumption that ‘<name> said that she is attending to a university there’ (in line 4). However, this time, rather than using another SFNQ, she uses LFNQ, which is more prone to be used with positive assumption rather than a negative assumption.

The shaded fifth column in <Table 4> shows that none of the SFNQ was showing an ambiguity between PST ASSM for VER/CONF and PST ASSM for AGR. However, oddly enough, there were six exceptional cases where the construction was used when the speaker assumes a fact to be true and requests agreement from the hearer. This type was comprised 1.6% of SFNQ, and it is reflected in the sixth column of <Table 4>. (17) is such an instance.

(17) 6CM00099

(Context: P2 asked P1 why she ran away from the farming experience program last year. P1 explains that there were a lot of rules which made her hate the program.)

- 1 P1: *mwe insuthenthu= khephi-lang--*  
 ‘Um, the instant coffee and--’  
 2 P2: *e*,  
 ‘Yeah,’  
 3 P1: *ile-n ke masi-ci ma-la-kwu*,  
 ‘Not to drink those types of things,’  
 4 P2: *[e.]*  
 ‘Yeah.’  
 5 P1: *[mak] mwe-la kule-canha*,  
 ‘They were telling us stuffs like that,’  
 6 P2: *kuntey ku-ke cin=cca wuski-ta?*  
 ‘That’s really ridiculous,’  
 7 *mal-twu an tway=*,  
 ‘Doesn’t make any sense=,’  
 8 P1: *[kunkka--]*  
 ‘I mean--’  
 9→ P2: *[ku] salam-tul-un khephi anmasi-nya*,  
 ‘Those people, don’t they drink coffee,’

- 10 P1: *ai kukka ku-ke-y nemwu silh-ess-e mwe=*,  
 ‘Well, I mean, I hated those (rules) so much=,’

In (17), when P1 explains the reason she ran away from the farming experience program was because she did not like their rules such as prohibiting drinking instant coffee, P2 tries to show sympathy towards her upset feelings. She utters as ‘That’s really ridiculous’ (line 6) or ‘Doesn’t make any sense’ (line 7), and her SFNQ in line 9 is also used in a similar vein. What the construction assumes is that ‘Those people too, drink instant coffee (and why don’t they let you drink it),’ thus it is a positive, rather than negative, assumption.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P2’s SFNQ, in fact, does not have much interrogative force since the construction as a whole functions as a type of a rhetorical question. In other words, SFNQ in (17) cannot be said to be requesting agreement with the other interlocutor. Indeed, P1 does not even provide any answer to P2’s SFNQ, as she simply keeps continuing her story in line 10. Thus the 6 cases of SFNQ which I have put in the PST ASSM for ARG have, in fact, a slightly different function from the LFNQ used as PST ASSM for ARG (as shown in (9) and (10)). This suggests that these 6 cases of SFNQ are rather special types of SFNQ construction used rhetorically.

Let us re-examine <Table 4>, focusing on the overall tendency of usage that SFNQ showed in the corpus. <Table 4> with is repeated here as <Table 4.1> with a slight modification.

	‘NEG ASSM’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AGR’	‘PST ASSM for AGR’	Total
SFNQ	287 (78.2%)	72 (19.6%)	2 (0.5%)	0 (0%)	6 (1.6%)	367
	<b>Negative assumption</b> 359 (97.8%)	<b>Positive assumption</b> 8 (2.2%)				
	<b>Negative assumption</b> 287 (78.2%)	<b>Positive assumption</b> 80 (21.8%)				

<Table 4.1. Overall tendency of SFNQ in spoken Korean>

<Table 4.1> shows that SFNQ in spoken Korean is most frequently used as NEG ASSM, i.e., when the speaker asks whether what he or she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78.2%). If we combine NEG ASSM and the ambiguous cases of NEG ASSM and PST ASSM for VER/CONF (the second and the third column of <Table 4.1>), then it suggests that SFNQ is mostly used with negative assumption (97.8%). Even if we do not include the ambiguous cases in the shaded third column with the cases of NEG ASSM, it still shows that for the great majority of the time (78.2%), SFNQ is used with negative assumption.

### 3.3.3. Comparison of the functional distributions of LFNQ and that of SFNQ in Modern Spoken Korean

The result for the functional distributions of both long and short forms negative question are combined into <Table 5>.

	'NEG ASSM'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AGR'	'PST ASSM for AGR'	Total
LFNQ	5 (2.0%)	10 (3.9%)	57 (22.4%)	57 (22.4%)	126 (49.4%)	255
	Negative Assumption 5 (2.0%)	Positive assumption 250 (98.0%)				
SFNQ	287 (78.2%)	72 (19.6%)	2 (0.5%)	0 (0%)	6 (1.6%)	367
	Negative assumption 359 (97.8%)		Positive assumption 8 (2.2%)			

<Table 5. Functional distribution of short and long form negative questions in spoken Korean>

<Table 5>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long and short form negative questions show very different pictures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ir functional distribution in their actual usage in spoken Korean. The two forms show the inverse results regarding which function they are most frequently used with: LFNQ is most frequently used as ASSM for AGR, while SFNQ is most frequently used as NEG ASSM. Moreover, unlike LFNQ which shows a gradient continuum by demonstrating a gradual increase of the frequency as the table moves from NEG ASSM to PST ASSM for AGR, SFNQ does not show such a continuum which is as gradient as that of LFNQ. Rather, the result of SFNQ is strongly predisposed towards the NEG ASSM and shows a very abrupt decrease of frequency as the table moves away from NEG ASSM. Furthermore, while LFNQ hardly ever conveys negativity (only for 2% of the time), SFNQ almost always conveys negativity (for 97.8% of the time). It seems that these extreme differences in functional distribution of the two forms of negative question in spoken Korean requires an explanation, particularly on what drove these two forms of negative question to show such a different distribution in Modern Spoken Korean.

To begin with, as has been discussed in section 3.2, my corpus data, as well as a number of previous works on negative question construction in Korean (H.-M. Sohn 1994, J.-H. Lee 2008), have confirmed that the long and the short form negative constructions greatly differ in their style and their register. In other words, LFN, which is more formal than SFN, is much more frequently used in written Korean, while the short form, being more informal than the long form, is

much more frequently used in spoken Korean. Particularly, data described in section 3.2 confirmed that SFN indeed showed a 10 times higher frequency than LFN in Modern Spoken Korea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two existing neg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might have been in a competition with each other over the domain of negation, and the short form might currently be taking over the domain of negation at least in spoken Korean while the long form remains dominant in written Korean.

As SFN expands its territory in the domain of negation in the spoken register, LFN seems to be undergoing a functional shift as it loses ground in the domain of negativity. This process can be evidenced in the result in <Table 2> where it was shown that the majority of LFN (61.7%) is used in interrogative utterances rather than non-interrogative utterances (such as declarative or indicative utterances) (38.3%). This result suggests that in spoken Korean, LFN might be developing a restriction of context, where it should appear with interrogative speech act, as a consequence of the loss of ground in negation in spoken Korean.

A closer examination of each use of LFNQ demonstrated that for the most of the time (98%), the construction did not convey negativity. This result also suggests that LFN, at least in interrogative construction, has mostly lost its negativity. Furthermore, this loss of negativity represents that LFNQ is currently undergoing a functional/semantic generalization (which is the loss of specific features of meaning with the consequent expansion of appropriate contexts of use for a grammatical morpheme (Bybee et al. 1994:289)). This functional changes can also be witness by the gradual increase of frequency of LFNQ in <Table 5> as the table moves from NEG ASSM to PST ASSM for AGR. This gradient continuum suggests that the construction is shifting its function from ‘asking the hearer whether a certain assumption is not true’ into ‘requesting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a certain assumption which the speaker believes to be true.’

Overall,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LFNQ and of SFNQ might be the consequence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existing constructions in the domain of negation in Korean. In other words, the gradual functional shift which LFNQ seems to be currently undergoing is the consequence of the loss of the competition with SFN in spoken register. I believe that the loss of ground of LFN in spoken Korean, and the functional generalization of LFNQ as the result of this loss had been a crucial trigger for the evolution of the information managing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 4. Grammaticalization from LFNQ into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Before directly jumping into the evolution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from LFNQ in spoken Korean, the three possible interpretations of LFNQ found in the corpus data must be discussed in more detail. Example (5) is repeated here as (18).

(18)

*Yengi-ka mek-ci anh-ni?*

- a. ‘Yengi doesn’t eat?’ (NEG ASSM)
- b. ‘Doesn’t Yengi eat?’ (PST ASSM for VER/CONF)
- c. ‘Yengi eats, doesn’t she?’ (PST ASSM for 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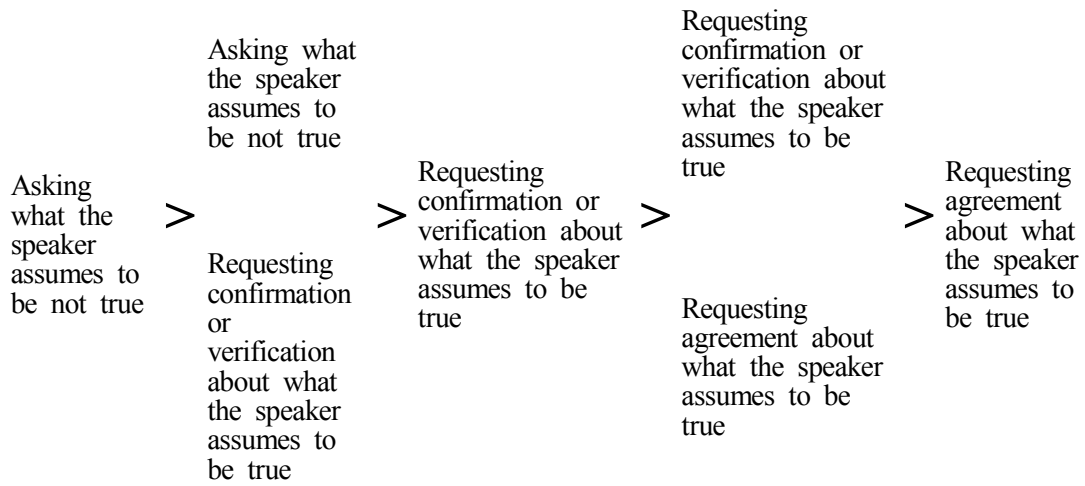
A polysemy which a single form or construction shows synchronically (such as the case of LFNQ in spoken Korean) often signifies that the form is currently undergoing a semantic change. It is because semantic changes generally do not occur without a stage of polysemy and because, as Traugott and Dasher (2001:11) argue, “[e]very change, at any level in a grammar, involves not “A > B,” i.e., the simple replacement of one item by another, but rather “A > A ~ B > B” and then sometimes “> B” alone”. The current “layering” (Hopper 1991) of different meanings of LFNQ in spoken Korean directly indicates such intermediate stage of its semantic change. Considering the fact that LFNQ construction derived from the long form negative declarative sentence, it can be speculated that the interpretation in (18a) could be the oldest meaning, since this is the only interpretation where the original negativity of LFN still persists (the speaker asks whether a NEGATED assumption is true or not). Moreover, it can also be speculated that the interpretation in (18c) is the newest meaning where both the negative meaning and the interrogative speech act are least present (the speaker simply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My corpu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actual current usage of LFNQ indeed reflected such speculation. <Table 3> is repeated here as <Table 6>.

	‘NEG ASSM’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AGR’	‘PST ASSM for AGR’	Total
LFNQ	<b>5</b> (2.0%)	<b>10</b> (3.9%)	<b>57</b> (22.4%)	<b>57</b> (22.4%)	<b>126</b> (49.4%)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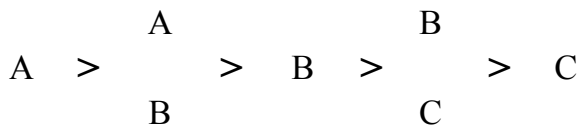
<Table 6. *On-going functional shift of LFNQ in spoken Korean reflected in its functional distribution of its actual usage*>

<Table 6> demonstrates that there are ambiguous or overlapping cases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interpretations (shown in the shaded third column), and that there are ambiguous or overlapping cases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interpretations (shown in the shaded fifth column). However, there were no cases that overlap between the first and the third interpretations. This suggests that LFNQ in spoken Korean is undergoing the semantic or functional shift shown in (19):

(19)



The on-going semantic change of LFNQ shown in (19) can be schematized as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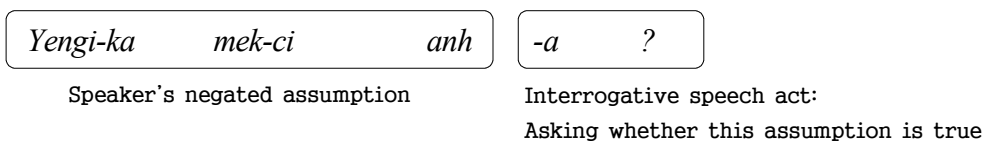


As will be argued, it is specifically the third interpretation of LFNQ which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derived from. The following subsections will discuss the step-by-step shifts from the first interpretation of LFNQ (as in (18a)) to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 4.1. ‘Asking whether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 ‘Requesting for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When LFNQ is used when the speaker asks whether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or not, then the construction can be schematized as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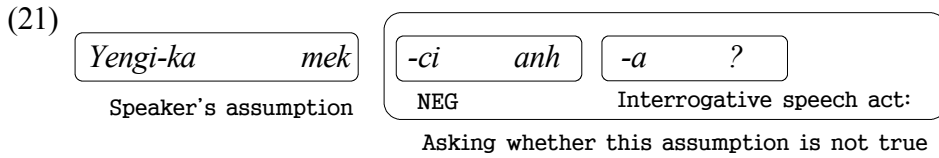
(20)



in (20), it automatically implies that the speaker had a non-negated assumption (‘Yengi eats’) before the time of speech.

It is when this specific implication, that the speaker had a non-negated assumption before the time of speech, becomes part of the meaning of the construction, that LFNQ can be used ‘when the speaker asks for verification/

confirm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This second interpretation can be schematized as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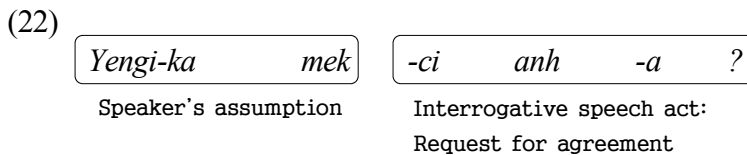


‘Doesn’t Yengi eat?’

Unlike (20), the speaker’s assumption in (21) is not negated any more. Instead, the speaker now assumes that ‘Yengi eats’ (rather than ‘Yengi doesn’t eat’) but because the speaker is not absolutely sure about his or her own assumption, he or she asks the hearer whether this assumption is not true (by using the long form negation *-ci anh-*), i.e., the speaker now asks for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of his or her assumption. During the shift from (20) to (21),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has been reanalyzed. While in (20), *-ci anh-* remains within the speaker’s assumption thus rendering the speaker’s assumption to be a negative one, *-ci anh-* in (21), is now outside of the scope of the speaker’s assumption, rendering it to be a positive one. Instead, *-ci anh-* now forms a group with the sentential ending. Note that compared to (20), the negative construction *-ci anh-* in (21) has a much looser relationship with the speaker’s assumption. This suggests that *-ci anh-* has gradually started to lose its negativity from this second stage of functional shift of LFNQ, though at this point, the negativity still remains within the scope of the sentential ending.

#### 4.2. ‘Requesting confirmation/verific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 ‘Requesting agreement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It has been shown that as the function or the speech act of LFNQ shifts to a ‘request for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s assumption and *-ci ahn-* began to loosen. I argued that this signifies *-ci ahn-* has begun to lose its negativity in LFNQ construction. When the negativity of *-ci ahn-* becomes even more weak and when the speaker’s positive assumption receives more focus instead, then the third meaning of LFNQ arises, which is schematized as (22).



‘Yengi eats, doesn’t she?’

Just like (21), the speaker in (22) also has a positive assumption rather than a negative one (that ‘Yengi eats’). The difference between (21) and (22) is that

while in (21), the speaker was not completely sure about his or her own assumption and needed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from the hearer, the speaker in (22) on the other hand, is very confident about his or her assumption and does not even need any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Instead, the speaker in (22) believes that his or her assumption would be true to the hearer as well, and hence is expecting agreement from him or her.

In (22), there has been another reanalysis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as its function or speech act changes to ‘requesting agreement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Unlike (21) where *-ci anh-* still conveys some degree of negativity though its relationship with the speaker’s assumption might be loose, in (22), *-ci anh-* does not convey negativity at all. Instead, *-ci anh-* has been completely reanalyzed as a part of the sentential ending construction. The reason why *-ci anh-* is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sentential ending construction in (22), is because when LFNQ construction is used with the third interpretation (requesting agreement from the hearer), any grammatical morpheme is unlikely to intervene between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or utterance-final particle used with it. For instance, the Korean past tense marker *-ass* or *-ess* normally occurs right before a sentential ending or an utterance-final particle as can be seen (23a), but when it is used in LFNQ requesting agreement from the hearer, then the past tense marker *-ass* or *-ess* is more likely to appear before *-ci anh-* rather than after it, as in (23b)<sup>9</sup>.

(23)

- a. *Yengi-ka mek-ci anh-ass-e?*  
‘Yengi didn’t eat? / Didn’t Yengi eat?’
- b. *Yengi-ka mek-ess-cianh-a?*  
‘Didn’t Yengi eat? / Yengi ate, didn’t she?’

In fact, my corpus result also showed that LFNQ which functions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showed the lowest percentage of morpheme(s) intervening between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or utterance-final particle it occurs with. <Table 7> summarizes the corpus results showing the different proportions of LFNQ in spoken Korean occurring with or without a morpheme(s) appearing between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or utterance-final particle depending on its speech act.

	Morpheme(s) intervening between <i>-ci anh-</i> and sentential ending	No morpheme(s) intervening between <i>-ci anh-</i> and sentential ending	Total
‘NEG ASSM’	<b>3</b> <b>(60%)</b>	<b>2</b> <b>(40%)</b>	5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b>6</b> <b>(60%)</b>	<b>4</b> <b>(40%)</b>	10

9) A similar argument has been made in D.-S. Kim (1981).

‘PST ASSM for VER/CONF’	<b>6</b> <b>(10.5%)</b>	<b>51</b> <b>(89.5%)</b>	57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AGR’	<b>5</b> <b>(8.8%)</b>	<b>52</b> <b>(91.2%)</b>	57
‘PST ASSM for AGR’	<b>11</b> <b>(8.7%)</b>	<b>115</b> <b>(91.3%)</b>	126

<Table 7. Proportion of LFNQ occurring with or without a morpheme(s) appearing between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or utterance-final particle depending on its speech act.>

<Table 7> demonstrates that as LFNQ shifts its function from NEG ASSM to PST ASSM for AGR, the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with morpheme(s) intervening between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gradually decreases. Conversely, the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with no morpheme(s) intervening between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increases as its function shifts to PST ASSM for AGR. This result suggests that when LFNQ is used with the third interpretation such as in (22), it is the *-ci anh-* construction combined with the sentential ending or utterance-final particle construction and the rising intonation contour as a whole that conveys the interrogative speech act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 4.3. LFNQ which ‘requests agreement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 information managing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 4.3.1. Functional shift: ‘a request for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 ‘an explicit marking of shared knowledge’

The internal structure of LFNQ which function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is shown in (24) (repeated from (22)).

(24)

<i>Yengi-ka</i>	<i>mek</i>	<i>-ci</i>	<i>anh</i>	<i>-a</i>	<i>?</i>
Speaker’s assumption		Interrogative speech act: Request for agreement			

‘Yengi eats, doesn’t she?’

I have explained that this type of LFNQ is used when the speaker expects agreement from the other interlocutor. Excerpt (9) particularly showed that when the other interlocutor did not provide with agreement to the speaker’s LFNQ, she even argued back, which demonstrates that the speaker was not expecting a response other than an agreement. Hence, this type of LFNQ implies that the

speaker believes that the hearer would have the same assumption as the one that he or she has at the time of speech (that ‘Yengi eats,’ in case of (24)). In other words, this type of LFNQ implies that the speaker believes that a certain piece of information is already ‘shared knowledge’ or ‘common ground’ among the interlocutors. In fact, among the 126 cases of the LFNQ used as PST ASSM for AGR found in my corpus (see <Table 3>), there were even cases where the construction is used when the speaker already knows that he or she and the hearer are in agreement. In other words, there were even cases when LFNQ was not even used to request for agreement. (25) is such an instance.

(25) 6CM00094

(Context: P1 and P2 are talking about the movie “15 minutes” which they both saw. P2 has just asked P1 what he thought of the movie.)

- 1 P1: *po-myense way ilehkey hwangtanghakey cwuk-e=?*  
 ‘While I was watching it I thought, why does he die so ridiculously=?’
- 2 *[kule-myense kkuthna-ss-e.]*  
 ‘The movie ended that way.’
- 3 P2: *[thukhi ku=] ku= mwe-y-a,*  
 ‘Especially that= that= what is it,’
- 4 *nwukwu-ci?*  
 ‘Who was it?’
- 5 *ku namca cwuinkong?*  
 ‘That male main character?’
- 6 P1: *molu-ci.*  
 ‘Who knows.’
- 7→ P2: *nemwu hwangtanghakey cwuk-cianh-nya?*  
 ‘He dies too ridiculously, doesn’t he?’
- 8 P1: *nemwu hwangtanghakey cwuk-e.*  
 ‘He dies too ridiculously.’

In (25), LFNQ (in line 7) has been used to ask P1 to provide P2 with agreement about the fact that ‘the male main character dies too ridiculously,’ and P1 indeed provides with such agreement in line 8. In fact, in line 1, P1 already has expressed his impression about the movie “15 minutes” by using the same expression that P2 uses in his LFNQ, that the main character ‘dies so ridiculously’. In other words, when P2 repeats P1’s expression ‘dying too ridiculously’ in his LFNQ, he is aware of the fact that P1 and he are already agreeing on the same assumption. Thus, P2’s LFNQ can be seen as an act to show that he also shares the same assumption as P1, rather than to actually request agreement from P1.

(26) is another such instance.

(26) 7CM00044

(Context: P1 and P2 are old time friends and they are chatting in a cafe. While P1 is an undergraduate student, P2 is a graduate who is currently working as an engineer in one of the major car companies in Korea. Before this excerpt,

they have been talking about P2's duties at his workplace as an engineer. Now P1 is talking about her boyfriend, an undergraduate student majoring in mechanical engineering. She is complaining about his busy schedule.)

- 1 P1: *ani mwe-ka pappa-yo?*  
'Well, what's so busy?'
- 2 *kong-tay-nun way pappa-yo?*  
'Why is it busy if you're in the engineering department?'
- 3 P2: *kong-tay?*  
'Engineering department?'
- 4 P1: *ney.*  
'Yes.'
- 5 P2: *hakki cwung-ey-nun cincca.*  
'During the semesters, it's really.'
- 6→ *oppa-ka tto kong-tay nawa-ss-cianh-nya=.*  
'Especially since I graduated from the engineering department= (you know).'
- 7 P1: *ney.*  
'Yes.'
- 8 P2: *oppa-to kikyewa nawa-ss-nuntey.*  
'I also majored in mechanical engineering, so.'
- 9 P1: *ney.*  
'Yes.'
- 10 @@  
'@@'
- 11 P2: *mwe-la kulay-ya toy-na.*  
'How should I put this into words.'
- 12 *iltan mwe= kongpwu ha-nun ke cachey-ka incey ccom,*  
'Well= first of all, studying that subject itself is a bit, well,'
- 13 *elyep-ko.*  
'Difficult and.'
- (P2 continues.)

In (26), if P2's LFNQ (line 6) was truly used as a question, then it should have been translated in English as 'I graduated from the engineering department, didn't I?'. However, this question would sound very strange since there is no reason for P2 to ask P1 to provide with confirmation or agreement about a certain piece of information that concerns his own life. Therefore, the construction has been translated differently. It is because although the context does not tell us explicitly that P1 already knew that the fact that 'P2 graduated from the engineering department,' but because they have been talking about P2's new job as an engineer, it is very likely that P1 already knew this fact before this excerpt. Moreover, the reason why P1 asks P2 why her boyfriend should be so busy just because he is in engineering department (lines 1 and 2) should be because P1 assumes that P2 should know the answer because he was once an engineering student. Hence, P2's LFNQ could hardly be a request for agreement

from P1 about the fact that he graduated from engineering department. Rather, the construction has been translated to English discourse marker *you know*, which reflects P2’s acknowledgement of the fact that both P1 and himself knows that he graduated from engineering department. Furthermore, the fact that P2’s LFNQ does not occur with a rising intonation contour, despite the fact that it is still used with an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 *-nya* also suggests that he doesn’t explicitly convey an interrogative speech act either.

Both (25) and (26) show that LFNQ in spoken Korean can sometimes be used even when there is not much need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such as when the speaker already knows that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hearer and him/herself. In these situations, LFNQ could be used instead to simply demonstrate that speaker too, agrees with the hearer (as in (25)), or when the speaker wants to show his or her acknowledgement of an already shared assumption (such as in (26)). In other words, (25) and (26) suggest that LFNQ can sometimes be used even with very small or no degree of interrogative speech act at all.

In fact, it is not uncommon not only in Korean but also in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that an interrogative construction with a negative morpheme, such as a negative yes/no question or a tag question, is used to express a sharedness of an assumption or knowledge rather than truly conveying interrogative speech act. For instance, Bolinger (1957) argues that English negative interrogatives convey an expectation for a positive response (just like the Korean LFNQ shown in (24)), and Heritage (2002) further argues that such construction can sometimes be used to deploy agreement with the other interlocutors. (27) is an example of such use of English negative interrogatives, taken from Heritage (2002:1429).

(27)

(Context: Lottie and her sister are beginning a discussion of Lottie’s recent trip to Palm Springs.)

- 1 Emm: .h How wz yer tri:p
- 2 Lot: Oh::Go:DwonderfulEmm[a,
- 3→ Emm: **[Oh idn’it beautiful do:wnthe:re,**
- 4 Lot: Oh::Jeezihwzgo:rgeous::
- 5 Emm: Wh’t a ni:cewuttim’djihgiti:n.Jstali’lwhalago?

(27) demonstrates that Emma’s negative interrogative ‘Oh isn’t it beautiful down there’ (line 3), is used to show agreement with Lottie’s previous positive comment on Palm Springs (line 2). Due to Lottie’s enthusiastic comment about Palm Springs in line 2, it is evident that at this point, Emma should know that both Lottie and she are already in agreement that ‘Palm Springs is beautiful.’ Thus, Emma’s negative interrogative can thus be interpreted to be used to simply show that there is a shared thought between Emma and Lottie, rather than to truly request agreement from Lottie.

(28) is another instance of English negative yes/no question, borrowed

from Keisanen (2006:149)<sup>10</sup>.

(28)

(Context: Prior to the following excerpt, Jeff has been telling how he had read about some scientists who had discovered a star with two planets somewhere outside of our own solar system.)

- 1 Jill: (H) .. ‘God,  
 2 ‘that’s so ‘incredible.  
 3 Jeff: And ^heat ‘waves.  
 4 % I% t- i- it’s ^unbelievable.  
 5 ‘how .. @ .. ‘man has.  
 6 .. (H) = .. you know ‘like,  
 7 .. (Hx)  
 8 Jill: .. From [‘this] ‘little ^point,  
 9 Jeff: [(Hx)]  
 10 Jill: (H) in ‘the ^whole= ‘universe.  
 11 like,  
 12 .. ‘we’ve been able to ‘tell ^so ‘much,  
 13 just with .. (H) ^science.  
 14 (0.9)  
 15 Jeff: ‘I ^know,  
 16→ **[‘isn’t] it ^wild?**  
 17 Jill: [XX]  
 18 .. (H) ‘Just with,  
 19 (0.8)  
 20 ‘aw,  
 21 that’s ‘so= ^incredible.

From the very beginning of (28), both Jill and Jeff are sharing the same awe towards what Jeff has just told Jill (the discovery of a star with two planets somewhere outside of our own solar system) by their expressions ‘incredible’ (by Jill in line 2) and ‘unbelievable’ (by Jeff in line 4). After Jill once again expresses her amazement through lines from 10 to 13, Jeff again indicates that he is in an agreement with Jill by uttering ‘I know,’ in line 15, and he adds a negative interrogative ‘isn’t it wild’ in line 16. Since the conversation before Jeff’s negative interrogative provides an ample evidence that both Jill and Jeff are already in an agreement, it does not seem necessary for Jeff to be provided with a positive response from Jill that she agrees with Jeff, especially because Jeff already recognizes that they are already in an agreement by uttering ‘I

10) The transcription conventions used by Keisanen (2006) is as follows:

Primary accent	^	Special voice quality	<VOX VOX>
Secondary accent	‘	Duration	(N), where N = time in seconds
Lengthening	=	Speech overlap	[ ]
Click	(TSK)	Inhalation	(H)
Speech overlap	[ ]	Exhalation	(Hx)
Glottal stop	%	Laughter (one pulse)	@
Truncated word	-	Short pause	..
Truncated intonation unit	--		

know,’ in line 15. Thus, Jeff’s negative interrogative is used simply to express that there is a common ground between Jill and him, rather than to request agreement from her.

(29) is an instance of an English tag question (positive statement followed by a negative tag), used for a similar function as negative interrogatives in English shown in (27) and (28), borrowed from Keisanen (2006:157-158).

(29)

(Context: Larry has asked Seth to redo the heating system in a house that he has recently bought. The two are going around the house checking the existing system and deciding on what should be done.)

- 1 Seth: ‘How about ‘the uh ^thermostat.  
 2 (2.3)  
 3 Larry: ^This ‘guy?  
 4 (1.4)  
 5 Seth: ‘Okay.  
 6 .. ‘I would ^definitely go with a ‘new ^thermostat.  
 7 (0.5)  
 8 Larry: ‘Yeah.  
 9 (1.8)  
 10→ Larry: **‘Kind of a [ .. X ^antique,**  
 11 Seth: [But that’s ‘probably a good --  
 12 .. That’s ‘probably] a good ^spot.  
 13→ Larry: **‘isn’t it].**  
 14 Seth: ‘Yeah,  
 15 that should be in a ^museum.  
 16 (0.3)  
 17 Larry: @@@@

When Seth suggests that Larry should get a new thermostat in line 6, Larry expresses an agreement by saying ‘Yeah,’ in line 8. At this point, it would be clear for both Larry and Seth that they are already in an agreement on a certain matter. Thus when Larry uses a tag question ‘Kind of a X antique, isn’t it’ through lines 10 and 13, it can hardly be seen that Larry is asking such question because he needs a positive response from Seth. Instead, Larry’s tag question shows that at least to his belief, the fact that ‘the thermostat is kind of an antique’ should be common knowledge between Larry and him, since they both agreed that it should be changed to a new one.

Examples in (25)-(29) show that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the yes/no questions conveying a negative morphemes such as Korean LFNQ (which function to request agreement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and English negative interrogatives and tag questions are often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assumption of shared knowledge or common ground among the interlocutors, rather than to truly request for a positive response from the hearer<sup>11</sup>). Because the negative questions (in both Korean and English) can often imply

that the speaker is asking such questions because he or she already has a belief that a certain piece of information is already shared, the construction can sometimes be used to solely convey that implication without much degree of interrogative speech act (to request a positive response or agreement from the hearer). I argue here that it is this specific implication of LFNQ in Korean that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has derived from.

As I have explained earlier, when LFNQ shifts its function from ‘asking for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to ‘requesting agreement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its original literal negative meaning of the construction gets lost. I argue that the function of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s the same function of LFNQ which ‘requests agreement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excluding the interrogative speech act. In other words, as the function shifts from LFNQ to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LFNQ further loses its interrogative speech act. This change is schematized as (30).

(30)

a. LFNQ, which functions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i>Yengi-ka</i>	<i>mek</i>	<i>-ci</i>	<i>anh</i>	<i>-a</i>	?
Speaker’s assumption		Interrogative speech act: Request for agreement			

‘Yengi eats, doesn’t she?’

b.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Yengi-ka</i>	<i>mek</i>	<i>-canha.</i>
Speaker’s assumption		Speaker’s belief of shared knowledge

‘(As you and I both know) Yengi eats.’

(30) illustrates that as the form shifts to *-canha*, its functions shift as well. What has been described as the implication of LFNQ ‘that the speaker assumes that a certain piece of information is already shared knowledge among the interlocutors before the time of speech’ has now become the part of the meaning of *-canha*.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a functional shift from ‘a request for agreement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to ‘an explicit marking of the speaker’s belief of shared knowledge.’ Moreover, (30) also shows that there has been a reanalysis of the internal structure along with the functional shift. The interrogative speech act (requesting an agreement) has been lost as LFNQ becomes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and as a result, *-canha* does not

---

11) Keisanen (2006:51) argues that English tag questions function more like ‘yes/no questions to be answered’ than English negative interrogatives, i.e., English tag questions have higher degree of interrogative speech act than English negative interrogatives.

require a rising intonation contour anymore unlike LFNQ shown in (30a). The fact that *-canha* does not convey any interrogative speech act anymore is well demonstrated in the following instance of *-canha*. Excerpt (1) has been repeated here as (31).

(31) 6CM00067

(Context: This excerpt is from a conversation between a mother (P1) and a son (P2). The mother has been talking about her surgery which she had to remove her wisdom tooth.)

- 1 P1: *kuleko emma-n an kkomay-ss-e.*  
‘And in my case, I didn’t get stitched.’
- 2 P2: *ung=.*  
‘Yeah=.’
- 3→ P1: *yak cwu-canha=.*  
‘(You know) they give you medication-*canha*=.’
- 4 *na-n yak-to an cwu-tula?*  
‘I didn’t even get any medication.’
- 5 P2: *a= kulay-yo?*  
‘Ah is that so?’

(31) clearly demonstrate that *-canha* is used with falling intonation contour (rather than rising intonation contour), which is one of th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it shows with LFNQ. Furthermore, the fact that P1 keeps continuing her story to line 4 without waiting for any response from P2 also suggests that *-canha* is no longer used with interrogative speech act to request a response from the other interlocutor. Instead, *-canha* functions as an explicit marker that expresses the speaker’s belief of shared knowledge, as has been translated in English as the discourse marker *you know*.

#### 4.3.2. Formal shift: *-ci anh-SEN.END?* > *-canha*

Along with the functional shift, one of the most salient shifts from LFNQ to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s its formal shift, particularly its formal fusion and phonological reduction. The formal fusion and the phonological reduction process from LFNQ to *-canha* can be schematized as (32).

(32)  
*-ci anh-* [či an] > *-canh-* [čan]

(32) shows that the two separate morphemes of LFN (connective ending *-ci* and negative marker *anh-*) are fused into one single morpheme *-canh-*. Furthermore, the pronunciation also has been reduced from [či an] to [čan].

It must be noted that when *-ci anh-* is used in an interrogative construction, it can be used with several different types of sentential endings, such as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 or *-e<sup>12)</sup>*, or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s such as *-ni*, *-nya*, *-supnikka*, and so on. <Table 8> demonstrates the proportions of the different types of sentential endings used with LFNQ depending on its different speech acts in spoken Korean.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Total
‘NEG ASSM’	2 (40%)	3 (60%)	5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4 (40%)	6 (60%)	10
‘PST ASSM for VER/CONF’	<b>57</b> <b>(100%)</b>	<b>0</b> <b>(0%)</b>	57
‘PST ASSM for VER/CONF’ or ‘PST ASSM for AGR’	<b>46</b> <b>(80.7%)</b>	<b>11</b> <b>(19.3%)</b>	57
‘PST ASSM for AGR’	<b>84</b> <b>(66.7%)</b>	<b>42</b> <b>(33.3%)</b>	126

<Table 8. Proportions of different types of sentential endings used with LFNQ depending on its different speech acts in spoken Korean.>

If we exclude the top two cases in <Table 8> (‘NEG ASSM’ and ‘NEG ASSM’ or ‘PST ASSM for VER/CONF’) due to their very low token frequency, then the result of the table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LFN used with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slowly increases as the construction shifts its function from ‘PST ASSM for VER/CONF’ to ‘PST ASSM for AGR’. This result suggests that as LFNQ shifts its function to ‘a request for agreement from the hearer,’ the construction gradually becomes more compatible with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

On the other hand, <Table 9> shows the propor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sentential ending used with the phonologically reduced form *-canh-* in spoken Korean.

Type of sentential endings suffixed to <i>-canh-</i>	Number of tokens	Percentag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b>2021</b>	<b>99.7%</b>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	<b>7</b>	<b>0.3%</b>
Total	2028	100%

<Table 9. Different types of sentential endings suffixed to *-canh-* and their proportion>

<Table 9> demonstrates that among the 2028 tokens of *-canh-*<sup>13</sup>, only 7 cases (0.3%) occurred with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s, while the remaining 2021 cases of *-cahn-* (99.7%) occurred with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e*. What can be concluded from <Table 8> and <Table 9> is that while *-ci ahn-*

12)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 is also often pronounced as *-e* in spoken Korean.

13) Among the 2030 cases of *-canh* found in the corpus, the two cases where *-canh-* was used within lexicalized expressions such as *kathcanhun* ‘impertinent’ and *ccocanhakey* ‘stingy’ were excluded in the observation.

construction is still being used with either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s or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e*, though the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used with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slightly increases as its function shifts to ‘a request for agreement from the hearer,’ its phonologically reduced form *-canh-* has become a chunk with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 a/-e* to form *-canha* (or *-canhe*). In other words, the entire *-ci anh-a* construction has undergone a ‘chunking’ process (cf. Haiman 1994, Bybee and Thompson 1997, Bybee and Scheibman 1999) to form *-canha*.

‘Chunking’ has been defined in Bybee and Scheibman (1999) as a process where ‘a frequently repeated stretch of speech becomes automated as a processing unit’ (Bybee and Scheibman 1999:577). While the unreduced form *-ci anh-* still functions in LFNQ constructions, the stretch of speech *-ci anh-* combined with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 has now become automated as one single unit. As has been argued in Boyland (1996, cited in Bybee and Scheibman 1999:577), as a stretch of speech undergoes a chunking process, its internal structure becomes less important and can be obscured by phonological change which renders the unit to be more efficient to process. This seems to be exactly what took place during the chunking process of *-ci anh-a*. As this entire construction undergoes a chunking, its internal construction *-CON NEG-INDC* becomes less important and less transparent, which eventually led to a phonological change, to be fused into *-canha*, which is now conceived as an utterance-final particle as a whole. Note that not only the phonological features [či ana] has been reduced to [čana], but the chunking process has been further reflected in the Korean orthographic system as well. While there should be a space between the connective *-ci* and the negative morpheme *-anh-* in LFN as well as LFNQ,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should be written as one single word without any space in between. Moreover, <Table 7> shows that although LFNQ which functions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hardly ever allows any morpheme(s) intervening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or utterance-final particle, there were still 8.7% of the cases that occurred with a morpheme(s) intervening between *-ci anh-* and the sentential ending or utterance-final particle. Nevertheless, none of the 2021 cases of *-canha* in spoken Korean (see <Table 9>) had any morpheme(s) intervening between *-canh-* and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sup>14</sup>). The invented set of examples in (34) illustrates that the past tense marker *-ess* or *-ass* should occur right before *-canha* rather than right before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33)

- a. *Yengi-ka mek-ess-canha.*  
‘Yengi ate (as you and I both know).’
- b. *??Yengi-ka mek-canh-ess-e.*  
‘??Yengi ate (as you and I both know).’

14) The remaining 7 cases of *-canh-* occurring with interrogative sentential endings did not show such case either.

This further substantiates that the phonologically reduced form *-canh-* and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 are not separate morphemes anymore. Instead, the entire construction *-canha* functions as one single processing unit, or as one single grammatical morpheme, an utterance-final particle to be precise, in spoken Korean. The gradual chunking process of *-canha* can be schematized as (34).

(34)

<b>Orthography</b>	<i>-ci anh(-a/-ni/-nya/-supnikka</i> > <i>-ci anh-a</i> > <i>-canha</i> /....)
<b>Internal Structure</b>	-CON NEG-(SEN.END: > -CON NEG-INDC > Utterance-final indicative or interrogative particle sentential ending)
<b>Phonological feature</b>	[či an] > [či ana] > [čana]

## 5. The overall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LFNQ in spoken Korean into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n section 4, the different stages of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LFNQ into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have been described in detail. Overall, the initial trigger which drove LFN rather than SFN to grammaticalize into an utterance-final particle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long competition which has been undergoing between the two existing constructions within the same domain of negation in Korean. The co-existence of SFN and LFN in Korean seems to be an instance of ‘layering’ (Hopper 1991), where more than one construction co-exist sharing or competing for a similar or identical function. As the result of this competition, the two constructions seem to have started to settle down in different domains of negation: while LFN is predominantly used in written Korean, SFN takes charge of spoken Korean.

As SFN takes over the domain of negation in spoken Korean, LFN, which is under the process of losing its ground in the spoken register, restricts its context of use, to be used mainly in interrogative speech act (as the corpus results shows that the majority of LFN in spoken Korean (61.7%) appeared in question constructions). However, since there would be once again two existing constructions in the domain of the negative interrogative in spoken Korean (SFNQ and LFNQ), these two constructions are once more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i.e., showing another ‘layering’). I have shown that as the result of this additional competition, while SFNQ maintains its negativity and thus still conveys a strong degree of negativity in interrogative contexts, LFNQ seems to be gradually losing its ground in the domain of negation within the domain of the negative interrogative as well. In particular, the fact that LFNQ in spoken Korean is currently undergoing a functional change has been witnessed by the fact that it currently shows at least three different interpretations.

The functional distributional pattern of LFNQ in spoken Korean in

<Table 6> suggests that the construction is currently under the change of shifting its function from ‘asking the hearer whether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to ‘asking for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then again to ‘requesting for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I have described that as LFNQ shifts its function from NEG ASSM to PST ASSM for VER/CON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s assumption and *-ci anh-* becomes looser. Then when the function further shifts to PST ASSM for AGR, *-ci anh-* no longer conveys negativity at all. The loss of negativity of *-ci anh-* within LFNQ in spoken Korean was explained as an instance of semantic ‘generalization’ (Bybee et al. 1994).

In terms of the form of the construction, the entire combination of *-ci anh-* and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a* (pronounced as [či ana]) underwent a ‘chunking’ process along with phonological reduction and fusion to *-canha* (pronounced as [čana]). Functionally, LFNQ underwent a further semantic generalization, by completely losing its interrogative speech act, hence resulting *-canha* to convey ‘the speaker’s belief of already shared knowledge.’ It must be noted that as the function becomes more generalized and as the form changes to *-canha*, the token frequency also increases dramatically, as is shown in <Table 10>.

Construction	Token Frequency
Long form negation <i>-ci anh-</i>	426
Long form negation <i>-ci anh-</i> in interrogative context	255
‘Asking whether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or not’	5
‘Asking whether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not true or not’ or ‘Asking for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10
‘Asking for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57
‘Asking for verification or confirmation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or ‘Requesting an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57
‘Requesting an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126
Utterance-final particle <i>-canha</i>	2021

↓  
Increase of  
frequency

<Table 10. The increase of frequency from *-ci anh-* to *-canha*>

<Table 10> shows that as LFNQ functioning to ‘ask whether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undergoes a semantic generalization to lose its negativity to function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its token frequency increases from 5 to 126. Then when LFNQ further loses its interrogative speech act, i.e., undergoes a further semantic generalization, and shifts its function to an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the increase of the token frequency is much greater, from 126 to 2021. This signifies that as the meaning of a construction becomes more general (semantically generalized), its context of use broadens as well, and its function

becomes more applicable and consequently results in higher token frequency.

Furthermore, the entire functional and formal shift from LFNQ to *-canha* represents an instance of ‘de-categorialization’ (Hopper 1991), i.e., the construction *-ci anh-a?* which used to be under the category of LFNQ in spoken Korean has shifted into the category of utterance-final particle as a one single grammatical particle *-canha*. While the phonologically reduced form *-canha* has been completely grammaticalized into an utterance-final particle in spoken Korean, the unreduced form *-ci anh-* still remains to function as LFN construction, as well as a part of LFNQ in spoken Korean. This is an instance of ‘divergence’ (Hopper 1991), which is a common consequence of semantic changes where multiple forms of a common etymology diverge functionally.

## 6. Discussion on recurrent (inter)subjectification throughout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canha*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paper, I have explained the semantic or functional shifts from *-ci anh-* to *-canha* took place via semantic generalization, reanalysis, as well as chunking process. However, the recurrent (inter)subjectification process which co-occurs in every step of the functional shift remains to be acknowledged. Both subjectification and intersubjectification, according to Traugott (2010, Traugott and Dasher 2001), are types of semanticization, where (inter)subjective meaning comes to be conventionally coded by the forms, i.e., the (inter)subjective meaning comes to be a part of the forms. More specifically, subjectification has been defined in Traugott (1989:35, cited in Cuyckens et al 2010:10) as a process whereby “meanings become increasingly based in the speaker’s subjective belief state/attitude towards what the speaker is talking about”. Intersubjectification on the other hand, is “the semasiological process whereby meanings comes over time to encode ... SP[eaker]/W[riter]’s attention to the ‘self’ of AD[dressee]/R[eader] in both an epistemic and social sense” (Traugott 2003:130, cited in Cuyckens et al 2010:4). Traugott and Dasher (2001:97) further explain that the intersubjectification process is subordinate to the subjectification process, since the former cannot take place without the latter.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from *-ci anh-* into *-canha* in spoken Korean clearly demonstrated that when a construction undergoes a semantic change within the discourse level, i.e., gains a discourse function, it is often the case that it undergoes the subjectification process along with the intersubjectification process. Moreover, the (inter)subjectification process seems to have taken place repeatedly in each stage of its semantic/functional shifts and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ts entire grammaticalization process. For instance, when LFNQ which functions to ‘ask whether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not true, is true’ shifts its function to ‘ask for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subjectification also takes place. For example, the question *Yengi-ka mek-ci anh-a?* (Yengi-NOM eat-CON NEG-INDC) ‘Yengi doesn’t eat?’ which is used to ask whether the speaker’s assumption that ‘Yengi doesn’t eat’ is true or not, implicitly implies that what

the speaker had previously presupposed is the fact that ‘Yengi eats’ and is asking such a question because of the apparent questionable mismatch of his or her presupposition. When the meaning of this construction changes to ‘Doesn’t Yengi eat?’ to ask for confirmation or verification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the construction now explicitly codes the speaker’s belief of a certain fact, that ‘Yengi eats.’ This is an evident subjectification process where the speaker’s implicit belief comes to be explicitly coded in the construction. It is this subjectification process which rendered *-ci anh-* to have a more detached relationship with the speaker’s assumption within the construction.

The subjectified LFN construction undergoes a further (inter)subjectification when it shifts its function once more to ‘request agreement from the hearer about w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true.’ Not only the speaker’s belief or presupposition about a certain assumption strengthens (hence a further subjectification), the construction also explicitly encodes the speaker’s assumption that the hearer will have the same belief towards the proposition that he or she is conveying and thus will provide an agreement to the question he or she is asking. This represents a further intersubjectification process since the speaker is now encoding his or her awareness towards the hearer’s presupposition as well. The complete loss of the negative meaning of *-ci anh-* at this stage is a result of this further intersubjectification.

When the combination of *-ci anh-* and the indicative sentential ending finally forms a chunk to *-canha* and shifts its grammatical category to an utterance-final particle as one single unit, an additional (inter)subjectification takes place. *-Canha* not only encodes the speaker’s certainty about the truthfulness of his or her own presupposition, it encodes the speaker’s certainty that this presupposition is shared with the hearer as well. The loss of the interrogative speech act seems to be due to this intersubjectification, since the speaker is now so sure about the sharedness of the knowledge, he or she does not need to receive a positive response anymore.

In consequence, the (inter)subjectification process seems to have occurred pervasively throughout the entire grammaticalization process from *-ci anh-* into the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The recurrent (inter)subjectification in the grammaticalization of *-canha* suggests that the speakers of interactive spoken language are not only concerned about the way of expressing themselves, but they are also highly sensitive to their hearers’ information status, particularly about their mutual common ground, i.e., whether a certain piece of information is already shared or not. The recurrent (inter)subjectification is not only a significant grounds which shows that there is an incessant dynamic negotiation of the common ground between the speakers in spoken language, but it is also an important motivation for a construction to shifts from one function to another.

## References

- Bolinger, Dwight. 1957. *Interrogative structures of American English*.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Boyland, Joyce Tang. 1996. *Morphosyntactic change in progress: A psycholinguistic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rown, Penelope and Stephen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bee, Joan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ybee, Joan. 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bee, Joan and Clay Beckner. 2010. Usage-based theory.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ed. by Bernd Heine and Heiko Narrog, 827-5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ybee, Joan,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ybee, Joan and Joanne Scheibman. 1999. The effect of usage on degrees of constituency: the reduction of *don't* in English. *Linguistics* 37.575-96.
- Bybee, Joan and Sandra Thompson. 1997. Three frequency effects in syntax.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23.65-85.
- Chang, Kyung-Hee. 1985. *Hyentay kwukeuy yangsangpemocwu yenkwu [A study of modality categories in Modern Korean]*. Seoul: Tower.
- Chang, Kyung-Key. 1986. Kwukeuy pwucenguymwunmwunkwa cency [Presuppositions of yes-no questions in Korean]. *Ehakyenkwu [Language Research]* 22.19-40.
- Chang, Kyung-Key. 2001. Kwuke pwucenguymwunmwunuy thongsacek yenkwu [A syntax of the Korean Negative question]. *En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6.185-208.
- Chang, Suk-Jin. 1984. Kwukeuy pwukauymwun [Korean tag question]. *En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259-77.
- Cho, Choon-Hak. 1975.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The Korean language: Its structure and social projection*, ed. by Ho-Min Sohn, 63-80.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 Clark, Herbert H. 1996. *Using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illiam. 1994. Speech act classification, language typology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peech act theory: Philosophical and linguistic perspectives*, ed. by Tsohatzidis, Savas L., 460-77. London: Routledge.
- Cuyckens, Hubert, Kristin Davidse and Lieven Vandelanotte. 2010. Introduction.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ed. by Kristin Davidse, Lieven Vandelanotte and Hubert Cuyckens, 1-26. Berlin: De Gruyter.
- Givón, Talmy. 1984. The speech-act continuum. *Interrogativity: a colloquium on the grammar, typology and pragmatics of questions in seven diverse languages*, ed. by William S. Chisholm Jr., 245-54. Amsterdam: John Benjamins.
- Haiman, John. 1994. Ri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erspectives on grammaticalization*, ed. by William Pagliuca, 3-28.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eritage, John. 2002. The limits of questioning: negative interrogatives and hostile question content. *Journal of Pragmatics* 34.1427-46.
- Hong, Jong-Seon. 1990. *Kwuke cheyenhwa kwumwunuy yenkwu [A study on nominalization in Korean]*. Seoul: Tonga.
- Hopper, Paul J.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I*, ed. by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d Heine, 17-35. Amsterdam: Benjamins.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2003. *Grammaticaliza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 Hong-Bin. 1987. Kwuke pwucengmwunuy thongsawa uymi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negative constructions]. *Kukesaynghwal 10 [Korean Language Life 10]*. Kukeyenkwaso [Korean Language Institute].
- Jang, Yoon-hee. 2012. Kwuke congkyelemiuy thongsicek pyenhwawa cayngcem [A general survey of diachronic change of Korean sentence-terminating enders]. *Kwukesa Yenkwu [Historical Korean Studies]* 14.63-99.
- Keisanen, Tiina. 2006. Patterns of stance taking: Negative yes/no interrogatives and tag questions i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ulu.
- Kim, Ahrim. 2015. *The pragmatics and evolution of the utterance-final particles -ketun and -canha in Modern Spoken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Mexico.
- Kim, Ahrim. (in preparation). Managing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discourse in Korean: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as an intersubjective marker of shared knowledge, (im)politeness, theticity, and mirativity.
- Kim, Dong Sik. 1980. Hyentay kwukepwucengpepuy yenkwu [Studies on the Modern Korean negation]. *Kwukeyenkwa [Korean Studies]* 42.
- Kim, Dong Sik. 1981. Pwuceng anin pwuceng [Negation which is not a negation]. *En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6.99-116.
- Kim, Dong Sik. 1990. *Pwucengpep, kukeyenkwa etikkaci wassna [Negation, how far have the Korean studies come]*. Tongachwulphansa.
- Kim, Jong Lok. 1997. Cwungseykwuke cepsokemi ‘tiWi’uy thongsicek pyenchenkwa kinung [The diachronic change and the functions of the Middle Korean connective ending ‘-tiWi’]. *Mwunhakkwa Ene [Literature and Language]* 19.29-54.
- Kim, Tae-Yeup. 2003. Kwuke pwucengmwunuy yuhyeng myengchingey tayhaye [A study on terms of two types in Korean negative sentence]. *Wulimalkul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7.33-52.
- Ko, Kyounghee. 1989. The integrated/new knowledge markers in Korean. MA thesis, University of Oregon.
- Ko, Young Keun. 2009. *Phyocwuncwungsey kwukemwunpeplon [Standard grammar of Middle Korean]*. Cipmwuntang.
- Koo, Hyun Jung. 2008. “Ani, an hanun key anicanha”: Pwuceng phyohyenuy mwunpephwa [Grammaticalization of negation markers in Korean]. *Tamhwawa Inci [Discourse and Cognition]* 15.1-27.
- Koo, Jong-Nam. 1992. Kwuke ywunghaphyeng pwukauymwunmwunuy kwucowa uymi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amalgam type tag questions]. *Ene*

-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7.285-312.
- Krylova, Olga A. and Serafima A. Khavronina. 1988. *Word order in Russian*. Moscow: Nauka.
- Kwon, Jae Il. 1985. *Kwukeuy pokhaphmwun kwuseng yenkwu [Studies on Korean complex constructions]*. Seoul: Cipmwuntang.
- Lee, Hong-Bae. 1972. Problems in the description of Korean negation. *Ehakyenkwu [Language Research]* 8.60-75.
- Lee, Hyo Sang. 1999.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the committal *-ci* in Korean: A synthetic approach to the form-meaning relation. *Journal of Pragmatics* 31.243-75.
- Lee, Jin-Hwa. 2008. A corpus-based study of short-form and long-form negations in Korean. *Korean language in America, vol. 13*, ed. by Hye Sook Wang, 43-57.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 Lee, Keedong. 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 pragmatic principles*. Seoul: Hankwuknwunhwasa.
- Lee, Ki-Yong. 1979. Twukaci pwucengmewunuy tonguyseng yepwuey tayhaye [On the synonymy of two kinds of negation in Korean]. *Kukehak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8.59-94.
- Lee, Youngmyn. 2001. Hwakinmwun ‘-ci’uy pemcwu hwakinul wuihaye [A study on the confirmative question and the verbal ending ‘-ci’]. *Kwukehak [Korean History]* 38.241-69.
- Lee, Yu-ki. 2012. Seswulmwun congkyelhyengsikuy pyenchen kwaceng [The shift process of the sentence final forms of declarative]. *Kwukesa Yenkwu [Historical Korean Studies]* 14.29-62.
-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m, Ki Sim and Young Geun Ko. 1985. *Phyocwunkwukemwunpeplon [The standard Korean grammar]*. Seoul: Tahpchwulphansa.
- Oh, Choon-Kyu. 1971. On the negation of Korean. *Ehakyenkwu [Language Research]* 7.45-66.
- Park, Hyeong-woo. 2011. 18seyki kwuke pwucengmwun yenkwu [A study on negative sentences in the 18<sup>th</sup> century]. *Hanmincokemwunhak [Hanmincok Linguistics and Literature]* 59.463-98.
- Park, Hyeong-Woo. 2003. Pwucengmwunuy ywuhyeng pwunlywu [Classifying the patterns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Chenglamemwunkyooywuk [Chenglam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26.375-405.
- Park, Young Joon. 1995. Congkyelemi ‘-ci’ey tayhaye - ku kiweney tayhan haymyengul cwungsimulo - [About the sentential ending ‘-ci’ - focusing on its explanation for its origin]. *Hankwukehak [Korean Linguistics]* 1.249-66.
- Schegloff, Emanuel A. 2007. *Sequence organization in interaction: A primer in conversation analysis, vol.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erling, Susan. F. 1976. *Aspects of English sentence stres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ohn, Ho-Min. 1978. Kin hyengkwa ccalpun hyeng [Long and short forms]. *Ehakyenkwu [Language Research]* 14.141-51.
- Sohn, Ho-Min. 1994. *Korean*. London: Routledge.

- Sohn, Sung-Ock. S. 2010. The role of frequency and prosody in the grammaticalization of Korean *-canh-*. *Formal evidence in grammaticalization research*, ed. by An Van linden, Jean-Christophe Verstraete and Krinstin Davidse, 245-73. Amsterdam: John Benjamins.
- Song, Seok Choong. 1973. Some negative remarks on negation in Korean. *Ehakyenkwu [Language Research]* 9.252-63.
- Song, Seok Choong. 1975. A suspicious analysis of the suspicious morpheme and its homonyms. *Ehakyenkwu [Language Research]* 11.1-8.
- Suh, Cheong-Soo. 1996. *Kwuke mwunpep [Korean grammar]*.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 Suh, Jong Mok. 1987. *Kwuke uymwunmwun yenkwu [Study on Korean interrogatives]*. Seoul: Thapchwunphansa.
- Suh, Sang Kyu. 1984. Kwuke pwucengmwunuy uymi haysek wenli [The interpreting principles of negation in Korean]. *Mal [Speech]* 9.41-79.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9.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s in English: an example of subjectification in semantic change. *Language* 57.33-65.
- Traugott, Elizabeth Closs. 2003.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Motives for Language Change*, ed. by Raymond Hickey, 124-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lizabeth Closs. 2010. (Inter)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fication: A reassessment.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ed. by Kristin Davidse, Lieven Vandelanotte and Hubert Cuyckens, 29-71. Berlin: De Gruyter.
-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Richard B. Dasher. 2001.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her, Barbara. 1984. *Diskursstrategien im Romanischen*. Tübingen: Narr.
- Yang, Dong-Whee. 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En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183-217.
- Yi, Seunghee. 2007. *Kwuke chengcanophimpepuy yeksacek pyenhwa [The diachronic change of the Korean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Thayhaksa.

### Corpus

21<sup>st</sup> Century Sejong Corpus. 2011. Distributed by the 21<sup>st</sup> Century Sejong Project.  
URL: <http://www.sejong.or.kr/>

### Appendix A: Transcription Conventions

The transcription conventions used the by 21<sup>st</sup> Century Sejong Corpus have been slightly modified by to follow transcription conventions developed by DuBois et al. (1993).

.	Final transitional continuity
,	Continuing transitional continuity
?	Appeal or rising intonation
!	Booster: Higher than expected pitch on a word
--	Truncated intonation unit

-	Truncated word
=	Lengthening of a segment
[ ]	Speech overlap
( )	Vocal noises
(H)	Audible inhalation
<X X>	Uncertain transcription; difficult to hear
<X>	Uninterpretable syllable
<@ @>	Laughing voice quality
<Q Q>	Quotational vocal quality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4부 연구 발표

## 카카오톡에 나타난 대학생의 언어 사용 분석

허 상희

부산대학교 강사  
sh1260@hanmail.net

### 1.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로 기능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에 나타난 대학생의 언어사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가 변하고 발달함에 따라 매체 역시 변화하고 발달해왔다. 새로운 매체는 새로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체가 발전하고 진화한 것이다.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인터넷,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이르기까지 이 매체들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달 방식이나 기술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서로 구분된다. 매체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 역시 발전하고 변화해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후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늘어나면서 언어사용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온라인상에서 통신 화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적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특징지어진 언어를 통신언어라 부른다. 그러한 까닭으로 통신 언어는 통신 매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언어현상, 즉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음절 줄이기, ‘ㅇ’ 첨가, 자음 변형, 모음 변형 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매체의 특성, 매체 이용자층에 따라 그 구체적인 언어 양상

은 달리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카카오톡(KakaoTalk)은 다른 메신저나 누리소통망(SNS)에 비해 사적인 매체로 분류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사용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카카오톡을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제껏 통신언어에서 많이 다루어진 전반적인 언어 현상은 차치하고,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대화 주제, 발화단위 경계, 준언어·비언어적 표현, 감탄사와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비속어와 유행어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매체는 크게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매체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고, 디지털 매체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다. 전통 매체는 매체 수단에 따라 인쇄 매체, 전파 매체, 통신 매체로 세분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카카오톡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나타난 통신 매체이다. 통신 매체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누리사랑방(블로그), 카페(게시판), 누리소통망(SNS), 쪽지창(메신저) 등으로 나뉜다. 매체의 성격은 사용 목적, 관계 맺기, 정보 유형, 정보 성격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sup>1)</sup>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카카오톡은 관계 형성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쌍방향적으로 관계 맺는 사적인 매체로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채팅 서비스이다. 카카오톡의 사용자 수는 2015년 2분기 기준 국내 3,866만 명이며,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하루 평균 카카오톡 접속 횟수는 24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카카오톡은 무료로 음성 또는 영상 통화를 제공하며,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일대일 및 그룹 채팅 기능을 지원한다. 이 밖에 대화중에 검색할 수 있는 채널, 기사를 볼 수 있는 콘텐츠 채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성’과 ‘편리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문자 메시지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동시에 소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톡은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1) 디지털 매체의 매체 간 분석 기준과 그에 따른 종류, 특성에 관해서는 허 상희·최 규수(2012)를 참고할 것.

2) 원 수연 기자, 네이버 앱스토리, 2015년 9월호.

보니 무분별한 카톡 알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대화 내용 유출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카카오톡 대화가 일상 대화를 엿볼 수 있는 언어 자료임에 반해 언어학적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은 3건에 불과하다. 최 명원 외(2012)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의 전반적인 언어 특징, 즉 준구어적인 특성, 비언어적인 표현, 구체적 언어현상(소리나는 대로 적기, 문장 끝의 첨사 결합, 기존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교체, 명사형의 문장 종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동은·윤 상석(2014)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타나는 공손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고, 허 상희(2015)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의 문장부호, 이모티콘과 같은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 동은·윤 상석(2014)과 허 상희(2015)가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것을 감안하면, 카카오톡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1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14명(남 8명, 여 6명)으로 총 21,076개의 발화 단위를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대화자 관계는 선후배, 친구, 연인, 가족으로 크게 4개의 관계이며, 세부적으로는 선후배(남-남, 남-여, 여-남, 여-여), 친구(남-남, 여-여, 남-여), 가족(남매, 모녀, 자매, 부녀)<sup>3)</sup>, 연인으로 12개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총 21,076개의 발화 단위 중 단체 카톡과 분석대상이 아닌 대화자 관계의 경우를 제외한 일대일 대화(11,419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대화자 관계에 따라 각 900개의 발화단위를 자료 제공자별로 골고루 추출하여 3,603개의 발화단위를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모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한글파일에 복사하거나 카카오톡 PC 버전을 다운받아 대화내용을 복사, 저장하여 관찰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때, 자료 제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대화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 대화자의 나이, 성별, 관계(친구, 연인, 선배, 엄마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며, 자료 제공자가 밝히기 싫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든 내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문을 훼손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대화상황을 보여주

3) 부자, 부녀, 형제간의 관계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 21,000 발화단위가 제한적인 숫자는 아닌 듯하다) 가족 관계 내에서도 아버지, 형제와는 굳이 통신 매체로 소통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기 어려워 그만큼 연구의 가치가 떨어짐을 인식시켰다.

### 3. 카카오톡의 대화 주제 및 발화 단위

#### 3.1. 대화 주제

카카오톡에 나타나는 대화 양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양상과 비슷하다. 대화가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업 얘기로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다시 수업 얘기로 돌아오고, 모임에 대해 얘기하다가 여행, 아르바이트, 연애, 음식 등 이야기가 다양하게 흐르다가 끝나기도 한다. 카카오톡 대화가 글말로 쓰이는 것이지만 입말을 반영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카카오톡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대화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카오톡 대화 주제 사례①: 약속 [친구관계, 남-남] 4)

병욱: 너 점심 언제어디서먹을거냐  
 병욱: 스펀이랑 참치조금 가져온거 줘야되는데  
 동현: 스펀이랑 참치로 할수있는 요리해줘?  
 병욱: ㅋㅋㅋㅋㅋ  
 병욱: 그건아니고 그냥ㅋㅋ  
 병욱: 피자 세조각도있음  
 동현: 올ㅋㅋ점심에는 그냥 그거먹을래  
 병욱: ㅋㅋㅋㅋㅋ  
 병욱: 나 근데  
 동현: ㅇㅇ  
 병욱: 두시쯤도착하는데  
 병욱: 꽤안나  
 병욱: 부대 두시쯤  
 동현: ㅇㅋ  
 병욱: ㅇㅇ 난주연락하겠음

(2) 카카오톡 대화 주제 사례②: 과제 [선후배관계, 남-여]

윤경: 오빠~~~~~  
 윤경: 분석레포트혹시있어요??????????TTTTTTTT  
 영재: 족보에없나?

4) 여기에서 제시되는 예시는 원문 그대로 실었으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료제공자들의 이름은 바꾸었다. 원문을 그대로 실은 것은 대학생들의 통신 매체 내에서의 언어사용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필자가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밑줄을 긋기로 한다.

윤경: 네ㅏㅏㅏㅏ사실... 경미나가 갖고있던 다른선배 거.... 잃어버렸대요ㅏㅏㅏㅏ  
영재: 경미나가 잃어버렸다고?  
윤경: 그래서 지금 구해서 다같이 제본하기로해서ㅏㅏ  
윤경: 근데 오빠꺼 아니라 다른선배꺼였대요ㅏㅏ  
영재: 구하긴했나?  
윤경: ㅇㅏ니요ㅏㅏ  
영재: 구하는중이가  
윤경: 네ㅏㅏ오빠는 없죠???ㅏㅏ  
영재: 나더ㅏㅏ누구줘가지고  
윤경: 네ㅏㅏㅏㅏ

(3) 카카오톡 대화 주제 사례③: 쇼핑 [친구관계, 여-여]

하영: 나도 바꾸고싶다  
연재: 에이 니꺼 세거드만  
하영: 질림...케이스를바꿔볼까  
연재: 영 요즘 이쁜거 많는데  
연재: 암 핑기가 낫나 화이트가 낫나  
연재: 핑크  
하영: 핑크  
하영: 천송이핑크이뿌드라

(4) 카카오톡 대화 주제 사례④: 안부/근황

현주: 윤민하잉 ㅋㅋ 잘지내냐 ㅎㅎ  
윤민: 오웅현주야!  
윤민: 응나부산에왔찌  
현주: 강 학기시작해성 ㅋㅋ  
현주: 잘지내나하공 ㅋㅋㅋ  
윤민: 응응  
윤민: 잘잇당~ 방학때부산에놀리한번외랑

대학생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나누는 대화 주제는 만남 약속, 학교와 관련된 얘기, 지인이나 이성 등 주변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식, 쇼핑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1)의 대화 주제는 식사 약속을 잡는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중 약속을 잡는 대화는 빈번히 일어난다. 약속을 한 후에도 약속 장소에 다다르기까지 자신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생중계하기도 한다. (2)는 후배가 선배에게 리포트를 구하는 장면이다. 학교와 관련된 대화 주제로는 수업, 과제, 시험, 동아리, 취업 등이 있다. (3)은 쇼핑에 관한 이야기로, 스마트폰 케이스 구매에 관한 내용이다. (4)는 특별한 목적 없이 안부나 근황을 묻는 대화이다.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주제로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

물었고, 산발적인 내용이 많아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는 카카오톡의 매체 특성상 어떠한 목적을 가진 대화보다는 잡담식 대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톡이 글쓰기로 진행되지만 실제 진행되는 대화는 말하는 방식과 같아 하나의 주제로 초점화되지 않고 산발적인 경향을 보인다.

카카오톡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대화 주제를 나누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5) 카카오톡 대화 주제

- ㄱ. 약속: 식사, 만남 등
- ㄴ. 학교/진로 관련: 시험, 수업, 과제, 취업, 동아리, 기숙사, 동아리, 학교 행사 등
- ㄷ. 교우관계: 지인, 이성 등
- ㄹ. 친교/잡담: TV, 음식, 미용, 취미, 쇼핑 등
- ㅁ. 안부/근황
- ㅂ. 인사: 감사, 새해, 헤어질 때, 잘 때
- ㅅ. 기타

〈표 1〉 카카오톡 대화 주제 사례와 빈도

대화 주제	개수(비율)
약속	19(19.6%)
교우관계	8(8.2%)
학교 관련	<b>26(26.8%)</b>
친교/잡담	22(22.7%)
안부/근황	12(12.4%)
인사	5(5.2%)
기타	5(5.2%)
총	97(100%)

대학생들의 카카오톡을 통해 나누는 대화 주제를 살펴본 결과, 학교와 관련된 대화 주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교/잡담, 약속, 안부/근황 순으로 나타났다. 누리소통망이나 블로그에서 사회적 이슈, 특정 관심사 등이 대화의 주를 이룬다면, 카카오톡은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이루어지는 사적 의사소통 매체임을 알 수 있다.

3.2. 발화 단위

카카오톡 대화는 대화참여자들이 글을 쓰고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글을 쓰고 엔터키(넣음쇠)를 치면 하나의 문장단위로 인식된다. 카카오톡에 등장하는 문장 단위, 즉 발화 단위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하다. 한 음절로 된 것도 있고, 단어로 된 것, 주어와 서술어를 제대로 갖춘 것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모두 하나의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하나의 대화 장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화 그 자체가 독립된 의미를 가진 문장과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발화단위가 다양한 까닭은 글을 쓰지만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대화는 비대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구어체로 대화하는 문자대화이다. 따라서 글말과 입말, 글쓰기와 말하기가 혼재되어 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발화단위를 살펴보면 한 음절의 발화단위에서부터 완전한 문장 형식의 발화단위까지 다양하다.

(6)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 (7) 가. 밥.
- 나. 밥을.
- 다. 밥 먹었어.
- 르. 난 밥 먹었어.

(6)의 물음에 대해 (7가)과 같이 한 음절이 하나의 발화단위를 구성할 수 있고, (7나-르)과 같이 단어, 어절, 문장 형식을 갖춘 꼴이 하나의 발화단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화참여자들은 발화단위를 어떻게 인식할까. 먼저 하나의 발화단위가 종결되는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문장종결 형식 사례

- 가. 아/오/아싸/헐...
- 나. 동동(부름말)/응(대답말)...
- 다. 완전떨어진줄알았는데/설전날부터 휴간데...
- 르. 먹고시품/짱 많음...
- 미. 오늘은 일요일/그쪽은 안가본듯...
- 비. 3월은 대부분 동아리 엠티가 있어서 시간 내기가 힘들거예요...

발화단위를 구성하는 문장종결 형식은 (8)에서 보듯이 감탄사 단독, 연결어미, ‘미’ 명사형, 술어 생략, 종결어미 등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9)와 같이 하나의 문장을 여러 번 나누어서 적는 경우이다.

(9) 문장 끊음 사례①

병욱: 나 근데

동현: ○○

병욱: 두시쯤도착하는데

병욱: 괜안나

(10) 문장 끊음 사례②

철민: 퀴즈 어케나왔냐거

수아: 뭐병리학?

수아: ㅋㅋㅋ

수아: 열문제

수아: 참거짓세문제

수아: 객관식일곱

수아: 대충봐ㅋㅋ

(9)는 ‘나 근데 두 시쯤 도착하는데 괜찮아’의 문장을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전송했다. (10)은 ‘열 문제, 참 거짓 세 문제, 객관식 일곱(인데) 대충 봐’의 문장을 네 번 나누어 전송했다. (10)은 열거할 때 나란히 열거하지 않고 여러 개의 발화단위로 나누었는데, 다른 열거 사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까닭은 나란히 열거하는 것보다 하나의 발화단위에 하나씩 적는 것이 대화자가 읽기 쉽고 전달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의 문장을 나누어 전송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은 문자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적 활동이다. 따라서 말을 듣는 청자 또는 글을 읽는 독자가 존재한다. 완성된 문장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문장을 작성하는 시간만큼 상대방은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짧게 쓰고 전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참여자는 발화단위를 끊는 경계를 어떻게 설정, 인식하는 것일까.

발화는 호흡을 이용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끊김(disjuncture)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끊김에 의해 생성되는 단위를 ‘운율단위’라고 한다(창 성난, 2016:1). 따라서 발화단위는 곧 운율단위라고 볼 수 있다.

(11) 영화는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철수는 운동장에서 놀았다.

(12) 가. 영화는 // 도서관에서 / 공부했고, // 철수는 // 운동장에서 / 놀았다.

나. 영화는 /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 철수는 / 운동장에서 놀았다.

다. 영화는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 철수는 운동장에서 놀았다.

(11)은 여섯 개의 어절을 가진 문장이다. 이 문장을 느린 속도로 발화하면 (12가)과 같이 여섯 개의 어절 사이에 모두 휴지(pause)를 두고 발음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속도로 발화하면 (12나)과 같이 발화하게 된다. 그리고 빠른 속도

로 발화하면 (12ㄷ)과 같이 발화하게 된다. 한국어에서 운율단위는 대체로 통사구조와 일치한다. 문장의 어느 곳에 운율단위의 경계를 부과하느냐는 문장의 통사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창성난, 2016:1-3).

(13) 통사구조와 일치하는 운율단위 사례①

동민: 내일 약속 께고 집에 가고 싶은디  
동민: 오랜만에 형 집에 왔다는데  
민수: 아  
민수: 그럼 막차타고 가라  
동민: 흠  
동민: 우리는 31일 보기로 했지?  
민수: ㅇㅇ  
동민: 나 31일 부산에 일었는데  
동민: 왔다갔다해야하나  
민수: 꼬였네

(14) 통사구조와 일치하는 운율단위 예시②

혜지: 미란이기억나나현주양ㅋㅋㅋ  
혜지: 김미란이랑안친했어?ㅋㅋ  
현주: 응 ㅋㅋㅋ  
현주: 친했지 ㅋㅋㅋ  
혜지: 미란이도부산에있던데  
현주: 중1때??ㅋㅋ  
혜지: 부산에오면  
혜지: 같이한번보자

(13)과 (14)의 예에서 보듯이 발화단위를 끊는 지점이 대부분 통사구조와 일치한다. (13)은 ‘나 31일 부산에 일 있는데/왔다갔다 해야 하나’, (14)는 ‘미란이도 부산에 있던데/부산에 오면/같이 한 번 보자’이다. 영어의 경우, 하나의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연속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나오는 부분의 문법적 특성을 코딩하여 분석했는데 그결과 59.3%가 접속사로 시작했고, 이 가운데 82.1%가 등위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Baron, 2010).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접속사에 해당하는 것이 접속어미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운율단위가 통사구조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5) 아주 예쁜 소녀(이 호영, 1997:58)

통사구조: [ [아주 예쁜] AP [소녀] N] NP

운율구조: 아주 / 예쁜 소녀

(16) 발화단위가 통사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ㄱ. 아직 / 니 공부하고 있나

ㄴ. 가져왔니 / 사랑스러운 / 공유기

ㄷ. 그리고 병리학 / 겁나 양 많고 어려워서 / 시험을 / 다 포기한대

(17) (16)의 통사구조 분석

ㄱ. [ [니] [아직 공부하고 있나] ]

ㄴ. [가져왔니 [사랑스러운 공유기] ]

ㄷ. [그리고 [병리학 겁나 양 많고 어려워서] [ 시험을 다 포기한대] ]

(15)는 이 호영(1997)에서 운율구조와 통사구조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시이고, (16)은 카카오톡 대화에 나타난 사례이다. 이처럼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통사구조를 바탕으로 운율단위가 설정되나 운율 내적 특성(리듬이나 억양 구조)을 바탕으로 한 운율단위도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운율단위는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발화단위를 짧게 끊음으로써 상대방은 읽기에 편하고 발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발화를 끊어 쓰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자<sup>5)</sup> ‘주제가 바뀔까 봐’, ‘읽기 편하게’,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재촉’, ‘실시간 시 상대방이 기다릴까 봐’, ‘톡방 나가지 말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등으로 대답하였다. 즉, 대화상의 주제를 유지하고, 전달력을 분명히 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의도가 있고, 대화상의 청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다. 그러한 의미가 결국은 습관적으로 나타나 발화단위를 운율단위로 끊어 적는 것이다.

## 4. 카카오톡의 표현적 특징

### 4.1.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문장부호, 한글 자모, 이모티콘의 쓰임<sup>6)</sup>

의사소통은 크게 대면 의사소통과 비대면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 전달에서 비언어적 행위가 언어적 행위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면 의사소통에서는 직접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알 수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에서는 어투, 표정과 같은 준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알기 어렵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

5)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국문학과 학생들(4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다.

6) 이 절은 허 상희(2015)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밝힌다.

하는 것이 바로 문장부호, 소리와 모습을 형상화한 한글 자모, 이모티콘이다.

### 1) 문장부호의 쓰임

주로 사용되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줄임표)’, ‘~(물결표)’이다. 문장부호는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표준국어대사전)이다. 즉, 문장의 의미를 더하고 문장을 구분해 주는 수단이다. 이러한 문장부호가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마침표의 쓰임 [가족관계-모녀]

승혜: 한 네시나다섯시까지 오라고 해~

승혜: 서면으로.

엄마: 알았어

마침표가 사용된 예는 3603개의 발화 단위 중 (1)의 한 건에 불과하다. 글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마침표가 온라인상의 글말에서는 한 건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온라인상에서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마침표를 쓰는 대신 엔터키(넣음쇠)를 쳐서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보통 하나의 발화단위에 한 문장 이상 적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발화단위를 짧게 적는 경향이 있다. 한 문장 이상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문장 뒤에 마침표를 붙이지 않고 스페이스바(사이띄개)로 문장을 구분한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쌍방간의 대화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 (2) 마침표가 사용되지 않은 사례

ㄱ. 맞다맞다 노는것도 힘들어

ㄴ. 영 놀자 나다대포좁자주내려갈라고

ㄷ. 적어도 그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해줬으면 했어 나 진짜 사람한테 너무 깊이 빠져서 휘둘릴까봐 연애하는거 피하고 다녔는데 정신차려보니까 이렇네 병신 같이 니 한마디 하는거에 울고 웃고 너도 눈물한번 쓱빼봐라 하고 생각한거면 많이 성공했네 진짜 요 몇일 때문에 조울증 걸린거 마냥 엄마 아빠 걱정시키면서도 그와중에 밤에 자전거 타고다니면 위험할까봐 전조등사고 폰짤거있을까 싶어서 인터넷 뒤지고 있었던거 보면 진짜 내가 멍청하다 미안해 내가 멍청해 딱 그때만큼 힘드네 그때도 내탓이었던것처럼 이것도 내탓이겠지

(2)에서 보듯이 마침표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마침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2ㄷ)은 무려 7개의 문장으로 쓰였는데도 마침표가 하나도 없다. 자판상에서 마침표를 찍고 사이띄개를 누르는 번거로움 대신 빈 칸으로 문장 간 경계를 대신한 것이다. 오히려 마침표는 가운데띄점의 말줄임표를 대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줄임표는 원래 말을 줄이거나 말이 끊길 때 말과 말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로 사용하는데, 온라인상에서도 용법은 같다. 하지만 줄임표를 기호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운데점의 줄임표(…) 대신 마침표를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한다.

(3) 줄임표의 쓰임

- ㄱ. 음.../아.....,/헐.....;:::;
- ㄴ. 수학안하고싶...어요/잠이안와..
- ㄷ. 나 카톡 노트에 깔았다가 카톡 나가져서...
- ㄹ. 비트윈 찾아봤는데 신기한거 많긴한데 위치추적이런거때때...별루인거같애  
ㅎㅎ
- ㅁ. 음.....경명이 누나 친구들이면 이슬이 누나랑 윤민이 누나인가

(3)에서 줄임표는 말을 완전히 끝맺지 못하고 여운을 남기거나 말을 줄일 때, 말과 말 사이를 이어줄 때 사용하였다. 2015년 1월부터 개정된 문장부호가 시행되고 있는데, 줄임표의 쓰임을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가운데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줄임표 외에도 마침표, 가운데점 등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쓰기 환경에 맞춰서 문장부호 역시 쓰기 편하게 바꾼 것”<sup>7)</sup>이라 하겠다.

물음표와 느낌표의 경우에는 본래 용법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물음표의 용법은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한글맞춤법)’이다. 느낌표의 용법은 ‘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4)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들 부를 때 쓴다(한글맞춤법)’이다.

(4) 물음표·느낌표의 쓰임

- ㄱ. 왜?/똥데?/발표났나?/스팸이랑 참치로 할수있는 요리해줘?
- ㄴ. 현주야!/당연!/로또다!
- ㄷ. 그래??/다~가나??/나 승아퇴출된거가????/진짜????/저도 타고가면안  
되여????????????????????
- ㄹ. 그랭!!/피곤한데 얼른자!!/언제까지하는데!!!/똥!!!!
- ㅁ. 앓 마자책 ㅍㅍ!!응응 마쳤영 학교얌????!/만지~~~면접잘했영?????!!!!!!!  
잘했찌!!!!

(4ㄱ)과 (4ㄴ)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시이다. 문장부호의 본

7)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문장부호 개편 이유.

래 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물음표와 느낌표 사용의 특징은 주로 겹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4ㄷ-ㄱ)이 그러한데 문장부호를 겹쳐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보다 강조한다.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자신의 발화가 불확실할 때이다. 이처럼 문장부호를 겹쳐 사용하는 것은 문장부호의 의미를 강조하고 문장부호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의 그림문자로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결표는 ‘내지’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글말에서는 문장 말미나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뒤에 사용함으로써 말을 길게 늘이는 장음의 효과를 준다.

(5) 물결표의 쓰임①

- ㄱ. 잘잇당~ 방학때부산에놀러한번와랑
- ㄴ. 혜진이도발령받아떠났데이~~~
- ㄷ. 올~~~~그래도 하나는 건졌네!!!!ㅋㅋㅋ
- ㄹ. 오빠~~~~~ / 분석레포트 혹시 있어요??????????

(6) 물결표의 쓰임② [가족관계-부녀]

- 승혜: 아빠~똥하노
- 아빠: <사진>
- 승혜: 봄이네 매화폄당~
- 아빠: 아빠 집에왔다
- 승혜: 난 다음주에 갈껀데 이번주갈껀그랬네

(5)에서 문장, 감정감탄사, 의지감탄사(부름말) 뒤에 물결표를 사용함으로써 말을 길게 늘여 뜨려 실제 말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물결표 사용은 음장(音長)으로 인해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6)은 아버지와 딸의 대화인데,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물결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에서는 물결표를 사용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었다. 이는 물결표로 장음의 효과를 내어 부모에게 애교 있고 정감 있는 표현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문장부호의 사용 정도

문장부호 종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줄임표	물결표	기타	문장부호 사용 수(비율) /말화단위 수
개수(비율)	1 (0.03/ 0.1%)	525 (14.6/ 58.0%)	90 (2.5/ 9.9%)	118 (3.3/ 13.0%)	165 (4.6/ 18.2%)	“ ”(1) ,,, (2) ;(2) , (1)	905(25.1/100%) /3603

전체 발화단위 중 문장부호가 사용된 경우는 약 25%이며, 이 중 물음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온라인에서의 문장부호 사용에서 마침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반면 물음표는 많이 사용되었다. 그 까닭에 대해 생각해보면 물음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음이라는 표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우리말은 특히 문장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억양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구분된다.<sup>8)</sup> 그러므로 억양을 알 수 없는 글말에서는 물음표지가 있어야 정확한 물음으로 인지할 수 있다. 물음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물결표인데 물결표는 일상적인 글말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문장부호이다. 그러나 온라인 대화에서는 발화자 자신의 어조를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2) 소리나 모습을 형상화한 한글 자모

온라인에서 통신언어의 두드러진 특징은 축약화이다. 축약화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소리나 모습을 초성화한 ‘ㅋ’, ‘ㅎ’, ‘ㅠ/ㅌ’의 사용이다. 온라인상의 대화에서 이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7) ‘ㅋ’, ‘ㅎ’, ‘ㅠ/ㅌ’의 사례

ㄱ. 응ㅋ/동규오빠도ㅋㅋ/점심 늦게 먹지 뭐ㅋㅋ/몰라ㅋㅋㅋ나도/ㅋㅋㅋㅋㅋ  
 나. 더쓸수도있는데.....ㅎ/응그렇게여ㅎㅎ/넌시간되세용?ㅎㅎㅎ/ㅎㅎㅎㅎㅎ  
 다. 배고프다ㅌㅌ/악!실험 시험잘쳤나??ㅌㅌ/아헐 ㅠㅌㅠㅌ그럼진짜아깝다ㅌㅌ

‘ㅋ’와 ‘ㅎ’는 기본적으로 웃음소리를, ‘ㅠ/ㅌ’는 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들은 단어, 구, 문장에 상관없이 모든 발화단위 뒤에 붙으며, 단독으로도 사용된다. 그런데 ‘ㅋ’의 쓰임을 보면, 항상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상황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8) ‘ㅋ’의 쓰임 [친구관계, 남-남]

창욱: ㅋㅋㅋㅋ잠깐 왔는데 너무 빨리 갔다  
 세민: ㅋㅋㅋㅋ갔냐?  
 창욱: 응 ㅋㅋㅋㅋ  
 세민: 아직도 분식 먹고싶냐?ㅋㅋ  
 창욱: 지금 라볶이 먹고 있어 ㅋ  
 세민: 컵라면?ㅋㅋ  
 창욱: 아니 장우동 ㅋ  
 세민: 이 근처에 장우동이 있던가?

8) 평서문에서는 (1)과 같이 문장의 마지막 음절이 내림조가 되고, 의문문에서는 (2)와 같이 마지막 음절이 올라가는 억양을 띤다(권경근 외, 2011:147-148).

(1) 밥 먹어→  
 (2) 밥 먹어→

창욱: 배달 되던데? ㅋ  
 세민: 진짜 분식먹고 싶었나보다ㅋㅋㅋ  
 창욱: 응 ㅋㅋ 진짜지  
 세민: 맛있나? ㅋㅋ  
 창욱: 아니 배불러 ㅋ

(8)의 상황을 보면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닌데도 모든 발화에 ‘ㅋ’를 사용하였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발화 단위 뒤에 ‘ㅋ’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발화 의도가 긍정적이며 대화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가 무의식적, 습관적인 사용을 가져온 것이다.

〈표 3〉 소리와 모습을 형상화한 한글 자모 초성자 사용 정도

초성표현	‘ㅋ’	‘ㅎ’	ㄷㄷ9)	ㅈ	ㅍ	초성표현 수/ 총 발화단위 수
개수 (비율)	1070 (88.5%)	134 (11.1)	3 (0.2)	1 (0.1)	1 (0.1)	1209(100%)/ 3603

웃음소리 ‘ㅋ’와 ‘ㅎ’의 사용양상을 보면, 세 번의 발화 단위 중 한 번은 소리나 모습을 형상화한 한글 자모를 사용했다. 그리고 ‘ㅋ’(88.5%)의 사용이 ‘ㅎ’(11.1%)의 사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웃음소리 ‘ㅋ’와 ‘ㅎ’의 차이는 무엇일까?

(9) ‘ㅋ’와 ‘ㅎ’의 쓰임 [선후배관계, 남-남]

성우 : 머하고 사노ㅋㅋㅋ  
 태민 : 그냥그냥 지내고 있습니다ㅋㅋㅋ  
 성우 : ㅋㅋㅋ 부산이가? ㅋ  
 태민 : 그러하옵니다ㅋㅋㅋ  
 성우 : ㅋㅋ음ㅋㅋ 그러구너ㅋㅋ  
 태민 : 형 부산이세요?  
 성우 : 당연하지.. 서울이야—T  
 태민 : 헉ㅋㅋㅋ서울은 출췌?  
 성우 : 어제부터 따셔졌어ㅎㅎ  
 성우 : 부산 어디있노?ㅎ  
 태민 : 여긴 또 비가ㅠ  
 성우 : 아하ㅎㅎ 여긴 눈을꺼 같어ㅎㅎ  
 태민 :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ㅋㅋㅋ

9) ‘ㄷㄷ’는 떠는 모습으로 ‘털털’을 초성화한 것이다.

(9)는 ‘ㅋ’와 ‘ㅎ’이 같이 사용된 예시이다. 문맥상으로는 ‘ㅋ’와 ‘ㅎ’의 차이가 면밀히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ㅋ’와 ‘ㅎ’의 쓰임 차이를 물어보자<sup>10)</sup> ‘ㅋ’는 일반적으로 ‘웃길 때’ 사용하고, ‘ㅎ’는 ‘어색하게 웃을 때’, ‘썸<sup>11)</sup> 탈 때’, ‘조신하게 웃을 때’, ‘말 뒤에 안 붙이기 허전할 때’, ‘음흉함을 표현할 때’, ‘상대방과 안 친할 때’라고 답하였다. 학생들의 답변에서 ‘ㅋ’의 사용 양상은 분명한 반면, ‘ㅎ’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ㅋ’와 ‘ㅎ’의 사용 양상은 여러 문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ㅋ’에 비해 ‘ㅎ’는 대화참여자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어색한 상황에 쓰이는 정도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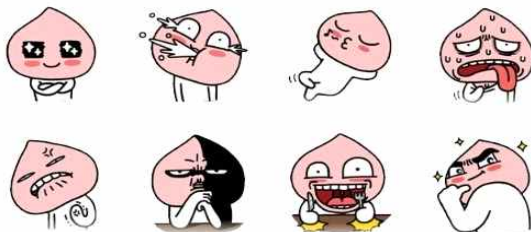
### 3) 이모티콘의 쓰임

이모티콘(그림말)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만든 그림문자로,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표준국어대사전). 이모티콘은 1990년 후반 전자 통신에 도움이 되고, 메시지 전달 기능의 일종으로 생겨났다. 처음 픽셀 이모티콘에서 시작해서 단순한 구두점으로 구성되는 문자형식의 이모티콘,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그래픽 이모티콘까지 이르렀다. 요즘 그래픽 이모티콘은 정적에서 동적으로 바뀌었으며 거기에 소리까지 더해졌다.

여기에서는 이모티콘을 크게 전통적 이모티콘, 한글 자모 이모티콘, 그래픽 이모티콘으로 분류하여 그 사용양상을 살펴본다.

#### (10) 이모티콘(그림말)의 사례

- ㄱ. 전형적 이모티콘: ^, ^.^, ^.^, ^^\*\*\*, --, ?., ㅎ.ㅎ, >.), @.@, 0.0, ♥, ♥, =33333
- ㄴ. 한글 자모 이모티콘: ㅏ/ㅑ, ㅓ.ㅓ/ㅕ.ㅕ, ㅇㅅㅇ
- ㄷ. 그래픽 이모티콘:



(10)은 자료에 나타난 이모티콘을 분류, 정리한 것이다. (10ㄱ)은 전형적 이모티콘으로, 문장부호나 기호, 숫자 등을 이용하여 만든 그림문자다. 주로 웃는 모습의 변종들이 자주 이용되며, 그 외에는 일시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10ㄴ)은

10) 앞에 언급한 동일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11) ‘썸’은 ‘something’의 줄임말로, 이성 간에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관심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썸타다’라고 표현한다.

한글 자모를 이용한 이모티콘이다. 거의 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많다. ‘ㅇㅅㅇ’은 한 건에 불과했다. (10ㄷ)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그래픽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이다. 이모티콘은 감정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힘들 때 사용한다.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전달력이 글보다 빠르며, 말로 표현해내야 하는 수고로움 없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표 4〉 이모티콘의 사용 정도

이모티콘 유형	전형적 이모티콘	한글 자모 이모티콘	그래픽 이모티콘	이모티콘 수/ 총 발화단위 수
개수 (비율)	63 (1.8%/15.0%)	278 (7.7%/66.3%)	78 (2.2/18.6%)	419(11.6%)/ 3603(100%)

전체 발화에서 이모티콘이 사용된 경우는 전체의 11.6%를 차지한다. 이 중에 ‘ㅋ’와 같은 한글 자모 이모티콘이 66.3%를 차지하였다. 전형적 이모티콘과 그래픽 이모티콘이 주로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중심이라면 한글 자모 이모티콘은 주로 소리를 형상화해주는 준언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의 글말에서는 기호를 사용하거나 그래픽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것보다 한글 자모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보다 손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앞에서 살펴본 문장부호는 언어의 뜻을 도와주거나 문장부호를 겹쳐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시각적으로 강조해준다. 소리와 모습을 형상화한 ‘ㅋ’, ‘ㅎ’, ‘ㅠ/ㅊ’는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모티콘은 화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대화의 분위기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만들어 주며, 대화참여자들과의 친밀감을 높여주기도 한다.

#### 4.2. 감탄사, 의성어·의태어의 쓰임

글말에서는 감탄사가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물의 소리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일상에서 감정감탄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대답말이나 부름말과 같은 의지감탄사는 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의성어와 의태어는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일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시, 동화,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서 많이 등장한다. 온라인상에서는 감탄사, 의성어·

의태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11) 감탄사<sup>12)</sup>의 사례

: 까악, 꾸꾸, 아, 아싸/앗싸, 아씨, 아오, 아하/아항, 아헐, 앓, 앙, 야/얌, 알리  
알리성<sup>13)</sup>, 어랏, 어형형, 얼씨구, 에고고고/에구예구, 오/오오, 오웅, 오호, 올/  
올, 와/우아/우와, 워메, 웁웅, 으, 으호, 으, 음, 이그/으겨/으이궁, 이잉, 쟈장,  
쩍, 췌, 쿠, 쿠우우우, 하/하하, 허허/헤헤/헤헝/히히, 헉, 헐, 형, 후/후후, 훗,  
흑/흑흑, 휴, 흐, 흐어, 흐억, 흠, 흥/흥흥, 힝

(11)은 자료에 나타난 감탄사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감탄사는 음운론적으로  
변칙되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12) 감탄사의 쓰임① [선후배관계, 남-남]

창훈: 사진 저런거 올리지말고 여자친구랑 손잡고 찍은 사진 같은거나 올려라  
현제: 쿠우우우TTTTTTTㅋㅋㅋㅋ

(13) 감탄사의 쓰임② [연인관계]

혜원: 오빠  
혜원: 중국갈때 어느공항에서가??ㅋㅋ  
규진: 음 아마 김해공항??으로 열고있어  
규진: 힝 점심약속 파토...  
혜원: 헉 왜파토

(12)는 선배가 프로필 사진에 사물놀이 사진 말고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올리  
라는 말에 후배인 현제가 ‘쿠우우우’라고 반응한 것이다. 발화자가 발화한 ‘쿠우  
우우’의 의미는 모르겠으나 그 소리와 뒤에 나오는 ‘우’로 유추해 보았을 때 우  
는 소리에 가깝다. ‘쿠우우우’ 뿐만 아니라 자료에 나타난 ‘꾸꾸’, ‘웁웅’ 등 역시  
소리의 변칙으로 인해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  
로 그 어감을 유추할 수 있다. (13)은 연인간의 대화인데, 감탄사가 5개의 발화  
단위 중 3번 나왔다. 온라인상의 글말에서는 서로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수  
없기에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문장부호, 웃음소리, 감탄사 등  
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공  
감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12) 여기에서의 감탄사는 부름말, 대답말과 같은 의지감탄사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절에서는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감정감탄사만 다루기로 한다. 감탄사의 분류는 최 현배(1999)  
참고.  
13) 사례 중 ‘알리알리성’이 나왔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 의미 없는 소리에 가깝다. 원래 ‘알리알리알라  
성’은 청산별곡에 나오는 후렴구이다. 시에서도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매 연마다 반복되  
어 나타남으로써 시 전체에 리듬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카카오톡 사례에서도 ‘알리알리성’이 특별한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문맥상 관심없다는 투의 감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14) 의성어·의태어<sup>14)</sup>의 사례

ㄱ. 의성어: 쪽

ㄴ. 의태어: 고슬고슬, 또르르, 툇툇, 뻗뻗, 뿔뿔, 뿡, 뿌잉뿌잉, 툽툽, 텅텅, 텅팅, 평평, 후달달

(14)는 자료에 나타난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례이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문장 내에서 수식어로 사용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글말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부사어로 기능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감탄사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15) 의성어의 쓰임 [연인관계]

혜지: 난 이제 밥 먹으러 가 ㅎㅎ

강민: 맛있게 먹었오?

혜지: 먹고왔영 ㅎㅎ

강민: 잘했오 쪽

혜지: 열근해용♥

(15)는 연인과의 대화인데, 자신의 감정을 ‘쪽’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하였다. ‘쪽’은 (15)의 연인 외에 다른 연인들에게도 나타났다. 온라인상의 글말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의성어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16) 의태어의 쓰임① [친구관계, 남-남]

동민: 나 31일 부산에 일었는데

동민: 왔다갔다해야하나

민수: 꼬였네

민수: 나도 애프터 핑크ㅋㅋㅋ

민수: 핑핑

동민: 그니까

(17) 의태어의 쓰임② [친구관계, 남-남]

동욱: 니방자주놀러갈게 ㅋㅋㅋ

민우: ㄱㄱㄱ

민우: 못옴

민우: 숙사생 금지다

동욱: 뿌잉뿌잉

---

14) 의성어와 의태어, 의성어와 감탄사의 구분이 간단치 않다. 우리말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 낱말이 소리와 모양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의성어와 감탄사는 소리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구분은 낱말이 쓰인 문맥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의성어와 감탄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표현했느냐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기로 한다.

민우: 뭐고 방구 꺾나

동욱: ㅋㅋㅋㅋ

(16)에서 만남이 틀어져 슬프다는 것을 ‘핑핑’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였다. 의태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난 퇴짜 맞아 핑핑 울었어’와 같이 부사어로는 사용되지만 ‘나 핑크났어. 핑핑.’처럼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17)에서 민우가 자신의 방에 놀러오지 못하게 하자 동욱이 ‘뿌잉뿌잉’이라고 반응하였다. ‘뿌잉뿌잉’은 한때 시트콤에 나와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는데 귀여운 척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뿌잉뿌잉’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방귀소리와 유사하여 의성어로도 볼 수 있으나 그 쓰임으로 볼 때 의태어에 더 가깝다. 카카오톡 자료에 나타난 의태어 역시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이 아닌 감탄사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표 5〉 감탄사,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정도

	감탄사	의성어	의태어	감·의·의 수/ 총 발화단위 수
개수(비율)	254	3	11	268/3603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감탄사, 의성어·의태어 사용은 대화참여자가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를 잘 이끌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비대면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대화협력적인 노력이다.

### 4.3. 비속어·유행어의 쓰임

언어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 다양한 말이 존재한다. 한 사회에서도 지역, 계층, 세대,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말이 존재한다. 이러한 말은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중 비속어와 유행어는 언어 변화 과정에서 항상 존재해왔고, 특히 계층이나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18) 비속어의 사례

ㄱ. 병신, 색히, 염장, 임마

ㄴ. 꺼지다, 망하다(망할), 미치다, 발라버리다, 뺨치다(뺨침), 열받다, 쳐먹다(쳐먹)

ㄷ. 시발, 아씨/아쉬부럴, 존나/졸라/존-(존잘), 지랄

자료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비속어는 (18)과 같다. 비속어는 ‘통속적으로 저속한 말’(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되는데 사회적으로 비격식적이고 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어휘나 표현을 비속어로 볼 수 있다. 통신언어의 특징 중 하나가 축약인데, 비속어에서도 나타난다. ‘염장’의 경우 보통 ‘염장지르다’고 표현하지만 ‘염장’이라는 명사형으로 사용하고 ‘쳐먹다’의 경우도 ‘쳐먹’에서 끝난다. 그리고 ‘색히’, ‘시발’, ‘쉬부럴’, ‘존나/졸라’와 같은 경우는 욕설이므로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 경음화, 비음화하여 표현하였다. 공적인 매체에서 욕설 등의 금지어는 규제하지만<sup>15)</sup> 카카오톡에서는 별도의 규제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대화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낱말의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비속어를 표현한다.

(19) 비속어의 쓰임① [친구관계, 여-여]

- 나영: 손우창이랑 싸우는중
- 나영: 이기길바래줘
- 상아: ㅋㅋㅋㅋ
- 상아: 그래
- 상아: 화이팅
- 상아: 발라버려
- 나영: 아존나 말안통한다 이거 어짜스까잉
- 상아: ㅋㅋ다싸우고 말해도
- 나영: 아썬부럴 니랑사귀고싶다
- 상아: ㅋㅋㅋ
- 상아: 야별써보고싶다 우짬
- 나영: 시발 우짬도 우짬으로 보고 나혼자 뺨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나영: 아오쉬부럴 2014년에는 마가 꺾는가보다
- 나영: 나랑 놀자
- 상아: ㅋㅋㅋㅋ기피ㅋㅋㅋㅋ기

(19)는 애인과 싸우는 상태에서 동성인 친구에게 애인에 대한 화를 비속어로 표현하고 있다. 동성인 여자친구들 간에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지만 제삼자에 대한 욕설을 공유하면서 동성 친구끼리의 친밀감을 더해주고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20) 비속어의 쓰임② [친구관계, 남-여]

- 윤하: 헐설마별써시험이갑ㅋㅋㅋ
- 선재: ㅋㅋㅋㅋㅋㅎㅎ
- 선재: 내일이다 입마

15) 텔레비전과 같은 공중파 방송은 자체적으로 검열체계가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금치어를 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금치어를 선정하여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 금치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정복(2009, 4장)을 참고할 것.

윤하: 나중에말해줄게우리수업한당  
 선재: ㅇㅋㅇㅋ  
 선재: 야 이거 짜잘한 표같은거도 봐야대??  
 윤하: 아니아니  
 윤하: 진짜대충해도됨!!!  
 선재: 아 고래? ㅋㅋㅋ  
 윤하: 야  
 윤하: 내같이좋은친구있나  
 윤하: 밥사라  
 선재: (하트)  
 선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하: 끼정  
 윤하: ㅋㅋㅋㅋㅋ

(20)은 이성친구간의 대화내용이다. 선재가 윤하에게 ‘임마’라고 부르고, 윤하가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밥을 사라고 요구한다. 선재가 하트를 날리자 윤하가 ‘끼져’라고 반응하였다. ‘임마’, ‘끼져’라는 비속어가 사용되었지만 대화의 분위기는 유쾌하다. 비속어는 그 자체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로 금기시되어 있지만 친한 사이라면 허물없이 정을 표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21) 성별에 따른 대화자간 비속어 사례

- ㄱ. 남-남: 똥되다, 멍청아/멍청한 놈, 메롱아, 뺨쳤음/뺨침, 쓰레기, 짱난다
- ㄴ. 여-여: 망할, 미친, 발라버려, 뺨침, 병신, 색히, 시발, 썬부릴, 열받네, 염장, 존나/졸라, 졸시름/졸빠르군, 지랄
- ㄷ. 남-여: 끼정, 발라버리다, 뺨세다, 임마

〈표 6〉 비속어 사용 정도

대화자 관계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가족관계	연인관계	비속어 수/ 발화단위 수
남-남	9	3	0	×	12/1057
여-여	35	5	5(자매)	×	45/678
남-여/여-남	3	2	1(남매)	2	8/1867
개수/발화단위 수	47/900	10/902	6/904	2/897	65/3603

자료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을 분석한 결과, 친구관계에서 비속어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속어가 이성 간보다는 동성 간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이성 간에는 자신의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동성보다는 더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설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약한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귀엽고 양증맞게 표현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해 동성 간에는 강도가 강한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였다.

(22) 유행어의 사례

- ㄱ. 까리하게/까리하네<sup>16</sup>, 뽀시게/뽀시네/뽀세다<sup>17</sup>, 짱(짱/짱이다/짱멋지다), 찌네/찌다/찌어<sup>18</sup>
- ㄴ. 광탈(광속 탈락), 꿀<sup>19</sup>, 대박, 어장<sup>20</sup>, 짤(내짤), 폭풍(폭풍질문)<sup>21</sup>, 프사(프로필사진)
- ㄷ. 개-(개멋있다), 레알-(레알피곤하다), 왕-(왕비싸다, 왕예쁘겠다), 졸-(졸빠르군, 졸시름), 캐-(캐힘들다),
- ㄹ. 존나/졸/졸라/절라/준내
- ㅁ. 헐

(22)는 자료에 나타난 유행어이다. 유행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하는 것으로, 신조어의 일종이다. 유행어는 그 시대의 사회상에 따라 해학성, 풍자성을 띠며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경박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가 많지는 않았다. 유행어는 말 그대로 일시적일 뿐이다. 유행어 중에서도 비속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주 사용된다.

(23) 유행어의 쓰임① [선후배관계, 여-남]

- ㄱ. 헐 왜 난 안보이지ㅋㅋㅋ
- ㄴ. 레알피곤하다ㅏㅏ오늘신벤 신환회라며!!
- ㄷ. 캐힘들다

(24) 검색엔진에서 찾은 유행어의 활용 사례

- ㄱ. 레알: 레알 푸짐한, 레알 좋다, 오늘부터 살뺀다 레알, 이건 레알이다, 레알 싼곳, 중고가격 레알임...
- ㄴ. 캐: 캐안습, 캐 막장이다, 캐많다, 캐친절함, 캐저렴, 캐멋짐, 캐맛있쨌...

(23)에서 유행어는 ‘헐’, ‘레알’, ‘캐-’이다. ‘헐’은 ‘어이없다’, ‘황당하다’, ‘놀랍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감탄사이다. ‘레알’은 영어 ‘real’을 발음나는 대

16) ‘까리하다’는 경상방언으로 ‘개성이 있고 멋지다’라는 의미가 있다.

17) ‘뽀세다’는 ‘힘들다’를 속되게 이르는 경상방언으로 2004년에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단어이다.

18) ‘찌다’는 ‘찌다’는 ‘잘한다, 대단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비꼬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잘한다, 대단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비꼬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19) ‘꿀’은 꿀이 원래 달콤한 것과 같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검색엔진에 ‘꿀’과 관련된 어휘를 찾아보니 ‘꿀박사, 꿀부업, 꿀알바, 꿀일상, 꿀케미, 꿀피부, 꿀팁, 꿀이네’ 등이 나왔다. ‘꿀’은 주로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형성하는 데 쓰인다.

20) ‘어장’은 ‘어장관리’에서 나온 말로, ‘어장관리’는 이성 관계에서 실제 사귀지는 않지만 주위의 이성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어장’은 관심있는 주위의 이성 무리를 뜻한다.

21) ‘폭풍’은 원래 ‘폭풍’이 가진 의미처럼 ‘엄청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폭풍감동, 폭풍감량, 폭풍눈물, 폭풍할인, 폭풍성장’ 등 명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로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캐’는 일종의 접두사로, ‘매우’, ‘아주’, ‘정도가 심한’과 같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 (24)는 검색엔진 네이버에 검색하여 나온 사례들이다. ‘레알’의 경우 영어 ‘real’은 형용사인데 반하여 ‘레알’은 부사, 명사, 감탄사로 쓰인다.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정도의 뜻으로 사용된다. ‘캐’는 쓰임으로 볼 때 주로 형용사 앞에 접두사로 붙는다. ‘캐’는 원래 ‘개’에서 왔다. ‘개’ 역시 접두사로 ‘완전히’, ‘아주’라는 의미를 가진다. ‘캐’는 ‘개’의 강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캐안습’에서 ‘안습’ 역시 유행어인데 ‘안구에 습기차다’라는 말로 슬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캐안습’은 ‘안구에 습기찰 정도로 매우 슬프다’ 정도의 뜻이 된다.

(25) 유행어의 쓰임② [가족관계, 자매]

- ㄱ. 근데 졸 티나는데
- ㄴ. 니 왜 내짤 뺏아서 니 프사로 해놔
- ㄷ. 오늘 날씨 짤어ㅠㅠ

(25)에서 사용된 유행어는 ‘졸’, ‘짤’, ‘프사’, ‘짤어’이다. ‘졸’은 ‘졸라’의 축약으로 ‘아주’, ‘매우’라는 의미이다. 원래 ‘졸라’는 ‘좃나’에서 왔고 성적인 의미라 인터넷상에 금기시되어 ‘존나’, ‘졸라’와 같이 형태를 변형해 많이 사용된다. (25ㄴ)에서 ‘짤’은 ‘사진’이라는 의미이다. 원래 ‘짤’은 ‘짤방’이라는 말에서 왔고 ‘사진 짤림 방지’라는 의미이다. ‘짤방’은 황당하거나 웃긴 사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짤’이 사진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프사’는 ‘프로필 사진’의 두문자어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검색엔진, 카페, 누리소통망 등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프로필 사진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간단히 ‘프사’로 줄여서 사용한다. (25ㄷ)의 ‘짤다’는 ‘절다’의 된소리 표현으로 표준어 ‘절다’와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짤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좋다’, ‘굉장하다’ 등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매우 좋지 않다’, ‘짜증나다’ 등이다. (25ㄷ)의 경우 날씨가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오늘 날씨 짤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맥과 ‘ㅠㅠ’으로 보아 ‘날씨가 너무 더워 짜증난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다.

〈표 7〉 유행어 사용 정도

대화자 관계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가족관계	연인관계	개수/ 발화단위 수
남-남	1	0	0	×	1/1057
여-여	19	0	3(자매)	×	22/678
남-여/여-남	7	20	3(남매)	10	40/1867
개수/발화단위 수	27/900	20/902	6/904	10/897	63/3603

대학생들의 유행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이성관계, 친구관계에서 유행어 사용이 잦았다. 특히 이성 간 선후배 관계일 때 유행어 사용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의 빈도는 낮은 편이며 사용하는 어휘도 제한적이다. 유행어나 신조어가 계층과 세대에 따라 생성되고,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층이 언어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다. 분석 결과로 볼 때, 대학생은 청소년층과 인접해있지만 청소년층에서 중년층으로 넘어가는 연령 단계이므로 청소년층에 비해 또래집단에 민감하지 않으며 비표준형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체도 발전하고 변화한다. 매체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 수단 역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매체가 발달할수록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보다 매체를 대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매체 속의 언어와 매체 밖의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나타난 언어사용을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학교 관련 이야기, 지인 이야기, 약속하기, 안부 묻기, 인사 나누기 등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카카오톡 대화는 문자로 쓰지만 구어체로 대화하기에 발화단위가 한 음절에서부터 문장 형식을 갖춘 꼴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발화단위를 짧게 적는 것은 실시간 대화 시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톡은 글말이기에 대면 의사소통에서 알 수 있는 상대방의 표정과 어조 등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문장부호, 한글 자모, 이모티콘 등을 이용하여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준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온라인상의 글말에서는 감탄사가 음운론적으로 변칙되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는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준다. 그리고 의성어·의태어 역시 일반적인 글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나 온라인상의 글말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비속어와 유행어의 사용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청소년층과 장년층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연령 단계의 특성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매체 속의 언어에서 비대면 상황과 글말이라는 한계를 넘기 위해 통신 화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매체 밖의 언어는 어떠한가. 통신 언어는 통신 매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 언어가 통신상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 언어로 전이되었다는 것은 여러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매체 속의 언어가 매체 밖의 언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매체 속의 언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는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참고 문헌〉

- 권 경근 외. 2011.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박이정. 147-48쪽.
- 박 용예. 2012. 「전자 담화 연구의 경향 및 쟁점들」, 담화와 인지제19권 3호. 103-132쪽.
- 송 경숙. 2001. 「상호작용적 전자담화의 특성: 한국어와 영어 인터넷 채팅을 중심으로」, 언어연구18:2. 113-140쪽.
- 송 경숙. 2003. 「한국어와 영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남성과 여성 간의 성 역할」, 사회언어학11-2. 2003, 161-186쪽.
- 이 정복. 2009. 『인터넷 통신 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소통. 143-173쪽.
- 이 정복. 2012.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20. 한국 사회언어학회. 177-211쪽.
- 이 정복. 2014. 「매체 언어 연구의 목적과 방향」,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15-33쪽.
- 이 동은·윤 상석. 2014.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타나는 공손 전략」, 한국어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어언어학회. 39-46쪽.
- 이 호영. 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 창 성난. 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운율단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어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 최 명원 외. 2012. 「SNS 메신저 ‘카카오톡’ 언어현상 연구」, 텍스트언어학 3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469-495쪽.
- 최 현배. 199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 상희·최 규수. 2012. 「트위터에서 트윗(tweet)의 특징과 유형 연구」, 한민족어문학 61집. 한민족어문학회. 455-494쪽.
- 허 상희. 2015. 「통신언어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표현 연구」,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사회언어학회. 55-75쪽.
- Baron, *See you online: gender issues in college student use of instant messaging*,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3, 2004, 397-423.
- Baron, *Discourse structures in instant messaging: The case of utterance breaks*, Language@Internet, 2010, 7.(retrieved from <http://www.languageatinternet.org/article/s/2010/2651>)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 발전과 의미 연구

2016년 5월 13일(금) 10:00~17:3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제4부 연구 발표

##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

송 인성

상명대학교 강사  
jpsis79@naver.com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구어에서 실현되는 부사 기원 담화표지를 대상으로, 부사(비담화표지)와 비교를 통해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을 밝히는 것에 있다. 즉, 음운론적인 축약이나 탈락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 변화의 차이를 살피고 운율 경계와 휴지와 같은 운율 요소의 실현 양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여, 담화표지가 구어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담화표지는 구어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요소로, 화자가 발화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거나 자신의 태도 및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 담화표지는 담화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휘가 그 문법적 기능과 의미의 변화를 겪으며 담화에서 새롭게 담화 기능을 획득하여 실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담화표지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담화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실현되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수행해 왔다(송 인성, 2015: 1).

담화표지는 음성 언어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운율 경계, 휴지’ 등의 운율 요소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음운론적인 축약이나 탈락의 형태 변화가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1)은 부사 기원 담화표지 {이렇게}가 구어에서 실현되는 사례이다.

- (1) ㄱ. 남자 두 명이 와서 그 지갑 // 이케 // 자기네들 뭐 경찰이라 뭐 신분증을 딱 보여 주는 거예요.
  - 나. 저도 / 을케 // # 저도 어 청소 뭐 빨리 개고 뭐 이런 거 뭐 하고 빨래도.
  - 다. 다른 음식은 별로 + 일케 //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 르. 직장 다니다가 좀 // # 르케 // # 다닌 진학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재밌어요.
  - ㅁ. 뭔가 까다로운 학생이 있을 때 뭔가 좀 # // 케 / 요구가 많고 굉장히.
  - ㅂ. 지방이 좀 더 # // 게 // # 지방만의 독특한 걸로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 <+: 경계 없음, /: 음운구 경계, //: 억양구 경계, #: 휴지>

(1)의 예문과 같이 담화표지 {이렇게}는 구어에서 여러 변이형으로 나타나고, 담화표지의 선후행 위치에 실현되는 운율 경계와 휴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기존 담화표지의 연구에서는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해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담화표지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음성 자료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담화표지는 부사, 대명사, 관형사 등의 다양한 형식에서 발달하였다. 이 가운데 부사에서 기원한 담화표지가 가장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고 고빈도로 나타난다.<sup>1)</sup> 부사는 구어 담화에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부가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사라도 말하는 이의 심리 상태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부사는 담화 차원에서 그 기능이나 의미가 다른 낱말의 갈래보다 유연성이 훨씬 크다(임 규홍, 1998: 237).<sup>2)</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담화표지가 다양한 어원에서 발달하였지만 이 중에서 부사에서 기원한 담화표지를 대상으로 하여, 구어에서 실현되는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1) 송 인성(2015: 33)에서는 ‘부사’, ‘관형사’, ‘감탄사’, ‘대명사’, ‘체언·용언 활용형’, ‘조사’, ‘명사+조사’에서 기원한 담화표지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부사 기원 담화표지가 1,083/2,202회(49.2%)의 출현 빈도를 보이며 가장 고빈도로 실현되었고, 유형 빈도는 14회로 나타나서 분석한 담화표지 중에서 가장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었다.

2) 신 지연(2002: 113~119)에서는 구어에서 부사는 구체적이고 특정 의미를 갖지 않고 후행 서술어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부사가 많이 쓰이고, 간투사처럼 쓰이는 부사가 많다고 하였다.

## 2.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 2.1.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는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유 발화 말뭉치인 ‘서울 코퍼스(Seoul Corpus)’를 사용하였다. 이 말뭉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표준어 화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녹음을 진행한 것이다. 이때 피험자가 ‘본인, 가족, 거주지, 학교, 직장, 여가’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 자료는 231,632어절의 대규모 자료로 10대~40대 남녀 각각 5명씩 모두 40명의 화자가 자연스럽게 발화한 음성을 수집하였다. 녹음 시간은 화자당 1시간으로, 총 40시간 분량이다. 또한 수집된 음성 자료에는 철자 전사와 음성 전사가 발화, 어절, 음소 단위로 레이블링되어 있고, 240개의 음성 파일(화자당 6개)과 240개의 텍스트그리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음성 녹음은 방음 시설이 잘 갖춰진 녹음실에서 이루어졌고, Tascom HD-P2 녹음기와 AKG C420 마이크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표본추출을 44,100Hz, 16bit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이 연구는 해당 말뭉치에서 30대 남녀 10명이 발화한 19,149어절(200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sup>3)</sup>

### 2.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단어가 담화표지로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단어에 실현되는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주목하여 담화표지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였다.

첫째, 담화표지의 판별 기준은 통사적인 독립성과 수의성이다. 이는 담화표지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성분과 수식, 피수식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담화표지는 대부분이 수의적인 특성을 가진 요소로,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담화표지 판별 기준은 의미와 기능의 변화성이다. 담화표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휘가 의미의 변화를 겪으며 담화에서 새롭게 담화 기능을 획득하여 실현된 것이다. 즉, 담화표지는 기존 어휘가 담화에서 실현될 때 그 명제 의미가 약화되면서 어휘의 의미가 확장되어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전 영옥, 2002: 133).

3)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의 나머지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2)와 (3)은 부사 {좀}과 담화표지 {좀}을 제시한 사례로, 담화표지 {좀}은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성을 갖지 않아 비관련적이고, {좀}이 생략되어도 문장의 내용이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3)의 담화표지 {좀}은 (2)의 부사의 용법에서 벗어나 ‘공손함’, ‘강조’와 같이 담화에서 확장된 의미와 기능을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송 인성, 2015: 28).

(2) 부사 {좀}

- ㄱ. 표 끄는 절차가 **좀** 복잡해.
- ㄴ. **좀** 이따가 올 거야.
- ㄷ. 백만 원 **좀** 안 된다.
- ㄹ. 겨울방학은 **좀** 길어졌어요.

(3) 담화표지 {좀}

- ㄱ. 마실 거나 (**좀**) 하나씩.
- ㄴ. 옥편 (**좀**) 찾아보지.
- ㄷ. 야 진짜 그런 생각으로 공부에다 (**좀**) 쏟아 봐봐.
- ㄹ. 그 운이 왜 한 쪽으로만 가냐구 (**좀**).

이 연구에서 분석 단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송 인성(2015)에서 제시한 부사 기원 담화표지를 참고하였다. 송 인성(2015)에서는 기존 여러 담화표지 연구에서 제시한 담화표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형식에서 기원한 담화표지를 분석하였다.<sup>4)</sup> 송 인성(2015)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선정한 부사 기원 담화표지는 {왜}, {이제}, {인제}, {좀}, {막}, {진짜}, {정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으로 모두 13개이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표지와 부사의 운율 실현 양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담화표지와 부사의 선후행 경계에 실현되는 운율 경계와 휴지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였다. 운율 경계는 Jun(1993, 2000)에서 제시된 한국어 운율 단위(Korean TOnes and Break Indices, K-ToBI)를 기준으로 삼았다.<sup>5)</sup>

운율 경계와 휴지가 담화표지나 부사에 실현되는 양상은 (4)와 같다. (4)에서와 같이, 담화표지나 부사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에 경계가 없이 바로 인접(+ )하여 실현되거나, 음운구 경계(/)가 실현되거나, 억양구 경계(//)가 실현된다.

4) 송 인성(2015)에서는 ‘왜, 이제, 인제, 좀, 막, 참, 가만, 진짜, 정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그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아무튼, 어쨌든, 그러나, 그렇지만, 하여튼, 하여튼, 하여간, 좌우간’을 대상으로 총 27개의 부사를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담화표지의 기능으로 실현된 ‘왜, 이제, 인제, 좀, 막, 진짜, 정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송인성(2015)에서는 친밀도가 높은 20~30대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녹음한 음성 말뭉치를 연구 자료로 삼아서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와 다르다.

5) 한국어 운율 단위는 억양구(Intonation Phrase)와 강세구(Accentual Phrase), 음운단어(phonological Word), 음절(syllables)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한국어에서 한 발화는 가장 하위의 운율 단위인 음절에서부터 가장 상위의 운율 단위인 억양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발화는 하나 이상의 억양구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Jun(1993, 2000)에서 ‘강세구’라고 제시한 용어를 ‘음운구(Phonological Phrase)로 대신하여 표현한다. 신 지영(2011)에서는 강세구라는 용어로 인해 한국어가 강세 언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들어서 음운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이 견해를 따라 음운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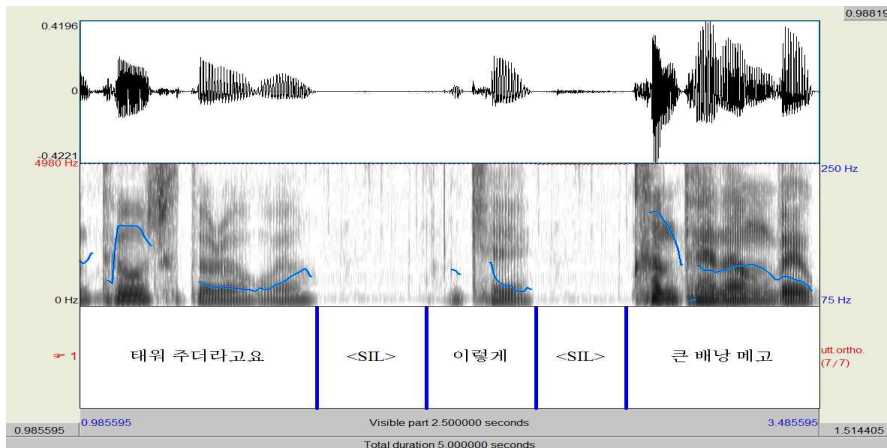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는 경우에 휴지(#)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때 휴지는 200ms 이상의 묵음 구간을 지날 때 휴지가 실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4) 담화표지(DM)와 부사(AD)에 실현되는 운율 경계와 휴지 양상

[선행 요소]	+	[DM, AD]	+	[후행 요소]
	/		/	
	// (#)		// (#)	

〈+ : 경계 없음, / : 음운구 경계, // : 억양구 경계, # : 휴지, ( ) : 수의적〉

운율 특성의 분석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v6.0.1.5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은 프라트를 이용하여 {이렇게}를 분석한 사례이다. {이렇게}의 선행 위치에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고 휴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의 선행 위치에 실현된 억양구 경계는 ‘태워 주더라고요’의 마지막 음절에 고저조(HL%)의 억양구 경계 성조와 뒤따르는 휴지가 500ms 정도 실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의 후행 위치에 실현된 억양구 경계 성조는 ‘이렇게’의 마지막 음절에 저조(L%)의 억양구 경계 성조와 뒤따르는 휴지가 300ms 정도 실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5〉 {이렇게}의 운율 특성 분석 사례

### 3.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형태 특성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부사 기원 담화표지와 부사의 형태에 따른 출현 빈도는 〈표 1〉과 같다.

〈표 1〉 단어별 담화표지와 부사의 형태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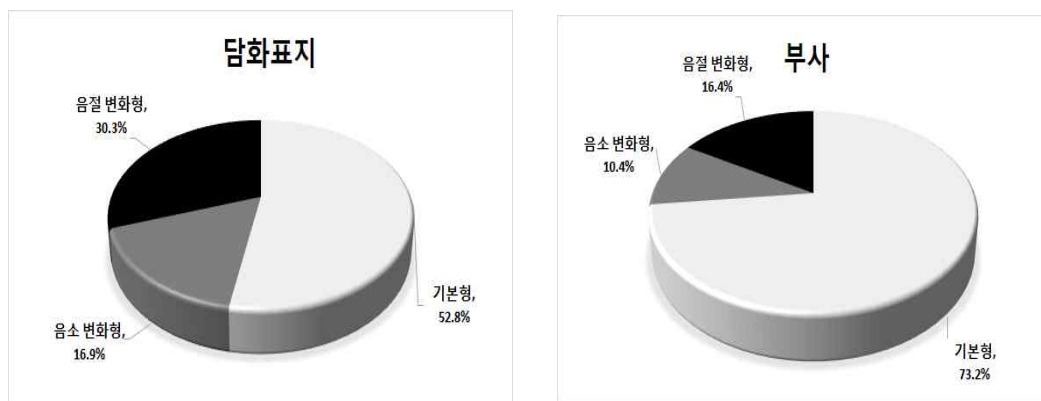
기본형	형태	담화표지(회)	부사(회)	전체(회)
{그냥}	그냥	99	41	160
	그냐	4	3	
	그양	6	1	
	으냥	2	0	
	냥	4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4	166
	그러이가	0	2	
	그니까	2	0	
	그리까	0	2	
	그이까	2	1	
	근까	1	0	
	궁가	2	2	
	궁까	8	2	
	그까	6	1	
	응까	17	12	
	잉까	5	0	
	으가	2	1	
	으까	7	2	
	이까	1	0	
	까	51	27	
가	3	2		
{막}	막	76	29	122
	마	14	3	
{아무튼}	아무튼	8	4	21
	암튼	8	1	
{어쨌든}	어쨌든	4	15	20
	어쨌	1	0	
{왜}	왜	13	23	36
{이렇게}	이러케	4	3	160
	이르케	37	10	
	으르케	3	0	
	일케	7	1	
	이케	57	5	
	르케	6	0	
	으케	6	1	
	을케	4	0	
	케	7	0	
	께	2	0	
게	7	0		
{이제}	이제	44	12	92
	으제	2	0	
	제	31	3	
{인제}	인제	75	11	88
	은제	2	0	
{정말}	정말	25	59	84
{좀}	좀	65	20	178
	죸	70	23	
진짜	진짜	24	70	94
{하이튼}	하이튼	0	4	11
	하튼	4	3	
총합		829	403	1,232

〈표 1〉에서와 같이, 담화표지와 부사는 단어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이 실현된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러이까, 그니까, 그리까, 그이까, 근까, 궁까, 궁까, 그까, 응까, 잉까, 으까, 으까, 이까, 까, 가’와 같이 16개의 형태로 실현되고, {이렇게}는 ‘이러케, 이르케, 으르케, 일케, 이케, 르케, 으케, 을케, 케, 께, 게’와 같이 11개의 형태로 실현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왜}, {정말}, {진짜}와 같은 단어는 변이형이 나타나지 않고 기본 형태로만 실현된다.

담화표지와 부사의 형태에서 기본형과 변이형을 비교하여 변이형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즉, 변이형의 음소가 대치되거나 탈락하는 음소 변화 형태와, 변이형의 음절이 축약되거나 탈락하는 음절 변화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음소 변화형은 {좀}이 ‘쫘’으로 실현되고 {인제}가 ‘은제’로 실현되는 것과 같이 특별한 동인 없이 특정 음소가 대치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그냥}이 ‘그냐, 그양, 으냥’으로 실현되는 것과 같이 변이형이 기본형과 음절 수는 동일하지만, 특정 음소가 탈락한 형태이다. 둘째, 음절 변화형은 {이렇게}가 ‘일케’로 {아무튼}이 ‘암튼’으로 실현되는 것과 같이 변이형의 음절이 축약된 형태와 {그러니까}가 ‘까’로 {이렇게}가 ‘케’로 실현되는 것과 같이 변이형의 음절이 탈락한 형태가 있다. 이 음절의 축약이나 탈락 형태는 {이렇게}가 ‘을케’로 나타나는 것처럼 음절이 축약된 후에 음소가 바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가 ‘가’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음절이 탈락한 후에 음소가 바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담화표지와 부사에 나타나는 기본형과 변이형(음소 및 음절 변화형)의 전체 실현 비율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담화표지와 부사의 기본형과 변이형(음소·음절 변화형)의 실현 비율

〈그림 2〉에서와 같이, 담화표지는 기본형이 52.8%, 변이형이 47.2%(음소 변화형 16.9%, 음절 변화형 30.3%)로 나타난다. 반면에 부사는 기본형이 73.2%,

변이형이 26.8%(음소 변화형 10.4%, 음절 변화형 16.4%)로 나타난다. 이처럼 단어를 종합하여 기본형과 변이형의 전체 실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부사보다 담화표지에서 변이형의 실현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담화표지의 형태 변화가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각 단어별 담화표지와 부사의 기본형과 변이형(음소·음절 변화형)의 출현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단어별 담화표지와 부사의 기본형과 변이형(음소·음절 변화형)의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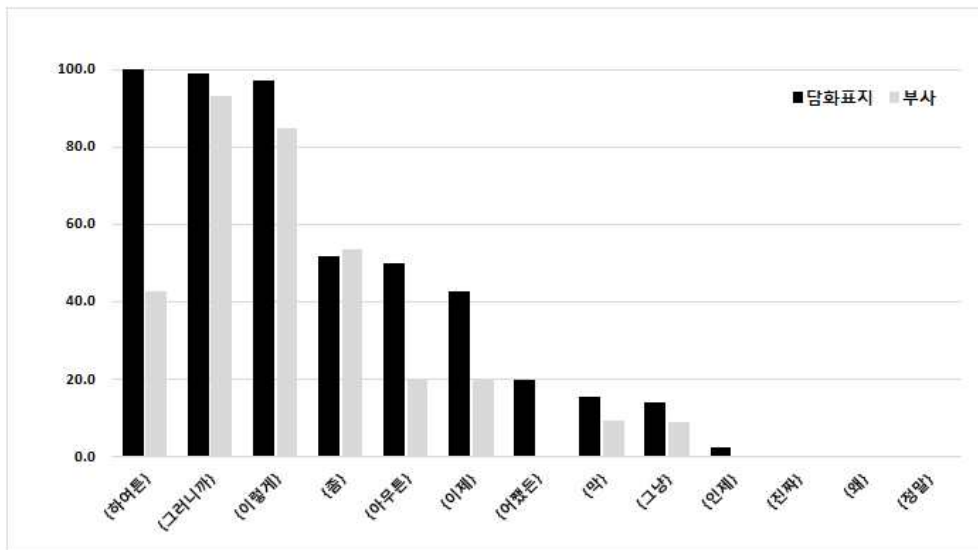
	담화표지			부사		
	기본형(회)	음소 변화형(회)	음절 변화형(회)	기본형(회)	음소 변화형(회)	음절 변화형(회)
{그냥}	99	12	4	41	4	0
{그러니까}	1	0	107	4	2	52
{막}	76	14	0	29	3	0
{아무튼}	8	0	8	4	0	1
{어쨌든}	4	0	1	15	0	0
{왜}	13	0	0	23	0	0
{이렇게}	4	40	96	3	10	7
{이제}	44	2	31	12	0	3
{인제}	75	2	0	11	0	0
{정말}	25	0	0	59	0	0
{좀}	65	70	0	20	23	0
{진짜}	24	0	0	70	0	0
{하여튼}	0	0	4	4	0	3
총합(회)	438	140	251	295	42	66

<표 2>에서 변이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등이다. {그러니까}는 담화표지와 부사 모두에서 음절 변화형이 기본형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는 부사보다 담화표지에서 음소·음절 변화형 모두가 다양하게 실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좀}의 경우 담화표지와 부사 모두에서 음소 변화형이 기본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실현된다. {이제}는 변이형이 기본형보다 고빈도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부사에 비해 담화표지에서 음절 변화형이 상대적으로 고빈도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 (5) ㄱ. 무슨 쪼그만 단체가 있더라구여 예전에 그 // # 까 // # 그 뭐야 같이 인제 건설사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그런 데 나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 ㄴ. 어 아버님은 어머니하고 좀 다르게 사실은 상당히 고지식하고 // # 까 // # 할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 ㄷ. 전에 제가 저 직장 잠깐 다녔었는데 직장 다니다가 좀 # // 르케 // # 대학원을 진학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 ㄹ. 개울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도 / 이케 // # 어릴 때는 많이 놀고.

- ㄴ. 많이 떠는 편이었어요 그런 크 + 쫘 / 그런 성격 있잖아요.
- ㄷ. 어느 날 이렇게 딱 나가봤더니 아침에 이제 제발 // 쫘 // # 통제 좀 해 달라고 막.
- ㄷ. 아니요 잘 못하세요 농사를 // 제 // # 지어 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 ㄹ. 유치원 많이 없어서 그냥 유치원 한 군데 겨우 찾아서 // 제 // # 에 예 그랬었죠.

대부분의 단어는 기본형이 변이형보다 상대적으로 고빈도로 실현되는 경우 담화표지와 부사에서 모두 기본형이 고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변이형이 기본형보다 상대적으로 고빈도로 실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주에 관계없이 변이형이 기본형보다 고빈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각 단어에서 변이형이 실현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어에서 담화표지에 실현되는 변이형의 비율이 부사에서 실현되는 변이형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부사 {좀}(53.5%)이 담화표지 {좀}(51.9%)보다 음소 변화형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을 뿐, 부사보다 담화표지에서 변이형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단어별 부사 기원 담화표지와 부사의 변이형 실현 비율

변이형이 다양하게 실현된 {그러니까}와 {이렇게}에 나타난 변이형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담화표지에 실현된 변이형 유형의 수가 부사에 실현된 변이형의 수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3>, <표 4>에서와 같이 {그러니까}는 담화표지로 실현된 형태가 14개, 부사로 실현된 형태가 12개로 나타나서 범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는 담화표지로 실현된 형태가 11개, 부사로 실현된 형태는 5개로 나

타난다. {이렇게}는 부사로 실현될 때보다 담화표지로 실현될 때 형태의 유형이 6개 더 많이 실현되어서, {이렇게}가 담화표지로 실현된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본형에서 큰 변화 양상을 띠는 ‘케’, ‘께’, ‘게’와 같은 음절이 축소(erosion, phonetic reduction)된 형태는 담화표지에서만 실현되었고 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표 3〉 {그러니까}의 출현 및 유형 빈도

단어 목록	담화표지(회)	부사(회)
그러니까	1	4
그러이까	0	2
그니까	2	0
그리까	0	2
그이까	2	1
근까	1	0
궁가	2	2
궁까	8	2
그까	6	1
으가	2	1
으까	7	2
응까	17	12
이까	1	0
잉까	5	0
까	51	27
가	3	2
총합	출현(회)	108
	유형(개)	14

〈표 4〉 {이렇게}의 출현 및 유형 빈도

단어 목록	담화표지(회)	부사(회)
이러케	4	3
이르케	37	10
으르케	3	0
이케	57	5
일케	7	1
으케	6	1
르케	6	0
을케	4	0
케	7	0
께	2	0
게	7	0
총합	출현(회)	140
	유형(개)	11

담화표지와 부사의 형태에 실현되는 음운론적인 축약 및 탈락은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부사보다 담화표지에 고빈도로 발생하는 것은 담화표지가 부사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에서 변화를 겪으며 담화표지로서 기능이 바뀐 문법화된 요소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법화 현상에서 문법화된 요소가 음운론적으로 형태가 축소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문법화 과정을 거친 요소는 의미 기능의 축소와 함께 음운론으로 형태에서도 축소가 발생하는데, 문법화된 요소는 일반화된 의미를 가진 어휘적 단어보다 음운론적으로 더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이다(Bybee et al. 1994: 20).<sup>6)</sup> Rhee(2016: 450)에서도 담화표지(화용표지)에 강세와 같은 초분절적 요소가 그 성질을 잃는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음운론적이나 형태 통

6) 이 성하(1998: 196~197) 인용.

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요소들이 보다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사 기원 담화표지가 부사보다 음운론적인 축약과 탈락의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담화표지가 이전 형식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와 기능이 소실되고 담화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획득하면서 음운론적인 형태 축소가 나타나는 문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4.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운율 특성

이 연구에서 담화표지와 부사의 운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려한 운율 요소는 운율 경계와 휴지이다. 담화표지와 부사의 선후행 위치에 나타나는 운율 경계의 유형과 휴지의 실현 여부를 파악하여, 담화표지와 부사가 발화에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중에 어떠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실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담화표지와 부사의 선행 위치나 후행 위치에 운율 경계가 실현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의 운율 경계가 실현되는 경우, 담화표지와 부사는 그 위치의 요소와 더 밀접하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위치와 후행 위치에 모두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는 경우는 휴지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담화표지와 부사가 선후행 요소와 밀접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선후행 위치가 모두 억양구 경계로 실현되는 경우에 휴지가 실현되지 않는 위치의 요소와 단어가 더 밀접하게 실현된다. 담화표지와 부사에 실현되는 운율 경계와 휴지에 따라서 담화표지와 부사가 선후행 요소와의 관계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운율 경계 유형에 따른 담화표지(DM)와 부사(AD)의 선후행 요소와의 관계

<+: 경계 없음, /: 음운구 경계, //: 억양구 경계, #: 휴지, 0: 수의적>

운율 경계와 휴지 실현 유형	관계
+ DM, AD / + DM, AD // (#) / DM, AD // (#) // DM, AD // #	선행 요소와 밀접
/ DM, AD + // (#) DM, AD + // (#) DM, AD / // # DM, AD //	후행 요소와 밀접
+ DM, AD + / DM, AD / // (#) DM, AD // (#)	중립

담화표지와 부사의 운율 경계와 휴지의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 <그림 4>와 같다. 담화표지는 선행행 경계가 모두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는 환경(//DM//)에서 168회로 실현되어 가장 고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행 위치에 음운구 경계가 실현되고 후행 위치에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는 환경(/DM/)에서 159회 나타나고, 선행 위치에서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고 후행 위치에서 음운구 경계가 실현되는 환경(//DM/)에서 118회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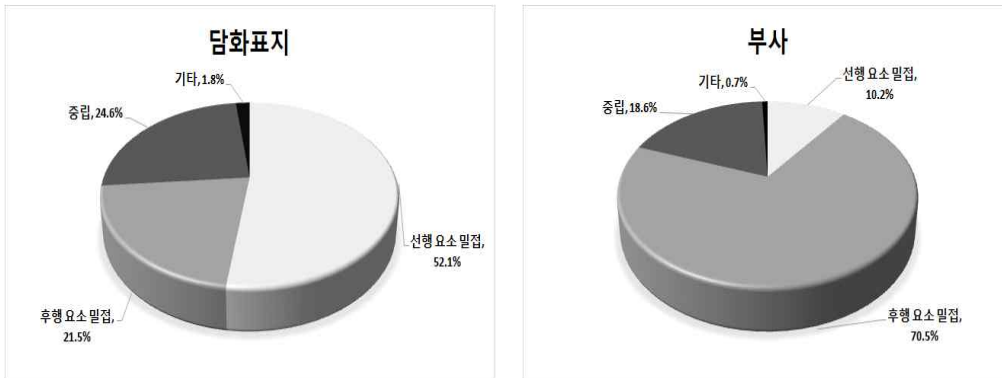
담화표지에 실현된 각 운율 경계 유형을 종합하여 선행행 요소와 밀접한 정도를 파악해 보면, 담화표지는 선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는 경우가 432회(52.1%), 중립 위치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204회(24.6%), 후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는 경우가 178회(21.5%), 기타<sup>7)</sup> 15회(1.8%)로 나타났다. 따라서 담화표지는 구어에서 선행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실현되는 경우가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부사는 선행 위치에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고 후행 위치에 음운구 경계가 실현되는 환경(//AD/)에서 231회 실현되어 다른 운율 경계 유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부사는 후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는 경우가 284회(70.5%), 중립 위치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75회(18.6%), 선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는 경우가 41회(10.2%), 기타 3회(0.7%)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사는 구어에서 주로 후행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표 6> 담화표지(DM)와 부사(AD)의 운율 경계 유형에 따른 출현 빈도  
 (+: 경계 없음, /: 음운구 경계, //: 억양구 경계, #: 휴지, 0: 수의적)

운율 경계와 휴지	담화표지(회)		부사(회)	
+ DM, AD /	107	432 (52.1%)	11	41 (10.2%)
+ DM, AD // (#)	75		1	
/ DM, AD // (#)	159		16	
// DM, AD // #	91		13	
/ DM, AD +	10	178 (21.5%)	13	284 (70.5%)
// (#) DM, AD +	8		8	
// (#) DM, AD /	118		231	
// # DM, AD //	42		32	
+ DM, AD +	0	204 (24.6%)	0	75 (18.6%)
/ DM, AD /	36		29	
// (#) DM, AD // (#)	168		46	
발화 초, 말	15	15 (1.8%)	3	3 (0.7%)
합계	829(100.0%)		403(100.0%)	

7) 기타는 대화 차례가 이동(turn taking)될 때 발화 초 위치와 발화 말 위치에서 담화표지와 부사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8) 부사와 다르게 담화표지에 몇 개의 운율 경계가 고른 빈도를 보이며 실현되는 현상은 담화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의 다양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담화표지의 선행행 위치 모두에 억양구 경계가 실현될 때는 담화표지에 장음화와 휴지를 동반하면서 주로 '말언권 유지(시간 벌기, 채움말), 머뭇거림' 등의 기능이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담화표지의 선행 위치에 억양구 경계와 후행 위치에 음운구 경계가 실현되는 경우는 '말실수 교정, 관심 유도, 강조' 등의 기능이 실현될 것으로 여겨진다(송 인성, 2015: 233 참조).



〈그림 4〉 담화표지와 부사의 선후행 요소와의 관계 양상

각 단어별 담화표지와 부사의 운율 특성에 따른 선후행 요소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각 단어가 담화표지로 실현될 때 많은 단어가 선형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튼}, {왜}는 선형 요소보다 후행 요소와 중립 위치에서 고빈도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각 단어가 부사로 실현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단어가 후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유일하게 {어쨌든}이 부사로 실현되는 경우에 후행 요소보다 선형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7〉 단어별 선후행 요소와의 관계에 따른 출현 빈도

	담화표지(회)				부사(회)			
	선형 밀접	후행 밀접	중립	기타	선형 밀접	후행 밀접	중립	기타
{그냥}	47	21	46	1	2	40	3	0
{그러니까}	29	38	38	3	7	43	8	0
{막}	70	10	9	1	2	26	3	0
{아무튼}	7	2	7	0	0	3	2	0
{어쨌든}	5	0	0	0	6	5	4	0
{왜}	2	3	8	0	0	19	4	0
{이렇게}	76	28	35	1	1	17	2	0
{이제}	44	23	9	1	1	13	1	0
{인제}	48	11	18	0	0	10	1	0
{정말}	12	6	6	1	3	33	22	1
{좀}	76	34	22	3	11	25	7	0
{진짜}	14	2	5	3	7	43	18	2
{하여튼}	2	0	1	1	1	6	0	0
총합	432	178	204	15	41	283	75	3

담화표지와 부사의 선후행 위치에 휴지가 실현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담화표지에 휴지는 369회 실현되고, 부사에 휴지는 141회 실현되어서 담화표지에 상대적으로 휴지가 더 많이 실현되었다.

담화표지에 나타나는 휴지는 담화표지의 선행 위치에 109회(27.5%), 후행 위치에 205회(51.8%), 선후행 위치에 82회(20.7%)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담화표지의 후행 위치에서 휴지가 많이 실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부사에 나타나는 휴지는 부사의 선행 위치에 113회(80.1%), 후행 위치에 17회(12.1%), 선후행 위치에 11회(7.8%) 나타났다. 부사에는 선행 위치에 실현되는 휴지가 다른 위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8〉 담화표지와 부사에 실현되는 휴지의 출현 빈도

	담화표지		부사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선행 위치	109	27.5	113	80.1
후행 위치	205	51.8	17	12.1
선후행 위치	82	20.7	11	7.8
합계	396	100.0	141	100.0

각 단어별로 담화표지와 부사에 휴지가 실현되는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각 단어가 담화표지로 실현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왜}, {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어에서 후행 위치에 상대적으로 휴지가 더 많이 실현된다. 각 단어가 부사로 실현될 때는 대부분의 단어에서 선행 위치에 상대적으로 휴지가 고빈도로 발생하였다.9)

〈표 9〉 단어별 휴지의 출현 빈도

	담화표지			부사		
	선행(회)	후행(회)	선후행(회)	선행(회)	후행(회)	선후행(회)
{그냥}	19	31	27	15	1	0
{그러니까}	23	22	18	31	6	5
{막}	8	30	5	3	1	0
{아무튼}	1	6	3	1	0	0
{어쨌든}	0	2	0	1	2	0
{왜}	2	2	5	4	0	0
{이렇게}	11	39	7	3	0	0
{이제}	12	20	1	3	1	0
{인제}	5	17	4	3	0	0
{정말}	7	9	4	19	0	5
{좀}	19	17	6	11	1	0
{진짜}	1	9	1	18	5	1
{하여튼}	1	1	1	1	0	0
합계	109	205	82	113	17	11

9) {하여튼}은 담화표지로 실현된 경우에 휴지가 각 위치마다 1회씩 나타났고, {어쨌든}은 부사로 실현된 경우에 휴지가 선행 위치에서 1회, 후행 위치에서 2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어에서 휴지는 출현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자료의 양을 확장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어에서 부사 기원 담화표지에 실현되는 운율 경계와 휴지의 실현 양상은 부사에 실현되는 운율 경계와 휴지의 실현 양상과 차이가 있다. 담화표지는 선행행 위치에서 주로 휴지를 동반하는 억양구 경계가 고빈도로 실현된다. 담화표지는 선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고 후행 위치에 휴지가 자주 동반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화자가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발화 전략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화에서 담화표지는 발언권 유지 기능으로 자주 실현된다.<sup>10)</sup> 이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을 표현하여 대화 차례가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즉,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나 특정 어휘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담화표지를 발화(선행 발화)에 연결하여 실현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고 발화를 더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또한 화자는 담화표지의 후행 위치나 선행행 위치에 휴지를 실현하여 시간을 벌면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발화를 이어 나간다.

- (6) ㄱ. 일본 사람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관심 있다고 네 아니 / 그냥 // #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인식하는 거 같진 않아요.  
 ㄴ. 행정 도시예요 그래서 뭐랄까 으 줌 / 이케 // # 유흥업소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실버타운 같은 느낌도 드는데.  
 ㄷ. 아버지가 끈 태몽은 // 이제 // # 이런 거예요 으저 으 아버지가 밤에 이렇게 계신 혼자 집에 계시는데.  
 ㄹ. 글썄 막 체감하는 건 아니고요 좋겠거니 생각하고 에 // 쫌 // # 쫌 // 어 개운하고 에 아무래도 뭔가 한다는 그 정신적으로도 뭔가 하고 있다는.

담화표지와 달리 부사는 주로 후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고 부사의 선행 위치에 휴지가 다른 위치보다 고빈도로 실현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부사가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부사의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사는 주로 이어지는 후행 성분의 뜻을 한정하는 기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선행 요소보다 후행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상황에 따라서 선행 위치에 휴지를 동반하면서 실현되기도 한다.

- (7) ㄱ. 울진으로 넘어갈 때 // # 그냥 / 걸었어요  
 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 # 이렇게 / 했더니 괜찮았던 거 같아요.  
 ㄷ. 한 마리가 이렇게 산 속에서 // 딱 / 해매고 있었대요.  
 ㄹ. 그 엄마의 역할에선 // 정말 / 최선을 다해서 우수 표창 같은 것도 받으시고 다니셨지만.

10) 송인성(2015: 197)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화표지의 발언권 유지 기능은 1,161/2,202회(52.7%)로 나타나 담화표지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 5. 결론

이 연구는 구어에서 실현되는 부사 기원 담화표지를 대상으로 부사와의 비교를 통해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어에서 실현되는 담화표지는 구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형태의 음운론적인 축약이나 탈락이 발생하는데, 부사보다 담화표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축소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담화표지가 문법화된 과정을 거친 요소로, 이전 형식에서 의미와 기능의 소실과 함께 음운론적으로도 형태 축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화표지와 부사에 실현된 운율 경계와 휴지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담화표지는 전반적으로 선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고 후행 위치에 휴지가 자주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담화표지의 선행 후행 위치에 모두 억양구 경계가 주로 휴지를 동반하며 고빈도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부사는 전반적으로 후행 요소와 밀접하게 실현되고 선행 위치에 휴지가 고빈도로 실현된다. 부사에는 선행 위치에 억양구 경계와 후행 위치에 음운구 경계가 실현되는 경우가 다른 운율 경계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이 나타난다. 담화표지와 부사에 이와 같이 운율 특성은 실현되는 것은 화자가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발화 전략과 관련이 있고, 뒷말을 수식하는 부사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담화표지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 기존 담화표지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기존 담화표지 연구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을 분석하였다. 추후 과제로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억양(intonation), 길이(duration)와 같은 운율 요소를 분석하여 담화표지에 실현된 운율 특성을 다양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는 부사 기원 담화표지뿐만 아니라 대명사 기원 담화표지, 감탄사 기원 담화표지 등 다양한 형식에서 기원한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을 분석하여 담화표지가 기원 형식 간에 나타나는 차이도 밝혀 보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송 인성. 2014. 「담화표지 ‘막’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211-236.
- 송 인성. 2015. 「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 지연. 2002. 「국어 구어의 부사 연구」, 인문과학 11. 목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9-128.

- 안 정아. 2015. 「기원 담화 표지의 담화 기능 비교 연구-‘그냥’, ‘막’, ‘좀’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13-342.
- 이 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임 규홍. 1998. 「부사 ‘정말’류의 담화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2. 한국어의미학회. 237-254.
- 전 영옥. 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5.
- Bybee, J. L., William P. & Revere D. P.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un, Sun-Ah.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Columbus, Ohio).
- Jun, Sun-Ah. 2000. “K-ToBI(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1”,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149-173.
- Laver, J. 1994. *Principles of phone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ee Seongha. 2016. “On the Emergence of Pragmatic Markers from Pseudo-Question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Language and Linguistics* 7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423-458.



---

---

619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 발표 자료집

---

---

2016년 5월 10일 박음

2016년 5월 13일 펴냄

---

엮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권 재일

---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mailto: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 이 책은 팔지 않음 \*

---

---